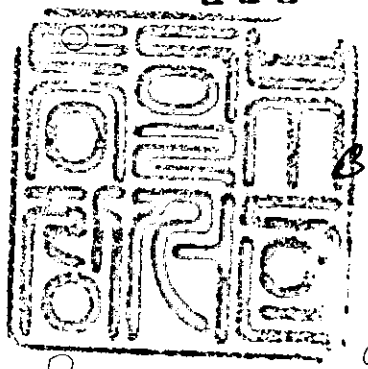


제9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선작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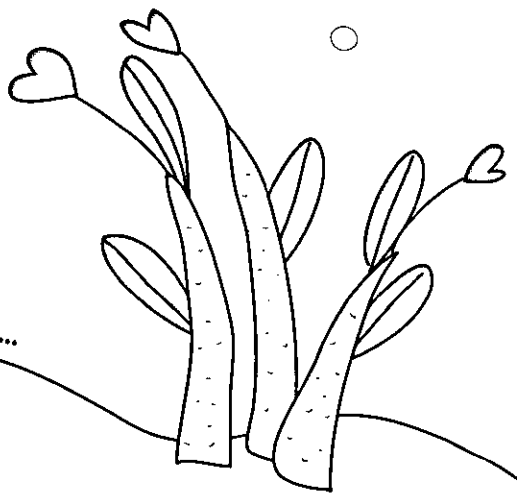
물
나무
감상화의

다섯번재 칸

전산필



내 감상화의 다섯번재 칸에는...



통일교육원

차례

서울특별시.....9

- 내가 바라는 통일 · 이유진 / 11
- 평화의 한반도 · 문소현 / 14
- 내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 김연희 / 16
- 하나된 우리 · 임호정 / 19
- 한반도에 울리는 파랑새의 메시지 · 신소영 / 21
- 임진강은 흐른다 · 최유선 / 24
- 아이스크림과 얼음 보습이 · 김혜민 / 28
- 한민족의 결합에 대한 근거 · 김호정 / 30
-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 박소연 / 33

부산광역시.....37

-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 김무수 / 39
- 한 아낙네와 그의 남편처럼...
· 초이랑 / 42
- 통전을 통해 본 통일 · 신세영 / 45
- 하나됨을 기원하며 · 김이영 / 47
- 할아버지의 손 · 양영환 / 50
-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위해 · 내선화 / 53
- 남북한 통일을 기원하며 · 김기현 / 55
- 다른 하나를 위하여 · 남은진 / 57
- 통일의 발판 · 이봉수 / 60

대구광역시.....63

- 북한 응원단 · 양경민 / 65
- 통전 참사 비극만은 아니었다 · 조누리 / 68
- 지병 · 권미진 / 71
- 후국 보훈의 뜻을 바로 알자 · 권지홍 / 75
- 아리랑 아리랑 · 서승희 / 77
-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인식의
필요성 · 양은정 / 80
- 하나가 되기 위해 · 서세영 / 85
- 북녘 친구야! 통일을 얘기하자 · 조연수 / 87
- 통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 양이랑 / 90

인천광역시.....93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나지훈 / 95
- 휴전선을 지워가며 · 최민선 / 98
- 휴전선을 지워가며 · 이주경 / 100
- 휴전선을 지워가며 · 공세민 / 103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김수아 / 105
- 함께그리는 통일의 그림 · 현선애 / 107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이임주 / 110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김이영 / 113
- 이산가족의 소망 · 박선애 / 115

차례



광주광역시.....119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이영중 / 121
냉정한 이혼보다 하나라는
 믿음을 · 박유이 / 123
눈물 어린 임진각에 다녀와서
 · 이애리 / 127
하나로 피어나는 꽃 · 송지연 / 130
한걸음 한걸음씩 · 김영주 / 132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 박수홍 / 134
끝나지 않는 아픔 · 정유진 / 137
종이비행기는 지금도 날고 있다 · 노유정 / 140
통일만이 길이다 · 한영우 / 143



대전광역시.....147

- 우리 가족처럼 이젠 우리나라도
 · 배규리 / 149
할아버지의 유물 · 안만지 / 152
우리 가족의 기도 · 김너경 / 155
아름다운 정원 · 원다연 / 159
통일이 우리 가족과 같다면 · 이상화 / 162
극복되는 통일 · 박광영 / 164
늦제기에 담긴 큰 고모의 소망
 · 강경현 / 167
송아지 동무와 소꿉친구 · 송지현 / 170
뜨루라기를 붙자 · 이우리 / 173



울산광역시.....177

- 통일을 그리는 사람들 · 변교훈 / 179
통천역 폭발사 고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 김문수 / 181
삼척 속 눈물 한밤을 · 조부민 / 184
서로 돕는 길 · 통일의 길 · 조수민 / 187
한 편의 명화 · 전창영 / 189
통일,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될
 우리의 과제 · 최연교 / 192
아직도 소원은 통일 · 김호룡 / 195
통일 전망대에 다녀와서 · 최다혜 / 197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 이진혜 / 200



경기도.....205

- 세 번의 눈물 · 안현진 / 207
우리 민족의 마지막 소원 · 김수경 / 209
오늘도 나의 소원은 통일 · 이송현 / 213
평화의 시계탑 · 송진연 / 216
태극기 휘날리며 · 김애원 / 219
자랑스러운 통일 조국을 위하여
 · 김지희 / 223
평화를 빕니다 · 김지현 / 226
통일을 위한 발걸음 · 이상훈 / 229
지금은 통일을 할 때 · 조애자 / 232

차례

강원도.....237

- 백암산의 꿈 · 정소빈 / 239
- 할머니의 눈물 · 신미선 / 241
- 이름 없는 풀꽃 · 박혜민 / 244
- 만파식적과 평화통일 · 신미선 / 247
- 지리밭에도 꽃은 핀다 · 옥찬미 / 250
- 관심 · 정이슬 / 253
- 통일 믿음 · 문현승 / 256
- 1+1=1 · 조현영 / 258
- 자전거 두 바퀴의 힘처럼 · 김지숙 / 261

충청북도.....265

- 우리 언제 만날까 · 박지영 / 267
- 기다려지는 그 날 · 안미진 / 269
- 할아버지의 노래 · 노은주 / 271
- 세계속의 중심, 통일 대한민국
· 최유리 / 274
- 어느 노병의 재회 · 박보배 / 277
- 이제는 지위저야 할 선 · 양희영 / 279
- 통일을 바라며 보고싶은 친구에게
· 노기영 / 282
- 아직 늦지 않은 깨달음 · 조승희 / 284
- 제 몫을 다하는 이룬수처럼
· 노지연 / 287

충청남도.....291

- 통일의 휘파람 · 신화숙 / 293
- 고구려의 영광을 · 김정문 / 296
- 북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 한백 / 301
- 전수만의 가창오리 · 전우승 / 304
- 우리는 하나 · 조혜민 / 307
- 하나되는 꿈 · 정영선 / 311
- 무장포 해수욕장의 바닷길처럼 · 김건호 / 315
- 마음의 눈 · 윤다송 / 318
- 마음으로 보는 통일의 열쇠 · 조민석 / 322

전라북도.....325

- 북한 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 김지은 / 327
- 민들레 홀씨처럼 · 김정은 / 330
- 할아버지의 추억 · 옥현 / 333
- 우리나라 지도는 미완성 · 박건우 / 336
-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 · 양영민 / 339
- 연리목 · 박경원 / 342
- 상상의 일기가 현실의 일기가 됐으면
· 최라영 / 345
- 두 바퀴에 통일을 싣고 · 신동현 / 347
- 할아버지의 애장곡 · 김성혜 / 350

차례



전라남도.....353

- 우리는 한민족 · 서지민 / 355
하나된 한민족의 아름다움 · 임애설 / 358
꿈은 꼭 이루어진다 · 김지애 / 361
하나 된 그 날을 꿈꾸며 · 홍우림 / 364
남북한이 한 가족이 되는 날까지 · 우이연 / 367
우리 모두를 위한 통일 · 초선녀 / 370
통일의 종소리 · 윤다혜 / 373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방문하고... · 이애슬 / 375
통일의 담위성 · 박상희 / 378



경상북도.....381

- 릉전의 이름 모르는 친구에게 · 박송이 / 383
우리는 한 가족 · 원동란 / 386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 박은새 / 390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초소영 / 392
통일의 빛을 찾아서 · 조혜민 / 394
역사책을 덮으며 · 윤석라 / 397
착해의 족지 · 정다운 / 400
멀지 않은 통일, 통일을 위하여 · 주왕용 / 402
하얀 나비와 무궁화의 외침 · 천성배 /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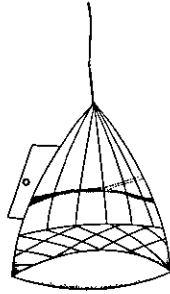
경상남도.....409

- 내 친구 훈이와 무궁화 사랑 · 이진서 / 411
한민족의 푸른 리듬 · 윤혜림 / 414
마치 꿈 같던 일처럼... · 박수경 / 418
한반도가 무궁화로 뒤덮이는 날 · 김경환 / 421
우리의 본보기, 파지 · 김은영 / 424
꿈을 먹고 사는 민족 · 김수빈 / 427
통일의 꽃이 만발한 우리집 학단 · 조혜민 / 429
파치가 울면... · 초미소 / 431
꿈은 이루어진다 · 박유리 / 433





제주도.....437

- 최고 마늘, 최고 대한민국 · 김수란 / 439
몰다우 감상화의 다섯번째 칸
· 김민경 / 441
우리 손으로 지우는 삼팔선 · 문지현 / 444
릉전역 폭발사고에 담긴 사랑
· 임응균 / 448
함께 그리는 한반도 · 강제환 / 450
하늘에 나는 소망 한다 · 조순려 / 454
우리의 반쪽 친구들에게 · 한영민 / 456
통일의 기차는 달려갑니다 · 고은희 / 459
북녘으로 보내는 편지 · 한승철 / 461



서울 특별시

- 내가 바라는 통일 
- 평화의 한반도
- 내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 하나된 우리
- 한반도에 울리는 파랑새의 메시지
- 임진강은 흐른다
- 아이스크림과 얼음 보숭이
- 한민족의 결합에 대한 근거
-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최우수

내가 바라는 통일

이 유 진 | 영종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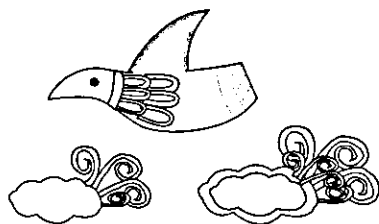
희미하지만 내게는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큰집에 사셨던 할아버지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주머니 속에 소중히 보관하여 가져오신 과자를 제 손에 쥐어 주시고 한번 안아보신 뒤, 가시는 것이 하루의 일과이자 큰 즐거움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콧등에 살짝 안경을 걸치시고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어렴풋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친척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큰 아빠, 고모, 이모님들과 사촌들이 전부입니다. 명절 때 친척이 모두 모여도 그리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정도니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왜 우리의 친척이 여느 집과는 달리 많지 않은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며 홀로 남쪽으로 피난 나오셨기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통일이 되면 우리가 친척을 만날 수 있고, 여느 집처럼 친척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 속의 할아버지 고향은 황해도 해주 근처에 벽성군이라고 합니다. 그 곳이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며, 비극의 동족상잔인 한국전쟁 6·25때 공산주의를 반대하시는 활동을 하시다 인민군에게 쫓기어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북에 남겨둔 채 홀로 남쪽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향에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신



할아버지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가끔 너무도 형제와 고향이 그리워지시면 연평도에 가서 배를 타시고 최대한 북녘 땅 가까이 가시어 저 멀리 고향의 뒷산을 바라보시며 가슴의 한을 달래시곤 하셨답니다. 지금은 남북한의 노력으로 이산가족상봉이 가능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가족을 보고 싶다는 소원을 끝내 못 이루신 채 저 멀리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얼마 전 아빠 엄마와 함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가정이, 너무도 다정했던 형제가 포성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란 것이 왜 일어나야만 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가족 같이 지내던 사람에게 왜 총을 겨누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비록 성씨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은 조상을 가진 먼 친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가 말다툼도 아닌 총칼로 죽이는 비극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아버지 세대에 발생한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는 사실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총칼을 들이대며 싸우려 하기 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는 분단국가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독일도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전쟁이 아닌 대화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통일도 반드시 이런 대화를 통해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잘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독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근면, 검소하게 생활하며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나라를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켜, 결국 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서독의 경우를 거울삼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도 도우며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말엔 아빠에게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고 해야겠습니다. 가본지도 꽤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눈에 적신 북녘의 모습과 바람을 타고 내 몸에 묻은 북녘의 내음을 차디 찬 땅속에서도 그리워하고 계실 할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꼭 할아버지를 고향으로 모셔 갈 거라고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북한 리포터' 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나 일천만이 넘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북한의 특종 기사거리들을 보도하며 북한의 문화와 많이 다른 아직은 낯설기만 한 남한에 와서 곳곳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북한 귀순자들의 생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귀순자들이 모여 인터넷으로 FM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가 북한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여년의 지독하게도 길고 긴 시간동안 시대가 변하고,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오늘날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가 이 작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자, 50여년동안 7천만이 넘는 우리 민족들의 가슴에 못이 되어 깊이 박혀버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불쌍한 한반도입니다. 이 곳,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강 건너에 있는 땅은 북한이라는게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매우 가깝게만 느껴집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엇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짧은 기간동안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감싸안으며 어두운 지난날의 고통과 그리움이 섞인 시커먼 눈물



들을 뽑아내는 장면을 보며 저는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은 그 기쁨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을 오지도 가지도 못하다니...

몇 달 전, 저는 뉴스에서 북한의 룡천역 폭발사건을 보고 두 주먹을 짝 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한 핏줄인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가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은 북한의 부족한 의료시설 때문에 부상당한 북한 동포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북한 동포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룡천역 사건 현장을 모형으로 만들고, 북한 동포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고자 편지와 학, 별 등을 만들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우리들의 작은 성금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힘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모두 하나, 갈라진 땅만 아니라면 우리들은 모두 한 핏줄인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경제 성장의 흐름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동포의 허기짐을 모른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링커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별로 잘 해주지 못하는 것이 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어느 책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귀순자들을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낮설어 하고, 잘 대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 귀순자들과 잘지내는 것은 앞으로 통일 후에 북한 동포들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시험해 보는 것이므로 북한 귀순자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옛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가난한 시절에 콩 하나도 서로 나누어 먹었던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던 두 형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북한 리포터'나 '남북의 창' 방송을 보지만 머지않아 곧, 남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의 한반도'라는 방송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내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가 도기를 바라며

김인혜 | 보성여고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통일에 대한 관심도 어떠한 인식도 없었던 나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큰 형님께서 북한에 사신다는 할아버지께서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이산가족이라니 헤어진 부모, 형제를 부르고 통일을 울부짖던 그들의 메아리 틈에 할아버지의 소리없는 외침도 섞여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에서 펄펄 끓는 무언가가 솟아나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끓어오르던 나의 마음은 다짐으로 이어졌다. 할아버지께서 고향처럼 생각하시며 거의 매일 오르시는 통일 전망대에 함께 다니기로 말이다.

강원도에 있는 통일 전망대는 서울인 우리집에서 너무 멀었기에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할아버지와 함께 올랐다. 입구로 접어들자,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이 벅차 오르시는지 한걸음 한걸음을 음미하며 천천히 걸으셨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에는 할아버지의 고향이신 함경북도의 구수하고 진한 흙내가 묻어 있는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북한 전사실이나 영상실보다는 4층에 있는 전망대를 더 좋아하셨다. 일렬로 늘어서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눈망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망원경, 그 망원경이 받아들인 눈은 자글자글한 주름에 그리움 축축하게 머금은 눈이 아닌, 호기심 가득한 나의 작은 눈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오백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주시고는 망원경을 통해 북한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말해달라고 하셨다.



큰글씨 찬송가조차도 읽기 힘들어 하시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기계의 눈을 잠시 빌렸다. 북한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는 내 기대와는 달리 보이는 것이라고는 검푸른 강과 봄이 일찍 찾아온 들뿐이었다.

“에이, 이게 모야 물이랑 풀뿐이잖아요.”

“허긴… 고걸로 보이는 게 모 있갔네? 그거이 그거제.”

내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낫빛은 금새 어두워졌다. 멍하니 저편을 바라보시며 짙은 눈물을 삼키시는 할아버지. 순간 말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이닥쳤고 난 어쩔 줄을 몰랐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뼈 속까지 파고들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고 계신 것 같았다. 수천 번, 수만 번 북에 계신 부모님과 큰형님을 애타게 부르시는 할아버지의 간절함은 저 날카로운 철망에 걸려 찢겨진 옷자락처럼 너털너털해졌고 통일에의 희망도 그랬다.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할아버지께서는 가족과의 재회를 하지 못하게 되셨고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셨다. 학교를 파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누워계신 할아버지를 껴안고 서럽게 울었다.

“할아버지, 아프지마 내가 장관되어, 아니 대통령 돼서 꼭 통일시켜 줄게.”

할아버지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흰 베개에 얼룩을 남겼다. 얼룩이 진 자리에서, 반으로 동강나버린 허리를 메울 새 살이 오십여 년만에 돌아나는 것을 본 건 내 눈이 만들어낸 신기루였을까.

할아버지께서는 며칠 후 퇴원을 하셨지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 일주일동안 집에서 폭 쉬시라는 어머니의 고집에 못이키시고 약 2주 동안을 꼬박 누워 계셨다.

“야야, 여태 안 일어나고 뭐하네? 이 할애비 오두산 데러가라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보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6시 뉴스 앵커가



사용하는 표준어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함경도 사투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통일 전망대에 오랜만에 방문하는 나와 할아버지는 북으로 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4층 가자.”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전망대로 올라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께서는 오백원짜리 동전을 건네주셨다. 동전에 묻은 할아버지의 온기를 넣고 망원경의 눈을 빌렸다.

“할아버지,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농사짓나봐요.”

흐뭇하게 웃으시며 고향 얘기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울울한 철망을 넘고 임진강을 건너 북에 계신 할아버지의 가족에게로 봄날의 편지처럼 전해졌을 것이다.

오백원짜리 동전을 넣고 기계의 눈을 통해 엄연한 우리나라의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한 채 바라보아야만 하는 현실.

우리 할아버지의 발걸음에 묻어났던 흙내음을 내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날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서 어서 오기를 바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녕? 북한 친구들아! 난 남한에 살고 있는 한 여자아이야.

오늘 나는, 너희들과 가까운 곳인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오게 되어 여기서 4층 전망대에 올라간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어. 아득하게 펼쳐진 산과 강, 그리고 북한 땅이 보였단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깝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어. 나는 그 기쁜 마음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 너희들 중 누군가가 내가 바라보는 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말이야. 푸른 창공은 너무나도 예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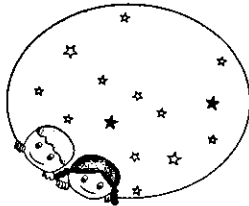
북한 친구들아. 며칠 전에 이런 소식 들었니? 우리가 함께 만화영화를 만든다는 소식 말이야. 그 소식을 듣자, 웬지 마음이 들뜨더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만화영화는 어떤 내용일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나는 1년전 이 곳,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의 만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봤던 그 만화의 내용이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 그런 너희의 만화와 우리의 발달되어 가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이 만나게 되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니? 물론, 지금 만들어질 그 만화는 너희와 우리가 따로 접하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만나면 그 때는 그 만화를 꼭 같이 보도록 하자. 너희와 같이 만화를 보면 더욱 재미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 얼마 전의 ‘룡천열차 폭발 사고’가 그것이야. 아이들이 화상을 입고 누워있



는 모습들은 팬스레 눈물을 짓게 하기도 했지.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가 구호물품들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자 안심이 되었단다.

애들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단합이 잘되는 나라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단합하도록 하자. 한 나라로서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함께 하늘을 보지 않을까? 저기 높은 곳에 보이는 푸른 창공을 말이야. 대신에 떨어져서 보진 말고, 어깨동무하고 손을 꼭 붙잡고 보자. 하나된 우리나라 위에 펼쳐진 하늘을 말이야.





한반도에 울리는 파랑새의 메시지

신 소 영 | 신암중 3학년

오두산 정상에는 나와 같은 하찮은 돌맹이가 있기 편한 자그마한 공간이 있다. 이곳에선 공동경비구역을 경계로 남녘과 북녘의 다채로운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저쪽 북녘 끝으로는 웅장의 기가 밀려오는 백두산과 함께 키가 작은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소박한 내음새로 코를 찌른다.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가가호호 다다다닥한 전선줄과 키가 큰 건물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 만큼이나 보고 있는 나또한 활기를 느낀다. 매일같이 남북으로 시선을 오가며 그들을 묵묵히 구경하는 것이 식상한 나의 재미이자 일과이다.

오두산 정상의 한낮 돌맹이에 불과한 내겐 매일같이 세상 소식을 알리러오는 파랑새 친구가 있다. 그는 언제 다할지 모르는 그의 날개를 펴면서 하루에도 수십개의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내게로 온다. 나와 파랑새의 매일같은 만남처럼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좋으련만 여러 제약이 많은 지금의 상봉은 50여년의 세월동안 새로 생긴 봉우리를 넘기엔 너무도 버거운 짐인 듯하다.

얼마 전 파랑새는 내게 북녘 소식을 전해왔다. 룡천역 부근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만, 폭발사고로 인해 특히 순수의 어린 눈망울들이 슬픔어린 영혼이 되어 하늘나라로 갔단다. 북녘의 혼란스런 그림자로 어둑해질 무렵, 남녘은 위로와 애도의 목소리로 결코 녀너지 못한 주머닛돈으로 온정을 모아 담아 한 마리의 파랑새를 북녘으로 보냈다.



2년 전쯤, 남녘의 붉은 티셔츠 행렬로 이어진 선조들의 한민족 기세를 보았다면 이번엔 한반도 전역을 '단일'의 단어로 메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파랑새는 내게 금강산 관광을 제안해왔다. 자그마한 돌맹이의 난생처음 여행길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남녘인들이 탄 금강호를 뒤따라 긴 여정길에 파랑새와 함께 승선했고 곧 내겐 궁금한 스케치가 펼쳐졌다.

‘왜 판문점을 통과하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서 갈까?’

끝내 답을 찾지 못한 궁금은 쉽사리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잡다한 생각 속에 도착한 금강산은 산고수청의 장관들로 내게 한쪽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소떼 몰고, 긴 트럭열을 지으며 소박한 웃음을 짓는 북녘인들의 넉넉함에 어울리는 수채화에 젖어 있을 무렵, 파랑새는 내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감시의 눈이 여럿 있어, 조심해”

북녘보다도 더 먼 곳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북녘의 여행을 어려워해야 하는 남녘 주민들. 그들의 관계는 얼마 전 파랑새와 함께 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두 주인공 형제를 연상시켰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두 형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전전터에 강제징집이 되는데, 형은 동생을 그곳에서 빼내기 위해 무공훈장을 타려하고, 이 과정에서 동료까지 죽이며 점점 전쟁광이 되어가고, 동생은 이에 반항하는 너무나 서로를 아꼈던 나머지 형제의 우애는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 오해로 변질되었고 불만과 불신의 관계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것들을 서로가 잊고 사는 것일지도...

여러 세상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오두산의 하루 일과는 다시 시작되었다. 오두산 자락에 여느 때처럼 찾아오는 파랑새, 그리고 그가 오두산 자락과 한반도 전역에 억척스레 울리는 통일의 메시지. 나는



이 곳, 오두산 정상에서 바람과 눈과 비를 맞으며 내 몸이 아주아주 작아질 때까지, 파랑새가 내게 통일의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의연하게 버텨낼 작정이다. 마치 한반도 전역에 파랑새가 일궈낸 붉은빛 날개짓과 메시지처럼 말이다.





우수

임진강은 흐른다

최 유 선 | 서라벌고 3학년

호국과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오늘 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서있다.

순국이 된지 전쟁의 고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절절히 알 길이 없는 내가 5천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역사를 알고 있을 임진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라와 겨레,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나라, 겨레, 분단, 통일...

반세기에 걸쳐 우리민족은 영광과 고통을 함께 해 왔다. 남들은 하기 좋은 말로 땅덩어리가 너무 작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기 쉬운 지리적 위치라고들 하지만 그것이 우리민족을 멸망시키지는 못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이 곳 오두산 자락에서 내려다보이는 임진강, 저 강물위로 이 땅을 제 몸보다 소중히 생각했던 분들의 얼굴이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다. 단군 할아버지, 광개토 대왕, 을지문덕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윤봉길·안중근·유관순 열사, 그리고 숭한 무명용사들...

우리들에게 나라와 겨레는 과연 무엇인가?

겨레가 없는 나라는 성립될 수 없듯이 나라가 없는 겨레도 생각할 수 없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없는 민족들이 있다. 그로인해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죄 없는 무수한 생명들만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가족들과의 단란한 나날이 그들에게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사실 나는 생일날 내게 선물을 준 친구들의 이름은 낱낱이 기억하고 고마워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지킨 분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하고 목숨을 바친 수많은 열사들과 총소리, 대포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묻혀 피 흘리며 죽어간 무명용사들의 아픔은 더더욱 기억하지 못한다. 나라와 겨레, 분단과 통일, 그리고 순국은 열사라 불리는 사람들의 몫일뿐 나는 결코 열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자이다. 오직 자신의 육신과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는 자이다. 하지만 열사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안목과 생각을 자신만의 영역에서 보다 더 넓혀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겨레를 생각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추앙받아 마땅한 것이다. 오늘 이 곳에서 나는 새삼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나도 이제부터 그들을 본받아 안목과 생각을 넓히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북녘을 바라보면서 서로 무슨 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야호’하고 소리를 질러 보기도 한다.

여기모인 우리들은 술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집과 논밭이 쑥대밭이 되고 일제치하에서 우리말도 마음대로 써보지 못한 선조들의 후손이요, 전쟁으로 온 동네가 폐허로 변하고 총알과 대포알에 온몸이 산산조각이 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손들이다. 그분들이 살과 피의 대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억세게 운 좋은 후손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분단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명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애기와 가리키는 손가락과 '야호' 하는 외침을 저 강을 흘러가는 우리들의 조상은 안타까이 지켜 볼 것이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힘껏 돌팔매질만 해도 도달할 것 같은 바로 저기에 북녘의 동포들이 산다. 지금 바로 만나도 애기가 통할 것 같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지 의아해 할 것 같은 우리 동포들이 산다.

지금쯤 그들은 무엇을 할까? 학교에도 가고 농사도 짓고 음식도 해 먹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겠지? 얼마 전 룡천 참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복구가 되었는지... 우리가 보내준 식량과 물자들이 혹시 모자라지는 않는지...

문득, 지난 번 금강산에 다녀왔을 때 생각이 난다. 휴전선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나는 곳곳마다 '지뢰' 표시와 '적 침투장소' 표시가 있는 군사 분계선을 지나 드디어 북녘 땅에 도착했다. 같은 한반도내에서의 낮선 북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 있을 즈음 버스 문이 열리고 뚜벅뚜벅 북한 병사가 입을 꼭 다문 채 검문을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검문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내가 기대했던 '만나서 반갑습네다'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분단의 현실은 그렇게 냉정하게 비수처럼 쏘아왔다. 그날 버스 안에는 함께 피를 나눈 동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체제와 사상만이 차갑게 대결하고 있었다. 그때의 싸늘했던 버스 안 공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체제와 사상은 사람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날 나는 체제와 사상이 어찌 보면 사람들을 차갑게 만들고 그 차가움으로 인해 전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TV에서 가끔 이산가족 상봉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볼 때면 그냥 좀 슬픈 드라마를 봤을 때와 비슷한 슬픈 감정은 있었



지만 그것도 내 일이 아니었기에 생각보다 절절히 가슴속 깊이 와 닿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분단의 현실을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이곳에서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갑자기 내 일처럼 가슴 저리게 다가온다면 그것 또한 과장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리고 지금 내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제 분단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오순도순 돕고 사랑하며 살아도 시원찮을 겨레가 핵무기로 위협하고 상대방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험한 말을 하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하루아침에 적대국끼리도 손을 잡고 세력을 과시하는 오늘날, 동포끼리 쌀쌀맞게 등을 돌리고 여차하면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 태세로 살아간다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거룩한 영령들의 가슴을 또 다시 멍들게 하는 일이다. 우리 함께 가슴을 열고 굳게 손을 잡아 한민족의 영광을 세계만방에 떨쳐 보아야 하지 않겠나?

저기 저 강물, 임진강은 흐른다. 우리들의 유구한 역사를 가슴 깊이 담은채 저 강은 흘러간다. 한때는 핏빛으로 흘렀을 저 강물에 남과 북, 우리 한민족이 함께 발을 담그고 웃으며 물장구칠 그날의 기다린다. 우리 서로의 가슴을 옥죄고 있는 휴전선을 훌훌 걷어 유람선을 만들고, 우리 함께 그 배를 타고 금강산을 유람하고 백두산, 한라산까지 두루 누비면서 우리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며 밤새워 서로의 가슴을 치고 어깨를 두드려줄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장려

아이스크림과 얼음 보숭이

김혜민 | 경일초6학년

‘난 아이스크림,
넌 얼음보숭이

난 도시락,
넌 껍밥

난 주스,
넌 과일단물’

얼마 전, 동생이 써 놓은 시처럼 분명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글을 쓰는 부모가 같은 한 형제, 한 민족인데 왜 서로 경계하며 미워하고 네 땅, 내 땅 갈라져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특히 엄마께서 오래전에 불러 줬던 노래 한 편을 들려주셨는데,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라는 노래를 듣다보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큰 분노와 울분에 휩싸여 부르짖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무척이나 살벌한 시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무섭고 살벌한 시대의 낯선 그림자는 그만 접고,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으로 대화의 장을 열



어 통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전혀 풀리지 않을 것만 같던 엉키고 설킨 한 뭉치의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듯한 그런 모습에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많은 세월과 노력으로 인해 풀릴 수 있었던 실타래를 매듭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단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할 때에 통일이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과 북의 많은 언어와 문화사이가 통일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들 말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듣다보면 북한의 언어가 영어나 일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도 아니고,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표현으로써 더 친근감 있고 재미있고 산뜻하다. 또한 우리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우리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엄마, 아빠와 이야기 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뜻을 가르쳐 드려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볼 때, 언어사이란 서로를 이해하기도 전에 적대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도 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하는 태도와는 달리 형제에게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았다.

지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현수막으로 전봇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자마자 버스를 뛰쳐나가 울며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의 사진이 비에 젖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말하던 모습에 꼭 매여 있는 틀안의 그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좀 더 넓고 열린 마음과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형제간의 우애가 필요하다.

우리의 앞 세대들이 엉킨 실타래를 어렵게 풀어준 만큼 우리에게 그 풀린 실을 매듭짓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전혀 풀리지 않아야 할 단단하고 세밀한 매듭말이다!



한민족의 결합에 대한 근거

김효정 | 영훈중 3학년

우리는 동일한 모체에서 퍼져나온 단 하나의 물줄기였다. 아름다운 우리 역사의 물줄기는 세차게 흐르고 흐르다가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 결국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러나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흘러 언젠가는 드넓은 바다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추상적으로 통일을 형언한다면 통일은 바로 모체로의 귀환인 것이다.

사상과 이념의 아찔하도록 높은 장벽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지금까지 한민족의 유대를 차단해 왔다. 사실 두터운 무형의 장벽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의 정신 세계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 어떤 이들은 통일의 실현을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로서 반드시 미래에 이뤄져야 한다. 민족의 결합은 타당한 이치를 지닌 아름다운 화합이기 때문에.

먼저, 정신적인 면에서 논하자면, 우리는 명확히 한 역사의 태반에서 탄생한 같은 민족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 아래 현재는 쓰는 언어도 약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물론 실재하겠지만, 우리는 단군 신화의 명목으로 분단 전까지 쪽 같은 역사의 맥을 이어왔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온기가 민족애를 발산하고 있다. 마치 북한 룡천역 참사 때, 온 국민이 무의식적인 유대감을 느껴, 깊은 정을 표현했듯이 말이다. 우리는 단연코 한 뿌리에서 솟아난 한민족이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에 의한 국익의 보장에 대해 논



하겠다. 우리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 일본, 중국과 함께 끊임없이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필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물론, 통일 초창기에는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라는 제도적인 틀에 갇혀 있던 이북 사람들에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 우리는 더 넓은 국토와, 지하자원, 그리고 노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북 사람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잘 마련한다면 분명 희망적인 국가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자본주의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전망해서, 큰 발전으로의 도모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산가족의 문제이다. 사실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많은 모순을 얻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산가족의 문제이다.

얼마 전 TV를 통해 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아오지 탄광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한 노인의, 남한으로의 밀항 과정을 보게 되었다.

그 노인은 자신의 고향인 남한으로 돌아가 형제들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의 귀향을 승인해 주지 않았고, 결국 몰래 중국을 통한 남한으로의 밀항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북한에 자식들이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또 다른 사회에서의 적응이 두려워 남한으로 함께 떠나기를 거부했다. 게다가 밀항을 할 시에는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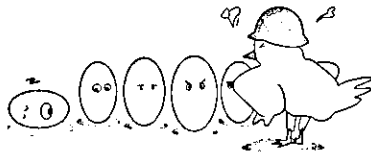
결국 그 노인은 남한의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또 한 번 가슴 아픈 자식들과의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누가 이 안타까운 심정을 형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누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인가? 정말이지 이산가족 문제는 남독 자체가 어려운 커다란 모순임에 틀림없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결합을 이뤄내야 한다. 깊은 사상의 바다를 건너, 험한 이념의 산을 넘어, 결국엔 바다로 모



여드는 줄기찬 강줄기들처럼 우리는 화합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듯이 위대한 통일의 역사적 순간은 꼭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있다. 이념이나 사상 따위는 잊고, 남과 북이 융합하여 또다른 진정한 역사를 시작하게 될 그 순간만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박 소 연 | 경인고 2학년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분단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6.25라는 전쟁을 겪어 보지 않은 우리 세대들은 그저 학교 도덕이나 역사 시간에 배운대로 무슨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줄거리만 알고 있을 뿐 그 뼈저린 고통과 아픔은 알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이런 비극의 내용에 관심조차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부끄러운 학생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영화는 거의 모든 국민이 보았을 정도로 흥행한 영화로 6.25라는 우리 민족의 참담했던 전쟁을 그린 영화이다.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두 가지 느꼈던 점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표현한 전쟁 상황을 보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민족사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거쳤구나라고 느낀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준 흥행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2년 전 월드컵때 보여 주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결과 화합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었던 좋은 예이다.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가 되어 단합하고 넘치는 기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고개를 떨구게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민족은 분단 국가이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란다. 우



리는 통일을 해야만 한다. 이제 세계는 냉전의 시대도 갔고 양극화의 시대도 지났다. 영원한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도 이젠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고, 이라크에 파병도 요구했다. 북한이 항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말이 되는가. 이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손을 잡았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놓고 마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푹푹 뭉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갈라져 있으니 애 통할 따름이다.

그러나 얼마 전 북한의 룡천 열차 폭발사건 때 보내주었던 우리 남한의 성금과 물자 그리고 관심은 너무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남북 관계에 좀 더 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식료품 구호 물자를 처음에는 해로만을 고집했던 북한도 결국 육로 이용에 수긍하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왜 우리도 힘든데 항상 우리만 이렇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깨달았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같은 벗줄이고 언젠가는 다시 함께 몸 부टे끼며 살아야 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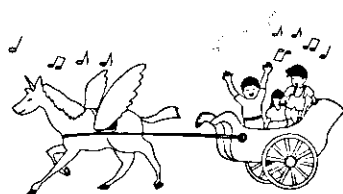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북에 이산가족이 있는 한 중년 가수의 소원을 들었다. 자신은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왕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 싶을 때 얼굴이라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며 살고 싶다.' 라는 것이다. 정말 너무도 소박한 꿈이지만 그것조차도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이산가족의 소원을 넘어서 통일이 오기를 바라고, 또 북에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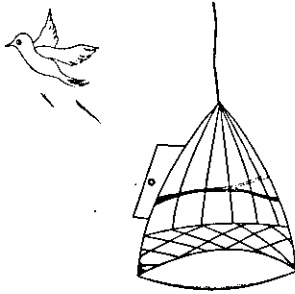
차를 타고 두 세 시간이면 도착하는 북한에 그 설움과 한, 그리고 비극이 스며 있는 가시 돌힌 휴전선이 빨리 걷히고 마음대로 발을 디딜 수 있게 될 그 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 북한도 아무 의미 없고 성과도 없을 전쟁 준비에만 광분하지 말고 어서 빨리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



을 열어 주기를 소망한다. 자연이 깨끗하고 부지런한 동포들이 있는 북한과 기술력 뛰어나고 정이 많은 남한이 만난다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은 소원한다. 어서 교과서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바뀐 교과서로 공부 할 날을 소원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일에 희망을 갖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하나였던 불굴의 민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광역시

-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 한 아낙네와 그의 남편처럼
 - 공천을 통해 본 통일
 - 하나됨을 기원하며
 - 할아버지의 손
 -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위해
 - 남북한 통일을 기원하며
 - 다른 하나를 위하여
 - 통일의 발판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김 무 수 | 카남초 6학년

여느 때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서해 해상에서 남북한 함정이 교신을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내머리 속에서는 5년전 서해교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서해 교전은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일어났다. 북한의 경비정 4척, 꽃게잡이 어선 20척이 우리나라 바다로 내려오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나라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10여척을 보내 북한 함정에 밀어내기식 공격을 가했다. 그러자 북한 경비정이 기관포로 우리나라 함정들에게 공격을 하였다. 우리 함정들도 곧 반격을 하여 고속정과 초계함에서 기관포를 북한 함정들에게로 발사하였다. 이 교전 속에서 북한 경비정과 어뢰정 2척이 침몰하였고, 남은 경비정 3척도 크게 파손되었다. 우리 함정들도 2척이 공격을 당해 선체가 부서지고 장병 7명이 부상을 입어 국군수도 병원에 보내졌다.

서해교전 후 5년, 서해 해상에서는 남북한 함정들이 교신을 하고 있다. 바다에서의 남과 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서해 교전 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에도 피해가 있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분단후 남북한 함정의 첫 교신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6·15 공동선언 후, 우리는 북한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이번 남북한 함정의 교신뿐 아니라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예전



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었다. 최근에는 상대측을 향한 비방방송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과 많은 교류를 하였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렇다면 통일이 실천 단계에 온 것일까?

우리와 같이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45년간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통일이 되기 30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서독은 동독에게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견해와 가치의 공존을 바탕으로 하여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정치 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또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였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통일이 될거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뿐, 서독과 같이 민주주의를 알린다거나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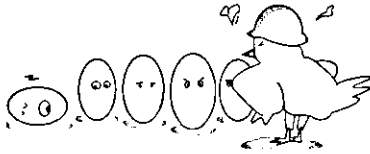
이제 민족적 대과제 통일은 우리들의 손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말이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르다는걸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도 문화도 많은 것이 달라졌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한번에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북이 같아져야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통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독일도 통일이 되고 난 뒤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와 후유증이 일어나 통일에 대한 냉철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꼭 통일이 되었을 때 이로움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



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독과 서독의 일을 거울삼아서 통일에 대한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한반도에 하나의 국기가 휘날리는 그날
이 오길...





최우수

한 아낙네와 그의 남편처럼

최아랑 | 다송중 3학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판타지 소설 같으나 그렇지도 않으며, 어느 한 시인의 얇고 가느다란 사랑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저 한 소녀가 가진 꿈일 뿐이다. 이제 그 소녀의 소설같은 이야기를 말하려 한다.

하늘은 작은 구름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 뿌영기만 했다. 주위의 남자들은 초록얼굴이 박힌 군복을 입고, 총을 점검하고 있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총을 점검하고, 불안에 가득 찬 얼굴로 서 있었다. 저쪽 구석진 곳에는 몸과 마음이 건전할 듯한 청년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평소 말 많고 친구를 좋아하는 나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로 마음 먹었다. 조심 조심 다가간 나...

“넌, 여기에 왜 니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채 서있다고 생각하나?”

그가 던진 질문에 나는 당황함과 놀라움에 휘감겨야만 했다. 또 그가 내던진, 어느 누구나 이 상황에서 지극히 그 해답을 아는 물음을 나는 어찌 받아쳐야만 할 것인지 고민되었다.

“나, 아니 우리 모두가 싸우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는 실성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 싸움은 누구랑 하는 것인가?”

또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인가? 그 목적이 달성된다 고 가정할 때에 과연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의 당혹한 질문은 계속 되었고 난 그에게 무엇이라고 확고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전쟁이란 것은 총과 탄을 피해 다니며 나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적을 한명이라도 더 사살해야 한다고 이제껏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그는 생각이 깊고, 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민환이라고 했고, 우린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탄과 총을 피해 다니며 부축해 줄 때에도 항상 민환이는 내 곁에 있었다. 내가 이 험난한 싸움터에서 의지할 사람은 민환이였고, 민환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총대장은 내게 저기 쌓아놓은 무기들을 손질하라고 시켰다. 나는 아무 군소리 없이 무기를 닦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번질번질 거리는 것이 누가 닦은 것인지 참 잘 닦았던 말이야”

나는 내가 닦아 놓은 무기를 보며 흡족해 하였고, 언제 온 것인지 지켜보던 민환은 내가 닦아온 무기를 보며,

“자네는 총숨씨는 서툴러도 무기닦는 솜씨 하나만큼은 끝내준다니까”

라며 내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 농담도 잠시, 하늘에서 엄청난 폭음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고개를 하늘로 들어야 했고, 빠른 판단력으로 그 장소를 피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감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때에 시야는 조금씩 희미해졌다.

“정석이, 정석이...”

나를 애달프게 불러대는 소리에 힘겹게 돌아본 곳에서는 민환 역시 온몸에 부상을 당한 채 나를 불러대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마치 고독한 고통을 참는 듯하였다. 그는 조금씩 메마른 입술을 떼어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 물어본 것을 기억하는가? 자네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네. 그 때에 나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 답을 찾지 못한 나에게 심통이나 그대에게 물은 것일지도 모르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막의 여행자가 마지막까지 오아시스에 대한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 때 찾지 못한 답을 죽음을 앞두고 알거 같다니 참 허무하기 짝이 없네…”

나는 고요히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래, 도대체 그 답은 무엇인가?”

그는 고통을 일삼으며 말했다.

“난 이 싸움이 한 아낙네와 그의 남편이 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네 싸운 후 화해하고 싶으나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화해의 손을 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들은 서로 화해와 다시 돌아올 서로를 원하고 있네. 바보같이 말이야…”

우린 그들에 대한 희생양이 될 거 같군.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네, 헛된 자존심에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 나가고 있지 말라고…”

민환은 살포시 눈을 감았다.

나 또한 민환처럼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민환에게 말했다.

“난, 처음 자네에게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자네 또한 그 해답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어. 그랬기에 자네가 골똘히 생각하였지 않은가?”

언젠가 자네가 그 해답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어. 그렇게 찾아다닌 해답을 얻어낸 걸 축하하네…”

벌써 여러 번의 바람은 스쳐 지나갔기도 했을련만 민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꿈에서 깬 내눈엔 슬픔의 한이라도 하소연 하려는 듯한 눈물이 송골히 맺혀 있었다.



70년대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할 수 없었고, 나 역시 초등학교때만 해도, 북한은 험벗고 굶주리며 우리와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전까지 우리는 서로가 눈으로는 선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마음으로도 벽을 쌓아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독일 대사관으로 넘어 오는 탈북자들의 문제는 더 이상 중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북한과 남한, 우리의 문제이다.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이 넘었다. 동독의 사회주의 붕괴는 동독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룡천사고가 일어났다. 예전의 북한 태도와는 달리 사고를 공개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육로로 물자 수송하는 것을 거부했다. 육로로 할 경우 체제붕괴를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받기 위해 태도를 바꾸었고, 육로수송뿐만 아니라 해양수송, 하늘길도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의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6.15공동선언이었고 이후, 남한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노력 덕분이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 중 '바람과 해님'이 생각난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벗지 않으려고 하지만, 햇볕을 쬐면 쬐수록 자연스럽게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룡천사고는 비극이지만 남북한의 '탈이념화'에 계기가 되었다. 북



한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문제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의 대북 지원에 나오던 저 자세, 퍼주기식의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며, 북한에서도 남측에서 이념을 떠나 동포애로써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하였다. 최근 전선 부근 남·북한 확성기 방송을 철거하는 것을 TV를 통해 보았다. 또 하나의 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통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통일이 아닌 성숙한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 룡천사고를 계기로,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알뜰시장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각자 가져온 물품들로 조그만 알뜰시장을 열었다. 총무부는 물품에다 가격을 붙이고 책상에 진열해 놓고는

“골라보세요. 좋은 물건입니다.”

“세일합니다”

선전을 하였다. 총무부에서는 즐겁고 재치있게 알뜰시장을 운영했다. 우리 모두는 잘 참여하고 관심을 가진 덕분인지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금은 제법되었다. 우리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의논하다가 우리 모두의 의견으로 어려운 사람과 힘들어하는 북한동포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 모두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며칠 전에 있었던 룡천역 폭발 사고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 참사는 너무 비참하였고 건물도 다 부서져 버리고 기차 철로가 두 동강난 것은 물론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한 모습이었다. 이 참사를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아이구, 불쌍해서 어찌나.”

“저런, 어떡해”

멀리서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한심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의약품 그리고 음식과 우리가 애써 모은 성품을 보내주었다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매년 6월이 되면 학교에서나 방송으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다. 빗발치는 총탄과 폭탄을 피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피난을 가는 모습,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만 있는 군인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때 태어나지 않았던게 얼마나 다행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이지 전쟁이 주는 비극은 끔찍했다.

전쟁이 끝난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만 고스란히 남겨있었다. 저번 이라크 전쟁도 모래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무지에서 여러 군인들이 맞서 싸우다 애처롭게 죽어가고, 폐허가 된 모습들이 옛날 6.25 전쟁과 너무도 같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씻겨주는 이산가족 상봉을 TV를 통해 볼 수 있다.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산가족들과 유가족은 대부분 머리가 허영게 세고 주름이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 늙도록 가족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신분들이 정말 불쌍하게만 생각됐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한가닥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되니 기쁘기 그지 없었다.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어린 아이로 되돌아간 듯 울음을 터뜨리시며 너무 많이 달라진 가족들을 보면서 희망해 하시는 모습을 TV로 통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북한의 억양과 말투, 생활모습들이 다르지만 예술단공연, 여러 노래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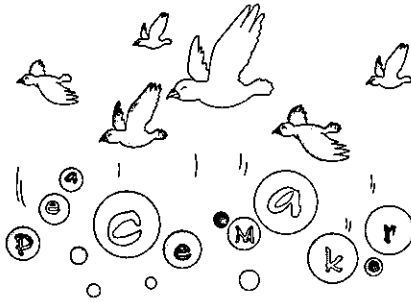
이처럼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한층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 가까워지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 서로간에 문화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나는 이 빗방울 하



나하나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내 꿈을 실어 북한 끝까지 날려 보내
내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일아! 내가 아니,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렴”





나무들의 푸르름이 날이 갈수록 짙어
저가는 6월이 오면 나도 몰래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된다. 저기
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참 부럽다.

그 무엇보다 부러울 것이 없는 커다란 날개... 나에게도 저런 날개가
있다면 저 먼 북녘에도 갈 수 있겠지.

“정란아, 차 밀린다. 늦지않게 얼른 서둘러라!”

아버지의 말씀에 한 낮의 공상은 어둠 속의 불빛처럼 사라져 버린다.

참으로 오랜만에 오는 시골은 많이도 변했다. 지난 설날에 와보고 이
번이 처음인가? 지난 겨울에 퐁퐁 일어있던 시냇물도 이제는 감미롭고
은은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눈도 뜨지 못했던 백구의 귀여운 강아지
들도 이제는 마당을 누비며 사고를 치고 있었다.

“아이구~ 이게 누구냐? 우리 정란이 왔구먼. 어여 들어와, 어여!”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꼬리치며 반겨주는 강아지인냥 나를 반겨주셨
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리움을 달래시는 듯, 이것
저것 물어보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의 손가락은 네 개이다. 다섯 개가 아닌 네
개... 내가 초등학교 4학년때 추석이었던가. 할아버지께서는 나와 사
촌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다.

“이 할아버는 말이다. 지난 6.25전쟁 때 참전용사로 싸우게 되었던
다.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했었지.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며, 이를 바



드득 바드득 갈았지. 이 할아버지의 손은 말이다. 그렇게 싸우다가 총알이 손에 박혀서 그만...”

할아버지께서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셨다. 나도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사촌동생들이 보고 있어서 애써 눈물을 삼켰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마치 마취주사를 놓지 않은 채, 사랑니를 뽑는 것처럼 말이다. 할아버지는 일흔이 넘으신 나에게 손수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 손으로... 게다가 농기계를 손보시는 할아버지의 손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건 우리 가는 길이 아쉬워 애써 보내시면서 꼬깃꼬깃한 돈 천원 쥐어주실 때의 그손이다. ‘잘가’라고 흔들어 주시는 손에서는 사랑이 묻어나와 그것이 나의 눈에 이슬이 맺히게 한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할아버지의 손은 멀쩡 하셨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손이 멀쩡하면 나의 가슴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대중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약 이산가족이라면 과연 어떨까? 나는 그리움에 휘감겨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만해도 이러한데, 진짜 이산가족들은 칼로 생살을 도려내는 느낌일 것이다.

나는 절실히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

내가 생각하는 통일방안은 이러하다.

첫째, 북한에 대한 좋은 인식 심어주기!

미래에 통일의 주역이 될 요즘 아이들의 90%이상이 반(反) 김정일이다. 어른들이 매일 김정일, 김정일하며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인식이 그렇게 잡히고 만 것이다. 어른들은 통일의 꿈나무인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교류를 추진하기!



아직까지 남한, 북한의 국민들은 전화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남북한은 서로에게 개방하고 협동하여 통일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끼리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서로 일체감이 들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때가 오면 나는 우리 집의 귀여운 아기 고양이의 사진도 동봉할 것이다.

셋째, 서로 무역을 하여 서로의 물품을 애용하자!

서로 시장을 개방해서 수입과 수출을 하여, 북한 학생들은 우리의 학용품을 쓰고, 우리는 북한의 학用品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의 것을 찾게 되고 존중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 나라가 뺏길 위기에 처했을 때, 피흘리며 나라를 지키던 조상도 하나요,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 언어인 한글을 쓰는 민족도 하나다. 또 세계에 뽐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도 하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한다.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무엇보다, 내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가슴에 생긴 멍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통일' 이라는 것 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만 한다면, 곧 통일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지금, 할아버지의 손이 더욱 더 그리워진다.



요즘 상생의 정치, 정책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 서로가 이해하고 공존하는 “상생”이야말로 통일 이룸에 있어 전제조건이 아닌가 싶다. 평화통일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공존을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경직된 사고로 바라보고, 배척해서야 어찌 통일의 물꼬를 틀 수가 있겠는가! 다행히 한반도에는 점진적인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다. 6.15 남북 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각종 회담이 열리고,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며칠 전 DMZ에서는 마지막 대남·평화 방송이 들렸다고 하고, 서해에선 무선교신으로 서로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룡천땅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그곳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상호간의 불신이나 주적관계로 치부해 버리는 태도도 여전히 잔재해 있다. 북한 사람들의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의 일면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보여졌다. 그들의 아버지 모습이 담긴 비에 젖은 현수막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남북분단 50년의 세월은 이질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과 우리는 사상도, 사는 모습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차이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차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극복하고 이겨내야만하는 통일의 단계로 인식해야 함은 물론 이겨니와 상호간 사상의 자유도 하루속히 보장되어 서로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의 빗장을 풀고서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한 협력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선, 경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계획이나 지속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교류의 신호탄으로써 큰 몫을 해주리라 믿는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이윤을 거두어들여 북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어 좋고, 경제협력을 통해 유대감 강화와 개방적 분위기 조성까지 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겠는가? 문화의 교류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의 힘은 크리라 생각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문화를 전파하고, 수용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어의 이질성을 차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칼보단 펜의 힘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가고,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상호간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냄으로써 통일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제적·문화적 교류로써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튼튼한 신뢰의 벽을 쌓아야 할 것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군사적 대치의 긴장관계를 허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군사력증강을 자제하고, 공존과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 자연스럽게 통일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소원'에서 김구선생님이 말씀하신 건전한 참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군사력과 부가 아니라, 높고 맑은 문화적 강대국으로써 주변국가로 부터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통일국가가 되길 바란다.



남북한 통일을 기원하며

김 가 현 | 토성초 5학년

며칠 전 통일 예선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답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돌아가셨다는 것이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 분들은 열심히 싸우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이 나라, 이 땅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우리 나라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약54년 전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다고 한다. 나라면 전쟁이 무서워서라도 싸우지 못했을 것인데... 정말 용맹하고 씩씩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통천 폭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한다. 지하철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더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통일이 되어 있다면 서로 부족한 점들도 채울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북한 친구들을 만나 더욱더 즐겁고 보람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도 우리의 한 핏줄이고 같은 동포인데 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TV를 보니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따로 따로 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절로 눈물이 나왔다. 우리 선생님의 할머니께서도 오빠와 여동생이 남·북으로 떨어져서



살다가 한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만약, 나와 우리 부모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산다면 나는 정말로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요즘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꼭 평화통일을 이루었으면 한다. 내가 팔 벗고 앞장서서 통일을 이루고 싶다.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며칠 전에 친 시험도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잘친 기억이 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나 하나라도!' 하는 생각을 남·북한 사람 모두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까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서로 화해하면 금방 통일이 될 것이다. 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든지 할 것이다!

“남·북 통일을 위해 화이팅!”





창밖은 비로 흠뻑 젖었는데도 교실안의 사회 수업은 계속되었다. 우울하기만 한 비 오는 날은 잠시 수업을 멈추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비를 음미해 보는 것도 좋으련만 선생님의 설명 소리에 망상은 묻혀버리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연필을 굴리고 있다.

“보완재는 두 가지 물건이 같이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재화로서, 하나의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보완재의 예에는 커피와 크림 등이 있습니다.”

커피와 크림을 예로 드니 보완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되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왜 속 없는 찌빵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알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의 미로. 나의 비 감상을 막았던 사회 시간은 내 머릿속을 떠날 줄을 몰랐다. 거부하고 싶었던 수업이라서 그런지 계속 기억에 남는가보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의미를 잃는 것. 문득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둘과 하나의 차이를 잘 따지는 친구였기에 쉽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늘 말의 끝 부분을 통일로 마무리하는 아이. 나 혼자 피식 웃으며 계속 걸어나갔다.

우리나라는 지난 약 50년 동안 하나의 보완재를 잃은 채 계속 둘 중 하나로서 살아왔다. 그리고는 다른 보완재는 버려둔 채 우리 자신만 발전해 왔다. 그래서 오히려 둘로 나뉘게 잘된 일이라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둘 이상의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된다는 것을 과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났다. 그래서 분자는 각각의 원자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하나의 손실을 감소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자일 때의 성질을 잃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도 분자의 각 원자가 나뉜 경우가 아닌가 싶다. 분자가 각각의 원자로 나눌 수 있듯이 우리도 그저 하나의 땅덩이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쩌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따로인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각의 원자로 분리된 후 감소해야 할 손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잃은 것은 솔직히 내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측면으로 보이는 땅덩이마저도 포함된다. 즉,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서 완전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단지 내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것 뿐이다.

우리가 감소해야 할 내적 손실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언어의 이질화가 아닐까 싶다. 예로부터 말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한민족이 같지만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니 어찌 정신과 얼이 그대로 남아 있겠는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책을 들여다 보면 남북한의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 중에는 남북한의 사전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다. 며칠 전, 친구와 그 부분을 발견하고는 북한사전이 너무 웃기다며 깔깔댔다. 그 때는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던 북한 말이 한겨레의 고통으로 다가 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러한 예도 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금강산에 갔다가 북한 동포를 만나 너무 반가워 사진을 찍자고 했단다. 그러니 북한 동포는 “일 없습네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북한 동포의 거절에 실망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 뜻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의미였다고 한다.



이러한 예들을 생각해 보면서 늘 통일을 외치던 우리가 진정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언어의 이질화라는 분단의 고통이 절실히 느껴질 때 쫓이면 통일이 될까? 그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느새 비는 그치고 나뭇잎의 물방울이 햇빛에 비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지금 성질을 잃어버린 우리나라, 하나의 보완재를 버려둔 채 계속 걸어나가고 있다. 지금은 다른 하나가 없을 때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분단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하니 말이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라도 민족의 의미를 일깨워 줄 분단의 고통의 예가 드러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나가 없다는 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비행기에 몸을 담는 느낌만 들 뿐이다. 우리나라도 잃은 하나의 보완재와 하나의 원자를 찾아 참뜻의 분자를 만들 수 있겠지? 참뜻을 찾는다는 기쁨은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집마저 놀이터로 보이게 만들었다. 시험 때문에 힘들지만 보완재와 분자를 되찾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 막을 내리고 싶다.





2004년 6월 남북 정상급회담에서 남북한 상호 무선 통신 채널 개방과 휴전선 인근에서의 사상광고 방송을 중지할 것이 체결되었다. 한때, 서해 교전으로 생긴 오해의 회포를 풀 것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반도 근처 해역의 남북 결속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결정은 가뜰이나 어지러운 세계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돈독히 해 주었다. 멀게만 보이던 통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 예측하게 해 준 것이다.

분단의 그날로부터 54년이라 시간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아직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서로 반공·반자유주의를 외치며 서로를 헐뜯고 상처주던 격동의 세월도 흘렀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깝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유사한 두 나라지만 50년 동안 처져있던 사상의 울타리는 아직도 견재하다. 서로 손만 뻗으면 닿을 듯 한데도 50년 시간의 단절은 시나브로 우리에게 문화적 괴리감을 맛보게 했다. 그 괴리감 극복에 상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월의 공백을 채우는데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심의 필요성이다. 21세기에 들어온 지금 더 이상 사상문제를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갈라져 있었지만 우리가 같은 역사를 거쳐왔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한 핏줄의 형제자매였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록 어두운 과거사가 그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우리는 상호협력의 바탕으로 그것을



떨쳐 버려야 한다. “우리도 고깃국 먹는다” 하는 선진방송에 쓴 웃음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도울 방안을 모색하는 것, 고개만 뚫으면 내밀어 소리치기 보다는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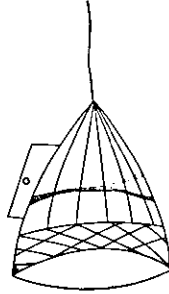
손뼉도 두드려야 소리가 난다. 마찬가지로 통일이란 것도 양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야 이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측 미녀 응원단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미녀 응원단을 통해 북한과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보다 친숙하게 대할 수 있었다. 또 한국측 가수들의 북방 또한 두 민족 문화적 이질성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북전쟁의 역사가 흘러 두 나라의 대표세대가 바뀌었듯이 그들이 느끼는 관심사 또한 이미 바뀌었다. 그것은 폐쇄주의적인 북한의 주력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것이다. 그들은 무력을 앞세운 힘의 융합보다 문화를 통한 정신의 하나됨이 더욱더 이득이며 추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이끌어 내는 협력만이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통일 방안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우리의 땅을 짓밟은 놈들이다.’ 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받은 만큼 준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거기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못사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퇴보하고 만다며, 통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위험한 발상이며,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고방식일 수 밖에 없다. 통일 후 우리가 잃는 것이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원시안적 사고로 생각해야 한다. 당장의 통일자금을 통일 후 얻게 될 국토자원, 광물자원 및 인적자원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단지 과거의 원한을 못 잊어하는 치졸한 대응의 말로는 뻔할 수 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대북 지원을 하는 쌀이 먼 훗날 우리의 땅을 적화통일시킬 군량미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세에는 너무 뒤 떨어진 소리며 북한도 판단을 할 줄 아는 한 불가능한 소리이다. 이런 극단적인 부메랑적 사고방식은 국민들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끊임없는 대북 햇볕정책과 화해의지 표방이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서로 쫓고 쫓가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한민족의 긍지를 높이며 입지를 강화시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는 온 국민에게 통일과 남북 전쟁을 돌이켜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그냥 묻어 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보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발판삼아 서로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간다면 저 멀리 있는 통일의 문턱에 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구광역시

- 북한 응원단 
 - 룡천 참사 비극만은 아니었다
 - 지병
 - 호국 보훈의 뜻을 바로 알자
 - 아리랑 아리랑
 -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인식의 필요성
 - 하나가 되기 위해
 - 부넌 친구야! 통일을 얘기하자
 - 통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 



최우수

북한 응원단

임경민 | 대구 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 5학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창일 때에 나는 가족과 함께 대구체육관에서 열리는 배구경기를 구경하러 갔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있었다.

배구 경기도 박진감 있어서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설레게 한 것은 북한 응원단이 온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일찌감치 경기를 중계하는 카메라 옆에 자리를 잡고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들의 응원도 열기를 더해 갔다. 연신 함성을 지르고, 파도타기가 이어졌다. 스포츠 경기만큼 우리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통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전체로 통일되기보다는 툭툭 튀는 개성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스포츠 경기에서는 하나로 통일되어 응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이 스포츠의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실내 경기장이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응원하던 사람들이 경기장을 보지 않고 반쯤 일어나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나도 무엇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북한 응원단이 입장하고 있었다.

하얀 티셔츠를 입고, 분홍색 모자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리



고 큰 가방을 매고 있었는데 아마 응원 도구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북한 응원단의 응원이 시작되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었지만,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동작이 일치하였다. 나에게서는 매우 낯설기도 하였고, 신기하기도 하였다. 인형같이 예쁘게 보이기도 하였고, 마치 로봇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통일된 동작을 우리에게 보인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한다는 뜻을 남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북한 응원단의 등장으로 응원에 더욱 신바람이 났다. 그 덕분인지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탈리아를 꺾고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기자, 북한 응원단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도 따라 불렀다.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노래였다. 북한 응원단과 마주 앉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니 가슴이 찡해왔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과 말을 해보려고, 북한 응원단 쪽으로 갔다. 그러나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가로막아서 실패하였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었다.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어 편지를 썼다.

“저는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임경민이에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는 것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해 주세요.”

간단한 편지였다. 그러나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의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북한은 아쉽게도 경기에 지고 말았다. 나는 재빨리 북한 응원단 쪽으로 가서 쪽지편지를 북한 응원단에게 던졌다. 한 언니가 내 편지를 발견하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싱긋 웃고는 편지를 주우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로

“언니, 그냥 편지예요. 주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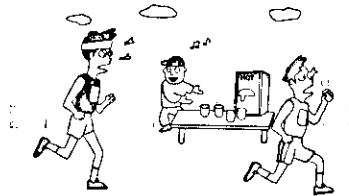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언니는 그것을 주워서 어떤 아저씨에게 보여 주었다. 그 아저씨가 읽어보더니 그 언니에게 편지를 주었다. 그러자 그 언니도 편지를 읽어보고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무 기뻐다.

나는 사라져 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편지가 북한어린이에게 전해지기를 빌었다. 그 편지를 읽어보는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빌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속의 가사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정말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최우수

룡천 참사 비극만은 아니었다

최누리 | 동평중 3학년

얼마 전, 편안하게 앉아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멀리’ 북한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날아왔었다. 그것도 한반도 전체를 열에 들뜨게 했을 거라 생각된다. 북녘 땅, ‘룡천’이란 곳에서 대규모 열차 참사가 있었다는 소식.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구에서 있었던 지하철 참사가 떠올랐다. 룡천 소식은 지하철 참사 이상으로 나를 아프게 했다.

룡천 참사의 원인은, 질산암모늄 비료를 실은 화차와 유조차를 교체하던 중 부주의로 전기선에 접촉하여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인근 룡천 소학교와 폭발 지역이 역 주변인 탓에 민가의 밀집지역이라 일반 서민의 피해가 많을 거라는 사실과 함께 아무런 죄도 없는 티 없이 순수했을 아이들이 많이 희생되었을 거라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더욱 안타깝게 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직접 발걸음을 옮겨 국화꽃 한 송이라도 그 영전에 올릴 수도 있었는데 룡천은 그저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 진전되어 가는 상황의 보도에만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 했다. 우리의 분단 현실을 더욱 더 절감하면서 북녘에서 눈물을 흘릴 이재민들을, 몇 천이 될지 모르는 이재민들을 생각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며칠 후에 대략의 피해 상황 보도가 이어졌다. 룡천역 부근 반경 500m내의 건물 완전 파괴, 사상자 2,000여명, 건물 30여 동의 파괴 등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하지만 당사자가 얼마나 가



숨이 아플지 짐작케 했던 것은 숫자가 아니라 룡천에 가족을 두고 왔다는 한 탈북자의 눈물 어린 절규였음을 나는 아직도 느낀다.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 후에는 북한의 병원에 기초 의약품이 없어서 부상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간단한 의약품만 있어도 되는데 그 조금의 약이 없어 사람이 죽어 가는 걸 발만 동동 구르면서 보고 있다고 했다...

KAL기를 통한 구호물자를 수송한다는 소식이 들려 온 것은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남측의 여객기가 상호 교류 차원에서 여러 차례 평양을 오간 적은 있지만 화물기가 구호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향한 것은 처음이라며, 룡천 참사가 전화위복이 되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평론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귀가 솔깃했다. 무슨 이유였을까, 룡천 참사가 더 이상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그로부터 남한의 구호물자 수송행렬은 줄기차게 이어졌던 듯하다. 담요, 속옷, 화장지, 음료수 등의 생필품과 시멘트, 의약품까지. 그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흐뭇했었다.

북녘의 얼굴 모를 동포들에게 남녘의 동포가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기뻐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는 아니었구나 싶었다. 정말 룡천 참사가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일까.

단 몇 초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컴퓨터 화면에 띄워지는 시대다. 날로 기술이 좋아질수록 북한은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듯하다. 악의 축, 핵문제, 공산당, 한 민족 간의 미약한 교류 등으로 북한을 떠돌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번 룡천 참사 사건에 대한 북의 대응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국내외에 참사 소식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북측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는 상기된 표정의 한 전문가의 인터뷰도 있었다.

내가 느끼기에도 그랬다. 그동안 북한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손에 꼽



기도 어렵고, 또 설사 있다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50년 분단 역사에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닫혀있던 북한이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에게 손을 내밀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한 만큼 도움도 많았다. 그 온정의 손길로 룡천은 사랑으로 복구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룡천은 안타까움도 많았지만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어준 곳이라 생각하니 비록 희생은 따랐을지라도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 갈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남북 모두 통일을 향해 꾸준한 질주를 하면서도, 손을 잡고 가야한다. 그러기에 북측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같이 손을 잡고 달리다가 놓쳤는데도 혼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내민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남북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가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임을 느낌으로.

사람들이 말했다. 룡천은 비극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구름 뒤에 있을 햇살을 기대한다. 그 햇살은 분명 남과 북의 서로 간의 이해와 사랑이 아닐까.



1950년 6월 25일, 붉게 어린 숫자가 한 줄. 흑백 사진 밑에 낙인처럼 박혔다. 지을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것이 불안정한 숫자 배열로 책갈피가 되었다. 책갈피가 일기장 모서리에 입을 뺄죽이 내밀고는 간들간들 하더니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손으로 주워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할아버지의 50년 된 지병. 그 안쓰러운 연륜의 흔적이 지난 세월의 묘지촌으로 할아버지 살갓에 묻혔다.

“그랬었다. 내가 그러니께네 6.25때 미친 듯이 남으로 왔다. 느 할머니, 느 고모, 삼촌만 두고서는... 그러니께네 느 아버지만 데꼬서 왔었다 그랬었다. 같이 왔으면 지금 호강하고 살텐데...”

프로펠러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가 할아버지 목을 할퀴며 상공하고 있었다. 폭격기 훑고 지나간 피폐한 전쟁터가 할아버지 눈에서 빨갛게 불타 오른다. 후끈한 국토의 뜨거운 피가 할아버지 얼굴에 번진다. 앞으로 돌격하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부산해지자 할아버지 심장이 진동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꼬리를 늘어뜨려 말쑤를 삼키셨다. 잠시 침묵을 약속하며 입술을 굳게 닫으셨다.

할아버지의 허리 38인치를 가죽띠가 둥글게 두르고 있었다. 가죽띠 마지막 작은 구멍이 할아버지 허리를 버거워 하는 듯 타원형으로 늘어나 있었다.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가죽띠가 애처로워 보인다. 아니, 이젠 그 가죽띠를 풀어놓아야 하리. 가죽띠 밖으로 한(恨)삼킨 군살들



이 빙-원반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가족띠를 경계로 할아버지의 상반신엔 메마른 혈기가 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한 올이 가늘게 솟구친다. 햇빛에 그을린 낮 빛 위로 주름살이 얽혀서 뻗고 있었다. 정렬되지 않은 주름살의 동선이 갈피를 못 잡고 얼굴 위에서 헤매었다. 힘없이 내려앉은 눈꺼풀 밑으로 뜬 가느다란 초생달. 검게 진 달무리를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닦아 내고 있었다. 눈두덩에 핀 달무리는 견힐 줄 모르고 50년 이래 흐르기만 한다더라. 할아버지 늑골 능선을 따라 한계령 굽이가 올라 있었다. 살점 없는 가슴속에는 늘 북(北)으로 역류하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북(北)으로 뜨는 가난의 빛, 38인치 남(南)으로 지는 부유한 빛이 할아버지를 홀로 늙게 했다. 솜사탕처럼 부풀어진 둔부 밑으로 두 다리가 앙상하다. 위태로워 보이는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아기 걸음마였다. 내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셨으니, 할아버지는 늘 이부자리에 누워 계셨다. 며칠 후 할아버지와 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분은 병명을 밝혀내기가 힘들군요. 연세가 많으셔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셔야 할겁니다.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다른 세포 조직에서 돌연변이 충돌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찾아내기가 힘들군요.”

내 부축에 할아버지는 다리를 절뚝대며 진료실을 나왔다. 휴- 시큼한 입 냄새 속에 스미는 한 섞인 숨이 허공에 풀풀거리며 날아오른다. 영킨 숨이 할아버지 발자국을 밟고 간다.

“내 언제 성한 다리로 북쪽 땅을 밟아 보겠누. 흠 냄새라도 맡아 봤음 한이 없다.”

“할아버지 곧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온다고요.”

2004년 4월 22일, '평안북도 룡천역 부주의로 발생한 화차 폭발사고', 뉴스와 신문마다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연신 한숨을 내쉬는 할



아버지의 얼굴에는 긴장의 빛이 역력했다. 할아버지의 나침반 빨간 바늘은 시도 때도 없이 북쪽을 가리키는데, 남녘에 몸을 둔 할아버지는 가야할 길을 잃으셨던 것일까. 텔레비전을 조심스럽게 보듬는 할아버지의 손이 조금씩 흐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 눈꺼풀이 낮게 침몰한다. 움푹 패인 눈두덩이 위로 말간 물이 고인다. 소리 없이 흘러든 물이 샘하나 만들었다.

“에 살아온 반평생 넘게 한 시라도 북녘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허리를 죄는 꼬나풀을 이제 벗어 던지고 싶었드래. 그래도 뼈만 남은 가슴에 내 피붙이를 안아 보고 싶었고, 내 다리 위에 앉혀 보고 싶었더랬다. 허영계 그래 징글맞게 갈라진 내 발바닥으로 북녘 땅을 밟아보고 싶었고, 경의선 막차 타고 고향도 가고 싶었다. 그랬더랬는데… 내가 뭘 잘못을 했을꼬. 듣도 보도 못한 병 때문에 이 고생을 하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남녘 흙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통일이 되면, 당신의 몸을 정갈하게 닦아 고향 신의주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셨다. 할아버지 생(生)의 감각 위에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북녘의 소식을 이렇게 가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 남북 상호의 끊임없는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어려울 때 또 다른 반쪽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 올림픽 동시 입장에 그렇거러던 눈물을 떨어뜨리게 됐다는 것. 그리고 차츰 38도선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유월 달력의 날장이 평양의 진달래 꽃 내음에 붉게 적셔진다. 통일전망대 망원경으로 보고 손으로 더듬으면 다가갈 수 있는 그곳. 할아버지의 50년된 지병이 그러하듯 아직은 우리 모두가 분단의 아픔에 앓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언젠가는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지병을 고치는 약 스무 알보다도 절실한 한 알의 소원이 있기에 우리에게겐 통일의 역사를 기록할 일만 남은 거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가



르쳐 주셨다.

자개농 서랍 속, 할아버지께서 애지중지 아끼시던 할머니의 옥반지를 보았다. 사진의 흐린 형상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는 할머니, 고모 그리고 삼촌의 얼굴. 옥반지에서 가족의 체취가 배어 나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옥반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더듬어 가고 계셨다. 옥반지 사이로 할머니가 걸어 들어오신다.

동으로 트는 아침,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두 손을 잡고 통일전선탑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제 나는 우연히 신문 사이에 끼어온
광고 전단지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침대 매트리스의 진드기를 ○○박사가 해결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호국 보훈의 달과 이 광고가 무슨 관계일까? 무척 궁금했다.

어린이날 행사로 치킨을 시키면 어린이용 장난감을 준다든지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든 기념으로 음식값을 50% 할인 해 준다
는 광고와는 그 뜻이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 호
국 보훈 뜻을 찾아보기로 했다.

‘호국’의 뜻은 나라를 지킴.

‘보훈’의 뜻은 나라나 회사 등에 드러나게 공을 세운 것을 보답함이
라고 쓰여 있었다.

국어 사전에 나온 뜻대로라면 이 광고는 ‘호국 보훈의 달’과는 아무
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아무 뜻 없이 기념행사라는 말을 붙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 보겠다는
것쯤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난 해 가족과 함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것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



었다.

주인공이 가족과 헤어짐으로써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전쟁동안 군인들이 겪는 무서움과 외로움, 다친 상처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는 모습들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단순히 총을 쏘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서운 폭발음과 함께 집과 건물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무서움에 떠는 군인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희생으로 지켜진 우리나라란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국 전쟁 영화였다.

이 전쟁으로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정해졌고 현충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뜻을 기려야 하겠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분들의 희생을 물건을 싸게 파는 등의 이유가 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꽃을 사서 현충탑이나 국립 묘지를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현충일 아침 일찍 국기 달기와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며 묵념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예의 일 것이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 후손들의 할 수 있는 나라사랑이며,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바로 아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년 여름,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었다. 그 때, 부산 아시안게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개막식을 할 때, 함께 등장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던 소리가 아직 기억에 남는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나는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국제적인 대회가 언제 다시 한 번 열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덜경 엄마와 '아리랑 응원단'에 가입했다. 아리랑 응원단은 북한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서수들과 경기를 할 때 함께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단체였다. 신청을 하고나니 아주 조금 교육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경북대학교 대강당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모이는 날에 경대에 갔다. 강당 앞에서 한반도가 그려진 빨간 단체 티셔츠도 받았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당에 들어갔다. 솔직히 난 어린애들은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짝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이었다. 오히려 내가 큰 편에 속했다.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기를 업고 나온 아주머니들, 동생 손잡고 온 꼬맹이들도 많았다. 우리는 그 강당에서 북한 응원단들과 함께 부를 응원가를 배우고, OX게임 등 오락게임도 즐겼다. 나는 그 때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진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정말 적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무것도 몰라도 절반의 가능성은 있는 OX퀴즈인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반도 못 맞췄다. 북한에 대한 선



입견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족에 대해 이렇게 까지 모르나... 참 한숨이 나왔다.

활동이 끝난 후는 벌써 밤이었다.

나출 후, 네덜란드와 북한의 배구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난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그렇게 예쁘다는 북한 응원단을 보게 될 날인데, 그 누가 설레지 않겠나? 야단법석을 떨고 난 후에야 경기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주최측의 실수로 우리는 자리가 없어 계단에 앉았다. 너무 억울했다. 표 값까지 다 냈는데... 나말고도 모두가 화를 냈다. 하지만 경기에 방해될까 참았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북한 응원단도 입장했다. 정말 '남남북녀'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예뻐다. 우리도 북한 응원단도 북한 선수를 열심히 응원했다.

“통~일 조국, 통~일 조국!”

실내 경기장은 물론 그 밖에서도 이 큰소리가 울렸다. 이 소리는 남한 사람들만 혹은 북한 응원단만 지른 소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함께 외친 소리였다.

당연히 같은 한국말을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같은 말을 함께 소리 높여 응원하니 뿌듯함과 신기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선수들도 그랬다.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이기길 바랐다.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경기가 끝났다. 아깝게도 북한이 한 경기 차이로 졌다. 하지만 그 순간은 승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랬다.

북한 응원단과 우리 아리랑 응원단은 함께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불렀다. 끝나면 다시 또 불렀다. 아마 한 네 번은 불렀을 것이다. 벽차 오르는 감동과 기쁨에 우는 분도 계셨다. 북한 응원단과 우리는 만난지 얼마되지 않았었다. 인사도 나누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서



로가 진심으로 헤어짐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다음 경기 때 또 만나리라 웃으며 헤어졌다. 이런 행복이 다였으면 좋겠지만 나는 응원 중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 내 자리 근처에 할머니, 할아버지 들께서 관람하고 계셨다. 그 분들은

“아이고 나라 망할라고 빨갱이놈들이랑 저러나.”

라시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셨다. 심한 욕설도 나왔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린 나도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구나. 통일이 되려면 힘든 점이 많겠구나. 되더라도 갈등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실제로 일부 우익단체들 때문에 북한 응원단을 못만났던 경기도 있었다.

나는 적어도 통일이 되려면 양측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 돕고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주로 젊은 층에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얼마 전 있었던 룡천역 폭발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한민족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북한의 참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내가, 우리가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통일! 후에 있을 경제적 이득보다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한민족,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내가 아홉 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우리 오빠의 생일이었던 7월 27일,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다. 그 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소리, 거실에서는 오빠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랫소리와 함께 내 귀에 들렸던 것은, TV에서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루종일 떠들어댔던 아나운서의 목소리였다. 그때 나는 '우리오빠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빠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에 그 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마냥 좋았다.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백두산에 놀러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빠와 신나게 떠들었다. 아홉 살, 어린 내 머릿속에서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내가 백두산 구경을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통일'이라는 것도 그만큼 단순한 문제로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일성이 죽은 지 몇 년이 되어도 북한은 여전히 '갈 수 없는 땅' 이었고, 좀 크면서 백두산은 중국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이라는 땅딸막하고 못생긴 아저씨에게로 향하는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아홉 살이었던 내가 이제 열아홉이 될 때까지도, 현대 정주영 회장이 북으로 500마리의 소를 끌고 가고, 한창 평화 통일이다 뭐다 해서 북으로 쌀을 보내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등 통일의 가능성을 비춰주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자기 생일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까지 하며, '이제 백두산 갈 수 있을끼다!' 라고 확신까지 했었던 우리 오빠는 어느덧 21살-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휴전선 가까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릴 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부르던 노래였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이 노래의 악보를 다시 고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모두 물음표를 붙이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 저 노래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내 마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노래이며 동시에 억지로 쌓아 놓았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마구 흔들리게 하는 노래이다. 이런 생각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과연 앞으로 통일을 꿈에서까지 소원하게 될까? 세월이 가면서 전쟁을 직접 겪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간직한 세대가 점점 죽어가면서 전체 인구에 대한 그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전쟁의 아픔 없이, 풍요롭게 자라온 세대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 분단상황이 워낙 오래 지속되면서 오히려 분단된 상황에 더욱 익숙해져, 통일이라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분단된 상황이 그런대로 살만 하니까 그냥 살자’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온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의 생각이 통일로 향하는 길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라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다시 물을 것이다. ‘도대체 왜?’

‘통일이 왜 이뤄져야 하는데?’



이 질문은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를 괴롭혔던 질문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도덕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박스도 치고, 형광펜으로 별까지 그리면서 중요하다고 달달 외우기까지 했던 나였지만, 내가 항상 저 질문에 괴로워했던 이유는 그 많은 당위성이 내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책은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첫째, 남북한 분단이 우리의 독자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타율적인 힘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반세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이질화되면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민족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셋째, 일반적인 논리로서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적대감을 갖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은 단일민족의 단일국가 형성을 통해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 올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넷째, 분단상황으로 인해 쓰여지고 있는 저 막대한 국방비를 ... 다섯째,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의 고통은... 무미건조한 문장들.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내 가슴속에는 그 어떤 뜨거움도 느껴질 수 없었다. 이것은 나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면 왜 도대체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반복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들어 놓고도 통일의 노래를 부를 때면 다같이 부끄러워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런 문장들을 '이해'만 하게 내버려 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기억 속 어디에서도, 통일에 대해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 아니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짧은 시간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아픔, 동족상잔의 비극 같은 것들은 그냥 한번 즐기고 넘어가면 끝이었던 적이 많았다. 그들의 아픔과 내가 살고있는 지금에 대해 생



각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잘못된 통일교육이 젊은 세대들을 통일인식의 가장 비극적인 자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그럼 이 젊은 세대들에게 상실된 민족애와 통일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가장 먼저 ‘영상매체’를 통해서라고 자신 있게 답하고 싶다. 한 예로 몇 달 전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다. 내용의 재미를 떠나서, 나는 한국전쟁의 참상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세히 재현해 내어,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과 분단과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박수를 치고 싶다.

전쟁통에 피난가는 사람들, 잠을 자는 머리 위로 폭탄과 총알이 날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쏘고, 죽이고… 총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폭탄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죽어가는 소리들이 내 머리를 마구 휩싸고 돌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내 눈앞에 보인 것은 곳곳에 언덕처럼 쌓여 있는 시체더미와 그 시체더미 옆에서 여전히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분명히 그 총알들에 죽어 나가는 남과 북의 사람들도 그들의 가족이 있고 삶의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한 알의 총알에, 그것도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하고 핏줄을 나눈 동족이 쏜 총알에 그 모든 희망,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장면을 보고, 나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총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나는 전쟁터에 와 있었다. 그 속에서 함께 불안감을 느끼고 떨며 놀라고 울고, ‘동족상잔’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체험했다. 더군다나 이 살육의 현장이 강대국의 세력다툼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니 화가 나고 안타까워 계속 눈물이 났다. 그들의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한나라의 허리가 잘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새겨지게 된 것이다. 나는 비극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

영화를 통해 그동안 내가 머릿속으로나마 상상했었던 모든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은 분단된 대한민국과 그 피에 젖은 역사 속의 아픔에 더욱 가까워져 있었다. 나를 비롯한 10대, 20대들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책속의 활자보다는 역동적인 영상매체에 더욱 익숙해져 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영상으로 전달되었을 때가 훨씬 깊은 인상과 넓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을 영상매체 위주로 한다면(꼭 그것이 딱딱한 다큐멘터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과 깊은 민족애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통일인식과 진한 민족애를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통일을 노래해 봤자 무의미한 것이다. 올해도 6월 25일이 다가오면 통일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나는 그런 글들의 내용이 하나같이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통일의 노래로 여운을 주며 끝을 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는 분단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래서 돌아오는 매년 6월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글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게 된 것 역시 당연하게 여긴다. 통일에 대한 그렇고 그런 당위성을 담은 글을 쓰기 전에, 그 내용을 짐작조차 하기 전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분단된 민족의 비극에 대한 가슴 속 ‘뜨거운 감자’의 존재가 진정으로 자기 마음 속에 뿌리박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6월 달이 되면 학교에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글짓기나 포스터를 하는 행사를 한다. 나는 산문으로 정하였고, 그때마다 나는 여름방학이 되면 밀린 숙제를 하듯이 국립 묘지나 현충사를 다녀와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6월만 지나면 난 그런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어릴 때 두 번 국립묘지를 갔다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 전에 갔다와서 기억조차하지 못한다. 그래서 꼭 1년에 한번쯤은 국립묘지에 다시 한번 갔다와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한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사실 나는 입으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을 것 같다.

첫째, 국경일에 내 손으로 태극기를 달자. 태극기 다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세대가 별로 많지 않다. 우리 아파트만 보더라도 현충일 날에 태극기를 달아 놓은 사람들이 몇몇 안된다. 그만큼 태극기 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나타낸다. 태극기를 달아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겠다.

둘째, 국산품을 이용하자. 요즘 우리 주변에는 수입품들이 참 많다. 우리가 사용하는 학용품만 해도 갖가지 물건들이 수입품들이다. 그런 학용품들을 자랑이라도 하듯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보다 수입품을 더 좋아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산품을 사용한다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널리 알려질 것 같다.

셋째, 북한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어 편지를 보내자. 북한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아 보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궁금한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관한 책을 읽고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북한 어린이들과, 남한 어린이들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마음이 몽클하며 눈물도 났다.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차츰차츰 천천히 실천하여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해마다 6월이 오면 호국 보훈을 외치지만 정작 내게 뭔가가 와 닿고, 내가 뭔가를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올해는 정말 죄스런 마음이 생긴다.

내가 실천하고자 위에 적었던 세 가지가 정말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들이지만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꼭 지켜보리라 다짐한다.

말뿐이 아닌 실천을 하리라고...



북녘 친구야! 통일을 얘기하자.

조연수 | 범물중 2학년

안녕? 나는 한반도의 남쪽 땅 대구에서 살고 있는 '조연수'라고 해.

나이는 열다섯 살이고 현재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이야. 나를 간단히 소개하고 나니 이 편지를 읽을 미지의 '너'가 누구일까 무척 궁금해지네.

내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얼마 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룡천 폭발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나서야.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시가지의 모습과 옛가락처럼 휘어 버린 선로들. 특히 텔레비전의 뉴스에 비춰진 폭격을 맞은 듯이 파괴된 룡천 소학교의 모습과 학교의 벽에 찍혀 있던 어린 친구들의 피 문은 손자국들은 정말 끔찍했다. 또한 룡천 소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이지 마음이 아팠어. 그 사건 이후 남녘의 많은 사람들이 북녘의 주민들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또 북녘 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구호품과 성금을 거두기도 했단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이 현실에서, 요긴한 약품들과 그 밖의 구호품들이 너희들에게 도착하는데 열흘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과 그에 따른 어른들의 이기심에 속이 많이 상하기도 했단다. 육로로 가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이 각자의 입



장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고 들었어. 사실 난 이때까지도 통일은 어른들의 아니 정확히 말해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난 뒤 통일은 결코 일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통일된 한 나라였다라면 어린 너희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보다 더 빨리 치료를 받아 훨씬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을 생각하니 무척 속상하고 말이야.

친구야! 참사 이후 조금씩 아물어 가는 상처를 다시 들추어 낸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더 멀리 본다면 이런 상처들을 보다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지 않겠니?

친구야! 그래도 최근 몇 년의 상황을 보면 남북이 함께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아직 어려서 남북의 정치·군사적인 대치 상황은 잘 몰라. 한데 지난 겨울에 부모님과 '실미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 70년대 초, 남북의 긴장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영화니까 어느 정도의 허구는 있겠지만, 영화에서 본 장면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6.25전쟁 이후 남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에게 엄청난 고통들을 안겨 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애.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던 남북이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는 서로 관심을 갖고, 또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니 이 얼마나 큰 진전이니. 아마 더디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서로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이지 어느 날 휴전선도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겠니?

그리고 참, 작년에는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어. 이쉽게도 북한 선수들이 직접 뛰는 경기장에 응원엔 못 갔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북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참 묘했고, 또한 북한의 대학생 언니들이 응원을 할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열렬한 호응도 해주었고 말이야. 정



말이지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니? 이 모든 사실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니?

사실 요즘은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배울 기회도 거의 없고, 나를 포함한 우리 청소년들도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애. 단지 이번 룡천 참사처럼 큰 사건이 생겨나면 '아, 우리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통일이라는 큰 과제가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언론이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조성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아마도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이미 룡천 참사는 하나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지도 몰라.

친구야! 어린 우리들이 통일에 대해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올릴 수는 없지만, 주변의 친구들에게 또 다른 우리의 땅에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진 이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하다 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하나 둘 씩 채워 갈 때 통일의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 것이고 말이야.

친구야! 우리 다시 한번 힘내자.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자. 우리는 한 나라 한 겨레이니까 말이야. 언젠가 만날 날이 꼭 올 것이라 확신하며 이만 줄일게. 항상 건강해.

2004년 6월에 대구에서 조연수가



통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양 아람 | 대구외국고 1학년

통일을 반대했던 선정이에게

선정아, 안녕? 이제 5월도 한 주가 남았어. '6월' 하니까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오랜만에 편지를 써본다.

사회나 도덕시간에 선생님께서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 항상 네가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지. 그럼 선생님께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셨고, 넌 북한과 통일하면 남북한 둘 다 망하는 일이라고 했어. 독일의 예를 들면서 말야. 당시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경제 수준이 높았던 동독과 통일하는데도 950조원이 들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한 북한과 통일하려면 그 배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므로 큰 성과는 얻지 못한 채 남한마저 쓰러질 것이라는 것이 너의 주장이었어.

네 주장을 듣고 통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했는데, 이제 나의 생각은 '통일을 해야 한다'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어. 얼마 전에 글짓기 대회에 내려고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 그 편지를 쓰다 보니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요즘은 지구촌 시대잖아.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서 모두가 친구가 되는 시대가 지구촌 시대인데, 북한은 거기서 제외돼 있어. 우리는 미국이나 인도사람은 국가와 인종이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사람은 공산주의자, 빨갱이, 우리가



정복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잖아. 북한사람은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같은 핏줄에 같은 외모, 같은 언어... 친구들 중에서도 나와 특별히 공통코드가 많은, 사고방식이 비슷한 친구와 더 많이 친해지잖아. 민족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북한사람은 단지 핏줄, 외모, 언어 등이 같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같은, 우리 신체의 일부야. 다른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제 신체의 일부는 미워하고, 적대시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야. '남한과 북한은 본래 하나이다' 이것이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야.

도덕적, 이론적 이유 외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유도 있는데, 바로 경제적 이익이야.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아서 통일이 되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던 석탄, 흑연, 마그네사이트, 철, 알루미늄 등의 수많은 지하자원을 우리나라 안에서 얻을 수 있어. 또 요즘 농산물 시장 개방, 값싼 중국산 공산품의 대량 유입으로 사회가 많이 시끄럽잖아. 이걸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이나 칠레 같은 나라와 경쟁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야. 그런데 통일을 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 원가가 낮아지게 돼. 게다가 육로를 통해서 중국과 같은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할 수 있으니 유통비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은 바로 군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남한과 북한 모두 서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엄청난 양의 군사비를 지출하잖아. 통일이 되면 이 군사비를 복지나 문화, 경제 등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어.

네 생각은 통일하면 군사비보다 더 막대한 돈을 북한 재건 사업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 일거야. 하지만 통일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북한의 모든 것을 뜯어고친다는 건 아냐.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간다면, 절대 남한까지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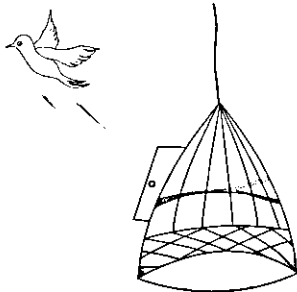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 평화를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북한이 조금만 위험한 조짐을 보여도 미국, 일본 등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잖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세계 평화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해. 진정한 지구촌 시대가 시작되고 말야.

남북한이 분단되어 지낸지도 어언 50년이 다 되어가. 반세기를 서로 갈라져서 지내다 보니, 같은 민족임에도 서로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 가장 큰 차이점은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북한사람이 외국인과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인데, 50년간 서로의 언어 정책이 다르다 보니 이제는 북한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 하루빨리 남북한이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자신의 가족과 다시 모여 살날만 손꼽아 기다리다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북한을 그저 이웃나라 중 하나로 생각하고 말거야. 통일은 꼭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져야만 해!

이 편지를 읽고 선정이 너의 생각도 바뀌었으면 해. 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오늘부터는 북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렴.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관심이 모이면 통일의 큰 원동력이 되니까. 이만 편지를 접어야겠다. 오랜만에 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2004. 5. 26

너를 생각하며 옛친구 아람이가



인천광역시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휴전선을 지우가며
- 휴전선을 지우가며
- 휴전선을 지우가며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함께 그리는 통일의 그림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통일을 부르는 노래
- 이산가족의 소망





최우수

통일을 부르는 노래

나 지 윤 | 인천호성남초 5학년

햇빛이 눈부신 일요일, 우리 가족은
임진강 황포돛배를 타러 가기로 했다.

그 곳은 남북이 분단된 후로 50년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
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기로 한 서부전선 최전
방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내 가슴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주를 한참 지나 두지리 선착장에 도착하니, 나 같은 어린이는 어쩐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연세 드신 어른들만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멀리서
우리를 태워갈 황포돛배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런
돛을 펼럭이며 유유히 강물을 가로지르는 나무배가 내 눈에는 어떤 호
화 여객선보다도 훌륭해 보였다.

황포돛배는 전쟁 전에 생필품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운송수단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손으로 잡으면 잡힐 듯한 복讖 땅을 그리
워하며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어버
린 것 같다.

배를 타고 임진강 적벽을 따라 고랑포 여울목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할아버지께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얼마 전에 일어난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 사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아이구,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너만한 애들이라니 기막힌 일
이구만. 생떼같은 자식보내고 어찌 살라나.”



갑자기 배 안의 분위기가 강밀으로 빨리 들어갈 만큼 무거워지더니 모두들 수군수군 술렁대기 시작했다. 나 역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참사현장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유류 수송 열차와 질산 암모늄을 실은 열차가 충돌하고 고압전선이 끊어져 열차 위로 떨어지면서 생긴 화재는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룡천역 근방은 마치 핵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건물이 있던 자리에서 커다란 웅덩이가 깊게 패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룡천 소학교는 피해가 너무 커서 건물이 완전히 폐허로 변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의약품이 부족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너무 비참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룡천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었다.

그런데 항상 폐쇄적이고 감추려고만 하던 북한이 이번 사고는 외부에 공개를 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사고가 심각하고 자존심보다는 도움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발벗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구호품으로 의약품과 복구자재 및 장비, 식료품 등을 보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정성을 보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룡천 사고 소식을 들은 이후로 국민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 우리 마음을 북한이 알까?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마음을 모아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우리 마음을 북한이 알아줄까?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일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 일로 북한 사람들이 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우리의 손을 잡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핵무기나 전쟁이라는 위험한 말보다는 '통일 한국'이라는 지구촌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될텐데...

북한에 큰 슬픔이 되었던 룡천 사고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북한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테니까.

임진강 황포돛배가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정이 가득 담긴 통일의 노래를 북녘 땅으로 실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최우수

휴전선을 지우기만

허진선 | 부원여중 3학년

세계지도가 앞에 놓여 있다.

집어든다. 손끝으로 더듬어 「아시아」라는 대륙을 찾는다. 손끝은 이미 미국이라는 광활한 땅과 안데스의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며 지쳐서 맴돈다. 손끝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반도나라에 머무른다. 작고 또 작은 이 나라를 쓸던 손가락은 남쪽 끝 푸른섬을 거치고 오다가 북쪽에 다다른다. 한 마디도 안되는 그 구간을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이질감이 흠뻑 느껴지는 붉은 점선…

손끝은 마침내 그 곳을 넘지 못하고 거두어진다. 통일을 웃으며 ‘소망’ 이다라고 소들을 실어가던 그곳 너머에는 아직도 희미한 총탄의 향과 잔재가 잊지 말라 하고 있다.

지구행성, 아시아대륙, 대한민국,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눌러 그은 자국이 역력함이 분명한 붉은 점선…

우리는 그것을 ‘휴전선’ 이라 쓰고 ‘굵은 상처’ 라 읽는다.

몇 년째, 대한민국은 통일시대에 도래할 듯, 뒷걸음칠 듯 고비를 겪고 있다.

칠천만 인구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흥얼이고 북녘의 반쪽이 멍이 들면 남쪽의 반쪽은 피멍섞인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한가족현상은 「한겨레」라는 말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하나의 영혼과 두 개의 육체로 50년이 흘렀다.

얼마 전 천연기념물인 고라니를 밀착 관찰한 다큐를 본 적이 있다.



4km 남짓한 그 구간에는 생명이 넘쳤다. 가장 위험지대라 여겼던 그 구간에는 야생초이며, 야생동물이며 남한의 애써 가꾸어 놓은 녹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명들이 그 곳에서는 마음대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한없이 느리고 평화로운 영상을 보면서 나는 한없이 모순을 느꼈다. 영화 속에서, 아니 현실에서 긴장감이 넘치던 그 곳에서 생명들은 자유롭게 하늘아래 숨쉬고 있다니, 역시 인간의 손이 떠난 곳이 가장 평화롭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맛이 느껴지는 생명의 그 곳, 우리는 비무장지대라 부른다. 통일교육을 받으면서 매년 똑같은 교육에 심한 갈증을 느꼈다.

왜, 어찌면, 어째서 동화 같은 꿈이야기만 하는 걸까. 현실은 총탄이고, 눈물이고 피명인데 어째서 하나의 한겨레라는 당연한 이야기들만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늘어놓는 걸까.

이제는 그만 들을 때도 되었는데 언제나 우리는 현실과 먼 꿈의 통일만 염원해야 하고, 정작 진실한 통일의 길은 극소수의 어른들만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 우리 4천만이 한 생각이 아니고 유연비어와 억측이 난무한데, 이념이 다른 7천만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통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삭제없고, 생략없고, 시나리오 없는 액면 그대로의 현실교육말이다. 분홍빛 하나 된 미래는 가르치고, 양면인 어두운 이념싸움은 가리고 묻어 버린 교육은 머리따로 마음따로의 결핍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통일」이라 쓰고 「반쪽 찾기」라 말한다.

휴전선을 지우는 일에 앞서, 우선 휴전선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휴전선」이라 긋고 「생이별의 칼」이라 읽는다.



최우수

휴전선을 지우기며

이 주 경 | 강화여고 2학년

유난히도 노을이 질던 그날, 나는 먼 미국땅에서 만난 한국을 잊을 수가 없다. 한국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워싱턴의 내셔널 몰. 그곳에서 느꼈던 영혼의 울림은 아직까지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

커다란 대리석 비를 따라 걸으며 나는 수많은 얼굴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용사들 중 사진이 남아있는 이들의 얼굴이다. 비록, 차가운 돌에 새겨져 있지만 생생한 그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과 대면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 잠깐 동안 나는 다시금 서글픈 마음에 잠긴다. 자신의 이름 석 자만을 남기고 떠난 우리전사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펜시리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건 상처난 과거 때문일까, 무기력한 현재 때문일까?

“언젠가는 그 날이 오겠지.” 통일에 대한 나의 물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메아리가 울리듯 막연한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웃나라의 소식을 전해듣는 기분에 사로 잡히곤 한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다. 분단된 조국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렸다.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가 될 ‘우리’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날’이 다가온다면 가만히 기다리는 일만이 우리의 최선이 될까? 그들은 스스로를 통일에 대하여 생략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하늘보다는 시계를 더 많이 보는 그 눈빛들에게 나는 또 다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전해지는 마음의 소리. ‘먹고살기에도 바쁜 세상. 나중에 되겠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IMF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내린 결론 역시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은 아마 꿈속에서 일어나는 동화같은 이야기가 된 것 같다. 동화 속에 언젠가 나타날 왕자를 기다리는 나약한 공주의 모습, 지금 통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통일은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듯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완성된 집이 없는 것처럼 완성된 통일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만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의 열쇠가 될 것이다.

서로 극이 다른 자석은 떨어뜨리려는 순간부터 다시 붙으려고 한다. 지금은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서로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하나로 뭉쳐 반드시 강하고 밝은 빛을 뿜아낼 것이다. 이것으로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들도 모두 녹일 수 있으리라. 과거의 눈물도 씻을 수 있으리라.

하나였던 민족이 서로 총구를 겨누기 시작한 순간부터 통일을 향한 날개짓 또한 시작되었다. 하나가 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형제들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기고 간 정신은 아직 우리 가슴에 살아 있다.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었던 그들의 용기는 식어버린 육체 안에서도 뜨거움으로 남겨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숭고한 죽음을 생각하며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만 한다. 하나로 향하는 길목에서 겪는 어려움과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피와 땀으로 다져진 기초 위에서 있다. 더 이상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하거나 피할 것이 없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찾기보다 '어떻게' 현재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자.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우리가 주인공이 될 아름다운 '그 날'을 맞이할 것이다.

붉게 타오르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고, 하늘은 어느샌가 옅은 쪽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Freedom is not free' 라고 새겨진 기념비 앞에 한참을 서서 그 문구를 내 가슴속에 되살려 보았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그것을 갈망하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의 몫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 셔넬 물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통일의 날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 모두가 주인공이 된 연극의 행복한 결말을 상상하면서...





바람이 불니다. 빠꾸기도 옵니다. 초록이 가득한 숲속은 나뭇잎이 서걱이는 손짓들로 부실히니다. 6월 어느 날 이 숲속에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숲속 나뭇잎처럼 서걱서걱 글을 적어 갑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피 흘리던 전쟁이 있었던 그해 6월의 숲속도 지금만큼 편안하고 아름다운 초록색 세상이었지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지요. 가끔은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깔깔거리고... 좋은 때가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겠지요. 옛날에는 싸우고 피 흘리는 아픔으로 만났겠지만 이제는 헤어졌던 것들이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나니까요. 끊어졌던 길들이 다시 이어지고, 헤어졌던 가족들도 그 길을 통해 다시 만나고, 남과 북의 군인들도 다시 만나고 이런 날들이 계속 계속 만들어진다면 헤어짐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휴전선이 가까운 통일 동산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북한 하늘도 이곳처럼 파란색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숲의 색깔도 이곳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강물 색깔만 남과 북의 헤어짐이 아픈 탓인지 아주 흐린 황토색으로 슬프게 보였지만요...

바람이 불니다. 늘 푸른 사철 단풍의 나뭇잎이 마치 내 작은 다섯 손가락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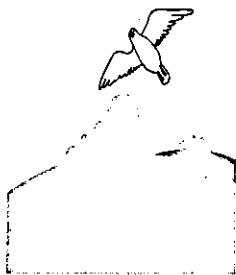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청소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깨끗한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함께 어울려서 이 세계를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면 훨씬 더 깨끗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또 바람이 불니다. 띄어쓰기가 잘못 되어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씁니다. ‘ㄴ’이 ‘ㄹ’ 같아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씁니다. 휴전선도 분명 잘못된 선긋기 같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싶습니다. 내 작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꼭 들어오는 휴전선 지우개를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 북쪽 땅을 가 본적이 없습니다. 이 지우개로 휴전선을 지우고 나면 북쪽 친구들도 내 마음과 같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휴전선 지우개는 마음으로 꿈꾸는 것이지만 지금 이어진 길들을 통해 남과 북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휴전선 지우개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주 길고 튼튼한 가시철망도 모두 지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부는 바람이 6월의 초록색 반짝임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전선 지우개를 나누어 주는 바람이 불니다.





우수

통일을 부르는 노래

김수아 | 가화여중 2학년

나는 몇주 전 생긴 룡천역 폭파 사건에서 다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눈이 실명된 아이들, 처참히 부서진 건물들, 물자가 모자라 지원을 받는 북한의 현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한반도는 50여년 동안 분단생활을 했다. 하지만 '북한' 이라고 하면 한민족으로 동질감을 느낀다. 룡천역 폭파사건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통일을 하면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도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남한의 경제만 어려워진다' '이산가족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요즘 청소년들은 6.25전쟁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열정적이지 않다. 단지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텔레비전으로 보고 배운 게 전부다. 내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도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늘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북녘 땅을 향해 묵념을 하신다. 내가 여쭙어 봤더니 전쟁 당시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형과 많은 군인들을 애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언제나 전쟁을 얘기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전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 국어시간에 배운 '기억속의 들꽃' 은 전쟁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주제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통일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 북한과 태도, 행동,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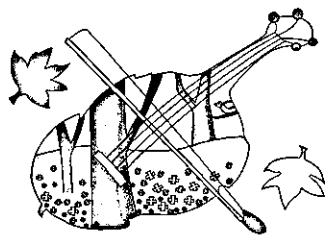


가 다르다. 하지만 TV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를 말한다는 말이 있듯 북녘 땅의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살기위해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나는 가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노래를 부르곤 한다. 그럴 때면 친구들은 '너 소원이 통일이야?' '거짓말하지마.'라고 핀잔을 준다. 그래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있을 뿐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하는 말은 아니었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젠 우리 세대에 통일을 이뤄야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내야겠다.

통일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다. 다른 내용으로 공부하고 다른 정치환경에서 산 북한 사람들과 하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결코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그 날
분단이란 단어에 획을 긋는 그 날
비로소 완벽한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분단 이후 늘 그려왔다. 하지만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 혼자 힘겹게 그렸던 것 같다. 분단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그리 간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들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난 솔직히 북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우리의 도움을 받는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독단적인 정권이 나에겐 숨이 막혀 버릴 것 같은 세상이었다. 그리고 통일을 안한다 해도 '우리에겐 손해 볼 것이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왜 북에게 물자를 대주는지 불평을 하며 '그 물자로 차라리 우리나라 불쌍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부끄러웠다. 난 어리석게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조차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만 생각했다.

아무리 늙고 아파도 북에 계신 부모님, 형제를 만나기 위해 링거주사를 맞으면서도 만나러 가는 장면들과 그 만나는 날을 며칠 앞에 두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었다.

만약, '나의 상황이라면' 하고 생각하니 압담했다.



또한 여태껏 혼자 그려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통일의 그림을 나도 같이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아픔을 나누며 통일의 그림도 같이 그려야 할 의무감마저 들게했다.

요즘들어 북과 교류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마다 ‘통일이 되기는 할까’ ‘언제될까’ 기대반 걱정반이다.

‘룡천역’ 사건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모금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은 깊다라고 느꼈다. 또한 한민족이다 보니 민족애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통일의 그림을 한획 한획 그려나가고 있다.

가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방해하는 무리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의 통일 그림이 완성되면 정치적, 경제적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우리의 그림 그리기를 방해한다. 인권주의를 내세우는 나라이면서 우리의 아픔을 생각않고 방해만 한다. 그래서 우린 더 통일을 해야한다. 지금도 조금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슬프다.

자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남과 북은 강대국들의 희생자 같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보다 슬픈 건 없는 것 같다.

난 왜 서로 총을 겨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같은 형제들끼리...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통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북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 것인지 그리질 않는다. 그 아픔답고도 슬픈 그림은 우리가 받은 완성해가고 있으니 받은 북이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림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그림이 빨리 완성되길 바란다. 북이 마음을 빨리 열어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과 가족과 떨어져 살아 가슴아파 하고 있는 상황이 빨리 끝나고 슬프면서 아름다운 그림보다는 항상 아름답고 기쁜 그림을 같이 그리는 날이 오길 바라며...





통일을 부르는 노래

이 임 주 | 인천주안남초 6학년

며칠 전, TV로 북한의 룡천역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사고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피해도 커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TV로 본 북한의 상황은 처참했다. 폭발로 인해 폭파여 있는 땅과 다 무너져 내린 건물들의 잔해는 전쟁 후의 폐허를 연상케 했다. 그리고 겁을 먹은 아이들, 다쳤지만 치료할 약이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돼지 저금통을 들고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텐데... 너무 아쉬웠다. 정말 통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다시 한번 내 가슴속 깊이 느꼈다. 그 후 전국적으로 북한을 도와주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배와 트럭에 가득 실린 구호물자와 장비들이 북한으로 수송되는 것을 보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다. 마치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50년 전의 기억하기도 싫은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만 했던 형제 자매들이 모두 손을 잡고 만나게 되는 그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몇 번의 이산 가족 상봉의 기회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한민족이다. 얼굴색도 언어도 같은 똑같은 민족이다. 이 민족이 합쳐져 하나가 된다면, 7,500만명의 단결된 마음으로부



터 분출되는 국력은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셋째로, 남한의 뛰어난 인적 자원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세계 여러 선진국 못지 않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육로를 통한 무역이 가능해진다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머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해마다 늘어가는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대외적으로 올라감으로 인한 효과는 실로 놀라울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남한과 북한은 오랜 세월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차이가 너무나 크고, 서로를 생각하는 편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오랜 세월만큼이나 그 골의 깊이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생활은 남한에 비해 30년 정도 뒤쳐져 있고, 경제 또한 소달구지로 복구하는 통천역을 보면 훨씬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진 말과 정치적인 성향 또한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평화 속에서 통일일을 이루어 내리라 믿는다.

현재 금강산 육로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고, 철도가 연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개성, 신의주 등에 공단 설립을 추진하여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준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이제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태양처럼 희망이 샘솟는
통일의 그 날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과 나라로 다시 태어
날 그 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통일을 부르는 노래

김미영 | 명현중 3학년

‘평양에서 서울은 반나절 거린데, 이 강산은 왜 이다지도 멀기만 한지,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열려서 마음 대로 오고가는데 차가 없어 못가나 길이 막혀 못가나 핵우산을 거두고 철조망을 지워버리고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덩실 춤을 춰면 좋겠네.’ 텔레비전이 웅웅거리며 노래를 부른다.

“그런 구식노래를 아빠는 들어?”

불평이 가득한 동생이 채널을 돌리라고 볼멘소리로 재촉했다. 나도 채널을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싫지는 않았다. 코미디프로에서의 개사된 북한의 노래, 작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관중석을 따라 흘렀던 고운 노래를 잊지 못해서인지 왠지 노래를 부르면 마음 한 구석이 묵직하고 지금이라도 통일이 될 것만 같았다.

후전 후, 50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남한은 기쁨의 합성을 지를 수 있었지만, 반면 경제악화와 굶주림에 울부짖는 북한은 최근 룡천 폭발로 인해 더욱 아파하고 있다.

남과 북이 하나였던 그 전, 노래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힘든 일을 하여도 모두 하나되어 부르던 그 노래는 우리가 지쳐도 웃게 해주었고 사랑으로 붉은 강을 연상케 했던 월드컵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이같이 노래는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의 한국을 탄생시켰다.



분단국가로서 이산가족의 아픔과 전쟁재발의 위험성이 함께하는 한반도, 하나된 한반도의 모습은 화합의 노래가 불리워질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통일을 하면 국민의 소득차이나 통일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져다준 문화적인 이질감 해소가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같은 땅, 같은 피가 흐르는 같은 민족일지라도 언어, 문화, 사회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독일은 통일하기 전에도 끝없는 교류를 통해 하나임을 잊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도 예전의 노동요같은 노래와 더 나아가 남·북의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를 통해 반쪽의 우리 역사를 되찾고, 그들이 사는 모습과 환경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한해가 지난 후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르듯 어느새 통일이 우리 곁에 가까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요즘에서야 북한과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좀더 나아가 민간단체나 학생들 사이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곡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연주하는 이와 화합이 필요하다.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완성시키기까지 많은 청중의 박수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감탄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적 교류를 통해 북한을 알고 이해한다면 한반도에서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화합의 하모니가 전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 위해 지금도 우리는 통일을 향한 노래를 부른다.



눈물이 흐른다. 우리 할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TV로 이산가족들의 감격스런 재회의 장면을 말없이 응시하며 우리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두고 온 그 땅의 가족들을 생각하시는지 화창한 봄에 진달래, 개나리 꺾으며 온 산을 헤집고 돌아다녔던 동무들을 추억 하시는지 할머니의 머릿속, 가슴 속에는 철없는 어린 손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생각이 들어 있어, 그 생각들이 할머니의 눈물샘을 콧코 찌르는 모양이다.

우리 할머니의 고향은 머나먼 그 땅, 가까운 그 땅 바로 북한의 '웅진' 이란 곳이다. 6.25전쟁 때 피난을 오셨다는데, 그 때 가족이 다 오지 못하여 할머니의 오빠들과는 가슴 저미는 생이별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생사도 알길 없이 오갈 수 없는 남과 북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흘뿌린 눈물은 얼마나 많은 한과 슬픔을 담고 있었을까? 가라막힌 그 곳을 바라보며 끝없이 내쉬던 한숨에 가슴은 타들어가 시켜면 재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에 갔을 때, 백두산에서 갈 수 없는 '그 곳'을 바라보며 눈물만을 흘리시던 할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태극기 휘날리며'란 영화를 보고 또 보셨다면 할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렵듯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이 분단의 아픔을 몸소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분단의 과정을 단순히 이념화, 과정화시킨 주입식 교



육만을 받아오던 나에게 6.25는 단순한 이념다툼이었지 개인의 희생이 담겨있는 피의 역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항상 이맘때쯤 되면 곳곳에서 실시하는 '통일 글짓기 대회'를 분단된 국가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생각해 왔던 나는 사실 '통일'을 막연히 해야하긴 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세계의 일'처럼 여기곤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념의 '이'자도 모르는 한 사람을 전쟁광이 되어 미쳐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그것.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적출돼 나와 그렇그렇 눈물 맺힌 눈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한 사람을 매정하게 쏘아 죽여야만 하는 상황, 섬뜩하도록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 역시도 미쳐버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 얼마 전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며 그것을 즐긴 '윈다'라는 여성 군인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믿지 못하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에 승자와 패자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다. 특히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 모두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에 깊게 패인 골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햇볕정책을 실시한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에만 젖어서 서로를 '적'으로만 보아 왔던 남북 관계도 서서히 변하여 이제는 '화합의 시대'가 열렸다. 이산가족 상봉도 여러 차례 하였고, 남북 회담도 열리고, 청소년들도 북한을 가장 가까운 '동지'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물론 아직도 북한의 변화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나는 통일은 '콩나물 기르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듯 하지만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과 화합의 정신은 분명히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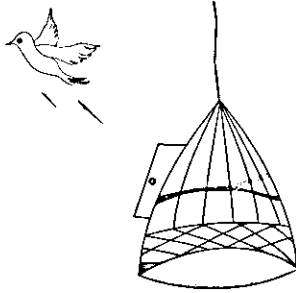


리 민족을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 것이다.

신문에서 보니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한다. 우리 할머니의 눈에서는 또 한스럽고 애절한 눈물이 흐를 것이다. 우리 민족의 눈물이다. 또 우리 민족만이 닦을 수 있는 눈물이다.

할머니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그 날이 오길 기원해 본다.





광주광역시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냉정한 이론보다 하나라는 믿음을
- 단물 어린 임진각에 다녀와서
- 하나로 피어나는 꽃
- 한 걸음 한 걸음씩
-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 끝나지 않는 아픔
- 종이비행기는 지금도 날고 있다
- 통일만이 길이다





최우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영중 | 무등초 6학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원한다.

6월이 되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6·25전쟁 기념일이 있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지 54년이 된다.

몇년전 내가 유치원에 다닐때 일이다. 나는 아빠, 엄마와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간 적이 있다. 국립묘지에는 수 많은 묘지가 있었다. 아빠는 그 묘지에는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때 아빠, 엄마와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오늘, 학생 통일 글짓기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산가족이 된 분들이 많다. 얼마전 TV에서 보았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팔순의 어머니와 육순의 아들이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장면이었다. 그 육순의 할아버지는 내 나이만큼 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과 이별을 했을 것이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도 수십년 동안 이산가족들은 서로를 그리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외에도 여러 이산가족들의 감격적이고 슬픈 상봉이 있었다. 내가



만약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동생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이런 상상으로는 그 분들의 슬픈 마음을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얼마 전 북한의 룡천이라는 곳에서 큰 폭발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모금도 하고 수 많은 구호물품을 사랑과 함께 보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 주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한 핏줄이고 사랑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한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기 때문이다. 또 2002년 월드컵때 보여 주었던 단결력과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는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고속철도를 타고 북한을 여행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냉정한 이론보다 하나라는 믿음을

박유미 | 금당중 2학년

중학교에 들어와서 해마다 통일문제 활동에서 통일에 관한 글을 써본 나이지만, 아직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익숙치 않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영어단어 중에 Unite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단결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통일은 영어로 Unity라고 부른다. 즉, 통일은 하나로 뭉친다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말이다.

TV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한국인이라면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산가족이 흘린 눈물에는 분단된 남북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서러움과 서로 헤어져 소식조차 잠잠했던 60년 동안의 그리움이 담겨있어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들도 행복하게 살텐데... 이산가족들 대부분은 남북통일을 꿈꾼다고 한다. 그럼 남북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신문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남한사람들은 통일 찬성 40% 반대 55%로 나왔고, 나이가 어려질수록 반대율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찬성의견으로는 통일을 하면 땅이 넓어져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반대의견은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을 돕느라 남한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왜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어쩌면 그들은 일제 때 일본에게서 겪은 크나큰 고통



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아직도 남겨진 것처럼 6.25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좋지 않은 개인감정을 무조건 앞세우기만 한다면 통일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첫째,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없앨 수 있다. 몇 년 전 북한인들이 남한에 몰래 침범하려다 서해안에서 들통이 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통일문제가 더 멀어지게 되었고, 두 나라 사이에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게다가 서로가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는 커녕 적개심만 강해져 비무장지역에서도 서로 눈을 흘겨가며 38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도 차츰 나타나게 되었다. 아무리 정상회담 등 북한과 남한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게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독재정치를 하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들 역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북한도 우리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편견을 없애야 한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되는 듯한 세상에서 진실된 마음이 요구되는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통일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정치인들과 국민단합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합되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국가내의 또다른 금들이 생길게 분명한데 그로 인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어서 안될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하는 것보다 그들과 우리는 같은 핏줄에서 나온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곳이 없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북한의 국명과 국기, 사람들의 궁핍한 생활모습에서 공산주의국가라는 것까지 배우지만 막상 배우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인격이다. 교과서에



는 그저 공산주의 국가체제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엄격한 교육을 받고 나쁜 쪽으로 인격을 짐작해 북한인들을 오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와있는 북한의 이론적인 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과 우리는 한반도의 한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번 자신의 두손으로 박수를 쳐보자. 다음에는 한손으로만 박수를 쳐보자. 당연히 두손으로 박수를 쳐볼 때에는 소리가 날 것이지만, 한손으로 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고 두손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 짹 ’ 하고 박수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 박수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들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남북분단도 박수와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남한과 북한도 박수처럼 둘 다 있어야만 우리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말,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유류를 실은 열차가 폭발해 수천명에 도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을 돕자는 운동이 정부와 적십자사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졌다. 이번 폭발사고가 너무 큰 탓이기도 하지만 북한 동포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만큼 우리 사회가 점차 성숙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긴 했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로 작용해 남북의 정을 더 두텁게 쌓아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닌 두 나라이지만, 박수와 같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 속에서 우뚝 자라 서게 되는 한반도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장점을 중심으로 살려 좋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두 나라의 국가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국기는 어떤 걸로 하며 수상은 누가 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혼란스러울 것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며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이루어져야 국가 내에서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진실된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눈물 어린 임진각에 다녀와서

이애리 | 대광영고 2학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철조망이 우리의 마음까지는 갈라 놓을 수 없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사시는 큰엄마와 있었던 일이다. 큰엄마께서는 내게 꼭 가 봐야 하는 곳이 있다며 나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셨다. 귀찮은 듯 따라 나섰지만 그 곳에 가는 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낯선 풍경들의 매력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사나워 보이는 철조망 건너의 강과 군데군데 보이는 군인 아저씨들, 그 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목적지에 곧 도착했고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나는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날이 휴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다. 길바닥에 상을 차려 놓고 절하는 어떤 아저씨, 어딘가를 향해 대성통곡하는 할머니, 심지어는 어떤 슬픔을 이기지 못했는지 실신지경에 이른 사람도 보았다. 과연 어떤 것이 그들에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했는지 궁금해졌다. 큰엄마께 그 까닭을 묻고 싶었지만 큰엄마의 표정 역시도 다른 때와는 달리 무거움이 묻어 보여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광경을 다 구경하기도 전에 큰엄마는 말 없이 나를 다른 어디로 데려갔다. 그 곳은 방금 내가 떠나온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마치 사람들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말이다. 사람들 사이를 힘겹게



비집고 겨우 내가 이른 곳에는 딱하니 철조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겨우 이 철조망을 보러왔더니, 뭐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껏 고생해서 이곳에 왔던 것이 후회스럽고 실망감도 컸다. 그래서야 큰엄마는 내게 첫 말고리를 트셨다.

“애리야, 이 철조망을 양손으로 잡아봐. 큰엄마가 하는 것 처럼.”

“이렇게요? 근데 왜요?”

“여기가 어딘줄 모르지? 이 곳은 임진각이라는 곳이야 이 철조망 바로 건너편이 북한인데 믿겨지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곳이 북한이라니, 먼 곳 인줄만 알았던 북한이 안개를 머금은 채 눈앞에 ‘짹’ 하고 펼쳐져 있었다. 아까는 갈길을 막아서 미웠던 철조망에 다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런데 곧 철조망이 아까전 보다도 더 미워져 버렸다.

왜, 이 곳의 철조망은 나를 저 건너편으로는 더이상 가지 못하게 막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 곳에서 푹 주저앉았다. 그리고 철조망 사이로 힘겹게 손가락을 집어 넣어 철조망 건너편의 땅을 만져 보았다.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웬지 이제껏 내가 그리워 했던 곳 같았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어린 이곳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까 본 이상한 행동들의 까닭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내 주변을 둘러 보았다. 그때 나는 어떤 할아버지의 눈물을 목격했다. 자글자글한 주름들 사이를 타고 내리는 가냘픈 눈물, 이제는 통곡할 힘조차 없어 보이는 등허리, 그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온 듯해 보였다. 가슴이 아팠다. 마치 내 일인냥… 무엇이 그들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인가? 철조망이? 군인이? 아니면 쓸데없는 이념들이?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몸 속에 버젓이 흐르고 있는 혈액의 뜨거움을 식힐 수 없고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5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앞에서도 그 할아버지의 온 가슴속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그리움처럼 말이다.



나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 이산 가족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생각을 해왔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저 강을 채우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이 곳에 와서 느낀 보람이 딱 한가지 있다면 북한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절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 모두가 지닌 일체감이라는 것일까?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임을 마음 속에 되새겼다. 하루 빨리 철조망 너머의 북한땅을 손가락이 아닌 몸 전체로 어루만질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보란듯이 철조망 사이를 헤치우며 당당히 북한 땅, 아 니 우리의 땅을 볼 수 있겠지?





‘콰~팡’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튀는 불꽃, 텅구는 두 열차,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 가야 했던 내 또래 친구들... 뉴스를 보며 했던 생각이다.

‘빨리 도와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38선 때문에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 가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팠다. 대한 적십자회, 많은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의료진과 구호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사랑하는 부모, 친척, 친구에게 이별인사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불쌍해 성금을 내셨다고 한다. 모든 일에 앞장서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북한 통천사건이 일어나면서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아지도 어미와 새끼를 떼어 놓으면 ‘끼잉 끼이잉’ 하며 잠을 잘 못 잔다. 그리고 다시 붙여 놓으면 어미는 새끼를 혀로 핥아 주고 새끼는 어미 품에서 젖을 먹는다. 얼마나 평화스러운 장면인가... 우리나라 이 산가족들도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언젠가 책에서 읽은 것인데, 우리 나라 사람이 원주민 마을을 여행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자 어느 쪽이냐고 묻는 흑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원주민조차 우리나라가 분단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끄러웠다.

자랑스럽게 “통일된 나라 한국에서 왔다”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통일이 된다면 군사비로 쓰였던 돈을 통일비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 줄 것이다. 또 룡천 열차 사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때도 힘을 모아 빨리 의료진과 구호품을 보내 주어 인명피해를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사람이 합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 북한 어린이도 남한 어린이도

“우리 나라는 좋은 곳이야”하고 불렀으면 좋겠다.

자연의 꽃들은 자연의 품 속에서 한 줄기로 땅의 영양분을 작고 부드러운 잎으로 환한 햇볕을 받으며 함께 자란다. 우리도 하나로 피어 이 땅의 공기와 음식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겠다.

세계 유일의 마지막 분단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하나의 아름다운 평화 통일의 꽃으로 피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나의 소망과 희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튼튼한 체력과 마음으로 다하고 싶다.





우수

한 걸음 한 걸음씩

김영주 | 주월중 2학년

우리가족은 이산가족이 아닐뿐더러 통일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표어, 포스터, 글짓기 등의 통일에 관한 숙제를 할 때, 아무 느낌없이 ‘한 겨레 한 민족’과 같은 주로 흔한 주제로 제출했던 것 같다.

이산가족상봉 장면이 TV에서 나오면 서럽게 우는 모습에 덩달아 나도 코가 찡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사람들의 말투와 촌스럽게 느껴지는 옷차림, 이해하기 힘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그들의 엄청난 공경심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내 몇몇 친구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물론 세계 속의 한국이 더욱 우뚝 서게 될 기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못 사니까 그렇다.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대립되는 사상이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남한 운동회의 콩주머니 던지기 종목과 대조되게 당크 까부수기라는 험악한 종목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부감이 들었다.

지금 남·북한은 사용하는 언어도 각자 다르다.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 슬리퍼는 끌신, 축구에서의 코너킥은 구석차기 등등. 외국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남한과 그것을 고유어로 바꿔쓰는 북한 사이의 언어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차이가 계속되면 언젠가 우리는 언어도 풍습



도 문화도 아예 다른 타국이 되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싫다! 남북은 갈라진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고, 피를 나누는 가족들이 아직 살아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낡은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고, 남북으로 나뉘졌을 뿐 우리는 같은 Korea니까. 비록 오랜세월이 흘러 많이 변해 버려 이해하기 힘들어도, 철조망은 아직도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처럼 이대로 멈춰서서 서로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서는 안 된다. 너무 조금하진 않게, 그러나 절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을 염원하는 그 어떤 시에서처럼 언제까지고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철조망으로 갈라진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져 있는 반쪽짜리 한반도를 말이다.

그래서 나는 통일한국을 바란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하나'를 염원하는 마음이 통일이 될 그 날까지 이어지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면, 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박수용 | 동신여고 2학년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첫 남북 정상회담.

그 해 서로간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남북 공동 선언... 이는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의 마음 속에 기대와 희망을 갖게해 준 가능성 그 자체였다.

그 후로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는 통일을 위한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통일은 예나 지금이나 또는 미래에도 우리가 꼭 성취해야 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과 기름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 서로 섞일 수가 없지만 어떠한 다른 액체를 가미시킬 때 비로소 섞일 수가 있다.

이처럼 남과 북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결국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한 채 통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서 서서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일의식을 마음 속에 가지고 그 가치를 확고히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던지 그대로 분단이 계속되던지 간에 상관없다는 무관심적인 안일한 그 태도 하나하나가 통일을 지연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최대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어떠한 난간과 장애가 가로막더라도 통일의지와 신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교류의 단절과 사상적 대립으로 인해서 문화나 언어 등의 많은 차이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조화시키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남북의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제반분야의 협력적 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안건이 있었다. 그 동안 TV나 왕래 공연, 스포츠를 통해 서로간의 교감을 나누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빈번한 교류를 통해 공통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창조가 이루어 진다면 통일로의 첩경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예나 지금이나 국제정세를 무시하고서는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처음 분단의 시발점은 국내의 대립관계 형성 영향도 컸지만 외세의 개입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선언의 제1항에서 남북한 서로의 힘을 합쳐 자주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조항은 교류관계와는 연관성을 지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 통일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시대인 만큼 국제 사회의 변화 흐름을 잘 읽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의 차이점에 대한 해결이다. 현재 남북의 경제 상황은 남의 일방적인 구호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제 2의 서독과 동독의 관계를 재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은 결국 서독인들의 우월감을 표명해 주었고 상대적으로 동독인들의 자신감을 박탈시키고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경제상황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를 위해 제4조에서는 경제협력과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조항이 있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동포이고 상하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위선·적선식의 허세나 무시 등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감싸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국토의 통일보다도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의 물질, 정신적 통합은 세계 정세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고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날이 머지 않음을 확신시킬 것이다.





6월 6일, 현충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과 귀를 번쩍뜨게 하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53년만에 유골 상봉’ 이것이었습니다.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2리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빛바랜 사진이 나와 확인을 해보니, 꽃다운 20세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상병의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의 품에 53년 만에 돌아온 것은 옛날의 수려했던 용모가 아닌 유골 상태였으니 그 동안 생사 조차도 알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53년간의 가슴앓이는 그나마 유골이라도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끝이 나겠지요? 오빠의 유해를 마주하며 여동생이 울부짖으며 하는 말,

“오빠,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외롭게 누워 있었나요? 그렇게 날 예뻐해 주었는데...”

이 말을 들은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 형제, 자매를 이렇게 만나는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6.25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지난, 2004년 6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10만 3,000여위의 호국용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들 또한 지금까지도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생이별의 아픔과 한을 가슴가슴마다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끝이 없나 봅니다. 그 아픔은 언제쯤이나 끝이 날까요?

공산주의 제도가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민족, 한겨레가 지금까지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5월에 외할머니께서 금강산에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셔서 여행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들과 산은 나무가 전혀 없는 매마른 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깡마른 체구, 새까만 얼굴, 웃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같은 나라, 한민족인데 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다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과자나 음식이며, 옷이며, 문구용품, 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특히 맘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으로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저의 머릿속에 한참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일이 많고 제대로 된 연필 한 자루, 필통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도 어머니께 또 사달라고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북한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역 열차 폭발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가 1,300여명에 이르고, 많은 건물들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형체도 알아 볼 수 없는 정도로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녘 동포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서 학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손 쓸틈없이 부상을 당한 우리 또래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더욱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치료할 주사 바늘 하나가 제대로 없어 쓴 것을 또 다시 사용하고, 모든 의료용품과 의사들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열차 폭발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는 사람들은 북한이 고향이거나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직접 생사를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라는 심정으로 제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갈 수도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면서 말합니다.

언제쯤이나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어깨동무를 하고 아리랑을 기쁘게 목놓아 부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언제쯤 북한과 남한이 자유로이 왕래하여 우리는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가고, 북한 친구들을 광주의 명산인 무등산으로 초대할 수 있을 날이 올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하여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 소리없는 메아리가 언제나 끝이 날까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오직 그리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산가족의 아픔이 끝나고, 북한 친구들과 용기종기 모여 앉아 맛있는 과자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마음껏 웃고 싶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아픔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하늘을 향해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그런 날이 찾아오기를 가슴속 깊이 빌어 봅니다.

꼭...



종이비행기는 지금도 날고 있다

노 유 정 | 윤림중 3학년

나는 작년에 가족끼리 중국에 다녀왔다.

그 여행중 단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다. 꽤 가까운 거리였다. 저멀리로 신의주의 공장 굴뚝이 보란듯이 서있었다. 단둥과 북한은 다리로 이어져 있다. 다리위에는 기차와 자동차가 다니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도 다니고 있었다. 내 마음은 나도 저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가고 싶을 뿐이었다.

중국과 북한은 거리도 우리나라보다는 멀면서 저 다리로 자유로이 걸어갈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바로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아프다.

옆에 또 다리가 있다.

그 다리는 우리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막 뛰어갔다. 그런데 다리는 끊어져있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는데... 중간에 끊겨있었다.

6·25전쟁때 끊어졌다고 했다.

6·25전쟁이 언급되자, 나는 보았다. 외할아버지의 눈에 안개가 스쳐갔다는 것을... 또 잇따라 외할아버지 팔뚝에 크고 징그러운 흉터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외할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 하셨다. 그때 친구들과 꼭 살아돌아오자고 얘기 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하시며 소매로 눈을 훑으셨다. 그 흉터는 그때 총알이 스쳐간 자국이라고 했다. 북한



군, 같은 민족이 쓰았던 총알이 남긴 흉터인 것이다. 6·25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영혼을 위로하는 날이 6월 6일 현충일이다. 나는 사실 몰랐었다. 현충일이 그런날인 것을... 저번 현충일때, 나는 태극기를 달지 않았었다. 내 마음에도 태극기를 달지 않았었다.

나는 옛날에 내가 한국사람인게 싫었었다. 자기민족끼리 싸우고, 통일도 못하는 바보같은 민족, 나는 미국사람이나 영국사람, 독일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곧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 같은 피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6·25때 끊어진 다리끝에서 북한을 한참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저 땅을 우리민족이 모두 자유로이 밟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보았다.

좀 더 북한을 가까이서 보고싶었던 나는 배를 타자고 했다. 그 배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까지 가서 되돌아온다.

나는 가방에서 집에서 써왔던 편지를 접었다. 정말해보고 싶은 일이었다. 북한 아이들도 모두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배를 탔다. 망원경도 빌렸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편지를 정말 정성스레 종이비행기로 만들었다. '이 정도면 잘 날 거야.' 저기 북한 아이들이 별거벗고 물장난을 치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우리들의 시선을 눈치채고 배 안으로 숨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 나도 흔들어 주었다. 아! 이 때의 그 교감이란! 우리민족과 인사를 했다. 가까웠지만 멀고도 먼 아이들과 손을 흔들며 기뻐했다. 정말 내 가슴 속에서는 민족의 동질감을 실감하는지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가까웠을 때 종이비행기를 있는 힘껏 날렸다. "북한 아이들아! 우리 꼭 통일하자."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 아이들은 소리가 났는지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들에게 날아오는 비행기를 보며 즐거워했다.

나의 종이비행기는 바람을 잘 타서 멀리멀리 날아갔다. 그 종이비행



기에 써넣은 '통일'이라는 큰 글씨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가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본다. 같은 가족끼리 못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면 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나는 자랑스럽게 한국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남한과 북한은 서로 손을 잡을 것이다.

몇걸음만 더 나아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통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몇걸음 나아가면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북한아이들과 손을 잡고 뛰놀 것이다.

하루빨리 북한땅도 자유로이 왕래하고 밭을 딪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나의 종이비행기는 날고 있다.





동방예의지국, 한강의 기적, 월드컵 성공개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아시아의 네마리 용, 조용한 아침의 나라,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수식어들이다. 하나같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이처럼 멋진 수식어 뒤에 가장 부끄러운 수식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50여년 동안이나 달고 다녔다. 바로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서로를 감시하는 국가, 그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인가. 이제는 이 부끄러움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벗어날 방법은 통일 뿐이다. 이 방법을 늦게나마 깨달은 우리들은 지금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비판하고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은 다 망하는 일이야' '지금도 잘사는데 굳이 통일이 필요할까?' 등의 생각들로 우리중 상당수가 통일에 부정적이다. 아마도 그들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것 같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를 깨달아야 통일을 긍정할 것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일이 정당하고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한민족이다. 비록, 50여년동안 다른 사상으로 떨어져 지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한다.

한민족끼리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것이 한민족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가? 형과 아우가 일순간 생각이 다르



다고 서로를 믿지않고 평생 등을 지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형제라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남과북은 형제이고 통일만이 용서와 화해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민족이라는 관념적인 이유로는 통일을 긍정하기에 약할지 모른다. 그럼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 언급하겠다.

남과북이 통일을 하면 제2의 경제부흥의 발판이 마련된다. 통일로써 일단은 대륙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생산품이 대륙으로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륙진출은 선박에만 의존했던 수출입을 대륙교통까지 확장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세계의 자본과 물자는 한반도를 거쳐야 한다. 가까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유럽과 미국의 자본과 물자를 아시아와 이어주는 관개무역으로 고도의 경제개발을 이룬 것 처럼 우리도 통일로써 세계진출로를 확보하고 관개무역과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까지도 넘볼 수 있다.

또 북한에는 백두산과 금강산등 세계인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절경들과 명소들이 다양하다. 이것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관광을 적극 유치한다면 관광수입으로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통일은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해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가 절실했지만 분단이라는 위협하고 불확실한 상황의 한국으로의 투자를 꺼려했다. 하지만 통일을 한다면 안전적이고 안정된 한국이 될 수 있고, 그 동안 분단의 위협한 상황때문에 투자를 꺼려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대륙미사일을 대비한 미사일 방어선구축과 남침을 대비한 최선의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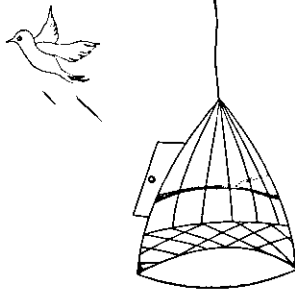
품을 사들이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 통일로써 이런돈을 아껴서 복지비에 사용한다면 대학까지의 학비는 면제될수 있고 결식아동들에게 무료 급식도 지급할 수 있다. 통일로써 아낀 국방비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은 한민족으로써 한핏줄로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경제성장의 발판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로운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직도 통일이 부정적인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기회이다. 기회를 외면하고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통일은 그저 통일이 아닌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인 것이다.





대전광역시

● 우리 가족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 할아버지의 유물

● 우리 가족의 기도

● 아름다운 정원

● 통일이 우리 가족과 같다면

● 극복되는 통일

● 낫제기에 담긴 큰 고모의 소망

● 송아지동무와 소꿉친구

● 호루라기를 불자



우리 가족처럼 이전 우리나라도

배규리 | 대전삼천초 6학년

몇 해 전, 우리나라와 북한의 감격적인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 결과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만나게 되었고, 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게 되었다.

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는 상상이 되질 않았다. 아흔 살을 넘기신 연세의 할머니께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것을 보고 웬지 우리나라가 미워질 것 같은 느낌뿐이었다.

3달 전 쯤,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오빠와 나는 큰 엄마 댁으로 가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 명절 때 가서 뵈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큰댁 식구들이었는데도 큰엄마댁에 있는 동안, 나는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을 만큼 기가 죽어지냈다. 울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소리가 날까봐 마음놓고 울 수도 없었다.

잠자리에 들며 엄마, 아빠를 얼른 만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날 엄마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빠와 나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해주셨고, 나는 그저 눈을 가리며 울기만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우리 집으로 돌아와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 직장도 잃고, 집도 빼앗긴 아빠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 보이고 어깨에도 힘



이 빠져 있었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의 얼굴을 보니 반가움과 함께 억울하고, 서럽고… 아무튼 그런 기분이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일이 잘 해결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떨어져 지낸 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 때의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고, 하루가 몇 십년 같았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50여 년 동안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손 한번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비로소 헤아려진다.

5학년 때, 여러 어머니들과 친구들이 함께 갔었던 민통선, 망원경으로 직접 보았던 북한의 풍경이 생각난다. 한 군인 아저씨께서 지휘봉을 들고 밖이 보이는 창문을 통해 하나씩 설명해 주셨다. 영화에서만 보았던 판문점도 조그맣게 보였고 망원경으로 500원짜리를 넣어 보았던 북한의 펄럭이는 인공기와 올망졸망 모여있는 집들도 놀라웠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다정한 모습으로 모여 산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 땅인 북한을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북한에 놀러갈 날이 오겠지?’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다.

‘입체영상으로 보던 민통선의 풍경은 마치 놀이공원처럼 여러 동물도 뛰어다니고 꽃들도 바람에 날려 아름답고 즐거워 보였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다. 북한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은 철사 그물망에

‘평화통일 꼭!’

‘통일되는 날까지’

등 노란색 천에 쓰여있는 그 소망들은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북한의 룡천역 폭발 사고에서도 우리나라가 식량과 옷으로 도와주었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서로 도



와주기만 하면 좋으련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엄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을 사퇴했고, 담임선생님의 격려로 간신히 맡게 된 학급 임원 일도 많이 도와주시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 네 명이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경험으로 어려움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우리 가족처럼 우리나라도 곧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오늘밤에는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이 한 버스를 타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여행 다니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최우수

할아버지의 유물

안민지 | 대전여중 1학년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나 북한의 소식이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날이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놓으시고 텔레비전에 다가가 앉으십니다. 얼마 전 ‘뫼천역 기차 폭발 사건’이 보도되던 날도 역시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폭발로 학교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화상을 입고도 치료약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한 침대에 두서너 명의 아이들이 누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할아버지의 눈길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보내는 구호 물품들이 육로가 아닌 배로 운반되는 장면을 보며 이것이 분단의 아픔과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과 이념을 앞세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구상에 같은 민족이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허리가 잘려 있어 이젠 문화나 환경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반찬 투정을 하고 있을 때 북의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통일만 된다면 이처럼 가슴아픈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순간에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 생기는 아픔을 저는 바로 옆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어릴 적 북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피해 남으로 오게 되셨고, 그 와중에 한 분뿐인 형님과 헤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척 모두 무사히 남으로 내려왔는데… 그 날 이후 지금까지 형님에 대한 생각에 한시도 마음 편하실 날이 없으셨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고 난 후 할아버지의 가슴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눠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는 것밖에는…

드디어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금강산 여행을 통해 북녘 땅을 밟으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할아버지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경치보다 북의 땅을 밟는다는 것이 너무도 기대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땅 냄새를 맡으며 고향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지만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형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셨다고 합니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살아는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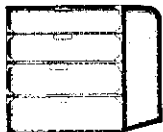
목이 터져라 외쳐 보아도 메아리만이 되돌아 올 뿐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마치 형님인양 손을 잡고 농지를 앞으셔서 안내하시는 분께서 무척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떠나오는 배 안에서도 다음에 다시 올 때에는 꼭 형님을 만나 손잡고 돌아가겠다며 통곡하시는 바람에 주위 분들께서도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합니다.

북에 다녀오신 할아버지께서는 며칠동안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북에 계신 형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셨나 봅니다. 그런 할아버지 모습에 어린 저도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늘 그리움으로만 간직했던 형님의 손을 잡고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얼



굴이라도 한번 뵈기만 하셨어도 정말 좋아 하셨을 텐데...

비록 가슴아픈 여행이었지만 다행히도 북에 다녀오신 할아버지께 한가지 보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유리병 안에 잘 담겨져 있는 북의 흙 한 줍입니다. 흔한 흙 한줌이지만 할아버지께는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날마다 그 유리병을 어루만지시며 나지막히 형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께서는 보물을 어루만지시며 흙 냄새에 눈시울을 적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 형님과 나란히 고향 길을 걸으며 옛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기도

김 나 경 | 대전광역시 3학년

보훈번호 13-000796 독립투사 김해인, 나의 할아버지다. 지금은 85세로 기력이 쇠하셨지만 늘 나라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시다. 수차례 옥고를 치른 탓에 늦게 자식을 낳았고 또한 자식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늦게 신학을 하여 지금은 장태산 깊숙이 묻혀 농사를 짓고, 한편으로 기도원을 열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남북통일을 보는 것이 소원이며 그것을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신다. 사실 나는 할아버지의 업적으로 보훈 장학금을 받으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다. 실상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렇다고 이렇다할 국가관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다.

그런데 현충일 며칠 전 국어 수업시간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선생님께서 요즘의 국내외 사정을 신문스크랩을 통하여 들려 주셨고, 그에 따른 논술을 쓰도록 하였다. 미국 성조紙의 '한반도 가상전쟁 시나리오' (2003. 2. 11 00일보)에 의하면 한반도에 전쟁 발발 땐 개전 24시간 이내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북한은 세계 3위 수준인 현역병 120만명과 예비군 50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예 특수부대원 10만명은 한국의 후방에 투입되어 남한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세계 3위 수준의 화학무기와 사린 등 신경가스 작용제를 보유하고 더구나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으니 엄청난 위협이라고 했다. 북한도 시간당 50만발의 포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군 전력의 상당 부분은 지하시설로 되어 있으며 전방지역에만 지하시설이 4천여 곳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평양 등 북한의 주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지만, 남북한 모두 초토화되어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지옥이 된다고 하니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우리이지만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옆 친구와 논술 모둠 창작을 하기로 했다. 무엇을 쓸까? 그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남북통일은 먼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출발되어야 한다. 반세기 넘게 서로가 다른 이념의 체제 속에 성장해 왔다. 북한은 세습체제로 이어왔고 남한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일관되어 왔다. 모두가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로 지배되어 온 것은 아닌가 싶다. 이제 새로운 '천지개벽'을 위하여 남과 북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이산가족의 만남과 고위급 회담 그리고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통한 교류는 분명히 양쪽의 마음을 여는데 촉매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북한 룡천열차 폭발 사고 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인도적 민족적인 동포애로 저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야 한다. 그래서 저들의 두꺼운 옷을 벗겨 따스한 남쪽의 햇볕을 비춰주어야 한다. 이것이 햇볕정책일 것이다. 이제 금강산도 더 폭넓게 열리고 설악산에서 고위급 장성회담도 열렸다. 개성공단에 우리측의 많은 기업가들이 대거 입주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인건비가 싸다고 우리의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에 몰려가고 있다는데, 차라리 북한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에도 우리 조선족이 많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생활이 자유롭고 북한보다는



낮지 않은가? 나중에 국제문제가 되어 기업이 철수한다 해도 북한에 두고 오면 우리 민족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 사랑의 실천이 저들의 체제를 하루아침에 허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50년 넘게 굳어 온 이데올로기 체제가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오판으로 인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사랑의 교류가 진행되면 얼었던 마음과 그동안 닫혀 있던 불신의 마음이 녹아져 언젠가는 독일이 통일되는 그 환희를 우리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 때의 그 정겨운 응원 장면은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운동장에서의 만남을 학교에서, 종교적 장소에서, 문화행사장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물꼬를 터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흐름은 민족애의 용암이 되어 분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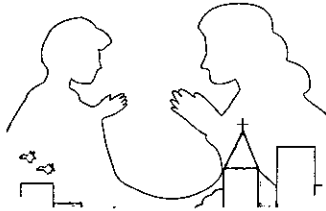
최근 미국은 이 땅에서 주한 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천천히 우리 정부와 상의하면서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결정한 모양이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안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은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소위 에치슨 라인을 발표함으로써 6.25사변을 촉발시켰다고 말씀하셨다. 에치슨 라인은 “알류우산-일본-유구-필리핀”으로 태평양 방위선을 그음으로써 한국과 대만을 이 방위선에서 제외함으로써 6.25 전쟁의 가장 큰 유발요인의 하나를 제공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주한 미군의 감축과 더불어 미국의 안보에 일본과 인도 등을 아시아의 중요 국가로 정하고 한국을 중요 방위선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생각이 아닌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자주국방의 힘을 비축하고 밖으로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우



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보여주었던 우리의 합성이 남북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철통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여호수아와 유대민족의 합성이 이 땅에도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민족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할아버지, 뭐 하시려고요?”

하얀 장갑을 양손에 끼고 현관문을 나서시는 할아버지 등뒤에 내 큰 목소리가 부딪혔다.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지난 설 때 하얀 눈으로 덮여있던 나무들은 어느새 초록잎들로 한껏 멋을 부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공구함에서 커다란 가위를 꺼내셨다.

“우와, 그 가위는 못 자르는 게 없겠어요.”

딱 벌어진 내 입을 다물줄 몰랐다. 할아버지는 빈 하늘에 ‘씩씩’ 두 번 가위질을 하시더니 정원의 나뭇가지들을 싹둑 잘라내셨다. 가위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푸릇한 나무 향이 났다.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크기도 다른 나무들이 한 데 어울려 정원을 꾸미고 있었다.

“다연아, 마지막으로 장미 덩굴을 손보자.”

할아버지는 허리를 뒤로 젖히시며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장미는 그냥 두시면 안돼요? 꽃이 되면 예쁜데 왜 잘라내세요?”

“장미가 너무 가지를 뺏어 다른 꽃들이 보이지 않잖아.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다른 식물들을 밀어내고 독차지하거든. 그러니 잘라 내야지.”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 다른 꽃들이 장미에 가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 보였다. 장미의 가시는 생각보다 날카롭고 굵었다.

얼굴은 예쁜데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공포 영화의 주인공을 보는 듯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저녁 우리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TV 주변에 둘러 앉았다.

뉴스에서는 룡천 열차 폭발 사고를 집중 보도하고 있었다.

온 몸에 화상을 입은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침상에 누워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가 깊고, 눈이 실명될 정도로 중상인데도 별다른 치료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왜 치료를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약과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나.”

혀를 꼰꼰 차시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북한에 구급 약품과 의료진을 보내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자선 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파도처럼 일었다. 구급약, 비상 식량 뿐만 아니라 성금 모음 등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마음이 모아졌다. 어려울 때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다. 이렇게 모아진 물품은 중국을 거쳐 북한에 전해졌다고 한다.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30분이면 갈 길을 돌아서 몇 시간을 거쳐 전해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정원을 손질하시던 가위였다. 무엇이든 지를 수 있을 것 같았던 가위가 장미 덩굴처럼 반세기 동안 무시무시하게 가지를 뺏고 가시를 드러낸 휴전선을 잘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이산가족의 눈물도 마를 것이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한 겹 벗어 던질 수 있다. 또 무엇보다 같은 형제끼리 결눈질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시작은 어렵다.



다른 이상과 언어, 생활이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향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한 데 어울려 멋진 정원을 이루 듯 우리도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장미만 무성하게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운다면 그 정원은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씩 양보하며 저마다의 색을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남과 북이 더 이상 가시덤굴로 허리를 조이고 있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 나갈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통일' 그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양보에서 시작한다.





통일이 우리 가족과 같다면

이상화 | 대전권저중 2학년

우리 가족은 일요일 오후만 되면 전쟁이 따로 없다. 바로 외식 때문인데 아빠는 해장국, 엄마는 칼국수, 나는 피자, 동생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취향이 서로 달라서 외식 메뉴 고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도 매번 우리 가족이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가족의 정 덕분이다. ‘일주일동안 아빠가 많이 피곤하셨으니깐 오늘은 아빠의 뜻을 따라야겠다.’ ‘이번 주가 딸애 시험이었다는데 딸이 먹고 싶다는 것을 먹어야겠다.’ ‘요즘 막내가 좀 기분이 안좋아 보이네. 오늘은 막내의 메뉴를 따라야지.’ ‘엄마는 항상 양보를 하시니깐 오늘만이라도 엄마가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게 해야겠다. 칼국수도 맛있는 것은 아니니깐 레스토랑은 나중에 가야지.’

그렇게 일요일 저녁을 기분 좋게 보내고 나면 다시 사회로 발 딛는 평일 하루하루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보낼 수 있으리라. 가족이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와 함께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의 기사가 쓰여져 있었다.

온 세계의 인류도 모두 친구고, 가족이고, 형제이다. 만일 이들이 조금만 더 가까운 형제였다면 아니,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나라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이들은 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주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 모두는 한 가족이며 같은 ‘미



래' 라는 짐을 지고 갈 길동무이다. 그런 가족을 우리가 서로 모른척하며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길동무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어도 되는 걸까?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룡천 기차역 사고로 인하여 다친 아이들을 보며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보면서 난 남다른 큰 기쁨을 느꼈다. 난 아픔 속에 가려진 아름다운 가족의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북한은 우리와 대립되어 있고 전 세계와 떨어진 외톨이라고 생각해왔었던 내 잘못된 생각을 이번에 바로 세울 수 있었다.

은 세계 언론이 북한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위해 모금을 했고 국가에서는 구호물자를 아낌없이 보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감사의 답례를 전했고 모든 이들이 북한을 친구와 가족을 대하듯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 어린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리 남북은 아직 국가원수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통일 협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산가족 상봉을 했고 매년 이맘때면 서로에게 편지도 쓰고 굶어 죽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동전도 모으고 서로의 특산품을 보내는 등 서로를 위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위하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는 법과 정치와 절차가 아니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그 사실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불품 없고 녹슨 휴전선이 무너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북한도 자신이 먹을 음식을 취하려 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길 소망한다. 통일의 그 날... 그 날이 기대된다.



아침이다. 이 날 아침은 특별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체험학습 날이었기 때문이다. 체험학습이야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액 국가 부담에, 특히 일정 중에 있는 특별한 곳 방문이 나를 끌었다. 우리는 7월 14일 아침 8시 반쯤에 모두 모였다. 그리고 언제나 간단 명료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전을 떠났다. 서울을 향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국가정보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중요 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인 만큼 관리가 철저했다. 우리는 건물의 사진 촬영조차 금지되었다. 그래서 단체 사진 촬영 시에 배경을 어디로 놓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편 우리는 건물 안에서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 입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실을 관람했다. 주로 세계의 정보기관과 한국 국가 정보원의 일을 전시해 놓았다. 나는 특히 미국의 CIA를 선두로 하는 독일, 러시아(구 소련),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세계의 정보기관들을 보면서 새삼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보원의 홍보용 비디오에서 한 말이 문득 생각났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다.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었다. 우리는 일단 그곳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기념관 외부를 관람하기 시작했다. 마침 광장에서는 전통무예 시범과 사관학교 생도들의 시범이 있었다. 생도들의 절도 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나오게 했다.

전쟁 기념관은 다 관람하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큰 규모였다. 이전에도 한번 관람한 적이 있었지만 그 때는 그리 큰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몸소 아이들을 이끌고 설명을 하시는 가 하면 우리는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참교육이었다. 또 탈북 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교육과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관람을 다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얻은 것이 많았다.

전쟁 기념관에서 나온 우리는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탈북 강사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다. 강사님께서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교육, 특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북한에서의 식량 배급은 이미 완전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1년 내내 산을 뒤지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강사님도 그랬다고 하셨다. 그리고 언제나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머지 치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한다. 기득권층 몇 명의 이익을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희생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화가 났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시간이었다. 잠자리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 오래 생각하면서 좀처럼 잠이 이루지 못했다.

어느덧 다음 날이 밝았다. 우리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이 날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가슴이 뛰었다. 하루동안 정이든 숙소를 떠나 연천으로 향했다. 내가 알고 잇는 연천은 여름에 늘 홍수가 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날 연천이 휴전선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는 김신조 외 30명이 침투했다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잘려진 철조망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었다. 그 간첩들은 과감하게도 철조



망을 끊고 침투했는데, 결국엔 김신조 한 명은 생포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살되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는 이후로 남방 한계선이 약간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실로 어이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다음 장소,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바로 판문점이었다. 우리에게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로 친숙한 곳이다. 판문점 관람에 앞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방문객임을 알리는 녹색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드디어 판문점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우리는 각각 100m와 180m에 달하는 남북한의 국기 게양대를 볼 수가 있었다. 인공기를 보자 긴장감이 더해졌다. 드디어 도착했다. 우리는 일단 근처의 전망대에서 관람을 했다. 영화에서만 보던 파란 회담장 건물과, 그리고 북한 땅이 바로 코앞이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전망대에서 내려와 회담장으로 향했다. 심장 뛰는 소리를 북한 군 병사가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긴장이 되었다. 영화에서 보던 선글라스를 낀 우리 측 병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파란집 안으로 들어갔다. 회담장은 남한과 북한에 걸쳐 있지만 그 안에서는 경계가 없었다. 회담장 밖이라면 북한이었을 그 땅을 밟았다. 가슴 한 구석이 팍 막혀왔다. ‘아, 이렇게 가까운 땅을 갈 수가 없구나...’ 북한으로 난 문은 마네킹처럼 서 있는 병사가 막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에 있는 시멘트로 된 경계를 바라보며 기분이 묘했다. 버스를 타고 오며 영화에 나왔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온 뒤 기념품 가게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을 산 뒤 우리는 JSA에서 나왔고, 민통선을 완전히 빠져 나왔다.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판문점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바로 북한 땅이건만 남북의 군사가 총을 감추고 대치해 있다니. 나는 항상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판문점이라는 곳, JSA라는 곳 다음에 찾아갔을 때에는 제발 사라져 있기를 바랄 뿐이다.



“성현아 너도 성금 내.”

회장이 모금함을 들고 다가오자,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안 내.”

“야! 너만 안내는 게 어딴어? 너 돈 판 데 썼지? 그렇지?”

“니가 뭘 안다고 그래!”

시끄럽던 반이 순간 조용해 졌다. 우리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 나를 밖으로 불러내셨다.

“성현아, 무슨 일이니?”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갑자기 눈물이 흘러 내렸다.

“우리 큰할아버지는 북한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예요.”

선생님께서서는 놀라신 눈빛을 지으시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성현아 혹시 이번 통천 사건에 대해 뉴스는 봤었니? 너무나 참혹한 상황에 모두들 무척 가슴 아파했단다. 안 봤다면 선생님은 성현이가 그걸 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도 학교에서의 일이 자꾸만 생각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우리 큰할아버지는 6.25때 북한군과 싸우다 돌아가셨다.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소식에 희망을 갖고 있을 때에도 우리 큰 고모는 북에 있는 큰할아버지의 묘소도 찾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시며 외롭고 힘들게 살고 계신다. 그런 큰 고모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 같다.

‘아마 고모는 늦으로 된 제기를 닦고 계시겠지. 6월이면 매일 그러시니까.’

발걸음을 돌려 고모 댁에 찾아가니 역시나 큰 고모께서는 오래된 제기를 꺼내 정성스레 닦으시던 중이었다.

“큰고모, 고모는 왜 아직까지 늦으로 된 제기를 쓰세요? 녹도 안 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기 많잖아요. 요새 어깨도 아프시다면서…”

“통일이라도 되어야 바꾸지… 고향도 아닌 곳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편한 것을 찾겠니.”

늦그릇에 생긴 녹이 닳여져 반질반질 윤이 나는 걸 바라보면 그나마 자식된 정성을 드리는 것 같고, 왠지 통일이 다가오는 듯한 생각에 위안이 된다. 그런데 성현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이래.”

고모의 맘이 상하실까봐 망설이다, 학교에서의 일을 말씀드렸다. 큰 고모께서는 잠자코 내 말을 들으시곤 나를 가까이 끌어당겨 따듯이 안아주셨다.

“우리 대에서 끝나야 할 것을… 하지만 성현아, 저기 좀 보라.”

큰 고모께서 가리키는 TV화면 속에는 부모의 생사를 알지도 못한 채 두 눈에 봉대를 감고 누워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성현아, 난 꼭 저 애가 내 모습 같다. 저기 저 상황이 전쟁과 다를 바 무어겠니? 내 나이 6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입지만, 그냥 앉아서 그런 걸 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니? 저 어린애 앞으로 홀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눈물을 흘리시는 큰 고모를 바라보니 내 가슴속에서도 찡한 울림이 전해왔다. 아무 예고 없이 사고를 당해야 했던 그 아이, 부모의 손조차



잡지 못한 채 두 눈을 때묻은 붕대로 감아 놓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니 너무나 불쌍해져 내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헐벗고 굶주리는데다 이번엔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북한의 가엾은 사람들… 북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미워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저 아이들은 도저히 미워할 수 없었다.

비로서 뉴스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불쌍한 사람들일 뿐인데…’

다음날 아침, 나는 새 롤러블레이드를 사려고 애지중지 모아온 돼지저금통과 큰 고모께서 주신 흰 봉투를 선생님께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봉투 속의 편지를 보시곤 우리에게 그 글을 읽어 주셨다.

“선생님, 전 성현이 큰 고모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는 6.25때 북한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으셨지요.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제기를 닦은 지 벌써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때 새로운 제기를 사야겠다 생각하며 조금씩 모아온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돈이 저희보다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는 게 더 값질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난 마음 속으로 큰 고모께 말했다.

‘큰 고모, 저도 이젠 알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인걸요. 저도 전쟁의 피해자인 북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앞으로 함께 나눌게요. 전, 더 이상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어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평화 통일이요.’



송아지동무와 소꿉친구

설 지원 | 대면어은중 1학년

“모두들 고유어를 이용한 조이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유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국어 시간에 조를 편성해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데, 막상 고유어로 지으려니 생각나는 단어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송아지동무!”하고 북한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송아지동무(소꿉친구)’라는 단어가 북한말이라서 다른 이름으로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옆에서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그래, 그걸로 하자. 북한말도 고유어잖아.”하고 말했다. 친구 말을 듣고 우리조는 ‘송아지동무’로 조이름을 정하였다.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다. 나는 항상 통일을 이루고 싶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북한을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았다. 앞으로는 말로만 통일, 통일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북한 친구들의 생활모습과 작품을 전시해 놓은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그곳 입구에는 룡천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모습과 그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룡천 어린이들을 돕는 성금을 내기는 했지만, 같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비록 국토가 분단되어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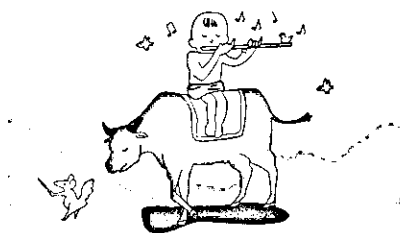
로운 왕래와 교류는 쉽지 않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지금 도움을 주러 똥천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통일이 되었다면 사고 후에 좀더 신속한 치료와 전문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입구를 지나니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른들이 쓰는 궁서체로 낯선 말들이 가득한 편지를 읽다보니 그 진지함에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우리를 동무라고 부르며 정겹게 편지를 썼다. 북한 친구들의 편지들을 읽으니 북한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밖에도 북한 친구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지로 만든 전등과 직접 노래 부르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런지 전등을 만든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특유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색달랐다.

요즘 남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문화들에만 집착하면서 점점 서양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우리문화를 지키는 노력은 남한이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본다.

북한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가니 북한에서 주로 쓰는 생활용품과 교과서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유리상자 안에 들어있기는 하였지만, 우리 엄마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 저거는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쓰던 것과 똑같잖아.” 하고 놀라워하셨다. 우리가 평면TV를 사용할 때 북한에서는 16인치 컬러TV를 보고, 우리가 질 좋고, 컬러로 된 교과서로 공부할 때, 북한에서는 누런 종이로 된 흑백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북한의 열악한 환경들을 알게 되니 새삼 나의 생활에 감사하게 되었고, 통일을 빨리 이루어 북한과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공통점이 많은 한민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말을 배워보거나 서로의 생활 모습을 찍은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통일을 이루자는 말부터 하는데, 북한 친구들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처럼 가깝게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였으면 좋겠다.





“잘한다! 파이팅!”

가을이라는 날씨가 무색하게 뜨겁게도 내리쬐는 햇볕이 소스라치게 놀랄만큼 떠들썩한 운동장 한편에 위치한 응원석과 응원용 풍선을 접어 부딪히며 연신 승리를 외치는 어린 목소리에 귀가 따갑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도중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문득 멈추어 섰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학교에 진학할 6학년 아이들까지도 식지 않은 초등학교 특유의 열정으로 반마다 다른 색의 옷을 맞추어 입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정확히 몇 반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늘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반과 진한 초록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반별로 주문한 색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팔레트에 줄 맞추어 조금씩 짜놓은 물감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그러다 우연히 운동장 구석에서 손을 꼭 잡고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되었다. 한 명은 빨간색, 다른 한 명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나란히 앉아 연신 깔깔거리며 소곤거리는 모습에서 아직 어린아이들의 귀여움이 느껴져 절로 미소를 짓게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반별 피구시합이 시작되자 아까는 그토록 사이 좋게 이야기하며 웃던 두 친구는 직사각형을 양쪽으로 갈라놓은 가는 선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서로를 탈락시키기 위해 공을 던져댔다. 그런 그들을 보며 다른 아이들은 자기편이 상대방을 탈락시키기를 바라며



응원을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나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얼마 전 TV에서 방영되던 6.25와 북한에 대한 내용을 떠올렸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 시절, 서로 상반된 이념을 가진 이들의 다름에서 시작된 대립에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남북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남북은 이산가족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4월 28일부터 옛새동안 금강산에서 열린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TV 카메라에 비춰진 한 할머니가 50여년만에 다시 만난 동생을 두고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만난 소감이 어떠한 앵커의 말에 그저 기쁨의 눈물로만 대답을 표시하고 있는 할머니는 주름진 손에 꼭 잡은 동생의 손을 연신 어루만지며 재회의 기쁨을 되새기고 있었다.

허락되어진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 다시 북으로 가야 할 시간, '재이산'의 아픔으로 몸을 떨며 꼭 잡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하던 할머니, 그런 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야 하는 동생의 마음은 어떠한일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어도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일까지 생기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산가족끼리의 주소지 확인이나 서신교환은 커녕 생사의 확인조차 불가능하다. 이제 6.25가 있는 지 50년도 더 지난 지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고령의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대로 통일이 되어 가족을 다시 만나기도 전에 그들은 그리움만을 안은 채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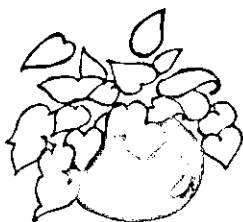
서로 다른 색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가는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을 빼앗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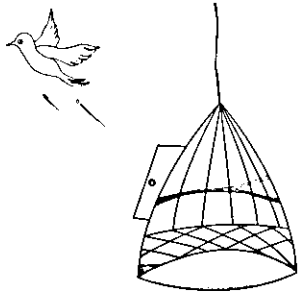


단된 국토와 통일을 주저하고 있는 남북한의 모습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난 뒤, 선을 넘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사이 좋게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통일을 생각해냈다.

통일. 그것은 북위 38도에 그어진 가는 선을 지우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은 오랜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한 민족으로 통합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제 그만 통일의 호루라기를 불어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사이 좋게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울산광역시

- 통일을 그리는 사람들
- 공천역 폭발사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 상처 속 대물 한 방울
 - 서로 돕는 길, 통일의 길
 - 한편의 명화
- 통일,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될 우리의 과제
 - 아직도 소원은 통일
 - 통일 전망대에 다녀와서
 -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최우수

통일을 그리는 사람들

변고훈 | 온남초 6학년

내 방에는 자그마한 지구본이 책상 위에 자리잡고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매일 보는 지구본이지만 가끔 그 지구본을 가까이 당겨보면 자그마한 지구본 안에 또 더 작은 나라가 아름답게 누웠다.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빨간 글자가 작지만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 또 다른 이산가족이 있다. 이런 우리나라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땅이 찢어진 것 보다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찢어져, 찡한 아픔이 우리들에게 통일을 더 바라게 하고 있다.

TV에서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걸 보았다. 난 단지 보기만 했을 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어떤 사이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눈물이 나왔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본 사람들마다 모두 손수건으로 눈가에 슬며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 이렇게 흰머리가 된 후, 이렇게 이마에 줄이 하나, 둘, 그어진 후 만나게 됐을까? 가슴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어떻게 참았을까? 나는 분명 그 사람들을 모른다. 생전 처음 본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을 눈물로 적셨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안에는 우리는 분명 하나라는 강한 의지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이 틀림없다. 나는 무엇이 우릴 이렇게 묶어놓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만은 꼭 지키고 싶다. 우리학교 교실 앞의 큰 지도를 볼 때도, 지구본을 볼 때도, 세계의 국기들을 볼 때도, 북한 친구들의 뉴스를 들을 때도 모두 가슴 아픈데... 과연 내가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북한 룡천 열차폭발 사건이 있었다. 평소 잘 안 보던 뉴스도 북한 열차폭발이라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 바쁘다고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내 왼손은 지우개를 잡고 있어도… 귀만은 내 방을 건너 거실의 TV쪽으로 자꾸 기울여졌다. 내 생각은 곧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생각이었고,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갔다. 그러나 통일만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어른들은 모두 “세상은 자기 뜻대로 다 되진 않는 법이란다”하고 입버릇처럼 말하시지만, 이젠 분명 옳은 일인데도 왜 그렇게 되질 않을까?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이런 노래가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오라.’ 사람들의 가슴깊이 사무치고 파고드는 이산가족의 그리움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때다. 다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피눈물 나는 일없게… 그러기에 ‘통일이여 어서 오라’라고 하는 노래가사는 단순하지만 슬쩍 감동이 넘쳐 오른다. 우리에게겐 하나의 지도가 있다. 그리고 우주에서 본 우리 나라도 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금강산도 우리들의 것이고, 독도도 우리들이 모두 힘을 모아 지켜야 할 아름다운 섬이다. 통일을 향해 어서 뜻을 올려라. 그리고 이 지도 위의 빨간 선을 남김없이 지우라. 우리는 지도 위의 똑같은 나라안에 공존한다. 이 글짓기를 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통일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꿈도 하나 가졌다. 아주 아름다운 그 꿈은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내 나이 또래 아이들과 옛 추억처럼 축구를 하고, 다치면 우리동네 앞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머리가 너무 길면 같이 머리를 자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도 모두 같이 하고, 교복도 같이 사러가고, 풍풍도 같이 타고… 그렇게 크고 작은 꿈을 하나씩 가꾸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깝고도 먼 미래, 그 날 북한 친구들과 우리 나라 옛 역사를 즐겁게 웃으며 배울 수 있기를…



룡천역 폭발사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김문수 | 울산제일중 2학년

최근 북한 룡천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아낌없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에서 보았듯이 그 사건의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잔혹한 현장이었다. 룡천역의 강한 폭발 때문에 룡천 소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실명이 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아이구, 불쌍해라”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폭발 사고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는가 하면, 언론이 현장 취재를 하기도 하고 ‘대한적십자사’라는 단체가 많은 구호물품과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도 발벗고 나서서 물품들을 각 상자에 분류하고 자신이 직접 쓴 편지도 함께 넣어 보낸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전 우리나라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6.25전쟁 직후에는 북한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요즘은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한 민족으로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벌써 통일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니 말이다. 허나 룡천에 보내기 위한 우리 구호물자의 이송방법을 빠르고 신속한 육로를 제한하고, 굳이 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북한의 요구가 조금 섭섭하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줘야하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기업인 현대 아산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을 하려면 이리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일단 갈라진 시간만큼 통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일까. 경제, 문화,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가지로 묶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화를 남, 북 한쪽으로만 통일하지”라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일을 영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나라가 자신의 문화를 없애고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전쟁으로, 무력으로 만든 통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통일은 양쪽 모두 바라지 않는 일임에 분명하다. 통일이란 분단국가 모두 만족하고 합리적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있을까?

우선 서로 문화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 고작 해보야 축구경기, 서커스 공연 등 몇 가지 안되는 일들이다. 이런 교류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일은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가 북한에서 전시회를 연다든지, 북한의 가수가 공연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남한의 관객들과 우리나라 가수처럼 팬 미팅도 가져보고 전국 순회 공연도 하면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서로 잊지 않고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도 공장을 세워 북한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며, 각각 대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사진으로만 보던 남, 북한의 유적들을 실제로 보고 서로가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생기겠지만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도 있듯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 미래의 종착역은 바로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이제는 남북이라 불리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 지도에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 하나의 지명으로 표기될 날을 기다려 본다.

마지막으로 룡천역 폭발사고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이 빨리 완쾌되어 통일의 그 날 우리와 손을 잡고 만세를 외치기를 기도해 본다.



최우수

상처 속 눈물 한 방울

조 부 민 | 울산여고 1학년

하늘은 여느 때와 같이 푸르고 날카로웠고, 그 아래 나무들은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었다. 나무들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는 것처럼 TV안에서는 두 할머니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문득 채널을 돌리다 말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0분, 20분이 지나고 내 눈에서도 짹짹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었다. 그것은 절대 어떤 방송 제작자들이 만들어 낸 연기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이서 우리나라는 기쁨과 슬픔을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 서로 얼싸안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슬픔이었다. 가슴속 깊이 전쟁의 재로 뒤덮여 있던 그들의 사랑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아! 그들은 50년 동안 숨겼던 상처를 이제야 회복하고 있었다. 마음의 상처... 전쟁의 재로 뒤덮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우리 외할아버지의 옆구리에는 6.25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다. 외할아버지께서 전쟁에 참가하셨을 때 외할아버지는 갓 어린티를 벗은 중학생이셨다고 한다. 외할아버지는 줄곧 우리를 곁에 앉혀두고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다. “비극이었지, 최대의 비극이었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총을 쏘아야 했어. 쏘지 않으면 죽거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내 나이 70이 되어서도 가슴속에 큰 상처가 되어 있단다.” 외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 한 방울이 고여 있었다. 그때서야 느꼈다. 외할아버지의 옆구리에 있



는 상처는 완쾌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6.25전쟁을 겪으셨고, 가슴 속에는 하나씩의 상처들이 고이 파묻혀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언제나 통일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십대들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 권력자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통일을 원치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그들이 곧 우리이고, 우리가 곧 그들이다. 김구의 ‘나의 소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정치, 경제는 일시적인 바람 같은 것이나 민족은 영구적인 초목과도 같은 것이다. 서로 가지에 가지를 걸고 바람을 이겨내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이번 룡천역 폭발 사고를 통해 느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자 민심도 각박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헌신적인 물자공급을 원치 않았고 햇볕정책에도 조금씩 구름이 가리어지고 있었다. 마침 그때 룡천 역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많은 초등학교생들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 있었다. TV나 신문에서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남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다시금 많은 손길이 북한으로 전해졌다. 역시 민족은 서로 가지에 가지를 건 초목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북한을 외면하다가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웃사람처럼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다. 어찌 같은 이웃끼리 언제까지 적으로 지낼 것인가.

강원도에는 하늘꿈 학교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탈북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요즘 북한에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들이 품고 온 꿈과 희망은 남한에 살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남한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 사회에서조차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둔다. 그래서 하늘꿈 학교에 다니는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



고 있는지도 모른다. 설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북한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마음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민족애로 통일했을 때 우리 나라는 더욱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산가족 방영프로그램이 끝나자 나는 TV를 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만 같은 눈물 한 방울이 내 눈에서도 흘렀다. 자신의 피같은 가족을 경계선 뒤에 두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을까? 전쟁의 재로 뒤덮인 상처를 사랑의 눈물로 씻어 내리듯 우리의 민족애가 남과 북의 경계선을 녹여 줄 것을 나는 믿는다.

아름다운 눈물 한방울은 내불을 지나고 땅바닥에 '톡' 소리를 내며 퍼져 나갔다. 마치 우리의 꿈이 퍼져나가듯...





어제(6월 3일) 뉴스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켄싱턴 호텔에서 북한 장교들을 맞는 남한 장교들과 호텔 관계자(주방장까지)들이 환영 인사하는 것을 인상깊게 보았다.

켄싱턴 호텔은 내가 유치원 때, 속초로 놀러갔을 때 가족과 함께 묵었던 호텔이라 북한 장성들이 남한에 와서 회의를 한다니 참 반가웠다.

2002년 월드컵 축제 준비로 한창 들떠있을 때 서해에서 충돌로 인해 우리 군인아저씨도 다치고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이 생각난다.

세계적인 축제를 치르기 전에 위협을 주는 북한이 원망스러웠지만 그전에 자식의 주검 앞에 오열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단 국가임을 통감했다. 이번에 장성급 회담의 협상이 잘되어서 부모의 가슴에 자식을 묻는 일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

반세기 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 형제,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우리 아빠도 일년간 폴란드에 출장 중이시다. 어느 날 동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보고 싶다고 징징거린 적이 있다. 엄마는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아빠 옷을 가리키며 아빠 냄새를 실컷 맡아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아빠가 그리울 때면 가끔씩 옷장 문을 열어본다. 하지만 오십 년 넘게 옷가지며, 소지품으로 그리움을 달래는 이산가족이 이 땅엔 너무 많다. 그래도 나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아빠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전화는 전화비도 많이 나오고 폴란드와 시차가 8시간이 나 있기 때문에 자주 할 순 없어서 주로 메일을 보낸다. 메일을 보내면 아빠와 대화하는 것 같아 다소 위로가 된다. 지구 저 편에 있는 폴란드에서도 연락이 가능한데 같은 민족끼리 같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생사조차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움에 사무칠까?

나는 일년도 참기 힘든데 오십 년 넘게 만남을 기다려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분단의 거리를, 분단의 아픔을 깊이 느낄 수 있다.

한 달 전에 룡천역 폭발로 인해 룡천역 근처는 건물들이 흔적도 없거나 무너져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얼굴이 석탄 덩어리처럼 까맣게 그을린 아줌마, 얼굴에 유리 파편이 박힌 어린이, 이렇게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친 환자들이 복도와 병실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고 음식물을 입에 넣지도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인지 비명도 못 지르는 처참한 모습에 무척 슬프고 안타까웠다. 이에 따라 우리 남한은 의약품을 많이 지원했고 건축물에 사용 될 자재들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언젠가 홍수로 인해 서울의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겨 피해를 크게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 우리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북한에서 쌀을 보내 왔는데, 그 쌀로 밥을 지었더니 밥맛이 참 좋았다고 한다.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돕다보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 국가인 우리도 마음을 열고 통일을 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신문에 '마침내 남북통일 되다'란 글씨가 커다랗게 실리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날은 민족 역사상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며...



최근의 남북한의 관계는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도 누그러든 것 같아 아리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가 눈물겨울 정도로 반갑다. 조금씩 통일로의 길을 걷는 것 같아 기대 반 두근 반이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한반도는 이념의 차이로 갈라졌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로 나뉘어 세계가 다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이 개입하였고, 그 결과 남북한은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의 침공으로 6.25전쟁이 터진 것이다. 이 전쟁을 계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고, 결국은 휴전협정을 맺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었다. 이산가족, 38선, 판문점, 눈물과 상처...

그 뒤의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남한과 사회주의체제에서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한. 휴전협정을 맺은 뒤 남북한은 으르렁거리며 38선 너머로 서로를 노려보았다. 자그마한 불씨가 날아오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고, 조그마한 충돌에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며 불안에 떨던 나날들이 한반도의 예전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정주영 회장이 소를 북한에 보내준 것부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웃



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내 가슴에 여운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은 온 국민의 눈시울을 젖게 만든 감동의 사건이었다. 한참이고 울면서 보고뵈던 가족을 힘껏 부둥켜안는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또, 금강산 유람선을 타고 북한에 다녀온 것도 우리에게 크나큰 역사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예술단이 남한으로와 공연을 하고, 또 남한의 예술단이 북한으로 가 공연을 하면서 문화의 교류도 확산되었다. 낯설지만 서로의 다른 문화를 느끼며 조금씩 이해를 하였다.

최근에 룡천 폭발사고로 수많은 북한 친구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들은 물품이 부족하여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끙끙 앓기만 하였다. 남한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북한으로 보낸 구호품들 속에 자신들의 진심 어린 마음도 함께 보냈었다. 또, 이제는 더 나아가 육로로 금강산을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먼 미래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상황들이 지금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한반도는 이렇게 많은 발전들과 역사를 이룩하였다. 분단된 지 50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며 관심을 갖고 돕기까지 하였다.

나는 이러한 현상과 역사들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위협하며 으르렁거리던 한반도에 따스한 봄바람이 분 것이다. 이러한 교류와 정책들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이는 돈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에게 배려하고 조금은 양보하는 그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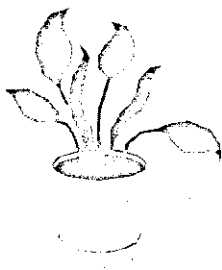
나는 북한이 친구처럼 느껴진다. 친하게 지내다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된 친구. 그래서 서로가 마음 상했지만 힐끔 힐끔 눈치보다 결국 화해하는 친구 사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고 북한의 문화, 정치 등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이제는 통일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누그러지고 한층 부드러운 관



계로 나아가면서 언젠가는 꿈에도 그리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샘솟는다. 그 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은 두근거리진다. 북한의 친구와 세계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한반도의 위상.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웠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낯설어하고 가끔은 으르렁거리며 싸우기까지 하여 내심 걱정하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였다. 처음에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행동하더니 나중에는 서로에게 양보와 배려까지 하였다. 그리고 후엔 그들이 서로를 이해까지 하게 되어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다. 그들이 싸우고 눈치보고 이해하기까지의 과정과 모습은 한편의 영화같았다. 한반도도 충분히 영화를 찍을 수 있다. 세계 어느 곳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명화를...





통일,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될 우리의 과제

채현교 | 울산여고 2학년

“형, 우린 살아서 돌아가야만 해.”

얼마 전, 천만 명 이상의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잘 짜여진 구성과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민족적 정서에 맞게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과 한반도 지도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38도선을 보면서, 우리는 통일의 시급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민족통합이라는 당위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남·북한 서로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선, 통일이 되면 평생을 그리움과 원망 속에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다. 남한, 북한으로 분단 된지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분들 중 세상을 떠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남은 분들을 위해서 통일을 늦출 수가 없다. 비록 이산가족상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많은 수의 이산가족들이 다 기회를 누릴 수도 없고, 3,4일만의 만남으로 그분들의 한을 다 풀어 줄 수도 없는 일이다.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 해서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 측면에서 나의 일처럼 생각해야 한다.

또 통일은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휴전중이다. 말 그대로 전쟁 중 쉬고 있는 기간이 50년을



홀쩍 넘어 버린 것이다. 전쟁을 종료한다는 어떠한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항상 불안한 심리로 살아야 한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나 2002년 발생한 서해교전,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우리의 후손들은 이러한 긴장 속에 살지 않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통일은 지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준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에서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 물론 지금도 경의선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면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여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없다. 윤리책에서 38선을 찍어놓은 사진 밑에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 라고 쓰인 것을 본 적이 있다. 300개 가까이 되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니 참으로 부끄러웠다. 통일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의 낙인에서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의 출발점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주는 경제적 효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나라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현상유지정책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분단이 된 지금도 경제력이 세계 10위안에 드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 속에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10위권에 머무르지만 더 발전이 없는 것은 외국인의 투자가 적기 때문이다. 남·북한 대치 상황 속의 불안한 심리는 외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낮을 수밖에 없다. 또 북한과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투자는 푹 끊겨서 우리나라 경제는 한순간에 침체되어 버린다. 통일이 되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 불필요한 군비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조사결과 국민 총생산량의 3%를, 북한은 27%를 군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경제에 투자하면 훨씬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에 갓 들어가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만 한다. 2년 동안 공부에 손을 놓았다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인재양성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남한에 대치중인 군인들은 1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력낭비이다. 통일이 되어 이 인재들이 세계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이렇듯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엄청나다. 물론 통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막 통일이 된 후의 경제적 차이, 또 50년 동안 많이 변해버린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상당한 진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임무이다. 절대로 베트남의 무력통일이나 독일의 흡수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은 용납될 수 없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0%에 머무른 독일처럼 대책 없는 통일도 안된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대화와 협력, 대책마련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당장의 불편함과 사회적 혼란을 예상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통일은 미루면 미룰수록 이루기 어렵고 힘든 것이다. 통일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 이대로 세월이 지난다면 분단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후손들은 통일에 무심해 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생각하여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 나는 ‘통일’이나 ‘북한’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다. 그 분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외할아버지이다. 올해 연세가 일흔 여덟이시다. 한국 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져 소식도 모른 채 외롭게 살아오셨다고 한다.

외할아버지는 이곳 남한에 사신 지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 사투리를 쓰신다. 고향이 북한 땅에 있는 황해도 사리원이라는 곳이다. 난 가끔 내 방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보며 외할아버지의 고향을 생각한다.

언젠가 명절 때 외가 집에 갔을 때 공책에다 그려 놓은 외할아버지의 고향 그림지도 본 적이 있다. 집 앞의 교회며 강과 들판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들이라도 찾아보기를 원하셨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고향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신다. 어쩔 너무도 고향이 그리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가슴 속 깊이 혼자 새겨 두시는 지도 모른다.

몇 년전, 외가댁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해를 거쳐 통일전망대까지 여행을 간 적이 있다.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땅과 하늘, 바다 그리고 들판을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은 가까이 보이는 북한을 보며 그저 신기해하기만 했었는데, 한참동안 그 쪽을 물끄러미 보시던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신 채 눈물을 감추고 계셨다. 그 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자꾸 슬퍼진다.

흰히 보이는 곳에 고향을 두고도 맘대로 갈 수 없는 이유를 난 아직 어려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 이해할 수도 없다. 나의 생각대로 라면 그냥 서울이나 제주도를 다니듯이 왕래를 하면 되겠는데 어른들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 지 알 수가 없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던 하양새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니 무척 부럽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무척 안타깝다. 차라리 사람이 아니고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사는 맘대로 갈 수 없어도 여행을 자유롭게 해도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남북회담 같은 회의만 자꾸 하면 뭐 한단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에서도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서로 양보하고 의견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아직 할아버지의 고향 가는 길은 너무 멀어 보인다.

얼마 전 북한의 룡천역에서 대 폭발 사고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다쳤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남과 북을 따지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는가. 복잡한 절차가 그렇게도 중요한 걸일까? 속옷, 숟가락, 붕대, 라면, 링거액... 이런 지원물자를 만나면서 남쪽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음 좋겠다. 적은 도움으로 한반도 땅의 상황을 바꿔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룡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껏 성금만 보낸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답답하다.

이젠 외할아버지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고향 갈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가까운 날에 좋은 소식이 있어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큰 웃음을 보고 싶다. 겉으로 말씀은 안하셨지만 할아버지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걸 나는 잘 안다.



통일 전망대에 다녀와서

차다혜 | 울산중앙여중 1학년

얼마 전 방 청소를 하다가 지금은 기억도 가물거리는 예전의 보물 앨범을 발견하였다. 앨범을 펼쳐보니 추억이 담긴 사진과 편지들과 여행 정보지, 입장권 등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예쁜 꽃이 아름다운 그 자태 그대로 말라 있었다. 그것을 보니 문득 지난번 고성군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 다녀온 일이 생각났다. 그 꽃은 통일 전망대에 갔다가 주워서 책갈피에 넣어 말린 것이었다.

처음 통일 전망대에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전망대에 가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 등의 여러 절차가 까다로웠다. 복잡한 일들로 짜증나기도 했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도 철저한지 궁금하기도 했다. 우리는 통일 전망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문하는 곳으로 갔다. 그 때였다. 아빠께서 담배를 피고 오시겠다며 차에서 내리는데 검문소에 있던 군인아저씨께서 “여기에서는 차에서 내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셨다. 순간 그 말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긴장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위협하지도 않는데 뭐가 위험하다고 그러는지 그 때의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길을 지나 전망대로 향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철가시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전율과 공포가 느껴졌다. 우리 땅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니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저 멀리 보이는 북한의 땅!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렇게나 가까이 있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까?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 옆에서 우는 소리가 났다. 멀리서라도 북녘 땅을 보기 위해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윽한 눈으로 북녘 땅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다. 한 할머니께서는 망원경을 손으로 만지작거리시더니 끝내는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주저앉아 버리셨다. 그렇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의 설움... 우리는 왜 저런 아픔을 간직해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실까? 나도 같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한강에서 흘러온 물도 북한으로 흘러가고, 저 하늘의 새들도 마음대로 북녘 땅을 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50년이나 떨어져 있으면서 헤어진 부모와 형제와 친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통일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을 밟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통일의 그 날이 어서 와서, 웃으며 옛날에 저 북쪽 땅은 여기에서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우리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

통일은 글자 그대로 한데 뭉쳐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을 우리는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는 없다. 두 손이 모여야 ' 짹' 하고 소리가 나며, 이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는 일부의 자세는 이렇게 한 손으로 박수를 치고 노력 없이 운만 믿는 것처럼 보인다. 남북의 통합은 우리에게 균형 잡히고 발전된 나라로 성장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들은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사람들이 북한을 남의 나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남이라기 보다는 가족이라고 생각



하여야 한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라 불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악수와 포옹을 보며 한반도가 하나되어 환호하며 기뻐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 한마음을 통일의 힘으로 쓴다면 통일은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화합되고, 푹푹 뭉쳐서 살기 좋은 나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장애물이 많아서 아직도 멀기만 하지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처럼 빨리 일을 마치려고 하여 그르치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나는 북한이 다가가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준다면 언젠가는 북한도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에, 우리들의 마음에 휴전선이 없어지고 마음 편히 왕래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이지혜 | 방어진고 2학년

지난 4월 22일에 북한에서 일어난 룡천역 폭발사건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가옥 8,000채 파괴에 사상자가 1,300명을 웃돌고 매몰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 듯 보인다는 뉴스보도는 우리 남쪽사람들을 침통한 표정으로 북쪽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이라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뉴스보도 이후, 우리들은 너나할 것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비록 몸은 가지 못하지만 작은 것일지언정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구호물자와 복구자재 등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도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다. 북한측은 우리가 제안한 육로를 통한 긴급 구호물품의 수송, 응급 의료진 파견 등을 거부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해로나 항공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다면 육로, 해로, 항공로 상관없이 언제든 달려가 한 손이라도 더 보태 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밟을 수 없는 땅이 북한이란 말인가?

지난 4월 7일 나를 비롯한 우리 학교 2학년 전원은 수학여행 기간 중 둘째 날에 통일전망대에 갔다. 이 때 우리는 통일전망대로 바로 가지 못하고 안보 공원에 잠시 머물러 출입 신고와 안보교육을 받고 통일전망대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가는 길에 우리는 여러 곳에 검문소를 세우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보았다. 하나같이 무장을 하지 않은 분들이 없었다. 또 전쟁이 나면 길을 막아 장애물 역할을 한다



는 네모난 모양의 돌덩이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는 광경은 실로 삼엄하기까지 했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저런 것들이 모두 북한의 침공을 5분 안에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동해바다는 우리 국토의 저 살벌한 상황은 아랑곳없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이런 곳이 군사지역이 아닌 해수욕장이었다면 관광자원으로 이름을 떨쳤을 텐데...

해안선을 따라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새하얀 모래사장과 아직 사람 들 손을 타지 않아 맑기 만한 푸른 바다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최상의 조건이었다.

통일이 된다면 경포대 못지 않은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바다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철로의 옛 흔적은 시리도록 어울렸다. 그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간 친구들과 난 알 수 없는 씁쓸한 감정에 휩싸여 버스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금 더 가니 통일전망대가 보였다. 도착하고 조금 후 전망대에서 보이는 북한의 지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함께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해금강과 얼핏 보이는 금강산을 다음에 올 때까지 잊지 않기 위해 눈 안에 열심히 담았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한의 하늘과 북한의 하늘 사이에는 하늘을 가르는 그 무엇도 없는데, 왜 땅에선 휴전선이라는 철책선이 있어 우리 민족을 두 갈래로 갈라놓은 것일까?

통일 전망대를 등지고 돌아오면서 다음에 이 곳에 언제 또 발을 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는 바다 옆엔 철조망도 없고, 텅 비어있는 흔적 뿐인 철로가 아닌 양양에서 원산까지 힘차게 기차가 달리는 철로를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후 1970년대까지도 북한을 적 또는 대결의 상대로 인식하여 반공교육을 해 왔으나, 1980년대에서부터는 남북 관계와 통일 환경이 급격하게 화합 쪽으로 변화됨에 따라 진취적인 통일 교육



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통일 안보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시켜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교육에서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 교육이다. 그만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일교육을 올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함으로써 통일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일의 기로에 서 있다.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을 위하여 과거에도 해왔지만 과거,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러서까지도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과거 동독과 서독은 준비가 미흡한 단계에서 통일을 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동·서독의 극심한 빈부 격차라는 큰 혼란을 초래했었다. 우리는 이런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한 교류를 통해 미래를 확실하게 다져야겠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교류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교류다. 또 다른 것은 교환 공연을 들 수 있다. 그 예로 여러 가지 것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리틀엔젤스들이 북한에가 공연을 하고 그 답례로 북한의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멋진 공연을 펼쳐 보인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그 공연을, 나 역시 학교에서 비디오를 통해 본적이 있는데, 북한 어린이들의 공연은 뭔가 이색적이면서도 특이하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게 하는 흥겨움이 있었다. 거의 모든 부분이 멋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에 남북한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마주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에 화면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통일을 기원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KBS 전국 노래자랑 북



한편이 방송되기도 하고,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또 국민의 성금을 한푼, 두푼 모아 북한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토끼 120만 마리도 보내고 현대 명예회장 정주영님께서 돌아가신 지금도 여전히 소떼는 북을 향해 발걸음을 딛고 있다고 한다. 이번 룡천역 폭발 사건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국민 모금을 통하여 대북 지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류들을 함으로서 우리는 이상적인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월 전 상당히 화가 나는 뉴스를 보았다. 주한미군 대사관을 덕수궁 터에 미 대사관 신축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그 땅의 몇 배에 해당하는 땅과 건물을 새로 짓는 모든 비용을 모두 우리측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다룬 뉴스였다. 너무나도 분했다.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었어도...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통일만 된다면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으니 주한 미군이 쓸데없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턱없는 요구를 할 수도 없었을 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통일만 된다면 한해 국방비로 나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여비로 굶주린 북한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통일만 된다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텐데... 통일만 된다면... 통일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닌 한국 속의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 모두가 우러러 보는 이상적인 국가는 못되더라도 우리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에 드리워진 '세계 제3차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유력한 국가' 들 중 하나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여러 강대국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떳떳한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우선 과제가 우리나라의 통일인 것이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두 손이 모여야 만이 비로서 ' 짹' 하는 박수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중 하나만 있어 가지고는 한 손 박수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 손 박수란 수많은 예들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우리의 경제력과 북한의 국방력이 만나 양손에 해당하는 경제력과 국방력이 서로 꼭 맞게 맞부딪쳐 강대국으로 치닫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물론 통일의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여서는 잘 될 것도 되지 않는다. 설사 정말로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다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여 그것을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언제나 밝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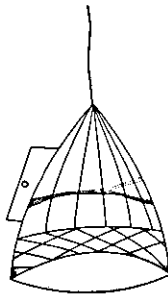
북한은 결코 다가가기 힘든 곳이 아니다. 분단된 시간보다 함께 해 온 시간이 더 많은 우리의 소중한 핏줄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우리는 서로의 피가 서로 이끌리는 한민족이므로 이렇게 오래 서로를 등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비가 고작 2만원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이유로 인해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먼발치에서만 바라보아야만 한다. 슬프게도…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다. 이산가족 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문화가 서로 편이하게 달라지기 전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족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적어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을 그리며 이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있고, 서로의 문화와 언어 등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서로에게 민족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때에, 빠르면서도 실수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꼭 될 것이다.

나는 꿈을 꾸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새롭게 정비되어진 경의선을 타고 기차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경기도

● 세 번의 단물



● 우리 민족의 마지막 소원

● 오늘도 나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제 나의
세계에서 막을 내리기를 바란다-

● 평화의 시계탑

● 태극기 휘날리며

● 자랑스러운 통일 조국을 위하여

● 평화를 빕니다

● 통일을 위한 발걸음

● 지금은 통일을 할 때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 북한에서 온 '미녀군단' 언니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그 언니들의 모습을 TV에서 보고 세 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첫 번째 눈물은 김정일의 사진이 낮게 걸려있고 비까지 맞고 있다고 항의를 하면서 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같은 한 민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다른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 언니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같이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축구 경기장면이 있었습니다. 대형 한반도기는 우리 응원단 손을 걸쳐 물결치듯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반도기가 미녀군단 언니들 손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웅성웅성 대며 무슨 눈치를 보고 또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꼭 한 지점 언니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 지점을 넘어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이 꼭 우리나라의 휴전선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응원단에서는 “넘겨라! 넘겨라!”

아우성 소리가 높았지만 그 쪽에서는 아무도 한반도기를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고 돌아 이번에도 그 지점에서 한반도기는 넘어가지 못하나 했더니 미녀군단 언니들도 소리를 높여

“넘겨라! 넘겨라!”

그 한반도 기가 넘어가는 순간을 본 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언니들도 나도 우리나라 응원단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에는 휴전선도 사상도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미녀군단 언니들이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염없이 손을 흔들며 흘리는 눈물은 이 장면을 보고 같이 울고 있는 안타까운 내 마음과 서로 같은 생각의 눈물이라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보고 내가 흘린 세 번의 눈물은 아마도 그 언니들과 흘린 눈물의 의미가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의 눈물은 서로의 생각과 사상이 틀려 안타까워 흘렸지만 두 번째 눈물은 그런 생각들은 우리 통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반도기가 넘어가는 순간 그 언니들도 바라는 마음은 통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눈물은 그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서로 안타까운 현실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약속하는 눈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통일은 생각이 틀리다고 휴전선이 있다고 해서 못 이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언니들을 이해하고 다가간다면 그 언니들이 한반도기를 받았듯이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소원은 통일입니다. 꼭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 그 언니들과 같이 손을 잡고 통일의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이 단어는 우리 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수없이 되뇌고 갈망했던 단어이다.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도 마음 속으로 한없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외쳤다.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러나 분단이 되었던 그 시절의 민간인들은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저 철조망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나의 고향이 그리워서, 또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되어서 어려움과 힘들, 그리고 그리움을 참기 위해 통일이 자신의 신앙인 듯,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IMF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일단 발등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하여 통일문제를 잠시 뒷전으로 미뤄 두었다.

다른 나라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남한은 IMF를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반도체와 조선·철강 등에서 선진국들을 따라 잡고 또 더 앞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북한에 핵이 있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하기도 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가족들을 빼앗아 가고, 친구들을 빼앗아 가고, 고향을 빼앗아 가고, 재산도 빼앗아 가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겉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그것들에서 그칠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적인 면으로 볼 때에 남북분단으로 잃게 된 것은 그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배라고 해도 모자랄지 모른다.

어떻게 그 것을 수로 따질 수가 있으랴!

남북 분단이라는 괴물은 가족들을 빼앗아 가면서 행복과 평화를 빼앗아 갔다. 또 친구들을 빼앗아 가면서 우정과 웃음을 함께 가져가 버렸다.

행복과 평화, 우정과 웃음은 우리가 사는 데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필수물품처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주위와 조화를 이루어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야 우정을 키울 수 있고 행복과 평화와 우정이 있어야 웃음을 얻을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게 되었다.

전쟁에 참전한 이들은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했으며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와 마주보고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다. 그 중 한 명은 친구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친구를 죽여야 하는 운명이다.

이 모든 것들은 전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친구를 쓰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이 보다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그리고 이산가족들은 서로 살아 있어도 소식을 담은 편지 한 장 전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서러울까. 차라리 죽었더라면 속이 편할 텐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으니 애가 타서 미치겠다고 하는 할머니를 TV에서 보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밀려 올라왔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전쟁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 상태로 서로를 도와주며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통일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려면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 번째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수십년 동안 공산주의체제가 들어서 있었다. 한 순간에 그런 오래된 체제를 바꾸어 버리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 북한을 이해해 주며 조금씩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도록 우리 남한이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북한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과서나 관련 서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남한의 한글과는 다른 북한의 한글과 북한의 풍습과 법, 규칙,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배우게 된다. 그것들은 모두 이론상의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북한을 이론상으로, 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남한보다 어려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에는 아주 어려운 생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뼈밖에 남지 않았고 젊은이들도 굶주리며 겨우겨우 하루 끼니를 이어가며 살고 있다. 눈이 커다랗고 피부가 거칠고 머리통이 크며 팔은 거의 뼈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이를 동영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징그럽다는 생각보다는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모두 나의 가족이자 형제인 아이들이었다. 그런 나의 핏줄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어린이들 말고도 북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일어난 '룡천 기차 폭발 사건'도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만들어 냈고, 생활 터전들을 날려 버렸다. 남한은 많은 구호 물품을 보내 주었다. 우리 학교에서도 모금을 하여 어느 단체에 보내



서 북한으로 우리의 정성어린 선물을 보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돕는 것에는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지 돈의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하고 국민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자신의 직장, 가족, 친구 같은 문제에만 신경을 쓸 뿐이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바라고 기원하고 소망할 때에, 바로 그 때에 통일은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핏줄인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다시는 친구끼리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라고 불리는 호랑이의 허리에 둘러쳐진 철조망이 하루빨리 견혀지기를 소망한다.





최우수

오늘도 나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제 나의 서다에서 막을 내리기를 바란다-

이 승 현 | 수성고 1학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다.

어린 시절, 나는 명절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차례상에 절을 드리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는 모습을 보아왔다. 어린 나였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바로 이산의 슬픔이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다.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지주의 아들이라는 동료교사의 고발로 공산당을 피해 남으로 피신을 하시게 되었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따라 내려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산의 슬픔은 시작되었다. 잠시만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그 길이 이렇게 오랜 세월 그리운 가족과 못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과 슬픔을 대할 때마다 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랬다. 어려서는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슬픔이, 이런 이유 없는 비극이 더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통일을 염원했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주위의 친구들과 통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이산 가족이 아닌 집안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처음엔 얼떨떨하기 까지 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정말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인지, 통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건지, 그런 통일은 혈육이 만나게 된다는 거 이외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지, 나에게 통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많은 것들이 궁금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기사나 자료에 관심을 갖고 대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 결과 이제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진정 통일을 해야만 한다.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기 때문이다.

첫째로, 우리는 통일을 통하여 국가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잠시나마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철광석, 목재 등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이 남한의 기술, 자본과 결합된다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통일을 통하여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우수한 민족문화를 꽃피워 왔다. 판소리, 탈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의 문화유산과 유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만이 이러한 유적들의 보존과 정확한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통일을 함으로서 국제적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50여년 동안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대립해 왔고,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에 얽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펼칠 수 없었다. 우리는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역시 이산가족의 상봉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들이 한땅을 딛고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한 맺힌 슬픔을 이제는 풀어 주어야 한다. 한 그릇에 담긴 물을 칼로 나눈다 해서 물이 두 개로 나뉠 수 없듯이, 한 나무토막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칼로 나눈다 해서 불꽃이 두 개로 나뉘지지 않듯이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를 아무리 떼어 놓는다 해서 그들이 남이 되겠는가?

민족분단 50여년, 분단의 벽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혈연 모두를 두 동강 내 버렸다. 그 상처가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 민족의 정기를 이어 받은, 반만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형제와 나의 사촌형, 사촌동생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고 더 굳건한 한 형제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아람단에서 용산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안산에서 차로 1시간 가량 가니, 서울 용산이란 곳이 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전쟁기념관이 있다는 것이 문득 신기했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는지 전쟁기념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밖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계탑이었습니다. 몇 분 뒤 버스가 서자 우리는 가방을 챙기고 버스에서 내리느라 분주하였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조금 전에 본 시계탑을 다시 보았습니다.

“와! 이게 평화의 시계탑이구나!”

그 때 저는 평화의 시계탑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의 시계탑이 고장났는지 시계의 바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 인상깊은 시계탑이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다니.’

‘왜 이 시계의 바늘은 멈춰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할수록 더 모르겠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보니, 선생님께서 어두운 표정이 되어 답해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뒤에는 시계탑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단다.”

선생님께서 언제쯤이면 평화의 시계탑 바늘이 움직이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음… 언제쯤이면 시계탑의 바늘이 움직일까?” 한참을 생각한 뒤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5년 6월 25일에는 시계탑 바늘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꼭 통일이 오길 기원합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 날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이 어서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통일이 되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 온다면 생이별을 한 이산가족들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빨리 통일이 되어 서로 다정하고 정답게, 행복하게 북한 어린이와 남한 어린이가 하나가 되고, 같이 어울려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것 말고도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더 잘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평화의 시계탑 바늘이 움직이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통일이 되도록 각자 노력한다면 통일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통일이 된 그 날, 평화의 시계탑 바늘이 움직이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평화의 시계탑 바늘이 움직이는 그 날 우리나라의 멈춰진 행복도 한 칸 한 칸 움직이기 시작하겠지요? 이산가족의 얼굴에도, 우리의 얼굴에도 웃음이 하나 하나 살아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의 꽃이 피어나겠지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 하나 늘어가는 가슴 뿌듯한 그 날이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래 봅니다.

얼마 전 TV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아



플 때 잘 치료도 받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도 많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이렇게 슬픈 일은 없어지겠지요? 또 굶주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배고파하며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집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어린이들도 우리들처럼 평화롭게 잘 살수 있겠지요?

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룡천 폭발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북한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룡천으로 가서 북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점점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우리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학급 동전 모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모아 작은 동전이라도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북한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서 통일이 되어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시계탑 바늘이 하루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통일이여, 어서 오소서...”





우수

태극기 휘날리며

김예원 | 부흥중 3학년

불과 몇 달 전,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며 명화 중의 명화로 손꼽혔던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한국영화가 있었다. 이 영화는 우리 민족 모두의 아픈 과거인 6.25전쟁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사상과 결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실제 6.25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한 가족의 안타깝고 슬픈 삶을 확대하여 들여다 본 작품이었다.

지금도 이 영화를 생각할 때면 너무나 생생했던 영화 속 장면 하나 하나가 떠오른다. 6.25전쟁, 같은 민족끼리의 가슴 아픈 전쟁이 그때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나에게도 약간의 충격과 함께 엄청난 감동과 눈물을 자아냈으며, 말로만 듣던 그 당시의 모습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직도 영화 속에서 내 머리 속에 강하게 꽂혀있는 몇몇 장면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진다.

젊은 학생까지 남자들은 모두 다 군인으로 끌고 가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또, 식량도 거의 다 떨어져서 하루에 한 끼 주먹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병에 걸린 군사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군인이 외친 말 또한 잊을 수가 없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키려고 죽도록 싸웠지, 이것은 한 민족끼리 무엇 때문에 서로 총 겨누고 싸워야 합니까? 그 사상이 뭐가 그리 중요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서로 죽고 죽여야



합니까?”

인상적이면서 동시에 충격적이기도 했다.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다. 사상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사람들끼리 더구나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어야 하는 모질고 잔인한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

아니, 사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6.25전쟁은 분명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6.25전쟁 속에서 행복하고 단란했던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약혼녀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고, 하나뿐인 동생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가슴아픈 전쟁이 또 있을까? 싶었다.

“나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과연 나라면 나 살기도 힘든 전쟁 속에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 오직 동생만을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형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수십 년이 지난 후 할아버지가 된 동생이 형의 시신을 보고 울부짖는 모습에서 난 다시 한 번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꼭 살아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혼자만 떠났느냐고, 나도 그때 함께 갔어야 하는데 형 혼자 보내는게 아니었다고 우는 동생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동생은 형의 시신을 찾기 전까지 한평생 그렇게 고맙고 또 그리운 형을 생각하며, 언젠가 형의 소식이라도 들리기를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빌고 또 빌었을까?”

이 영화는 6.25전쟁이 단지 서로의 사상 차이로 한 민족간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 가족의 삶이 전쟁을 겪음으로써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지에 대해 내게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부모형제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전쟁의 희생자이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참 불공평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막연히 바라왔던 통일만이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상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얼마 전, 뉴스에서 자기의 자가용으로도 이제 한반도의 38선을 가로질러 금강산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난 그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다. 조금씩 조금씩 통일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조건 하루 빨리 통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남북한 서로 간의 갈등과 거리감, 반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머지 않아 남과 북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다시 하나로 뭉쳐 이산가족의 아픔 대신 평화롭고 활기찬 한반도의 태극기를 휘날리며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부담과 고민이 되고 있는 국방비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대화를 꾸준히 지속하는 반면, 금강산 여행과 같이 북한의 문을 열고, 서로 간의 이해를 돕고 거리감을 좁혀 줄 수 있는 제도도 늘려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중에는 북한에 대하여 관심조차 갖지 않고 왜 통일을 꼭 해야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나의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제도적 차원이



뒤통수만 받는다 하더라도 마치 남의 나라 바라보듯,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지 않다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은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북한에서 갖는 남한에 대한 거리감과 이질감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오랜 염원을 이루는데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번, 북한에서 일어난 룡천 역 폭발사건에 대한 성금모금운동처럼 말이다.

세계에서 같은 민족이 둘로 갈려 서로 갈등하며 사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도 막연히 통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저 남과 북 사이의 선 하나만 사라질 뿐, 달라질 것이 없다. 무관심을 버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앞으로 북한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알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분단된 한반도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을 계속해서 들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이고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천역 폭발사고는 벌써 몇 주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리게 하고 있다. 먼 북녘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마음 같아서는 한걸음에 달려가 쌓인 잿더미들을 맨손으로나마 치워주고 싶은 심정이다. 매일 같이 구호물자가 보내지고 있고, 모두 내 일처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에 관해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에는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잊고 반쪽의 대한민국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통일을 꼭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저런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보면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다. 통일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통일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저 한 민족으로서 당연히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 통일은 어떤 이유와 설명도 필요 없는 우리 민족의 제 자리를 찾는 길이다. 물론, 그 당위성을 설명하자면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이산가족 1세대들은 늙거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이산가족문제는 덮어 두고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니다. 아직까지 떠나온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뿐인 세월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족은 무려 7백만명이 넘는다. 그들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기에,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분단 후 이미 수십 년이 흘렀으니, 지금처럼 남쪽은 남쪽 식으로, 북쪽은 북쪽 식으로 살도록 두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50년 세월을 이야기하며 이질화를 들먹이는 것은,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불과 50년 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함께 하며, 비로소 우리 손으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는 가슴 부푼 희망에 설레었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분단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정에서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우리 민족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남북으로 나뉜 채 50여 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 없이 즉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한 핏줄이며 본래부터 하나이다. 피를 나눈 한민족이 적대하며 계속 남남으로 살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민족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분단은 상호 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게 했다. 해마다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다. 통일은 군사비를 각종 국민 복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남북한의 인



적·물적 자원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가끔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면 ‘우리가 통일을 해서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긴 백범 김구 선생이 떠오른다. 백범 선생은 오늘의 상황을 예측하시고 민족의 분단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하신 것이다. 우리는 안타까운 분단조국의 현실을 더 이상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 민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금수강산, 우리 조국에서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난 매주 성당에서 미사시간 중에 하는 “평화를 빙니다”라는 인사를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해왔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부님께서 평화인사를 나누라고 하시면 그냥 “평화를 빙니다”라고 옆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저번에 가족들과 같이 자동차 극장에 가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고 전쟁의 참혹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평화를 빙니다’라는 인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어린 한 남자 아이가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 다리가 잘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엔 뱃속에서 구테기가 자라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왔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흘렸지만... 그제서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평화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뉴스 시간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사건들이 매일 방송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인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피흘리며 죽고, 다치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고 죽이고 파괴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의 희생이 있다. 팔, 다리를 잃은 어린이, 눈을 잃어버린 어린이, 부모님을 잃은 어린이,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어린이들, 그 아이들에게 평



화란 어떤 의미일까? 인터넷에서 어느 이라크 소녀가 세계의 어른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편지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소녀에게 평화라는 것은 너무도 간절한 꿈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평화를 바라는 것일까?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세계는 잠시도 전쟁없이 평화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닐까? 언제부터 이렇게 어지럽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커가는 것조차 무섭게 느껴진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북한의 룡천역 폭발사건때, 이란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서로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는 우리하기 나름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평화는 멀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평화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모두 모두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평화가 곧 왔으면 좋겠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생긴 모습과 생활하는 모습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그냥 인정하고 도우며 살아 갈 수는 없을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평화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달라지자.

우리보다 부족한 어린이들을 이해하며 도와 주도록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서로가 싸우게 될 때에는 먼저 양보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것을 인정하며 존중해 주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따돌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남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말 한 마디를 내뱉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조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먼저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학급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이제는 성당에서 '평화를 빕니다' 라는 인사를 할때 마다 가슴이 뭉클 해지며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정성들여 인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나는 막 유치원에 들어가서 하나 둘 사회생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다. 내가 살던 곳은 연천이다. 경찰관이신 아버지의 직업 덕분에 경기도에서는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자주 이사를 다녔는데 이곳 연천도 아버지의 새로운 근무지로, 우리 가족들 모두 지명마저 낯설은 시골로 이사간다는 것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연천은 바로 휴전선을 앞에 두고 있으며, 강 하나만 건너면 북녘 땅이 보이는 그런 곳이다. 아버지와 시내를 나가면 시내에는 군인 아저씨와 탱크가 지나다니고, 가는 곳마다 생활을 하며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면,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으로, 긴장한 채 하루 하루를 지내실까? 크게 본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과 긴장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째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에는 우선 우리 민족의 암울한 역사를 극복하고 민족의 참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바람과는 달리 외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한민족의 단일한 공동체를 이루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아 나가는 민족통합의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 민족 간의 전쟁과 갈등, 증오심을 버리고, 이해와 협동, 평화와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은 꼭 필요하다. 분단, 6.25, 휴전



이후 민족갈등은 민족의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되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만이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다. 또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민족적 역량 배양을 위해 통일은 꼭 필요하다.

셋째,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하여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은 꼭 필요하다. 남북분단, 이념갈등, 경제적 어려움은 헤어진 가족문제를 등장시켰으며, 여러 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을 통하여 인도적 만남을 통해 민족화합의 길을 열었다. 이처럼 통일은 헤어진 가족 간의 만남과 이산의 아픔의 치유 및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길이다.

넷째,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를 한반도와 유라시아로 넓히기 위한 나라의 발전을 목표로 통일은 꼭 필요하다. 남북분단은 유라시아 대륙과 경제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한반도의 자연조건을 차단하는 역효과를 보이며, 우리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무대를 넓혀 가야하며,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중국, 시베리아, 유럽을 통하는 중요한 세계경제의 동맹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우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처럼, 통일은 여러 면에서 무척 편리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통일은 항상 평화통일에 원칙을 두어야 한다. 통일이 나라의 발전이나 미래에 아무리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한 통일은 오히려 경제나, 산업발전에 엄청난 장애만 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원칙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심에 서야 한다.

둘째, 서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나라의 경사에는 축하해 주고, 나라의 피해에는 위로해 주며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은 평화적으로 찾아오게 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남과 북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앙숙의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모든 것이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지 않고, 먼저 자기만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생각으로 외교를 하며 더 이상의 양보도, 관용도 없게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통일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각 개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국가나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인 통일은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게 되는데,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의식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써 느끼는 동포애와 남북한 교류, 이산가족 만남에 의해 통일에 대한 생각할 기회 증가와 북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요즘 한 때 평화로운 기운이 돌던 한반도에 다시 북핵 위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벽이 찾아오고 있다. 통일은 국가의 이익은 물론, 엄청난 이산 가족의 행복,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다. 이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서로의 지속적인 관심과,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루빨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도록 나라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통일을 할 때

조 예 지 | 창명여자중학교 2학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ㄹ” 이 노래는 누구나 어렸을 적부터 불러 온 노래로 배우지 않아서 못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불러 본 우리의 노래이다. 그 내용 중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 때문에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절만 들어도 구슬퍼지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노래를 언제까지 들어야만 할까? 이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통일의 시간들과 마음속에 숨겨둔 고난과 역경들도 훌훌 털어 버리고, 남북한이 모두 한 민족으로써 통일을 맞이하는 영광을 안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휴전선을 소개하는 방송을 했다. 휴전선 철조망에서 넘어가려는 노루가 철조망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 철조망은 그저 땅의 경계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철조망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가? 그 동안의 노고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 정신을 가다듬고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의 룡천역 사고’는 북한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



해도 많이 주었지만 남한에게도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처럼 느껴졌으며, 그들의 아픔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 주게 되었고, 모금운동도 거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한 민족으로 피를 나눈 동포로서 피해를 줄여 주려고 각계에서 노력을 한 것이다.

솔직히 우리나라도 지금은 IMF 구제금융 이후 보다 더욱더 어려운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번 남한의 적극적인 구호활동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선, 우리는 하나! 한 뿌리,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했기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고 생각한다. 신문사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실렸고, 인터넷에서도 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올라와서 활발한 홍보를 해 주었다. TV에서 또한 '북한의 룡천역 사고'를 메인 뉴스로 다루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북한의 룡천역 사고'는 이렇게 남북이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민족! 한 동포라는 일념으로 북한 주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여 도왔고, 그러한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이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고, 구호물자 또한 그러한 진심이 담겨져 북한주민들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TV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차라리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들의 생각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았을 때 지금 현재의 생활보다 못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본다. 이제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점이 나쁜지를 따지기 전에 통일은 꼭 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라고 생각으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의구심도 버려야 된다.

우리 민족은 불명예스런 6.25전쟁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았고,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영화나 문학 등 6.25전쟁을 소재로 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번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며 다양한 영화의 소재 중에서 ‘분단의 아픔’이라는 가장 슬픈 내용을 소재로 삼아야 하는 현실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늘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 중 전쟁은 항상 불이익만 가져다주었다. 이젠 누구의 잘못을 떠나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전쟁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손에게 부끄러움과 상처만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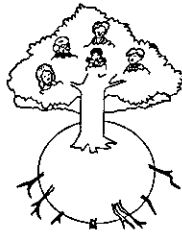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의 수난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광복이라는 영광을 되찾았듯이 통일도 그렇게 울부짖으며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원이 이제 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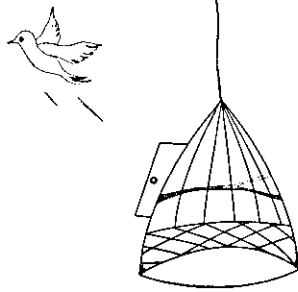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다. 너무 떨어져 있었기에 지금 당장 같이 살수도 없을 것이고, 같이 산다고 해도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어에서 생기는 이질감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제는 서로 돕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하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겐 통일이 우선이다. 통일을 이루어 전 세계 중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불명예를 해결하고, 예전과 같은 한민족의 영광을 되찾으려



는 굳은 결심으로 우리 민족의 힘과 긍지를 보여 주어야 하겠다. 통일은 멀지 않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모두가 통일을 당위적 명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노력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강원도

- 백암산의 꿈
- 할머니의 단묵
- 이름 없는 풀꽃
- 만파식적과 평화통일
- 지리밭에도 꽃은 핀다
- 관심
- 통일 믿음
- 사치이
- 자전거 두 바퀴의 힘처럼





휴전선 남방 16킬로미터, 마을의 주민 수보다 국군아저씨 수가 더 많은 마을, 언젠가 호랑이가 나타나서 텔레비전에 등장했던 마을, 겨울이면 텔레비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방송하는 백암산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 마을 풍산리입니다. 우리 풍산리에는 북녘에 두고 온 고향이 보고 싶어서 휴전선가까이 왔다가 머물러 살게된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경도가 고향이신 이웃집 할아버지께서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외롭게 살고 계시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도 명절이 돌아오거나 황금벌판의 추수를 마치신 후에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은 천만 이산 가족의 눈물이며 우리 민족 모두의 눈물이기에 하루 빨리 통일의 그 날을 앞당겨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는 마을길에 나무를 심은 뒤에 모두가 백암산 전망대로 향하였습니다. ‘민통선’이라 군부대 허가를 받아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 본 산아래 펼쳐진 풍경은 언젠가 개울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만들었던 모래성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이라는 것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물이 가득 찬 금강산댐과는 반대로 텅 비워둔 평화의 댐을 보며 웬지 모를 쓸쓸함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없어 댐을 비워 두고 금강산댐을 터뜨렸을 때를 대비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피를 나눈 형제끼리 이렇게도 서로 믿지 못한다는 현실과 푸른 산과 들을 휘감고 있는 저 무서운 휴전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백암산에 두 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백암산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저 그림 같이 어울려 있는 아름다운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별이 너무 길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었습니다. 선 채로 기다리기에 통일의 열망은 너무도 간절하였습니다. 말라붙은 저 평화의 댐을 통일된 기쁨의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두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그 날 온 겨레는 춤을 출 것이며 기쁨의 눈물이 강을 이루어 한반도를 적실 것입니다.

4월 5일 식목일, 우리 마을 길에 심은 것은 '통일의 꿈나무'였습니다. 그 날 백암산에서 저는 통일의 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 꿈이 한낱 꿈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남한, 북한 가리지 않고 서로 도우며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될 때 통일의 꿈, 백암산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굳게 믿습니다.





지난 겨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동생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다는 얘기를 하시던 엄마의 눈에는 연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살아 있는지만 알아도 원이 없겠다고 늘 눈물지으시며 말씀하시던 외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도대체 휴전선이 무엇이기에 피를 나는 형제조차 갈라 놓는단 말인지, 왜 형제 자매가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죽어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외할머니께서는 6·25 피난길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잃어버리셨다. 그 후 생사조차 모르는 동생을 찾아 오십 년 넘도록 헤매시면서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 피난길에서 동생을 잘 돌보지 못 했다는 자책감도 크셨는지 늘 말끝에는 “내 탓이다.”를 연발하셨다. 그때 가족을 잃은 사람이 할머니뿐만이 아니라고 주위에서 많이 달래셨지만 그 마음의 짐은 돌아가실 때까지 털어버리지 못 하셨다. 텔레비전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을 때마다 통곡을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생생하기만 한데 이제 더는 할머니의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슬프게 한다. 할머니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셨더라면 동생을 만나 볼 수 있었을까? 1년? 2년? 아니면 10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누구나 불러본 적이 있는 익숙한 노래가 요즘은 더 내 마음을 울린



다. 이제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외할머니의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또 다른 외할머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도 할머니는 그저 보고싶은 형제와 고향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2년 전 겨울이었다.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체험학습이 있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땅, 북녘의 땅을 밟아본다는 생각에 전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었다. 배가 단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동해바다를 포물선 모양으로 멀리 돌아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분단국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북녘의 산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하고도 남나보다. 그 많은 산에 나무하나 풀 한 포기 풍성한 것이 없었다. 별거벗은 산을 바라보며 웬지 또 눈물이 어렸다. 그 아래 살고있을 우리 동포의 생활모습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비료와 농약을 쓰지 못하기 때문인지 산촌이라 땅이 메말라서인지 밭에 있는 채소들은 보잘 것 없이 작기만 했다. 그 사이에서 일하던 무채색의 사람들이 우리가 손을 흔들자 마주 응답해 온다. 밝은 웃음을 머금고 손을 흔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한 동포구나! 함께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던 마음이 가시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의 경제력과 산업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지면 우리는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런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니까. 내 할머니의 동생이나 사촌인데 무슨 이유가 필요할 것인가?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사랑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요즘 우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공부에 치어서 다른 생



각을 할 겨를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분단의 상태로 오십년이 또 지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더 이상 북한에 혈육을 둔 사람도 없고 할머니에게 고향에 대해 들은 사람도 없는 시대가 오면 누가 앞장서서 통일을 이야기 하겠는가. 정말로 조그마한 두 나라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왠지 조급한 마음도 든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50년, 100년이면 ‘혈육의 정’도 끊어지지 않는을까 걱정스럽다. 룡천 참사 때 많은 구호물품을 보내고,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한 민족임을 잊지 않는다면 통일은 반드시 남의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땅의 많은 이산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 희망의 앞날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최우수

이름 없는 풀꽃

박혜진 | 춘천여고 1학년

나는 춘천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5살 때 춘천을 떠나 태백으로 갔다. 태백은 내가 8년을 보낸 곳, 나의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서려 있는 제 2의 고향이다. 그곳의 구불구불한 산간도로를 달릴 때면 길가의 풀꽃들이 어김없이 나를 반겨주곤 했다. 나는 그 풀꽃을 보다가 문득 어떤 단어를 떠올렸다. '학도병'. 이름도 없고 알아 주는 이도 없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은은한 향기를 뿜어 내는 풀꽃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감히 전장에 쓰러져 간 어린 학도병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현충일이 다가오면 평소에는 시끄럽게만 들리던 사이렌 소리도 엄숙하고 경건한 음악소리로 느껴지고, 전 국민은 호국선열들을 위한 묵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묵념을 하는 시간에 학도병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태백에서 살아 본 사람이라면, 아니, 태백 중학교에 잠시라도 들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학도병을 잊지 못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지닐 것이다.

태백중학교 운동장 한 켠에는 학도병들을 위한 작은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고 충혼탑도 세워져 있다. 충혼탑에는 용감히 싸우다가 겨레의 꽃으로, 영원한 호국의 영령으로 남으신,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18분의 고귀한 영혼이 잠들어 있다. 내가 놀랄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전장에 뛰어들 결심을 하고, 그 붉은 피를 전쟁터에



뿌린 때가 기껏해야 17살, 내 포래이거나 나보다 더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다.

학도병 기념관에는 학도병들이 쓰던 교과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빛바랜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다. 사진 속 학도병들은 도저히 군인이라고 보기 힘든 앳된 얼굴들이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총은 그들의 키와 맞먹었다. 그들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간단한 훈련만을 받고 바로 전선으로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참전한 전투도 매우 많았을 뿐더러 일부는 유명한 전투이기도 했다. 그들이 전투에서 세운 공도 아주 많았다고 하니, 나이 어린 학도병이지만 다른 군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군인들이었던 것이다. 사진 속 학생들의 모습에서 비장한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6·25 당시 경찰간부인 경감이셨고, ‘이리’ 전투에서 순국하셨다. 내가 마음 속 깊이 존경하고 있는 그분은 지금 대전의 국립묘지에 계신다. 그러나 학도병들은 국립묘지가 아닌 우리 국토 어느 곳인가 잠들어 있다. 그분들의 묘지는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롭게 남겨져 동료들, 전우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다. 그분들의 묘지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모든 학도병들은 국립묘지에 계신 많은 분들에 결코 못지않은 훌륭하신 분들이었다.

최근 몇 년간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갖은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학도병들의 희생이 더욱 더 간절하게 떠오른다. 아직 나라가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단지 훈련 받는 것이 싫어서 병역을 기피하려 했던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진정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제대로 된 훈련도 몇 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저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만으로 뜻을 모아 전장에 뛰어든 학도병들을 보고도 비양심적인 병역기피를 할 수 있을까?

플꽃은 결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드러내는 법이 없다. 단지, 아무



도 모르게 씨앗을 퍼뜨리고, 그 씨앗도 아무도 모르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낼 뿐이다. 학도병들도 우리에게 자신들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애국을 강요한 적도 없다. 다만, 우리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씨앗을 한 알 심어주었을 뿐이다. 비극이 끝나고 핏빛 산하와 피로 물든 강, 온 국토에 진동하는 피비린내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 127명의 어린 학도병들이 심어준 애국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워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향기는 영원히 우리 국토에 남아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적셔 줄 것이다.





예전에 삼국을 통일시킨 문무왕이 밤이면 하나 되고 낮이면 둘로 나뉘어지는 신기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렀더니 소원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파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만파식적이 동해바다 어느 한가운데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제가 안타까워 하는 이유는 그 만파식적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꿈에도 소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 가고 있겠죠?

“불어 보세, 불어 보세, 만파식적 불어보세. 삼국통일 시키신 문무왕이 남북통일 평화통일 다시 한번 시켜주시겠네 ...”

를루랄라 휘익 훗. 휘파람 불며 기원해 봅니다.

만파식적. 그 신기한 피리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6·25때 헤어져 생사를 알지 못하고 혼자되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무작정 걸어 피난을 나온 곳이 이곳 강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남한 분이 아니십니다. 북쪽의 신의주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친척하나 없는 이곳이 두렵고 북한사람이라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할머니께서는 북한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 곳의 말을 쓰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눈시울을 적시며 고향 이야기를 하시



고는 하셨습니다. 꼭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큰아버지들과 저의 아버지까지 5형제를 낳고 길러주신 할머니는 제가 입학할 무렵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자유롭게 찾아가실 수 있게 되셨네요. 할아버지도 뵈고 삼촌도 뵈어 살아 생전 못나눈 정이나마 많이 나누세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큰아버지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시던 큰어머니들과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때는 큰아버지께서 왜 그리 슬피 우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었다면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고향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었겠지요.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통일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독일에도 만파식적과 같은 신비한 피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독일처럼 통일되어 한민족 한나라로 살아가는 날이 오겠지요.

얼마 전 어머니와 만파식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크고 튼튼한 잠수함을 만들어 동해 바다 깊숙이 숨어있는 만파식적을 찾으면 빨리 통일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만파식적은 말이야,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 숨어 있단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모를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만파식적이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속에서 꺼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만파식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통일된 우리나라도 떠올립니다.





우수

지리밭에도 꽃은 핀다

옥찬미 | 철원여자중 3학년

어느 때보다도 나른한 오후였다. 많은 숙제들 틈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던 나에게 즐거운 권유가 들려왔다.

“찬미야, 날도 좋은데 오랜만에 절에 가볼까?”

“네, 좋아요!”

아버지께서는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차에 타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웬 절인가 싶었다.

“그런데 어딜 가시려고요?”

“도피안사.”

“아,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그 곳이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절이래요.”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깊은 뜻이 있는 곳이니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하셨다.

작은 변화도 금세 눈에 띄는 동송 시내에서 벗어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도피안사로 가는 길... 그 평화로운 길의 양편에는 잊지 말라는 무언의 쪽지, 지뢰가 있었다.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한 지뢰 때문에 소름이 끼쳐왔다. 길을 조금 더 지나니 옛 검문소가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다시, “도피안사도 예전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갈 수 있지. 검문소도 이제는 조금 더 멀리로



옮겨졌고...”

라고 말씀하셨다. 아마 우리의 현 상황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동안 도피안사에 도착했다.

산 속 깊이 있지 않아 손 내밀면서 반겨줄 것만 같은 아늑한 절... 이 절을 보며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 봤다. ‘도피안’이란 영원한 안식처에 도달했다라는 뜻처럼 우리의 통일이 안식처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찬미야, 국보 제 63호인 이 불상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물으시기에 곰곰이 생각해봤다. 하지만 답을 모르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것을 보시고는,

“이 불상을 안양사라는 절에 옮겨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승려들이 잠깐 쉬는 사이 불상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그 불상을 찾아보니 스스로 지금 이 곳에 자리 잡아 있었다더구나. 이 자리가 명당이라는 뜻이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불상이 저절로요?”

나는 그냥 전설이려니 해도 신기하여 되물었다.

“그래, 여러 승려들이 그 불상을 옮기려고 노력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은 어느 순간 스스로 이루어지게 돼있어.”

나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되새겨 보았다. 그렇다면 통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통일도 언젠가는 스스로 우리 곁에 와 있을 거란 이야기였다.

아직 우리는 화합의 길의 중간 밖에 오지 못했다. 그 길은 자칫 잘못하면 벼랑 아래의 지뢰밭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벌써 와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올상 짓지 말고 오는 통일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된다. 그게 내년이든 10년 뒤든 언제이든 간에 통일은 꼭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 후의 문제점을 해결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뢰밭에도 꽃은 피고, 지뢰밭에도 새는 지저귀고, 지뢰밭에도 사슴은 뛰는다는 것을...

바로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반도에도 통일의 꽃은 핀다는 것을 맘 속 깊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돌아오는 마음속에는 통일이 들꽃처럼 가득 피어 은은한 향기로 번지고 있었다.





“내가 탈북하려다 잡혀서 끌려가고 또 잡혀서 끌려가고, 그런데도 계속 시도해서 왜, 어렵게 한국에 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나는 그냥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탈북자 수기를 읽게 되었다. A4용지 두 장 정도 분량의 북한 이야기는, 읽는 내내 몇 번이고 나를 울게 만들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처참하고 안쓰러운 삶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태껏 몰랐다는 사실, 북한에 대한 나의 무지가 더욱 더 가슴 아프게 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인터넷 신문까지 뒤져가며 이라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던 그런 내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몇 번이나 웅변대회에서 외쳤던 내가, 속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 나 몰라라 했던 사실이 더욱 더 나를 부끄럽게 했다.

북한은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씩 배고픔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멀건 강냉이죽이라도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사람들. 풀독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도 허기진 배를 조금이나마 채워보려고 또 다시 풀을 캐러 산을 향하는 사람들. 중국의 길거리를 해매이며 바닥에 버려진 것을 먹다가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는 북한 어린이들. 약이 없고 돈이 없어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죽어가야만 했던 생명들. 나는 이 눈물겨운 이야기에 주목한 적이 있던가.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려고는 했으나.

떨떨 꿔다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우리의 관심과 시선도 늘 한 철이었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룡천 참사, 나는 잠시동안 그들에게 집중했다.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친구들과 호들갑을 떠는 것도 잠시, 소독약조차 없어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워 한 것도 잠시, 나와 친구들은 곧 잊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우리는 남에게 조금씩 미루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 친구들은 북한의 이야기를 서서히 소외시키며, 이웃 나라 그 이상으로 도와줘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의문을 품고 있었다. 통일은 왜 해야 하지?

나는 웅변 원고를 쓰면서 통일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했다. 원래 한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혹은 통일한국의 발전 가능성과 국제적 위상, 통일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 등. 하지만 누군가 내게 이런 반론을 했었다. "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할까? 이산가족이야 세월이 흐르면 사라질테고, 통일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역시 통일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어." 나조차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론에 멋진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난 회의를 느꼈다. 북한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는 대다수와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절반, 이것이 나와 청소년들의 시각이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윗 세대가 햇볕정책과 여러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져놓았던 기반 위에, 우리는 지금부터 씨를 뿌리면 된다. 어른들이 국가와 국가로서 서로를 대했다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들을 맞아야 한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아픔들에도 귀를 기울이고 북한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핵문제나 외교관계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부분



을 지적하고 그것을 여론화 시켜서 자꾸만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 우리들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시선을 비춰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사회 전반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에 우리가 주역이 되었을 때 북한의 실상을 세계 곳곳에 알려 다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것이 신뢰정책이다.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다. 얼토당토 않은 소리로 들리지 모르지만, 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 역시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그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다. 나도 행복하게 살수 있구나, 나도 선택하며 살수 있구나! 희망은 곧 용기이고, 용기를 가지면 그들은 소리 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자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믿는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자! 희망과 용기와 믿음과 신뢰를 주자! 아끼고 사랑하며 그 날을 기도하자!





장려

통일 믿음

문 현 승 | 한전초 6학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다니던 학교에는 인도, 파나마, 중국, 스페인, 독일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 아이들이 다녔었다. 그 중에는 한국인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착각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은 2개의 나라 즉,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느 쪽 사람이라고 묻곤 했었다. 그때 나는 어려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를 묻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왜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나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같은 나라가 왜 그렇게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이상하기만 하였다. 지구본에 있는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땅이 크고 작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며 같은 모습 같은 언어를 가지고도 허리 잘린 2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갑자기 고개가 숙여졌다. 슬퍼서라기 보다 나는 다른 나라 친구들 보기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나를 이상한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크고 부자 나라 친구들에게 알보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은 부분 지배했던 것 같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만 내가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생각이 모자랐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와 한국친구들과 공부하



며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달라졌다. 큰 나라 국민이 아니어도 부자나라 국민이 아니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와 모습과 말이 같은 정다운 나의 친구들이 있는 이 곳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있게 해 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2002 월드컵 때 보여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성과 뜨거운 열정, 대통령의 탄핵으로 술렁였던 올 초에도 선진 문화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의 나로 변하게 하였다.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한때나마 내가 우리나라를 창피하게 생각했었던 일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심지어 죄스럽기까지 하였다. 비록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 현존하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작고 작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통일을 희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인 것 같다.

이런 근성과 열정은 우리 남한 사람만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너무 오랜 동안 남남으로 등 돌리고 살아왔지만 북에 있는 우리의 핏줄, 우리의 형제님들에게도 역시 같은 근성과 열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이 우리를 받아 들여 줄 시간, 그들과 우리가 융화할 시간,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뿔어져 나올 시간,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날 시간이 꼭 올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대통령도, 기업인들도, 정치인들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안고 통일을 꿈꾸고 있다. 시청 앞 광장을 수놓았던 우리 국민의 열망이 모인다면 그 언젠가는 통일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도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그 날의 기쁨으로 또 다시 시청 앞 잔디밭을 메우고 있지는 않을까?

그 날에도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 짜작짜작! 대한민국! 짜작짜작!



6월이면 생각나는 2002 월드컵, 그때 우리 민족은 모두가 하나 되어 길을 가득 메우고, 한 목소리로 4강을 외쳤다. 그때의 감동과 환희는 엄청났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봤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새롭게 볼 이유는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인 분단국가. 반세기가 지나도록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이라고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의 나라라고 하여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학교에 들어와 해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만 그 때마다 통일에 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곤 한다. 처음에는 무작정 꼭 통일을 이뤄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는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말이다. 아마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 방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남북의 통일과정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경제적,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감정만을 앞세워서 는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되기까지는 힘든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 통일에 반대한다면,



그런 정신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다.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난다.” 이 말은 통일의 과정에 함께 따를 고통과 인내도 통일 후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통일을 이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조금씩 자연스럽게’가 아닌가 한다. 2년 전에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다. 빨갛게 단풍이 든 금강산의 모습도 기억에 남을 멋진 풍경이었지만 북한 여성들의 예쁜 모습도 잊을 수 없다. 독특한 북한 말씨와 조금은 발그레한 볼은 북한 여성을 더욱 아름답게 보여주는 듯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금강산 여행을 발돋움으로 점점 더 북한을 가깝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말이다. 때로는 느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가 옳지 않겠는가?

내가 중학교에 막 입학하였을 때였다. 한 TV프로그램에서 북한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이 담겨있는 내용을 유심히 본 적이 있다. 땅에 떨어진 국수 한 가닥을 주워먹는,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북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가슴 아프고 눈물나게 했다. 그런 북한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북한 사람들은 불쌍하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는다”와 같은 고정관념이랄까? 동정심 같은 것이 생기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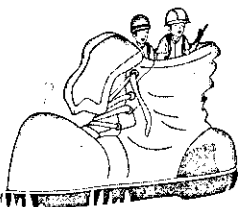
하지만 단순한 동정심만으로 남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좀 더 북한을 우리와 대등한 관계로 놓고 냉철한 이성으로 서로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국방의 문제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평소 통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 각자 자신의 일에 바빠 통일은 생각할 여유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갈라질 당시의 전쟁으로 생긴 무고한 희생과 생이별한 어머니, 아버지, 어린



동생, 또는 누나, 형... 당시에 이렇게 가족이 죽거나 헤어진 사람들은 어찌 그 때의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겠는가? 우리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뿐 몸으로 느끼지는 못한다.

통일에 관해서는 결코 $1+1=2$ 와 같은 분열됨이 아니라 $1+1=1$ 이라는 통합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합해서 하나의 물방울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는 느끼고 머리로는 냉철하게 통일을 대비하는 명석한 민족이 되었으면 한다.





어느 따스한 일요일 아침!

늘 늦게까지 잠을 자는 나를 깨우려는 엄마의 힘겨운 목소리로 나의 달콤한 주말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주말마다 잠만 자는 나는 항상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고운 연두색, 노란 꽃들이 햇빛을 받아 저마다 아름다운 색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컷가를 어루만지며 살랑거리는 바람과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 마을 앞 광천교 아래쪽 독길을 달렸다.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운동인데다 날씨가 너무 좋아 더욱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달콤하고 상쾌한 아침을 맘껏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덜컹덜컹거리더니 페달을 밟아도 잘 나가지 않는 것이다. 나는 비포장 길이라서 그런가 하고 더욱 힘껏 페달을 밟았다. 계속 밟아 보았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잘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보니 길에 떨어져 있던 못에 뒷바퀴가 찰려 펑크가 난 것이다. 오랜만에 나온 운동이었는데 이렇게 김이 새고 말았다. 시원한 바람과 향긋한 꽃 냄새를 뒤로 한 채 펑크난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짧은 아침 운동이었지만 난 그 운동 덕분에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전거 두 바퀴에 바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뽐뽐 달리며 일요일 아침을 맘껏 누릴 수 있었는데 한쪽 바퀴가 펑크가 나자 아



무리 힘 주어 페달을 밟아도 더 이상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못에 찢린 내 자전거가 우리 한반도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바람이 빠져 균형을 잃은 그 자전거가 식량난으로 굶주려 가는 북한같았고, 한쪽이 펑크난 그 자전거는 하나의 가지에서 나온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남북과 꼭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우리 한반도는 균형을 잃어 제대로 탈 수 없는 자전거와 같다.

반세기라는 오랜 시간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통일을 갈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모두들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작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감동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찡한 울림이었다. 아름다움이란 고통 속에서 여무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행사였다.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그 감동들이 나의 마음을 울린다. '우리 민족 세계최강'이라는 외침 말이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기에 한반도 기가 휘날릴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단일민족이라는 뜨거운 혈연으로 뭉친 우리에게 찬 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 우리가 아직 통일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는 이유는 작은 희망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고 그 희망들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몇 일전 남북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를 진행하였다.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남북이 올 10월에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은 도로개통과 함께 경의선, 동해선 철도 시범운행을 진행하며, 내년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 개통한다고 한다. 지난 6월 3일과 4일, 이 지역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다. 바로 남북장성급회담의 결과문이다. 설악의 산자락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이루어진 그 회담과정에서 남과 북 대표자들은 거의 밤을 세우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서해상에서 일어났던 남과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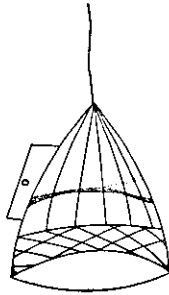


의 우발적인 충돌을 상호 협력하여 더 이상의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 그리고 내가 일전에 통일교육과정에서 보았던 크고 붉은 선전글씨 등 그런 선전활동을 위한 장치들을 제거한다는 것 등이 합의되었다. 매우 뜻있는 이러한 결론을 맺기까지 남과 북의 대표들이 흘린 땀과 고뇌의 토론이 막 느껴지는 것 같다. 이 역사적인 합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서 열렸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영광으로 다가왔다. 남북이 벌써부터 하나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기쁨이 그대로 전해 졌으면 좋겠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라는 꼬리말을 달고 살아왔던 독일은 통일된 지 벌써 14년이나 흘렸다.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점은 동족 간에 이질감을 줄였기 때문이며 국민 스스로가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통일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

이제 우리는 더욱 많은 만남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협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겨운 대화를 통해 남북의 가슴에 맺힌 한과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와 다른 이념을 유지하여 온 남·북한은 동질성의 회복과 사상의 진정한 통합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자. 그 동안 서로가 받았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말이다.

핑크난 한 쪽 바퀴를 고치고, 바람도 충분히 채워 넣은 튼튼한 두 바퀴 자전거로 일본,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를 거쳐 영국까지 힘차게 달려가고 싶다. 동북아시아가 하나로 뭉치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날을 뜨겁게 기대해 본다. 나는 달리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저 백두산까지 뿔뿔 신바람나게 자전거를 타고 말이다.



충청북도

- 우리 언제 만날까
- 기다려지는 그 날
- 할아버지의 노래
- 세계속의 중심, 통일 대한민국
- 어느 노병의 재회
- 이제는 지워져야 할 선
- 통일을 바라며 보고 싶은 친구에게
- 아직 늦지 않은 깨달음
- 제 목을 다하는 이룬 수레처럼





최우수

우리 언제 만날까

박지영 | 한국고원대학교부설 월곡초 5학년

안녕? 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너무 궁금해.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야기를 해 줄테니 너도 꼭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네 주변에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아니면 이산가족이 되어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니?

얼마 전 난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극장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전쟁영화를 봤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기차에 타고 가족들과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되는데 내려진 곳은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였어. 그곳에서 그들은 나라와 부모, 형제를 위해 열심히 싸우게 된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문득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해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 나에게도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다는 왜관 다부동전투에서 돌아가셨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음력으로 9월 9일에 제사를 지낸다. 할아버지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두고, 혼자 힘들 때에도, 날씨가 추워져도 동생 생각에 늘 마음 아프셨단다. 하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 고이 묻어두셨데.

이곳에서는 나라를 위해 귀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 각 지역마다 충혼탑이 세워져 있고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해 그분들의 넋을 위로한다. 그리고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너는 이곳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난 통일이 되면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의 금강산과 얼마 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고구려 유적지를 둘러보고 싶어. 네가 이곳에 오면 나는 너에게 옛 신라의 도시 경주, 발전한 서울, 또 놀이공원에서 너와 내가 손을 맞잡고 놀이기구도 타고... 너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이렇게 그리워만 하고 또 이번 룡천 폭발 사고로 많은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달려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린 서둘러 성금모금을 하고 구호물품을 보냈었지. 나도 작지만 장학금을 타면 성금을 보낼게.

우리는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이니까 꼭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루 빨리 통일되는 것만이 보고 싶은 사람 실컷 만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그분들께도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겠니?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도 하니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통일도 곧 이루어지리라 믿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엄마 고등학교 때에는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우리 오빠 고등학교 때는 제주도로, 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통일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겠지? 꼭 그렇게 될거야. 너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니까.

다음 현충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묵념을 드리고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의 제사날에는 찾아 뵙고 예쁘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눈물도 닦아 드려야지.

친구야! 우리 곧 만날 수 있겠지?



나의 외할아버지 산소는 음성 공원묘지에 있다. 음성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곳에 묻히신 까닭은 이유가 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인 휴전선 부근에 선산이 있지만 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음성 공원묘지에 묻히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너무 안타깝다. 바로 코앞에 놓인 고향을 두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다. 어서 통일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해 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

최근 통천에서 큰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큰 사고여서 남한사람들은 제 일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성금을 모으고 여러가지 구호장비를 모아 북한을 도왔다. 같은 민족,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통일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육로로 금강산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가까운 거리를 육로로 가지 못하고 먼바다를 돌아 2박 3일이라는 일정으로 금강산을 다녀오셨



다. 할머니께서 다녀 오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역시 금강산은 금강산이더구나. 천하절경의 감탄사만 나오더구나. 너도 나중에 꼭 한 번 다녀 오렴.”

친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천하제일 아름답다는 금강산을 나도 다녀오고 싶어졌다.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니 내가 금강산에 갈 수 있는 날도 더 가까이 온 셈이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북한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세히 몰랐던 북한의 문화를 더 느껴 볼 것이다. 점차 시간이 지나 남·북한이 더 많은 문화교류를 하게 되면 이곳, 청주에서도 멋진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에는 신문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젠 남북이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교사들도 남과 북이 만나는 날이 왔구나. 7월에 금강산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사들이 만나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구나. 나도 참석하고 싶지만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자꾸 서로 접촉을 하다 보면 굳게 닫혀져 있던 모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들이 자꾸 들리는 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더욱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이 무척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 우리는 이토록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까? 북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겨레가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하늘에 날아 가고 있는 저 비행기가 북녘 땅을 오가는 여객기가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내 마음은 어느새 비행기를 따라 북쪽 하늘을 향해 날고 있다.



최우수

할아버지의 노래

노 은 주 | 일신여고 2학년

언젠가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란 글을 본 적이 있다. '교통사고율, 암사망률, 자살 증가율 등 각종 악덕 타이틀이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종족' '조기교육비 세계 1위를 지키면서 영어실력은 형편없는 미스터리 종족'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자동차 한 대씩은 다 있는 간 큰 종족'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제일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 말...

TV에서 이산가족들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봉하던 순간을 본 적이 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모습에 나도 함께 마음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 왔다. 다 늙어버린 동생, 자식을 만난다는 생각에 병중에 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어머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뒤로한 채, 꼭 죽지 말고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마지막 한마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울먹이던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들려오는 기분이다. "저렇게 간절한 사랑이 가족이구나. 저렇게 뜨거운 것이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에 괜시리 마음이 아려왔다.

문득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 떠오른다.

"통일 안되나? 통일 안되나?"

"많이 기다려야 되나?"

"나 살아 있을 때 되긴되나?"



항상 금방 될꺼라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나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어버렸다. 항상 고향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로 추억에 잠기 시던 그 표정이 얼마나 애처롭고 행복하시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6.25전쟁 당시 홀로 남한으로 넘어오셔서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신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리던 통일을 끝내 못 보고 돌아가셨다.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족도 끝내 만나지 못한 채... 분단으로 가족들과 원하지 않은 이별을 하고 평생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혼자뿐일까. 걱정하고 또 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다 새까맣게 타버렸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더 이상 분단으로 피눈물 흘리는 이가 없었으면 한다. 서로 눈치를 보며 무기를 사들이고 총을 겨누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서로 사랑만 하기에 모자란 시간에 미워하고 의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정말 없었으면 한다. 우리는 하나의 핏줄로 뭉친 한 민족이기에...

빠르면 몇 년 뒤, 늦으면 몇 십년 뒤의 통일이 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내게는 억양이 특별한 친구가 생길테고, 백두산과 금강산이 보이는 곳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휴전선에서 쉬고 있는 기차길이 남쪽바다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어질 것이고, 고속철도가 그 위를 달릴지도 모른다. 한 민족이라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세상에서 아마도 나는 하늘로 편지를 보내고 있겠지?

보고 싶은 할아버지, 손녀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가족은 만나셨어요? 그동안 쌓아두신 얘기가 한도 끝도 없어서 하루가 짧기만 하시죠?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도 통일을 그리실까요? 저는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눈만 뜨면 통일, 통일, 통일이 언제되냐고 노래를 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는 제가 안고 달리려고 해요. 비록 혼자이지만 할아버지 고향집을 제일 먼저 찾아가 동화 같은 이야기속 추억들을 찾아볼 거구요. 할아버지 앞에서 항상 부르던 노래를 다시 그곳



에서 부를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게 크게... 더 크게...

“가보고 싶어. 꿈이라도 좋아. 금강산 너머 압록강까지. 만나고 싶어
이름 모를 친구...”





저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 책을 빌려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엔 ‘반갑습네다’라는 북한말의 제목이 눈에 띄는 책을 빌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북한에 대해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텔레비전에서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의 룡천역 폭발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발벗고 직접 가서 도와 줄수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줄수 없다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고구려 땅의 문화재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문화재들을 중국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 나라 문화재인 것처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통일을 해서 체계적인 역사자료를 내 보이며, 우리나라 문화재라고 알려 당당히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따로라서 하나로 뭉치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내도 잘 사는데, 왜 통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분단상태에서는 서로 발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남한은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대륙으로의 진출이 어렵습니다. 역시 북한도 해양으로의 진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통일은 우리민족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통일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는 해양경제권, 대륙경제권이 서로 상통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통일은 분단비용을 완전히 해소하는 길입니다. 분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 중 국방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분단비용의 일부를 조금씩 다른 곳에 쓴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요?

넷째, 통일은 한반도에 평화로운 삶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휴전중일 뿐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없애 줄 것입니다.

다섯째, 통일은 개인의 삶에도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보다 넓어진 생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기술발전이 높은 몇 십년 후에 통일이 될 경우 아침에 집을 나와 시속 500km의 고속철도나 자기부상 열차를 타고 베이징이나 홍콩에서 일을 보고 퇴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닌 세계입니다.

여섯째, 통일은 이산가족의 슬픔을 덜어 줄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들도 마음대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슬픔도 적어질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솝우화의 ‘해님과 바람의 내기’라고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해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코트를 누가 먼



저 벗기나 하는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세계 찬바람을 불었지만 나그네는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님이 따스한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는 스스로 코트를 벗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반도의 잘린 허리에도 따스한 햇살을 비춰 아픈 허리를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6.25전쟁과 관련한 텔레비전의 특집방송을 보았다. 6.25전쟁 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외국인 전우를 찾는 내용이었는데, 전쟁을 모르는 나에겐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해 준 뜻깊은 기회가 됐다.

그 노병은 전쟁이 끝난 후,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당시의 상관인 프랑스 국적의 노병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머나먼 미국땅에서 재회하게 되었다.

노병은 양복저고리에 훈장과 국가유공자 휘장을 차고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옛 전우를 만나기 위해 12시간의 긴 비행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프랑스로 건너가,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전쟁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파리 시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조형물은 한반도 모양의 석조물에서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었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과 그로 인해 수 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과거의 현실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은 없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절로 생기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50여년 만에 재회하게 된 노병은 자기의 훈장을 떼어 내어 기꺼이 그 외국 노병의 가슴에 달아 주고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본 나 역시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한 외국 국가는 무려 16개국으로 비단이 노병의 경우 뿐 아니라 이름없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치루고 얻어 낸 값진 자유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피와 몸을 바쳐 지켜온 덕에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해 놓은 경제부흥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을 위해 우리는 6월 뿐 아니라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켜 오고 이룩해 놓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더욱더 살기 좋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일은 구호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각자가 자기본분을 다하고 빈틈없이 차곡차곡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국력이 신장될 때 비로소 통일은 가까워 질 것이다.

노병이 지켜 낸 아름다운 이 강산을 보며,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그분들과 이름없이 산화해 간 수많은 이 땅의 선열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먼 이국에서 온 많은 외국군인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가져 본다.



50여년의 침묵의 세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통일이라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에 대해 생각해 왔지만 아직도 통일이라는 단어는 낯설기만 하다.

가끔 TV에서 접하는 북한의 소식에 나는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 켠이 너무 아파 왔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서로 만나고 싶은 우리들이 왜 50여년의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어야만 하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차가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 뿔쭉, 한 민족인 우리들이 서로의 침범에 대비하여 밤새 뜬 눈으로 각자의 국토를 지키려고 서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가슴 한 구석이 저미어 온다.

통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급속도로 성장한 사회의 바쁜 생활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이다. 어쩌면 이 빠듯한 생활속에서 북한은 잊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우연히 평양 어린이예술단의 공연을 접하게 되었다. 서로 달



리 살아 왔지만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생김새이며, 해맑은 웃음이며 모든 것이 닮아 있었다. 어쩌면 나는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북한이 먼 나라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삭막한 현실 속에서 잊고 살아 왔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5000년이라는 같은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다. 한 민족이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서이다.

매년 슬프고 아름다운 눈물은 어김없이 우리들의 가슴을 적신다. 아름다운 만남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슬픈 만남이다.

나는 이산가족의 짧고 안타까운 만남을 보곤 하였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한 방울 두 방울씩 흐르곤 하였다. 서로의 닮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돌아가신 부모님의 소식에 넋을 잃은 사람들. 이렇게 생사도 모른 채 그들의 사이에 지워지지 않는 선을 그어야만 하는 것일까... 54년전 그 빠져리는 아픔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슬픔이 내 가슴 속 깊숙이 다가와 안타까움을 안겨 준다. 또 다시 기약 없는 만남을 뒤로한 채 헤어져야만 하는 이산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세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더욱 분단이 가속화되었다. 현재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다. 지금 전쟁이 아예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불필요한 군사적 대치로 인한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이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대치와 군사비용은 국가재산의 큰



낭비라고 생각된다. TV시사프로그램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비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남한보다 국가·재정사정이 어려운 북한은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적 비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전해들은 소식에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휴전선에 있는 확성기를 떼어 내고 밤마다 두근거리게 하는 두려움의 방송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다. 북한과 남한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설레었다.

통일을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한과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다. 분단이 가속화되어 가는 현재, 정치적, 국토적 통일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먼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통일이 남북한의 평화에서 더 나아가 세계평화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을 바라며 보고 싶은 친구에게

노가영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 2학년

안녕? 친구야! 난 노가영이야.

청주교대부설 초등학교 2학년 이야.

내가 생각하는 너는 참 친절하고 예쁜 아이 일 것 같아! 너를 꼭 만나고 싶어. 내 마음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급한 마음이 들어 TV로 그 곳의 친구들을 보니까 무용도, 악기도 참 멋지게 잘 하더라. 나도 피아노,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피아노대회에서 처음으로 멋진 트로피도 타 보았어.

그리고 학교에서 가야금을 배우기로 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외국 사람들에게 들려 주어 우리 것의 소중함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가 1학년때 운보 전국 미술대회에서 기와집 풍경을 그렸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상을 탔어. 그 이후로 우리 전통에 더욱 관심이 많아졌단다. 나는 내가 있는 북한에 가서 백두산도 그려보고 싶어.

친구야! 만약 나와 만난다면 너와 함께 울릉도에 가고 싶어.

제주도와 설악산, 경주 등 여러 곳을 여행해 본 중에서 울릉도가 가장 멋있었어. 특히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섬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섬 전체가 다 보이거든.

특히 망원경으로 보면 독도가 다 보여.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가보면 오래된 세계지도 속



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 이라는 역사적 자료가 1, 2, 3층에 꼭 차 있어.

나는 두 번이나 가 보았지만 나중에 너와 꼭 만나서 함께 또 가보고 싶어.

친구야! 너를 이 곳 청주에도 초대하고 싶어.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의 직지박물관이 가장 유명하단다. 앞으로 통일이 되어 힘을 합쳐 노벨상보다 직지상이 더 유명해 질 수 있도록 해내보자! 이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즐거운 음악이 술술 나와! 나무도 많은 행복한 우리학교와 마음이 따뜻한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께.

무심천에서 롤러도 신나게 타자.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꼭 만나자!

보고 싶은 친구야! 오늘은 이만 안녕!

2004년 6월 25일

어린이회관에서 노가영 씀.





어, 이게 뭐지?

공부를 하다 언뜻 책상에서 졸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놀라 재빨리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없는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김선일이 죽었다. 부시는 파병을 기대한다고 하고 리근 외무성 부국장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인가.”

‘김선일’이란 사람이 누구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확인할 새도 없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침식사 중에 TV를 보다 그 문자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잡혔던 우리나라 국민인 김선일씨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성명 발표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추가파병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고, 회담 중이던 북한의 리근 외무성 부국장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측 대표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것이었다. 조금은 의아했다. 미국은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많은 이익을 주고 받는 나라라 생각했고, 북한은 어쩌면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여겨졌었는데, 생각과 다른 두 나라의 입장표명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무참히 살해 당한 이 시점에서의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나 화가 났고, 리근 외무성 부국장의 말에 동포애를 느꼈다. 그 때 얼마 전 읽었던 책이 떠올랐다. 김진명씨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읽은 것은 애국심이 투철하신 아버지의 권유



로 읽었다. 이 책의 마지막 권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무참히 당하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 위원장이 우리나라로 와 대통령과 만나 서로 끌어안고 힘을 합쳐 그 전쟁을 종결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책을 읽는 동안 ‘이건 가상현실일 뿐이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떠올려 생각해 보니 너무도 감동스러운 결말이었고,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갈 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게 있어 ‘통일’이라는 낱말은 듣기에는 낯익지만 결코 가깝지 않게 느껴졌던 말이었다. 학교에서도 ‘통일’에 대해 배우고 매년 이맘때 즈이면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을 보지만 내게 영향이 있는 일도 아니고, 관계도 없다는 생각만 들어 그리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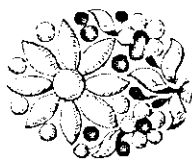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통일에 관한 글짓기·그림대회에 수 차례 참가하면서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글을 쓰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통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보여 주기 위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왔다.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 소식에는 무슨 짓들인지... 하며 혀를 찼고, 룡천역이 폭파되어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다쳐 우리나라에서 모금을 하는 방송을 보면서도 ‘자업자득’이라며 무시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받은 상장과 상패들이 부끄러워진 것이다.

삼팔선이 가르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한 겨레라는 것을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이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많은 청소년들의 현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결코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들이 통일에 대해, 그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자매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은 TV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동포'인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같이 손을 잡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하며, 이런 나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가 얻은 깨달음과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너무도 안타까운 일로 인한 깨달음이었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깨달음이 되리라 생각하며, 우리의 친구들이 모두 다 진심으로 통일을 꿈꿀 수 있었으면 싶다.





제 목을 다하는 이룬 수레처럼

노 지 연 | 일신여고 2학년

혹시 년, 한쪽 바퀴만 달린 이룬수레를 본적이 있니? 맞아, 그 누구도 일부러 그런 수레를 만들진 않을꺼야.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런 수레가 있다면 넌 믿겠니? 분명 그런 것이 있다면 완성품은 아닐 것이라고? 그래, 아마도 그럴꺼야. 그런데 여기 오랜 기간 미완성으로 남겨진 수레 같은 상황이 있단다. 50여년 동안이나 제 바퀴 짝을 잊지 못하는 이룬수레처럼, 다름아닌 너와 나의 지금이란 이름으로...

안녕?

시작부터 너와 나를 이야기하는 낯선 아이의 편지. 편지를 받는 너로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난 그저 너와 같은 땅덩어리의 남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 하나란다. 또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기도 해. 내가 남쪽에 산다고 하니, 지금쯤 너에게 은근한 경계심이 찾아 올지도 모르겠구나. 모르긴 몰라도 50여년의 세월이 공(空)으로 지난 것은 아닐테니까. 쉽진 않겠지만 내 편지, 부디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 줬음 좋겠는데, 약속해 줄래?

10살 때인가? 문득 처음으로 북한에서 쓰는 단어를 접했던 때가 기억나는구나. 같은 사물을 두고도 서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특히 외래어를 우리말로 옮겨 썼던 예들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구나. ‘스킨-살결물’ ‘도넛-가락지빵’ ‘아이스크림-얼음보숭이’... 그 땐 어린 맘에 생소한 이 단어들에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이었지. 솔



직히 내심 촌스럽단 느낌도 가졌었고... 하지만 좀 더 자랐을 때에는 생각이 달라지더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하는데 있어선 남쪽에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무의식중에 외래어 표기는 세련된 것이고 아니면 웬지 촌스러운 것이라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말야. 그리고 보면 우린 참 수많은 오해 속에 지난 50여년을 보냈던 것 같아. 문득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네 사실과 네가 알고 있는 내 사실이 실은 오해 덩어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한 때 난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란 노래를 수없이 듣고, 심없이 통일의 중요성을 배웠어도 말이지. 내심 통일이 꼭 돼야만 하는 걸까?하는 의구심만 들 뿐이었어. 때로는 통일이 된다는 것이 싫기도 했고, 괜한 혼란만 있을 것 같았거든. 50여년간 달라온 체제, 사상, 생활... 통일 후 이러한 점들이 몰고 올 혼란을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었어. 한 마디로 난 통일에 대해 냉담한 아이였지. 웬지 '북'이란 말만 들으면 어색해지는... 그러던 내가 변하게 된 것은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였어. 북에서도 나와 같은 겨레들이 산다는 것은 잘 알던 나였지만, 나도 모르게 북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었던 거 같아. 6.15공동선언 이후 쏟아진 북한 관련 프로를 보면서 결국 북에도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산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충격으로 다가왔으니까.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보던 나는 그제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 그 후 나는 몇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보게 됐지. 50여년의 세월도 혈육의 정 앞에선 한낱 숫자에 지나지 않았고, 가족을 부둥켜 안은 모습에서 어떠한 사상도 체제도 없었어. 그제야 난 깨달았지.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두 바퀴가 한 몸이 되어야만 제 몫을 하는 수레처럼 우린 하나여야만 했던 거야. 각각의 바퀴가 아무리 좋아도 한 쪽 바퀴뿐인 수레는 빛을 잃고 말지. 통일이란 흑시, 한쪽 바퀴뿐인 수레의 짝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그리고 보면 난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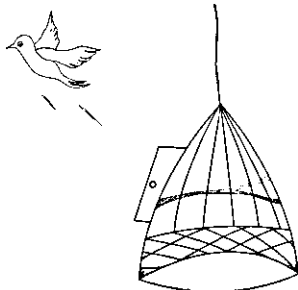


조금 비관적으로 통일을 바라봤던 것 같아. 이제껏 통일이 가져올 혼란만을 생각하고, 그 후에 이어질 반전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으니까. 두서 없이 내려쓰다 보니 어느새 글이 길어졌구나.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대뜸 편지를 써서 많이 황당했지? 그래도 처음 내 부탁대로 끝까지 읽어줘서 고마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땀 편지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는 정다움으로 만나자구나. 그럼 이만 줄일게. 언젠가 너와 나의 지금이란 이름 아래 제 뒀을 다하는 수레의 모습을 그릴 수 있길 바라며...

안녕!

같은 땅덩어리의 남쪽에서 지연이가





충청남도

- 동일의 후파람
- 고구려의 영광을
- 북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 천수만의 가창오리
- 우리는 하나
- 하나되는 꿈
- 무장포 해수욕장의 바닷길처럼
- 마음의 눈
- 마음으로 보는 동일의 열쇠



“야, 너네는 뭐냐? 이게 협동학습이냐? 매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나한테만 미루고… 더 이상은 못해. 니들이 다 해와.”

나는 머리끝까지 신경질이 났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숙제만 내면 모두 내 차지인 것이 참을 수가 없었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달아오를 때까지 짜증을 내고는 교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터벅거렸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통일을 주제로 한가지씩 모둠활동을 정해 연습한 것을 내일 재량시간에 발표한다고 하셨다. 연경이네 모듬은 아이들이 모두 남아서 연습을 했다. 통일 된 후에 학생들이 미팅하는 장면을 역할극으로 꾸민다는데 서로 복한 학생을 하겠다고 난리였다. 참 부러웠다. 그런데 우리 모듬 아이들은 ‘통일 3행시 짓기’를 하자고 해 놓고는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고 뒤로 빠졌다. 그 때 진영이가 나섰다.

“내가 한번 휴전선으로 3행시 지어볼게.”

“휴우, 오늘 같이 더운 날씨에”

“전 엄청나게 그립습니다.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선생님 제발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남자 아이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 나는 못마땅했다. 적어도 휴전선을 시제로 했으면 내용도 휴전선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야, 너네 장난하니? 좀 진지하게 할 수 없니?”

“우리가 못 미더우면 니가 다 해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모듬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왜 공부시간에도 그렇게 조사 숙제를 낼 때도 그렇고 협동학습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다. 물론 모듬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가 맡은 역할을 다해 힘을 모으면 보람도 있고,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서로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선생님은 이것을 ‘무임승차’라고 하셨다, 우리 모듬의 남자아이들은 항상 노력도 안하고 내가 운전하는 버스를 공짜로 타려고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협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기’라고 하셨는데 나는 대부분 불평 아니면 무시하는 일이 더 많았다. 오늘 진영이가 3행시를 장난처럼 했어도 ‘그래 재미있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통일을 하자는 내용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고 인정해 주면 더 잘 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했다.

나는 우리 모듬 친구들에게 사과 전화를 했다. 그리고 집에서 삼행시를 하나씩 지어 와서 내일 아침 일찍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드디어 다음 날, 재량활동 시간이 되었다. 1모듬은 ‘북한 노래 부르기’를 했다. 합창을 하다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깨끗하여 교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노래가 참 재미있었다. 2모듬은 어제 연습한 역할극을 했는데 북한 남학생 역할을 맡은 중수가 북한 사투리를 녀석 좋게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잠시 후 우리 차례가 돌아왔다. 먼저 진영이가 삼행시를 낭송했고 다른 친구들이 운을 띄워 주었다.

“휴, 휴전선이 우리의 한반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전, 전 그립습니다.”



“선, 선 하나에 울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반 친구들이 뜻밖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영이에게 박수를 쳤다. 나는 어제와 다른 진영이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행시를 읽었다.

“남, 남한이 북한을 인정합니다.”

“북, 북한도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면”

“통, 통일은 꿈이 아니라”

“일, 일상에서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우리 모듬 친구들도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일 발표회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걸 하는지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 친구들이 준비한 역할극을 보면서 코 끝 찡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북한 말과 노래를 들으며 신이 나서 따라하기도 했다. 통일에 대해, 북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고 귀를 쫑긋 세우며 들었다.

통일은 이렇게 남북한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꼭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쪽이 잘났다고 밀어 붙이거나, 거만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우리 모듬의 협동 학습에서 배웠듯이 통일 또한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휘휘휘 휘파람, 휘휘 휘파람’

한동안 우리 반 친구들은 북한의 유행가 ‘휘파람’을 즐겁게 흥얼거릴 것이다. 국민 모두가 휘파람을 불며 기뻐할 통일의 그날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나의 동포, 나의 친구들아.

안녕!

나는 남한의 천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정문이라고 한다. 직접 내 음성이 아닌 글로 너희에게 인사를 건네니 아쉽기도 하거니와, 기대도 되는구나. 언젠간 서로 웃음 띤 얼굴로 두 손 마주잡고 얘기 할 때가 오겠지?

집 앞 라일락이 짙은 향기를 뿜어내며 봄의 정취를 그려내더니 이제 멀리 산에서도 피져오는 아카시아 향이 봄의 절정 신록을 그리워하게 만드는구나. 향기 가득한 꽃향기에 흠뻑 취해 춤추는 벌과 나비는 물론, 이제 막 새 생명을 시작하는 초록의 파릇한 새싹들이 너무 너무 예쁘다. 빨간 줄장미가 담을 타고 넘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사이로, 여기 저기 잡초가 많이 자라 한 데 어우러진 모습, 그 모습도 정겹구나. 계절의 여왕, 봄이 다시 돌아왔구나!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봄 내음을 한껏 맡으며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지난 번 너희 평안도 땅 룡천에서 열차가 폭발하는 대 참사가 있던 날, 이곳에도 때 아닌 폭설에 폭우에, 서리까지 내리는 이상 기온으로 날씨마저도 한 민족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듯 짓궂었다. 뉴스로만 접한 그 곳 사고현장은 제대로 수습되는지, 우리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도 왜 그리 어렵고 복잡한지 모르겠다. 룡천 소학교 지붕이 날아가고 날벼락의 불뚱으로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부상



을 당해 북한 엄마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지. 하지만 ‘아비규환’인 그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한 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의료진도 없이 냉랭한 병실의 차디찬 바닥에서 두려움의 시간과 맞서는 어린 동생들의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구나. TV 속에 비춰지는 사고현장은 지켜보는 내 가슴을,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쩍이게 만들었어.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 위로 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지만 왜 이렇게 우리 앞에 막혀진 장애물들이 많은지... 금방 닳아가고 금새 느껴지는 한 민족이건만...

우리 이제 가슴 아픈 얘기 그만하고 가슴 팍 터지는 시원한 이야기 좀 하자. 이 곳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뜻 깊고 정감 있는 가정의 달이야. 가족들 간의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달이란다. 하지만 이제는 선물을 기다리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야겠어.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또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도 너무 많이 받기만 했잖아?

몇 해 전인가 남북 예술단의 교환 공연이 있을 때, 평양 만수대 예술단의 일사불란하고 절도 있는 공연이 잊혀지지 않는단다. 비록 TV에서 보는 공연이었지만 눈을 떼지도 숨을 쉬지도 못하고, 내 생애 처음 보았던 우리 4천만 남한 동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추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고 있어. 공연이 끝난 후 머리위로 손을 들어 경례하는 모습은 대유행이 되었고 ‘반갑습네다’라는 노래는 애창곡이 되기도 했었지. 그 때 만수대 공연단에서 내 또래의 ‘이철진’이란 아이가 아직도 기억난다.

아! 궁금한 것이 생겼다. 너희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니? 우리처럼 시험도 보니? 여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도 만만치 않단다. 시험 성적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아무리 사랑을 나누는 가정의 달이라지만 학생의 의무. 열심히 공부한 과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험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조바심이 생기는 구나! 교과서도 우리와 어떻게 다를지 모든 것이 다 궁금증 투성이다.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단합대회도 하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 서로 가져 온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신나게 뛰어 놀며 우정을 키우고, 시험 보느라 수고했다는 격려를 잊지 않는단다. 또, 설악산으로 수학여행도 가는데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며 신나게 공부하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아예 조금 더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에 내 얼굴을 비추어 파란 하늘 속에 깊이 새긴 후, 압록강, 두만강 건너 금강산에 올라 일만 이천 봉골짜기마다 내 소리를 질러 넣어 메아리로 만들고 싶다,

평양 옥류관 냉면도 먹고 싶고, 개성 왕만두도 먹고 싶고.

참, 백두산에서 내려오다 함경도 아바이 순대를 꼭 먹어보고 싶다. 우와, 그러고 보니 둘러 볼 곳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정말 많구나! 이곳 저 곳 가볼 만한 아름다운 곳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눈을 감고 나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니 여러 광경들이 스쳐 지나간다.

너희들도 이 곳에 오면 놀랍게도 발전된 남한의 모습을 보게 될꺼야. 최첨단 시대의 상상 초월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합해지면 마음도 두 배로 넓어지고, 몸도 두배로 커지니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내공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찬란한 옛 과거의 영광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숨쉬는 찬란한 새 역사의 발자국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본다. 그런데 왜 우리 사이를 딱 하니 막고 있는 휴전선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한 민족임을 정말 간절히 하나 됨을 원하는데... 왜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걸까?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생의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북한 주민, 우리의 동포들을 지켜보며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오는 그 마음 오죽할까?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자, 또 기다리자. 아마 어른들께서도 마음은 간절한데 뜻을 합칠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것일 테지.

위대한 고구려의 왕, 자랑스러운 우리의 왕. 광개토대왕을 기억하고 있니? 역사 교과서를 펼쳐들면 그 엄청난 업적과 명성이 담겨져 다시 우리에게 그 위상을 전하는 구나.

압록강의 기적으로 중국을, 두만강의 기적으로 러시아를 잠재우고 광개토대왕의 북진정책으로 일구었던 우리의 옛 땅. 광개토대왕이 다스렸던 고구려는 최고의 전성기였으며,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었던 터. 그 위세는 가히 상상이 가지 않니? 씩씩한, 당당한, 힘찬 기운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능가하는 우리가 되보는 건 어떨까? 고조선이 세워진 이래 부여가 있었고, 고려의 왕건이, 발해의 대조영이, 조선의 세종이 되찾고자 했던 옛 영토. 요동을 지나 만주 땅을 되찾는 고구려의 영화를 다시 한 번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영변 약산 진달래꽃도 모두 지고 지금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니? 여기도 라일락이 다 지고 떨어져 빨간 줄 장미 넝쿨이 담 밑의 흙이 되었다. 참! 제주도 유채 꽃이 만발해 한창이란다.

평양 대동강의 물살을 가르고 서울 한강의 물살을 가르는 유람선이 오갈 때, 우리 어디서 만날까? 백두산도 좋고 한라산도 좋구나. 우리 꼭 만나는 그 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 꽃 피는 봄이어도 좋고, 매품소리 시원한 여름이어도 좋고, 단풍지는 가을이어도 좋고, 깨끗한 눈 쌓인 겨울이어도 좋으니 하루 빨리 만나 함께 신나게,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고 생활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서로 사투리들을, 서로 다른 말들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기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마음 속 깊이 간직했던 얘기 나누며 해가 지고 둥근 달이 환하게 우리를 비춰줄 때까지도 계속 정을 나누고 싶어. 내 마음은 벌써 통일이 되어 삼천리 금수강산의 초록을 보았고 하늘 길, 뱃길, 땅 길의 울림을 느끼고 있단다.



제주에서 백두까지 한데 어우러지면,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니?
우렁찬 함성 소리와 위엄찬 모습으로 천하를 다스리신 광대토대왕의
얼을 이어받아, 그 기상을 이어받아 우리 남북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길 바란다.
친구야! 사랑한다.

2004년 싱그러운 6월
나의 숨결을 전하며
남한의 친구 정문이가!





북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한기백 | 온양고 1학년

안녕, 북한 친구야! 나는 너희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남한의 고등학생, 한기백이라고 해.

그 곳, 북한은 17살의 학생을 고등학생이라 부르려나?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네 모습이 무척 궁금한 걸? 히히 예쁜 여학생이었으면 좋겠다. ^^

내가 갑자기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니? 다른 게 아니라 TV에서 북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더라. 그 뿐 아니라 '이산가족상봉', '북한 잠수함 발견' 등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TV에서 자주 나왔어. 그래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는데 네가 사는 그 곳 생활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더라. 힘들지 않니? 북한에 관한 TV 프로그램은 너희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줬어. 우리와는 많이 다른 너희들의 생활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행복에 겨웠는지 알았어. 빨리 통일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쪽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다. 요새 우리 학교에서는 통일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야기 해줄까 해. 네가 만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처럼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



으면 좋겠다.

토론 할 때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 보았는데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 비밀 하나 알려줄까?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서 내 생각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단다. 그것도 잠시이고, 너와 나를 위해서는 통일이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붙잡았지. 토론 중에 다른 친구들이 독일의 예를 많이 들어서 반대를 하더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방법은 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흡수하는 과정에서 동독보다 서독이 잘 살았기 때문에 서독이 많은 부담을 짊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이 된다면 서독처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어쩌면 '거지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지.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독일은 통일 후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하기 시작했거든. 통일할 경우 분명히 잃는 것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해.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이 있어서 지금 남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또한 통일이 된다면 그 동안 살아 생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눈물로 그리워하던 이산가족문제가 해결 될 거야.

반대의견의 공세는 대단했어. 통일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 문화 간에 차이가 너무 커서 문화충격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었지. 언어의 차이부터 교육내용, 식습관 등 차이가 너무나 커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 한민족이었던 우리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까 하고 생각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어. 하지만 난 말야, 진정한 하나는 다름에서 시작한다고 믿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합쳐서 우리가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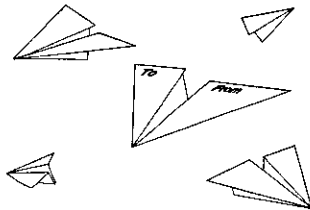
나는 토론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나의 의견을 발표했어. 토론 내내



배고픔으로 인해 배가 불룩 나온 내 동생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족제비 노릇을 하던 내 친구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이산가족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 그래서 난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 특히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은 잘 울지 않는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더라. 왜냐하면 그 만남에는 분단의 아픔과 만남의 기쁨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 너도 그 장면을 보고 나와 같이 눈물을 흘렸니? 아마 너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 너와 나는 친구니까, 아마 생각도 비슷 할꺼야.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헤어진 것이라고 말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친구사이이고 내일아침이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휴전선이 없는 바로 그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내일의 아침이 올꺼야. 친구야! 우리 반드시 만나는 거다. 통일의 그 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

남한에 있는 너희 친구, 기백이로부터





우수

천수만의 가창오리

전 우 승 | 광성초 6학년

작달막한 키에 하얀 머리, 얼굴이 까
매서 '아프리카 흑인종' 이라고 불리지만, 나에게서는 세상에서 오직 한
분뿐인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 '짱' 이시다. 때때로 아빠로부터 혼날 때도
애비는 열 배는 더 했다며 나를 감싸주신다. 그런 할아버지에게도 아픔
이 있다.

지난해 가을 아빠를 따라 천수만 AB지구에 있는 부남호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갔다. AB지구의 간척지는 현대의 정주영할아버지가 만드
신 거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자랑하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바다가
없어져 좋아하지 않는데도 할아버지는 "그 사람 저 이북 금강산 아래
통천이 고향이여. 내 고향 사람이여." 하시며 늘 자랑하신다.

낚시를 하고 오는데 죽은 오리들을 보고 아빠가 차를 멈추셨다. 내려
서 살펴보니 다리에 금속 띠를 두른 것이 두 마리 있었다.

"아빠,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건 조류학자들이 연구 자료로 쓰는 거야. 가지고 가서 알려주자."
고 하셨다.

집에 와서 오리 다리에 붙어 있는 금속 띠를 풀어 땅에 묻어주고 나
서 국제 조류학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 조류 학자 원병오 박사님은 고향이 이북인데 고향 땅이 보
고 싶어 휴전선에 갔다가 휴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철새들을 보고
새를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과 죽은 오리의 이름이 가창오리로, 시베리



아 지방에서 북한 땅을 거쳐 우리 고장 천수만 까지 오는 겨울 철새라는 사실이었다. 저녁에 할아버지께 낚시하고 돌아올 때 있었던 일과 국제 조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오, 우리 손자가 좋은 공부를 했구나!”라고 칭찬하셨다. 그리곤 혼자 말씀으로 “통천에도 눈이 많이 오는 한겨울에는 오리가 많이도 내려앉았지” 하시더니, 이어서 “삼수 감사—안—” 할아버지의 노래 가락은 끝없이 이어졌다. 한참을 그러시다가 “평안도 통천역 사고에 대한 소식이 오늘은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얼굴엔 근심이 어려 있었다. 그 뒤 우리 가족은 천수만 수문개에 가기로 했다. 전 같으면 “느털이나 갔다와!”하실 텐데 이번엔 뜻밖에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는 특별한 가족행사였다. 서부면을 거쳐 AB지구를 가로질러 가는데,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보였다. 특히 무리를 이뤄 이동하는 것은 가창오리였다.

“할아버지, 가창오리 떼 좀 봐요!”

“응, 그래. 보고 있다. 애비야, 좀 쉬었다 가자.”

할아버지 말씀대로 차에서 내려 바라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저간척지는 3700만평이라지? 우리 고향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분은 어린 시절 자갈 논일이 하기 싫어 흥남과 서울로 가출하여, 현대 건설 회사를 세운 훌륭한 고향 사람이라고 또 칭찬하셨다. 갑자기 가창오리 떼가 우리 쪽을 향하여 날아왔다가 다시 부남호 저쪽으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나도 힘차게 손을 흔드는데 “느털은 참 좋겠다. 하늘을 날아 고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

모두들 제각기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어루만질 수는 없었다.

“글쎸다. 내 생전에...”라고 무겁게 말씀하시며 차에 오르셨다. 수문개까지 가는데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다. 아마도 고향 생각하실 게다. 수문개에 도착해선 할아버지와 친한 단골집을 찾았다. 6.25때



이북에서 피난 나온 집이었다.

“아이구, 몽치 이사람, 여태까지 죽지 않았어? 허허허!”

“깜씨, 아직두 썩썩하구만!”

두 분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

할아버지는 대화를 드시면서 “고향 사람들과 한번 같이 먹어 보았으면… 몽치, 이리와 한잔 하세.” 하시고는 두 분이 정답게 드셨다. 대화를 다 먹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한 많은 이-세상.” “가을바람 소슬하니 함흥차 떠나는…” 두 분의 노래 가락은 소리 없는 울음소리로 이어졌다.

“우리 언제 고향산천에 간다니?” 하시는데 나도 눈물이 나와 흘쩍였다.

아쉬운 작별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저녁노을에 가창오리들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가창오리를 보며 간절하게 마음의 소원을 빌었다. ‘오리들아!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을 통천 고향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와. 우리 할아버지의 소원인 통일의 소식을 꼭 가지고 와야 해.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려줘.’





얼마 전 우리 집에서는 꽤 시끌벅적한 행사가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꿈에서나 그리시던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다. 예정된 날이 되었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들뜬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후 속초행 차에 오르셨다. 그렇게 시작된 3일간의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배웅을 갔을 때, 내 예상과는 달리 두 분의 안색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나는 혹시 금강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걱정되어 저녁을 먹는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직접 여쭙보기로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한숨 섞인 말투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할아버지가 월남하신 것은 1.4후퇴 때였다고 한다. 피난민들 중에 섞이는 바람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가 되신 후 지금의 할머니를 만나 자리를 잡고 사시는 할아버지는 항상 이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그렇게 평생의 목표를 가족을 찾는 데에 두고 사셨다가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은연 중에 갖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2박 3일의 짧은 시간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 가족에 대한 꿈은 접어야만 하는 현실이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실망한 빛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할아버지께 아무 일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씁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하루, 이틀 정도만 부모님과 떨어져 학교에서 놀러가거나 하면 여행지에서도 부모님이 보고 싶고 집에 가면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무려 50년간을 부모님과 헤어져 살아야만 했으니, 부모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연락 없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걱정하시고 금세 초조해 하시곤 하는데, 할아버지의 부모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전쟁 중에 할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이런 상황에 놓인 이산가족의 수가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약 1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상봉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부일 뿐, 아직까지도 986만 명의 사람들은 가족의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운 좋게 상봉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도 짧은 만남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헤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소망은 자신의 가족들과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다. 너무나 소박하기만 한 그들의 작은 요구마저 온전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애를 태우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그들에게 더 큰 아픔과 절망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의미에서만 보아도 통일은 꼭 필요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대다수 한국인들은 분단된 민족의 아픔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구호처럼 외치긴 하면서도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 하는 노력에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햇볕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에 대해 원조를 해 줄 때도, 북한의 고압적인 자세와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긴 하지만 ‘퍼주기’ 라거나 ‘굴욕적인 저자세’ 라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았



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어떨때 TV를 켜면 화해의 분위기가 도는 듯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마치 줄다리를 하듯이 남북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채 좁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머리가 두 개 달린 새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하다가는 몸이 찢어져 죽게 되듯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에겐 이익이 될 쪽으로만 몰고 나가다는 우리도 머지않아 몸이 두 동강 나는 최후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밀고 끌기를 반복하는 자세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한쪽에선 이산가족이 만나 눈물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핵문제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쪽에선 원조와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면서도 한 쪽에서는 육로는 받을 수 없다며 체제만 생각하는 북한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우리나라도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그때그때 흥분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적어도 둘 다 공멸하는 위험은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 라는 생각으로 먼저 배려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한반도는 분명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엔 세계속의 강대국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일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지라도 차츰차츰 시간을 갖고 불신의 벽을 허물 수만 있다면 또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서로 대립하고 결눈질하기 보다는 관용의 정신을 앞세워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이 땅의 1000만 이산가족이 원하는 진정한 모습일 것이며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통일교육' 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하면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라고 답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통일의 과정에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과도기 후에는 급진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끊임없는 교육을 시킨다면 그들도 분명 생각을 바꿔 오히려 통일을 위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앞장서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들을 무조건 책망하고 그들의 의식을 비판하기보다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국민들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또한 북한에게도 외세에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개방과 타협, 세계와의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한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하나이다. 머리가 두 개 달린 하나의 새이다. 이들이 힘을 합쳤을 때는 두개의 머리로 생각을 함으로 누구도 당할 자가 없지만, 의견이 대립되고 내분이 일어나면 두 동강으로 찢겨지는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새의 몫이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할 문제인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정 기쁨으로 금강산 관광을 하시고, 고향 땅도 자유롭게 밟으시고, 그래서 여행 후엔 우리 가족 모두 즐거운 기분으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유의 땅을 찾아 목숨을 건 탈북자들!

언젠가 TV에서 중국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하려다가 중국 경찰의 제지로 실패한 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도 해보고 철문을 붙잡고 매달리기도 하고 땅에 쓰러져 처절하게 절규했다.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는 동안 두 살배기 어린 아이는 공포에 떨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누가 그들을 무모한 모험을 하도록 내 몰았을까? 왜 그들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는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아팠다.

언제쯤 막을 내릴까. 자유와 행복이 가득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이 반쪽은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곳, 다른 반쪽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이 실 새 없이 계속되는 비참한 현실이...

이와는 반대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2000년 8월 15일 제 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있던 날.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그 감동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산가족들의 통곡소리에 묻어나는 뼈저린 아픔들이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생생히 와 닿았기 때문이다.

50여 년의 분단 세월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그리워하다 만난 이산가족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서럽게 울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제 3자인 나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에 쌓인 그리움과 한을 풀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만났다는 기쁨에 울었고, 언제 또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에 울던 모습들. 이별의 서러움에 마주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멀게만 느껴지던 통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몇 년 전 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건너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던 기억이 난다. 이 극적인 만남으로 6.15 공동선언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도 무척 기뻐지만 가장 반가워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산가족이 아닐까 생각된다.

TV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첫발을 디딜 때 방송하시는 앵커가 “한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55년 동안 걸려서 왔습니다.”라고 할 땐 엄마도 나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아마 열 번은 더 보았을 것이다. 남북한 칠천만 겨레가 모두 그러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신문이며 방송들도 화해와 협력과 만남의 하늘길, 통일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며 기뻐하였다.

이처럼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또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무대와 활동 영역을 넓혀 주고 우리의 좁다란 시야도 넓혀 줄 것이다.

경의선 연결을 통해 이어지는 국토의 연결로 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고구려, 고려, 발해 등의 역사문화 유적지에 수학여행을 가고,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 명산에 등반도 하며, 내가 항상 꿈꾸는 유럽 대륙으로의 기차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것임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신문을 보면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 한다.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이라크 파병을 위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겹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막대한 국방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침체된 경제와 메말라버린 국민들의 정서에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전체 예산 중 21%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5조원이라는 비용이 북한에 대한 방어비에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남은 국방비를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에 쓰고 다시 복지, 교육 등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쓴다면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 생각으로 가장 쉽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스포츠인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 올림픽 때 남북 동시 입장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는가. 또 월드컵 때 북한 미녀 응원단이 우리나라를 응원해 준 적도 있지 않은가. 그 응원단과 남북한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외칠 때의 그 단결된 마음. 이와 같이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 룡천역 참사를 돕기 위한 많은 남한측의 따뜻한 인적,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통한 만남. 이것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위협을 제거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한 쪽이 성급한 태도를 보이거나 서로 경계시 한다면 남과 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영원한 동상이몽에 젖어 결코 나아가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듯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결국 한민족임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민족의 통일, 민족번영의 꿈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단지 국토의 통합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민의 메마른 토지를 적셔주는 단비같은 정신적인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50여 년 간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던 일 천만 이 넘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일제 탄압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외세의 간섭 속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야 했던 분단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하는 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되고 나라가 하나되는 날, 헤어진 가족이 서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 날이 꼭 오리라 믿으며, 언젠가 책에서 본 통일시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꿈을 꾸다

휴전선의 녹 쓴 철조망과
서로의 가슴팍을 겨누었던 총이
박물관 유리관 속에 전시되고

애타던 기다림의 세월이 끝나
너와 나 서로 부둥켜안고
즐거워 할 꿈

그 꿈 뒤엔
함께 백두대간을 오르며
아팠던 유월의 기억을 잊고
너와 나 웃음꽃 피울 수 있겠지...



무창포 해수욕장의 바닷길처럼...

김건호 | 관당초 6학년

우리집은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작은 가게를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무창포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무창포에서 석대도까지 바다가 갈리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보지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이 무척 신기한가봅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게에서 소금도 사가고, 물장화와 호미를 빌려가서 조개도 잡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장화랑 호미를 빌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께서는 꼬마가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무척 좋아서 늦게까지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비록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지는 못했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드리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나는 하루 밖에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매일 힘들게 일하신다는 걸 생각하니 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말에 놀러도 가지 않고 가게 일을 도와서 착하다고 하시며 용돈을 주셨습니다. 5000원이나 주셨습니다. 5000원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북한 어린이를 돕는 데에 성금을 내라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용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니다. 나는 용돈을 5000원이나 받아서 어디에 쓸까 잔뜩 기대했는데, 그 돈을 성금을 내라고 하시니 무척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내라고 하시니 어쩔 수없이 1000원을 성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성금은 북한 어린이를 돕는 데에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 룡천에서 기차역이 폭파된 장면을 TV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도 힘든데 북한에 있는 아이들까지 도와야하나? 왜 하필 이럴 때에 사고가 나서 성금을 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손이 선뜻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힘들게 일해서 받은 용돈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 우리 반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서 모래사장은 주위가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만 놀다가 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에서 놀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장에는 무창포의 바다가 갈라지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꼭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한순간에 갈라지듯이 우리나라도 원래는 평화롭던 하나의 나라가 갈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관광지이기 때문에 늘 즐겁고 떠들썩한 무창포 해수욕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갈라진 바다에서 즐겁게 조개를 줍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군인인 것 같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개도 잡고, 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합쳐져서 잔잔해진 바다를 보며, 정말 모세의 기적 같다고 감탄을 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합쳐져서 잔잔해진 바다처럼 평화로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지도의 한가운데에 빨간 휴전선이 그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헤어진 이산가족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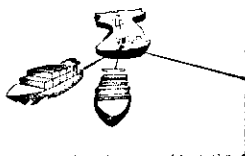


그리고 1000원의 성금을 아까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마음 놓고 룡천의 아이들을 도와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합쳐져서 잔잔해진 평화로운 바다를 보다 우리나라가 하나된 모습은 더욱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장포 해수욕장의 바닷길처럼...





음악시간,

“선생님 시력은 3.0이야.”

“에이~ 말도 안돼요.”

“진짜라니까. 선생님 시력은 2.0인데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더 있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은 1.0이고, 시력은 2.0이니까 합치면 3.0이지. 그렇지, 반장?” 하며 농담을 하셨다. 그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문득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곳이 생각났다.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어느 날, 3.0의 시력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이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눈물을 흐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가슴 벅차고 목 메이는 그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볼에는 눈물이 주룩룩 흐르고 있었다. 그 이후, 3.0의 시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 ‘통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회원을 이루었었다. 하지만, 그 회원들이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술선수범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반하여 전 국민의 통일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에 북한 사람들도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0년 후, 지도에서는 휴전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통일을 위한 마음의 중요성과 나의 마음을 이야기로 담아 보았다. 비록 나의 희망 사항이지만,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통일을 바라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이 넓고 넓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이다. 전에는 우리와 같은 처지인 분단국가들도 이제는 모두 통일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건지... 난 다른 것과 나의 것이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 문제에서 만큼은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다. 하지만, 인생에 걸림돌이 있듯 우리 모두의 희망인 통일에도 걸림돌이 몇 개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통일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부터 난 통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차츰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북한은 아직도 5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다. 지금 통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한 가정 당 3명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을 추정했을 때, 1,440조원정도가 통일 비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국민 1인당 매월 19,100원정도 지불한다면, 10년 후에는 121조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통일 비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10년 전이라도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민들에게 요구를 해 왔으면 힘이 조금이나마 덜 들 것 같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에게서 본받고 싶은 것을 꼽으라면 나는 첫째로 북한의 언어를 본받고 싶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와 교류가 적었기 때문인지 다른 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도 우리는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교류를 하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래어, 외국어 등을 밥 먹듯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역시 우리 토박이말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 정말 좋다. 북한이 사용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촌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옛 것을 사용하는 북한 사람들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언어가 우리의 통일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말이 많이 쓰이도록 언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로써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말을, 우리들은 북한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도 통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이렇게 통일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에는 그 동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3.0의 시력으로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보고 이해하고 노력할 때 3.0의 시력이 효과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예를 하나 들자면 최근 룡천 폭발 사건은 질산암모늄을 싣고 가던 열차에서 질산암모늄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러 열차들이 폭발을 일으켜서 더욱 큰 사건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기술이나 의료 시설 등이 부족하던 북한에서는 이 사건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힘이 들었다고 한다. 이 때, 북한의 사정을 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의료 시설과 식량 등을 보내주었다. 이처럼 모든 일은 서로를 이해할 때 실천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50년이나 서로 다른 생활을 해 왔던 우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렵기만 하다. 우선 3.0의



시력을 가지고 모든 이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언제나 나부터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을 하여 모든 국민들이 큰일을 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통일의 열쇠

최진석 | 만리포고 2학년

수수께끼 책을 보다가 “가깝고도 먼 것은?”이라고 쓰여진 질문을 보았다.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눈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다른 답이 떠올랐다. ‘가까이 붙어 있지만 서로를 바라볼 수 없다’는 설명은 우리 남한과 북한의 실태를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개의 나라로 갈라져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러는 동안 좋고 나쁜 일이 교차하여 일어났지만, 쌀 보내기 운동, 이산가족 상봉, 북한 교예단 서울 방문 등 반가운 사건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차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현재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무거운 문제에 등을 돌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의 문제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민족의 미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 가슴을 가장 크게 열어 두어야 할 청소년들이 하루가 다르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이유는, 어쩌면 교육 현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도덕이라는 과목에서 통일 관련 단원을 다루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걸쳐 배우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에도 통일 관련 포스터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포스터들 중에 한 가지에라도 관심을 가져 본 학생이 몇이나 될까? 아마 대다수가 무심하게 지나쳐갔으리란 생각이 든다.

나는 그 포스터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다. 휴전선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통일의 열쇠는 어디에?”라고 적힌 포스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듯했다. 한 두 사람이 원해서 열리는 자물쇠는 아닐 것이다. 한 핏줄, 즉 북한과 남한의 국민이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고 한마음이 되서 서로를 위할 때, 비로소 열리는 자물쇠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삭막한 휴전선을 느슨히 풀어 헤쳐 줄 열쇠가 되어 한민족의 통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북한에 더 가깝다는 소리를 들었다. 백두산의 절반이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백두산에 오르면 북한 땅이 흰히 내려보인다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타민족보다 더 가까이서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건 큰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많은 군인들이 삼엄한 태세로 휴전선을 지키고 있다. 여름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가며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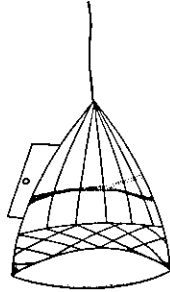
몇 해 전 개봉한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도 분단의 아픔이 잘 나타나 있다. 판문점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남한군이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곳 JSA. 그곳에서 몇몇 군인들이 서로에게 인간의 정을 느끼고 동포애를 나누지만, 분단의 현실로 인해 다시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급박한 사건이 터지고, 결국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을 맞는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피부로 와닿는 바로 우리의 현실을 다뤘기 때문은 아닐까. 이처럼 같은 핏줄, 같은 형제가 총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통일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수많은 이산가족



들일 것이다. 분단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이미 힘없고 늙어 버린 이산가족들은 애타게 통일의 날만을 기다리며 마지막 남은 삶의 끈을 부여잡고 있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무렵,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안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샘솟는 행복감을 엿볼 수 있었다. 얼굴 한번 보기 위해 50여년을 기다렸던 것일까.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이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이별해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하였을까.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날, 바로 통일의 날을 기약하며 작별했을 이산가족들은, 또 얼마나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통일에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부정적 편견을 없앤다면 진정한 통일의 길은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양쪽 눈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있듯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이해가 갈라진 우리 양쪽을 하나로 아우를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찾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소망이 통일을 바로 눈앞까지 가져다 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 한다.



전라북도

● 부한 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 민들레 흩날리듯

● 할아버지의 추억

● 우리나라 지도는 미완성

●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

● 연리목

● 상상의 일기가 현실의 일기가 됐으면

● 두 바퀴에 통일을 싣고

● 할아버지의 애창곡





“북한의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열차가 충돌하여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해 많은 희생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평소에는 뉴스에 별 관심이 없었던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아버지, 북한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났대요.”

안방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성급히 나오시더니 텔레비전 볼륨을 더 높여보라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룡천역 일대는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땅이 파헤쳐져 웅덩이가 생기거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참혹한 모습 뿐이었다. 이미 사라져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오갈데 없는 주민들은 구호의 손길만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들이 이어졌다. 병원의 침상에는 얼굴이나 눈에 화상을 입은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며 누워 있었다.

“아빠 저기 애들 좀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굴이 까맣게 되도록 화상을 입은 아이들 중에는 그 얼굴을 알아보



지 못할 정도인 아이들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혀를 차셨다.

“아이고, 저걸 어째?”

북한에 친척이 계신 할머니께서는 더욱 침통한 표정이셨다.

다음날 아침, 대은이는 항상 그랬듯이 아침마다 오는 신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누나, 이것 좀 봐”

대은이는 신문을 보며 나에게 말을 하였다.

역시 신문에도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이야기가 가득했다.

신문을 뒤적이다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학교에 가서도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선생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같은 동포들이 이렇게 아파하며 누워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북한의 우방인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서 학교 숙제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켜 보았다. 평소에 자주 보던 시트콤을 하고 있었다.

‘어? 저게 뭐지? 프로그램 왼쪽 윗 부분에 ARS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난민 돕기’ 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다. 나는 예전에 전화 ARS를 통해 수재민 돕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열차 폭발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내가 보내는 성금은 단돈 1000원이지만 이 돈이 모이고 모이면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북한 통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을 조이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마음이 오죽이나 답답할까?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저 휴전선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북한 통천역 열차 폭발사고는 나에게 커다란 과제를 남겼다. 평소 무신경했던 남북분단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바로 남북 통일이라는 것이다.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에 대고,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북한 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최우수

민들레 흩날리듯

김정은 | 이리남중 3학년

내 친구에게!

길가에 하얀 민들레 흩날리듯 후우 불어 날리는 어린아이의 밝은 웃음이 가득한 따사로운 4월이야. 화사한 그 웃음이 너무 맑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사진에서 보았던 북한 친구의 쾡하고 커다란 눈동자가 떠올라서 잠시 우울하기도 했던 오후야. 그곳에도 노란 민들레가 길가 곳곳에서 봄의 손수건을 흔들고 있겠지? 갈 수 없어 만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 너도 여전하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 선생님께서 북한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편지를 보내자고 하셨어. 고민하다가 표지가 너무 예뻐서 못 쓴 공책이랑, 친구에게 선물 받아 아껴 둔 연필을 서랍에서 꺼냈어.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도 썼지. 북한의 말은 우리와 다르다기에 혹시나 내가 열심히 쓴 편지를 네가 알아보지 못할까봐 되도록 쉬운 말만 골라 썼지. 반 친구들 모두가 나누고 싶다며 가져온 인형, 그림물감, 학용품 등을 편지와 함께 커다란 상자에 넣고 선생님과 함께 입구를 테이프로 봉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렇게 우리 반을 떠난 상자는 며칠 후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왔단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배가 우리나라의 바다를 넘어오는 바람에 작은 다름이 일어났으며,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답장 꼭 보내 달라는 이야기도 적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 서로 한 가족인데, 잠시 떨어져 있는 것 뿐이라셨는데, 그런 일로도 싸움이 날 수



있는건지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때 그 일이 서해교전이었던 것 같아. 햇볕 아래 차츰 녹아가던 두터운 얼음이 다시 사그락거리며 소리를 내며 결정을 만들어 내고 있었지.

그 때 이후로도 이따금, 내 편지를 받았어야 할 네가 생각나곤 했어. 작은 손을 열심히 놀리던 평양의 예술단 친구들을 보았을 때, 선생님과 함께 군인 아저씨들이 서 있는 땅굴에 가 보았을 때, 철조망 너머 흐르는 강 건너편을 무심히 바라보았을 때, 북한 응원단과 우리가 함께 한반도 기를 흔들며 목이 터지도록 응원할 때에도 말이야. 그리고 서도 이제야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됐네.

그곳의 친구들도 우리처럼 하루하루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까지 쉴 시간이 없더라.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와 다른 나라로만 느껴졌는데 나와 같은 친구가 살고 있는 한 나라라고 생각하니깐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너무나 무더졌잖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아온 것이 벌써 얼마인지 모르겠어.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 하지만 조금은 알 것도 같아. 엄마와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나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아프겠어. 너도 봤지?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리석은 싸움에 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만약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한도 남겠지만, 뒷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불안하기만 해.

우리가 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묻지 말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잖아. 다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간절한 바람이 그걸 꼭 이루어 줄 거야.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안는 데서 통일로 가는 작지만 힘찬 발걸음이 내딛어질 거라고 생각해.



언젠가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 올 거야. 그러면 차갑게 얼었던 우리 마음도 눈물처럼 흘러내리겠지. 백두산에도 한라산에도 똑같이 꽃이 피고, 단풍도 드는데 왜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할까? 언젠가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산천에서 뛰놀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날아가는 작은 민들레의 흩씨처럼, 아직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알 수 없지만,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도 틈새를 비집고 노란 얼굴을 내미는 민들레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말자구. 반으로 잘린 한반도의 허리를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어야지. 우리의 힘으로 잇는거야.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거지?

창 밖에 날아가는 저 민들레 흩씨가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고, 내 바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꿈을 담은 민들레꽃이 활짝 필 때까지, 안녕!





한 달 전의 일이다. 늦은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물으셨다.

“현이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랑 영화나 한 편 보러 갈래?”

나는 할아버지의 의외의 말씀에 약간은 놀랐다. 할아버지께서 영화
라니...

“보고 싶으신 영화라도 있으세요?”

“태극기...태극기... 뭐랬더라?”

“태극기 휘날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영화 재미있겠더라.”

“네. 제가 주말에 모시고 갈게요.”

약속한 주말이 되었다. 할아버지와 의 둘만의 나들이라는 생각에 조
금은 설레었다. 길거리에는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
었다. 몇 십 년 만에 온 극장이라며 달라진 극장의 모습에 신기해 하시
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소풍 온 어린아이 같았다. 표를 끊고 팝콘에 콜
라까지 준비한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는 스크린에 접착제라도 발
라 놓은 듯 떨어지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이내 할아버지 눈가의 깊은
주름에는 이슬이 맺히셨고 그 이슬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



다. 영화가 끝나자 그렇그렁해진 눈물을 훔치시며 일어나시는 할아버지의 눈은 텅텅 부어 얼마나 우셨는지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영화가 재미있었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늘어 놓으셨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만두가게에서 멈추셨다.

“아주머니 여기 만두 2인분만 싸주세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껏 만두를 한 번도 드시지 않았던 할아버지께서 만두를 샀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서는 놀라움이었다.

“할아버지 만두 싫어하시잖아요?”

나의 이런 물음에 할아버지께서는 미소로 대답하시고는 이내 발걸음을 옮기셨다.

집에 돌아오신 할아버지께서는 금은 보화 마냥 찬장 깊숙이 숨겨놓은 소주를 꺼내 잔에 가득 담으셨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키셨다. 큰 만두를 한 입 가득 넣고 오물거리시며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보다는 맛이 없군. 옛날에는 참 맛있었는데 말야.”

할아버지께서는 고해성사를 하듯 내게 울먹거리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다. 잠을 자려는데 고놈의 만두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두 몇 개를 사오려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쿵쿵 하더라고. 난 천둥 소린 줄만 알았어. 그리고 그 피난 난리법석에 치다 가족들을 잃어버렸지.”

할아버지께서 북에 살다가 오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께서는 만두를 싫어해서 안드시는 줄로만 알았다. 옛날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인줄은 모르고 말이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다.

나는 가끔 할아버지의 행동 중에서 몇 가지 이해 할 수 없던 게 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 잃어버렸다며 늦은 밤 가족들을 모두 깨워 난리법석을 만드시는가 하면 여름이면 옛날 자신이 먹던 평양냉면 맛이 그림



다며 엄마를 괴롭히시던 그 모습들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덕분에 엄마는 맛있다고 소문난 냉면 집은 다 찾아다니시며 냉면 만드는 법을 배우셔야만 했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할아버지께선 단지 나이 먹어 노망기를 부리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한번도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하지 않고서 말이다.

옛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때의 사진을 잃고 싶지 않으신 그 마음을, 옛날 자신이 가족들과 먹던 그 냉면을 다시 먹으며 그때를 회상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부끄럽고 죄송스런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날 저녁 엄마를 도와 냉면을 만들어 냉면파티를 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옛날 북에 있는 가족들과 먹던 냉면 맛 그대로 라며 기뻐하셨다. 나도 할아버지의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 눈에 고인 그 눈물을, 통일은 꼭 되어 한다면 할아버지의 그 울먹임을 말이다.





우리나라 지도는 미완성

박건우 | 전주송북초 6학년

“휴우, 이걸 언제 다 그린담? 선생님 진짜 너무해서, 이 지도를 다 어떻게 해야하나.”

투덜투덜, 불만으로 반쯤 부풀어오른 입으로 불평을 늘어놓으며 사회 숙제를 한다. 그냥 숙제가 아니고 좀 까다로운 숙제라서 그렇다.

우리 선생님은 사회 수업을 할 때에 교과서에 나온 지도나 그림을 몇 번이고 설명을 해 주시면서 꼭 외우라고 하신다. 그리고 숙제로 사회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관련된 문제를 20문제씩 출제만 하는 숙제를 자주 내주시는데 꼭 지도를 그리는 문제를 5개 이상은 해와야 한다고 하신다. 그래서 지도 때문에 입이 있는 대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고조선 이후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일어난 나라들에 관련된 문제를 내려고 사회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열심히 따라 그리던 중 연필을 쥐 손이 우리나라의 가운데쯤에 머무르자, 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옛날의 우리나라 지도에는 허리에 금이 없었다. 지형의 모습은 같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가운데에 지익, 밍게 그어진 금은 없었다. 생각해보면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과학 기술, 첨단 산업 등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결국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고조선 때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한 것은 한반도 허리의 금이란 것이다.

“너는 옛날지도에도 없는 게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비키지를 앉는 거니?”



현재의 우리나라 지도를 찾다가 발견한 나는 중간에 있는 선을 가리키며 혼잣말을 했다.

“그게 내 탓이니? 너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나는 뭐여기가 좋아서 이렇게 앉아 있겠니?”

그 선이 눈을 흘기며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뜨끔했다.

슬픔을 못 이겨 눈물을 쏟아내는 수많은 이산가족들, 전쟁으로 인해 전사한 수많은 군인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며 애태우는 수많은 사람들은 분단의 현실과 아픔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에도 통일 글짓기를 하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내 입으로 분명히 말을 했으면서도 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선생님께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 주신다며 통일 글짓기 조차 하기 싫어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움이 못 될망정 그런 사람들의 의욕조차 무참히 꺾어버리는 내 생각이 바로 통일에 다가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다.

‘나 하나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그건 억지가 아냐?’

아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다. 어디선가 ‘네 마음이 가짜라면 상대방 마음도 가짜라는 것을 잊지마.’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 생각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큰 도움이 필요한데 결국 통일에 대한 희망은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부터 바꾸어야겠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나부터 되돌아보고 내가 먼저 실천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통일은 더욱 우리에게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안기는 통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 회담을 하는 횟수를 더 늘리고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의 요청 없이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북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조그만 일이지만 실천할 때 통일은 달려와 우리에게 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미완성인 우리나라 지도는 금 하나를 깨끗이 지우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

임정임 | 정읍정산중 3학년

우리 고장 마을에서 쌍치 쪽으로 가다 보면 회문산 자락에서 뻗어 내린 매죽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 곳은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다. 6·25 당시 그 곳은 빨치산들의 주둔지였다고 한다.

어느 날 군인들이 이 곳에 빨치산들이 있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빨치산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 누가 그 뒤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짐작이나 했을까? 다음 날 100~150여 명의 군인들은 그 곳은 이미 빨치산들이 포위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도 몇 번이나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 날, 어떤 농부가 산에 나뭇을 캐러 갔다가 그 동안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군인들의 유골을 비롯한 목걸이, 단추, 군복들을 발견했다. 그 당시 그 마을에 사시던 예전에 학도병이셨던 분께서 그 많은 유골들을 합장해서 묻어주셨고, 그 묘는 '무명용사의 비'로 남아 지금도 1년에 한번 씩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공격하는 자도, 희생당하는 자도 같은 언어를 쓰던 한 민족이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이런 슬픈 이야기를,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다니...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다.

우리 고장만 해도 무성한 그 때의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서 휴전선으로, 슬픈 역사로, 이산가족으로 우리는 아파하고 있다. 50



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다.

남과 북은 지금 언어도, 문화도 50년이라는 벽에 부딪혀 점점 멀어지고 있다. 50년이라는 세월동안 허리가 잘려버린 한반도는 제 기상을 맘껏 펼치지도 못한 채 아파하고만 있었고, 이산가족의 슬픔은 그리움에 사무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 눈물과 상처가 되고 말았다. 가끔 남과 북의 경제 성장의 속도 차이 때문에, 그리고 문화의 이질성 때문에 통일을 우려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얼마 전 북한 응원단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네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쓰는 언어도, 행동도 우리와는 조금씩 달랐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민족이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난다면 그 때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날지도 모른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언제까지나 이렇지만 않을 것이다.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 때에 통일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발전으로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우리는 휴전국이다.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쟁 중이고 지금 휴전을 한 것뿐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한다면 더 이상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 그에 따른 관광수입, 자원, 영토확보 등 국가발전에 필요한 이득도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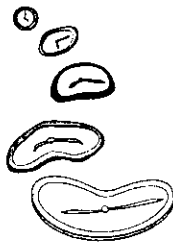
우리가 누구인가. IMF도 2년 만에 극복한 의지의 한국인이 아닌가? 당장은 주춤거릴지도 모른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을 단절된 50년이라는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쉽표'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통일이 됨으로서 우리나라는 하나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를 보듬지 못하고 경계해서는 안되기에, 통일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이 아니라 멀리 보는 통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래 한 뿌리,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함께 헤쳐 나아갈 수 있다. 언제까지나 한반도를
움츠리게 할 수는 없다.

지금의 '나' 라는 존재가 있기까지의 희생하신 분들의 염원,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그리움의 상처를 더는 아프게 해서 는 안 된다.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 50년... 충분히 아팠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들. 너무나도 길었다.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간절히 바랄 때
에 우리는 우리 앞에서 통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살아 생전에 언제 다시 만날꼬.’

이산가족 상봉의 광경들이 이 한마디에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서로 만나자마자 꼭 끌어안고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림의 긴 시간에 비해서 만남이 허용되는 단 며칠간의 시간은 살아오면서 품어온 모든 회포를 풀어가기에는 너무 짧게만 느껴져 안타까움이 클 뿐이다.

오히려 상봉의 기쁨은 곧 이어질 작별의 슬픔이 준비하고 있기에 분단의 현실이 가져오는 그림자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고목나무가 떠올랐다.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있는 고목나무의 뿌리는 하나지만 나뭇가지는 서로 마주치지 않는 방향을 향해 자라난다. 단지 정원사가 가지를 묶어주면 그제서야 서로 만나 얼마동안 함께 자라나서 그동안의 쌓인 그리움을 조용히 달랠 뿐이다. 이처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협약에 의해서나 만날 수 있는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우리들에겐 너무나 가슴 저린 일이다.

하지만 이런 분단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의 싹을 키워내는 헤어짐이라든지 하는 정신적인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인 문제와 더 깊이 연결된다.

먼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아래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그 적을 견제하기 위해 세금의 상당한 부분을 쓸모없이 소모하고 있는 것은 상호간의 국가 발전에 큰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통일을 함으로써 접붙이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포마토’라는 식물은 개체 하나에 하나의 이익 밖에 없었던 식물 두 종류 포테이토와 토마토를 접목시킴으로써 탄생한 새로운 품종으로써 더욱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통일 역시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을 얻은 후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평양 서커스단의 공연이나 금강산이나 백두산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좀 더 발전 시켜서 관광 아이템으로 구성하면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우리의 한반도 내로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접목시키면 세계적 수준의 기술 또한 발달한다고 본다.

혹 연리목이라는 나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숲속의 좁은 공간에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나무들이 서로 가지를 내밀다 보면 자연히 다툼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맛다는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협조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지혜를 알아차린다.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메워 나갈 수 있으니 아예 서로를 합쳐 한 나무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나무가 합쳐 하나가 된 나무를 우리는 연리목이라 한다. 나는 이런 자연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의미를 되묻고 싶다. 같은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두 나무로 맞대면서 만나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을 안은 채 쓸모없는 공간차지에 시간과 힘을 쏟느니 서로가 하나되어 함께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의미있는 일인가.

끝으로 인터넷에서 읽었던 ‘연리목’이라는 시 한편으로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연리목

하늘아래 서로 다른 운명으로 태어나
기약도 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바람의 약속이
나를 이끌던 운명의 시작이었겠지요

한 하늘 아래 가까이 있어도
서로를 모른 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던 우리는
수천년의 억겁으로 돌고 돌아
기어이 마주 선 우리는
또 다시 헤어짐이 두려워 차라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연이 다하는 날은 비익조가 되어
하늘을 날아 올라 구천의 별리에 꽃비를 내려
부활하는 사랑의 꿈들을 강물처럼 바다에 이르게 하고
끝내 영혼의 목숨까지 닳고 다 닳을 지라도
마지막 잡은 손 놓지 않고
부둥켜 안을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상상의 일기가 현실의 일기가 됐으면

황라영 | 전주평화초 5학년

오늘은 즐거운 수학여행 날! 우리는 고려의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개성으로 향했다. 통일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가는 수학여행이어서 그런지, 더구나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 선조교를 직접 본다는 설레임에 그런지 아이들의 입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웃음이 가득 차 있다.

드디어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선조교에 도착했다. 작년에 개성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 온 대한이가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라며 정몽주의 단심가를 멋지게 외우자, 우리 반 장난꾸러기인 민국이기에 질세라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이방원의 하여가로 멋지게 답을 하였다. 두 아이의 멋진 시조 낭독에 아이들은 환호를 했다.

우리는 송악산 기슭에 있는 고려 궁터인 만월대를 둘러 개성시에 있는 숙소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내일 가게 될 백두산 등반을 위하여 일찍 잠을 청하였다. 아마도 천지를 보게 될 두근거림에 아이들 모두 잠을 설칠 것 같다. 내일이 기대된다.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있는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될 미래의 어느 날을 일기로 써 보았다. 언제쯤 이런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월드



컵 4강때 붉은 악마들이 플랜카드에 썼던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미래의 어느 날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을 지켜보면서 돈이 많이 들고,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의 남한과 북한 사이를 지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통일하는데 드는 비용만큼이나 많이 들고, 통일이 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못지 않게 통일이 된 후에 나타나는 이익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은 단순히 계산기를 가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돈으로 따질 수 있으며, 어찌 죽음을 무릅 쓰고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돈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 전 과학시간에 실험한 것이 생각난다. 글리세롤이라는 액체가 담긴 컵에 물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두 층으로 분리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층이 없어지면서 두 층이 하나로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38선으로 둘로 나뉜 한반도가 북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이 38선이라는 경계선을 지우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세계 사람들이 south korea, north korea라고 부르지 않고, korea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상상 일기가 현실 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바퀴에 통일을 신고

신 동 현 | 전주남중 2학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지만 내 마음속에 통일의 의미가 그렇게 와 닿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상호교류방문을 통해 50년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TV화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그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분단조국의 현장을 체험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나에게 기회가 왔다. 대학교 교수인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전주에서 임진각까지 통일염원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시작하신다고 하셨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고 그래서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직은 어리고 1000리 길을 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중학생이 되면 꼭 데려간다고 약속하셨다. 드디어 중학교에 입학한 2003년 대학생 형들과 함께 가장 어린 나이로 당당히 제4기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8월 1일, 내가 참여한 4회 국토대장정에는 전라북도 도내 대



학생 형들을 비롯하여 일반인, 그리고 대구지역에서도 참가한 대학생 형들을 포함하여 70여명이 참여하였고 모두 자전거에 달아놓은 통일의 염원을 담은 깃발을 휘날리며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달렸다.

전주에서 임진각까지 1000리 길을 6박 7일 동안 자전거로 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달려야 하는 대장정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였다. 이틀 후부터는 엉덩이 살이 터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겼다.

전주를 출발하여 익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전라북도 도계를 넘어 충청남도에 들어 설 때 나는 전북도민으로써 애항심을 가지게 되었고, 3일째 천안 독립기념관에 도착하여 평화의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고 그것은 중학생으로서 여기까지 달려 온 감격의 눈물이며 작은 애국심의 출발이기도 하였다. 전주를 떠난 지 5일째, 경기도 오산을 거쳐서 드디어 서울에 입성할 때에는 때맞춰 천등번개가 몰아치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렸지만 여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과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땅을 밟았다는 벅찬 감격이 어느새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여기까지 오는 길 또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 하루에도 힘들고 지칠 때 몇 번씩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를 흘리고, 걷기도 힘든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지만 포기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꺼내기도, 하기도 싫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와 70명의 단원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고, 물 한 모금도 같이 나누고 쏟아지는 땀방울을 서로 닦아주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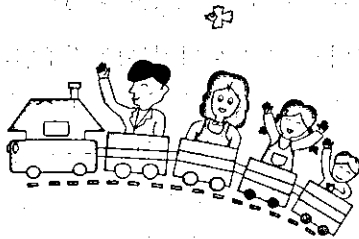


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 형제요, 자매이며 가족이 되어있었다.

전주를 출발한 지 1주일만에 폭염과 폭우를 헤치고 8월 15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 도착하였다.

장장 1000리, 여기까지 달려오며 겪었던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음에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벅찬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었다. 그 눈물은 애교심과 애향심이며 가슴속에 자리잡은 애국심이었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 단원 모두는 다시 한번 눈물을 적셔야 했다.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였다. 나는 1주일 동안 내 자전거에 달고 내달렸던 태극기를 자유의 다리 철조망에 걸었다.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할아버지의 애창곡

김설혜 | 군산중앙여고 2학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곳에서 놀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는 ‘고향생각’의 노래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약주를 드시고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면 어김없
이 이 노래만을 부르신다.

그러나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즐거움이 따라야 할
진데 할아버지께서는 이 노래만 부르시고 나면 눈시울을 붉히시니 어
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는 왜 이 노래만 부르세요?
그리고 왜 할아버지가 노래만 부르시면 식구들이 모두 할아버지 눈치
를 보세요?” 하고 여쭙어 본적이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그 노래밖에 몰라서…”라고 답변하셨지
만 알고 보니 할아버지 고향은 함경북도 길주인데 6.25때 부모님과
부인 그리고 아들 둘을 남겨둔 채 지금까지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아
픈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면 그때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 쉬며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며 “나는 평생을 껍데기랑 살았지…”라
며 속상해 하셨는지도 알았다.

그때부터 난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곳에서 놀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슬프게 들려왔고



나도 속이 상하거나 맘이 아플 때면 습관처럼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런 가슴아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사는 슬픈 민족이어야 하며 그 슬픔의 벽은 언제쯤이면 무너져 내려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의 고향을 찾아 드릴 수 있을까?

“지난 3월 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는데 방송에서 왜 잘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3차 이산가족 상봉 때 몇날 며칠을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셨던 할아버지는 “벌써 이산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모두가 잊어버린 것 아니냐”며 섭섭해 하셨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북한산 옷이 제 삼국을 통해 백화점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 그 옷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거동이 어려워 거의 방안에서만 생활하셔서 금강산 구경도, 백화점 북한산 옷 구경도 어렵게 됐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이번에는 정말일거야. 이번에는 남북회담이 잘 되어서 정말 좋은 소식으로 이어져 통일이 될 꺼야”라며 금방이라도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시며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 높여 외쳐본다.

통일아! 할아버지의 고향아!

우리 할아버지 살아생전 어서 달려와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 주어 하 나뿐인 우리 할아버지의 애창곡을 바꿔게 해 달라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통일되면 우리 할아버지 한 평생의 기다림이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고...

최근 일부 국민 중에는 통일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많이 도와 주



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그리고 단편적인 생각이다.

만약 우리 형제 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될 말인가?

또한 남과 북이 힘을 합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그동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불필요한 국방비 손실을 줄여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힘있는 우리 조국이 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픔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통일 반대운운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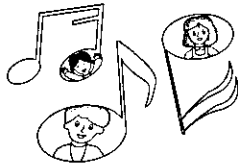
김영호

김민

김민

김영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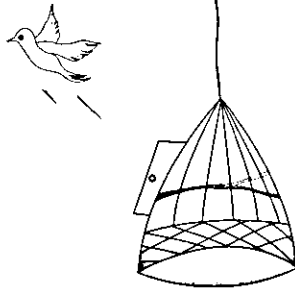


김민



김민

김민

김민



전라남도

- 우리는 한민족 
- 하나된 한민족의 아름다움
- 꿈은 꼭 이루어진다
- 하나된 그 날을 꿈꾸며
- 남북한이 한 가족이 되는 날까지
- 우리 모두를 위한 통일
- 통일의 종소리
-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방문하고... 
- 통일의 당위성



2000년 이산가족 상봉이 있던 날이지요.

“흑흑흑 네가 정말 우리 아들이니?”

“네 어머니 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나라이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있지요.

‘통일’이란 단어는 사전에서 ‘분단이 된 나라가 합쳐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통일을 위하여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날을 기다린 사람처럼 잘 됐다면서 ‘하하하’ 웃고 울고 하였습니다.

50년 만에 간 북녘 땅은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었죠.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손을 잡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할머니와 같이 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북한에 소 보내기, 북한에 비료 보내기, 북한에 옥수수 보내기 등으로 북한과 통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4년 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단어만을 되새기면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는 정말 4강 진출이라는 기쁜 일을 이뤘지만 북한은 4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다. 나는 그 때 정말로 한 민족이면서 누구는 4강에 올라가고 누구



는 4장에 올라가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 같다. 또한 이산가족은 얼마나 슬플까하는 생각을 했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줬던 적이 있었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북한 사람 한 분이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글썽 케이크보고 이 빵이 맛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라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왔다. 우리는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서 만들어 먹는데 정말로 북한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어느 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느 기사에서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란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없애야한다!' 라는 기사였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아빠에게 보여 드렸는데 아빠께서는

“음 좋은 말이야 어서 빨리 통일을 이뤄서 얼른 이산가족들이 우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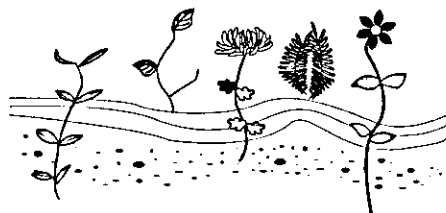
나는 아빠의 말을 듣고 나도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다. 잘 생각하며 여름 방학 때 사촌이 있는 서울로 올라갔었다. 어느 학교에서 통일 기금 모으기라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때 참여하지 못한 것이 정말 슬펐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 때 돈을 못 냈는지 정말 바보야 하는 생각만 되새길 뿐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순천에는 정말 통일 기금 모으기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우리 모두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사에 참여하여 어서 빨리 통일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

또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서 우리들이 모두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북한에도 발전을 시켜서 어서 빨리 북한도 우리처럼 발전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우리 아빠는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꺼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통일은 어서 빨리 이뤄져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남북을 고루고루 발전시켜서 국토를 좋게 해야 하는 거야.”



나는 늘 통일이라는 단어를 되새기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통일을 이룩하여 북한 아이들과 어서 빨리 학교를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의 백두산도 가보고 싶습니다. 또 북한의 문화유산도 보고 싶고 북한에 있는 천리장성도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핏줄 이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싫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룩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된 한민족의 아름다움

임예설 | 순천동산여중 3학년

요즘 뉴스에서는 앞을 다투어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대한 모습들을 보도하고 있다. 증거자료로 실린 학대 사진들을 보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그 군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놀라면서도, 그들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웠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가 진정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전쟁의 공포에 이성을 잃은 군인들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전쟁인 것이다.

폐허가 된 이라크의 모습에서 전쟁의 두려움을 실감하며, 과거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을 아픔이 생각났다. 전쟁이라는 잔인한 바람에 휩쓸려 동족에게 총을 겨누는 지난날의 악몽...

아비규환의 그 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지도에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는 휴전선이 남아있고, 그 곳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여전히 서로를 향해 총을 맞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곳에서는 헤어진 이산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데, 한 곳에서는 서로 총구를 내민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화면으로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실제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몇 십년만에 겨우 만난 혈육을 다시 만나자는 한마디 약속만을 뒤로 하고 떠나오는 그들의 발



같이 바위보다 무거웠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룡천역 폭발사건은 가슴이 내려앉는 일이다. 내 형제 자매가 무사한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 그마저 쉽지 않아 애가 탔을 것이다. 다친 룡천 주민들을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웠을지... 당장이라도 달려가 손이라도 잡아주며 위로하고 싶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루 빨리 통일을 이뤄 그들의 마음의 그늘을 걷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 십년간 지속된 분단의 결과, 통일의 필요성까지 망각한 사람들이 있다. 통일을 할 경우,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며, 벌어진 문화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통일을 한다면 남한이 경제적 원조를 해야 하겠지만, 남·북한이 쓰는 엄청난 군사비와 체제유지 비용을 줄이고 풍부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멀리 내다볼 때 훨씬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 북한과의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전통적 문화가 많이 보존되어있는 북한과 서구적 문화를 수용한 남한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얻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산가족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으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아닌, 통일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당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을 모아 나라의 위신을 높일 수 있다. 반만년 역사를 지닌 한국인의 기개를 세계에 보일 발판이 바로 통일인 것이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쌍둥이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쌍둥이 중 몸이 허약해 죽을 것 같던 한 아이를 같이 태어난 형제와 같이 두자, 허약했던 아이가 건강해졌다는 얘기가. 쌍둥이들은 원래 하나의 생명을 나누고 태어났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을 때 더 큰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서로를 꼭 안고 있는 쌍둥이들의 모습을 보며 남과 북도 원래 한 뿌리를 타고 내려온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쌍둥이 형제가 그랬듯



한국인은 하나일 때, 가장 아름답다. 나 보다는 우리라는 말이, 남·북 보다는 통일된 국가가 우리에게 어울릴 것이다. 거센 폭우에도, 눈보라에도, 그 어떠한 시련에도 한 민족은 하나일 때,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한 민족은 하나일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꿈은 꼭 이루어진다

김지애 | 순천강남여고 3학년

금강산을 향한 배가 동해안을 떠나던 날 대부분의 남한 국민들은 흥분과 기대감에 싸여 있었다. 소 떼가 판문점을 넘던 날은 이산가족이 아니라고 휴전선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소 떼들이 부럽기까지 했다.

요즘 남북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등 다양한 교류가 있었다. 이런 교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어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중에는 통일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때 많은 피해를 당하신 분이고, 그 당시 북한의 모습만을 기억하고계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좀더 넓은 안목으로 볼 때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분단이 가로막고 있고, 그로 인한 이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민족적 정서이다. 이제 남북은 이념과 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달라졌다. 또한 남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하나의 언어와 역사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의 체제를 이루어 다시 통일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통일은 민족의 비원이다. 분단으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다.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형제도 만나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이 통일 되어야 한다. 통일은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아직도 남북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재발의 위험성은 항상 불안의 대상이 되므로 우리 민족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또 통일은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투입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민족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력은 장기적으로 보아 세계 8위권 또는 5위권에 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탈냉전 화해 협력의 시대로 되어가고 있으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전후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체제는 비로서 완전히 청산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을 해 나가는데 필수적 조건이 된다. 모든 나라가 이념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세계문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이 때 분단은 우리가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분단이란 역사적 산물로만 보지 말고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평화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과 한을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넘어 그 어떤 명분이라도 단절될 수 없는 천륜이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만



남은 가장 인도적인 문제로, 인간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준비하고 세계화에 합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단이 해결되어야 하고, 민족의 아픔인 이산가족의 문제는 꼭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엉!엉!엉엉!”

숙제를 하나가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이었다. 헤어진지가 벌써 30년 40년 아니 50년이 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저렇게 울기만 하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반가워서 일까? 아니면 서러워서일까? 사람들은 부둥켜안고, 울고만 있었다. 한참 후에야 빗바랜 사진을 펴 놓고, 지나 온 삶을 이야기 했다. 그러다가 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울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어느새 우리 가족도 텔레비전의 이산가족과 한 가족이 되어서 훌쩍 훌쩍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고 있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한 때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연필, 볼펜, 색연필만 지울 수 있는 그런 지우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나쁜 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시 박힌 철조망과 휴전선, 전쟁이나 무기 등을 쓱쓱 쓱쓱 지워 버리는 마술 같은 지우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또 북한이 너무 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렇게 하면 북한도 민주주의로 자유로워지고, 북한 지하자원도 같이 나누어 쓰고, 남한의 과학 기술도 지원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니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소중



하고, 귀한 목숨을 잃게 되고, 재산 피해도 엄청 클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전쟁의 힘으로 북한을 지배하게 됐다는 눈길로 쳐다볼 것이며, 비난을 받게 될 것 등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더욱이 이라크에서 죄 없는 아이가 다쳐서 울고 있던 장면, 이유 없는 죽음이 널려 있던 장면이 나는 계속 손사래를 쳤다.

그렇다,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이며, 전쟁의 작은 불씨하나도 있어서는 안된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체중을 줄인다거나, 시력을 원래보다 약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임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특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온 몸에 문신으로 범벅을 해서, 잠바로 얼굴 가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창피한 일을 왜 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을 써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어느 곳에서도 해서는 안된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에 그런 야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 한 민족 한겨레, 같은 동포이면서, 눈치를 보며 힘겨루기, 신경전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조금씩 서로양보하고, 만나서 대화하며 미움과, 긴장, 전쟁은 버리고 통일, 평화 통일을 가져와야겠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자주 말씀하시던 우리 아버지께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외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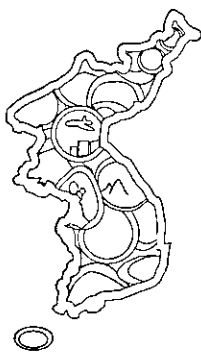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로지 통일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통일!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함께 손과 손을 잡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누고, 교환해서 갈라진 남과 북을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그 날을 꿈꾸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산가족 없고 철조망 없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한이 한 가족이 되는 날까지

우 아라 | 고흥도화중 3학년

얼마 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이 나의 자그마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단순히 극장으로 끌고 간 영화였지만 내가 그 극장을 나오는 순간 나는 6.25라는 혹독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있었다. 내가 다녀온 그 전쟁터는 이러했다.

피비린내가 잔뜩 풍기고, 하루에도 수천 명이 팔 다리가 잘리고, 찢어진 살가죽 위에는 구더기가 바글바글 기어 다녔다. 이 곳 저 곳에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마치 쓰레기 더미 태우듯이 불 질러 버렸다. 그나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배가 찢어져 반쯤 열려 금방이라도 창자가 튀어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었고 있는 대로 일그러져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과반수였다.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날아오던 폭탄에 머리통이 터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잘려 나간 다리를 치료하지 못해 살이 썩어가도 말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 둘씩 죽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또 한명의 시신은 생기고 또 생겼다. 그야말로 소름끼칠 정도로 잔인한 곳이었다.

계절이 거듭되면서 전쟁의 흔적은 점차 사라졌다. 어이없게도 세월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놨지만 항상 나를 지켜주었던 내 어머니 아버지는 없었고 형마저 곁에 없었다. 전쟁



으로 얻은 것은 휴전선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어갔다는 것, 그로 인해 내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 밖에는 없었다.

6.25라는 단어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 어떤 끝이 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그 어떤 사람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1950년 영문도 모른 채 기차에 올라타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 버린 내 가족을 한번도 사용해 본적 없는 무시무시한 총칼로 사정없이 찢러 대야했던 잔인했던 현실이었다.

50년도 훨씬 지난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남북은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는 북에 살고 있는 내 아들의 얼굴을 마음 놓고 어루만져 줄 수 없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꿈 꿀 수는 없다.

관광객 입장으로 금강산 구경은 할 수 있어도 버스를 타고 내 아들의 집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도 휴전선은 없어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도 6.25 같은 참혹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닌 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념의 대립에 희생되어야만 했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 많은 인생을 우리들은 대물림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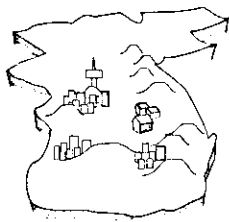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서로 다투고, 원망만 하지 말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혈육지간에 총칼을 겨누었던 동족상간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조금씩만 다가선다면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은 길일 것이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에게 하루 빨리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나는 바라고 또 바란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북에 있는 친구와 손잡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러 가고 싶다,

“저 땀 참 어리석었어. 저런 전쟁은 없었어야 했는데, 그지?”하면서 말이다.





우수

우리 모두를 위한 통일

최선녀 | 광양백운고 2학년

몇 년 전 TV에서 '통일'에 대한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통일이 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힘들어 진다고.”

그래서 나는 통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장들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조차 부여되지 않는 많은 양의 쌀과, 500여 마리가 넘는 소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인심 쓰듯 전해주는 정부가 밍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혈육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현실사회에 있어 통일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6.25 한국전쟁 이후의 5천년 단일민족! 하지만 오랜 역사에 걸 맞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휴전선이라는 금을 긋고 '조국분단'이란 현실을 직시하며 지낸지도 벌써 50여년. 그 50여 년 동안 현재 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로 인하여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이럴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이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만 있다.

50년 동안 남·북은 대화의 창을 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 끝에 3년 전 남·북의 정상은 만나 대화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 후 금강산 뱃길이 열리고



육로도 개통되었으며 서로간의 문화교류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문화교류라 하니 북한의 평화예술단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던 것이 떠오른다. 어렸을 적부터 가꾸고 다져온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던 그 모습, 공연을 하며 얼굴에 웃음을 지우지 않던 그 모습이.

공연이 끝난 후 평화예술단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남한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 때 남·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고만 있었다. 왜 울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통일이 되어 꼭 다시 만나자는 그 말만 되풀이 하면서...

우리는 같은 핏줄인 '하나' 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혈육간의 생이별의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응어리진 가슴을 안은 채 속울음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다.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의 한 맺힌 삶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별이는 이데올로기의 논쟁과 불필요한 군비경쟁은 우리민족을 더욱 불행하게 한다. 이는 민족간의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불신을 키워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민족의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나아가 하나의 통합된 국가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개방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0년이나 분단되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많이 힘들 것이다.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북한을 돕고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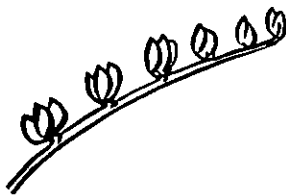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막연한 소원만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현실문제이다. 통일은 한민족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이산가족의 피눈물로 얼룩진 상처를 아물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철조망을 걷어 냈으면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마음 속 불신의 철조망을 걷어 내고 남·북이 서로 손잡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날이 탄생하는 날, 나는 북녘의 친구들과 손을 잡고 백두산에 올라 외칠 것이다.

‘우린 이제 하나다’ 라고.





우리 엄마의 고향은 북한과 제일 가까운 강원도 철원이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철원 땅에 집을 지으셨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의 그림자조차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말았다. 지금은 외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려고 선택하신 땅도 휴전선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북쪽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종소리가 들리면 외할아버지께서는 외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꺼내 드신다고 한다.

언젠가 이원수 선생님의 '호수 속의 오두막집'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표지에는 내 포래의 아이가 뽀뽀뽀한 글씨로 쓴 뜻말이 호수로 내려가는 오솔길에 세워져 있다. 그 뜻말에는, '아버지 서진규의 집이 호수 속에 있음'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 '호수속의 오두막집'은 6.25 전쟁으로 하나였던 남과 북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영영 돌아오지 않은 아들과 아버지를 기다리는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이다. 이 책은 전쟁이 가져온 한 가족의 아픔이 담겨 있고 서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쟁 때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분들은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고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신다. 이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할머니의 애달픈 사연은 이산가족의 슬픈 사연이기도 하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이야기이



기도 하다.

외할아버지 환갑 때 외가친척분들께서 외할아버지께 금강산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향수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없었던 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엄마께 들었을 때에는 가슴이 아팠다.

지난 4월 25일 룡천역 폭발사고로 25일 현재 160명 정도가 숨졌으면 이 중 76명이 어린이이고 부상자는 1300여명에 이르러 적어도 300명은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를 보았다. 룡천역 주변학교와 집 40% 가량이 무너져 구조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와 부상자는 늘어 날 것이라고 기자가 말했다. 구조물품을 보내고 성금을 보내는 등 많은 도움을 보내고 있는데 배로 운반하는 바람에 우리들이 보내는 따뜻한 손길이 빨리 도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 난 너무나 답답했다. 통일이 되어서 육로로 운반했다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느는 일도, 어린이들이 고통 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도 원하지도 않은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지금까지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아가시고 계신다. 전쟁으로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북쪽에서 들리는 점심시간의 종소리가 아닌 통일의 종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전쟁이 사라질 때, 평화와 통일의 종소리가 들리는 때를...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방문하고...

이 예 슬 | 목포항도여중 2학년



지난 4월 3일~4월5일 동안 2박3일로 경상남도의 진해시, 거제도, 외도 등으로 친척들과 놀러갔다.

그 중에 4월 4일에 갔던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곳은 6.25전쟁 당시 북한 포로들을 수용했던 곳이다. 거기에는 실제 유적들인 PX, 미군 무도회장 등이 남아 있었고, 박물관이 2개쯤 있었다. 박물관에는 당시 포로들의 생활이 잘 설명되어 있는 안내판이 있었고, 음향효과도 실제 같아서 어떤 곳에서는 “꼼짝마!” 하는 소리에 놀라 사촌 뒤에 숨기까지 했다. 또 그 곳에는 실물 크기 또는 축소시킨 사람들 모형이 있었고, 사진이나 당시의 유물(포로들 밥그릇, 라디오, 포로복 등...)을 갖추어 놓았다.

겨우 몇십년 전인데, 어떻게 저리도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 수 있었는지 놀라웠다. 거기는 남자, 여자, 청소년 수용소가 따로 있었다는데, 사진을 보면 우리만한 애들도 불쌍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이 밥먹고, 일하고, 자는 등 생활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있었는데 밥은 그야말로 밥밖에 없었다. 그들은 밥을 배식 받고 그나마도 허겁지겁 배고픈 듯 먹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 국군의 식사보다 나은 수준이었다니 도대체 그 당시 우리 국군들은 무얼 먹고 어떻게 힘을 내서 싸웠을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이라 생각하니 더욱 불쌍해지고, 그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나마 우리가 안정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고, 노



인분들을 공경해야 할 것 같았다. 또 국어 문제집 앞에 사진에 봤던 피난 모습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무리 전쟁중이라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떤 지도자들이 국민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를 폭파시킬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었다.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려 도저히 그 철로를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미워졌다. 옛날엔 어땠는지 몰라도 요즘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부시 대통령만 봐도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압박받는 이라크인을 구해주기 위함이라지만 겉은 속에는 이라크 석유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이익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니 죽어서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또 이유가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도 그들의 아들, 딸, 부모님, 남편, 아내, 친척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걸 생각하면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가족이나, 그들 자신은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최고의 실력 있는 경호원, 최고의 시설로 보호받고 있다. 후세인만 해도 그가 숨겨둔 은신처들은 핵무기가 터져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깊이에 최고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전쟁 일으킨 자들은 보호를 받는데, 죄 없는 민간인들은 아무 대책 없이 전쟁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나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고 그 뒤에 그들의 가족들을 내보내 앞장서서 싸우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전쟁을 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또 기차에 사람들이 터져죽도록 타면서도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에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그걸 보니 미국이 흑인 노예를 사오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춤추는 노예들'이란 소설에 나오는 흑인 노예들이 생각났다. 결코 그들보다 나을 바 없어 보였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점이나, 가난하고 굶주리기 짝이 없는 생활, 짐짝같이 아무렇게나 배, 기



차에 실리는 등... 또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수학여행 때 입을 옷이라든가, 시험 점수, 용돈문제 등은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라 언제 그런 끔찍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서 북한과 통일을 해서 전쟁 걱정이 없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계기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방황기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참혹한 획을 긋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피로 물든 참사의 결과도 끝내는 황폐한 토지와 궁핍해진 서민들, 체제의 붕괴 그리고 한 민족의 분단이었다.

우리의 핏줄이, 민족의 끈이 휴전선에 놓인 쇠창살 하나로 끊어져 피와 명으로 물들고 말았다, 그로 인해 파괴된 반도국가의 화합과 민족의 단결은 우리의 가슴에 단장(斷腸)과 한(恨)으로 남아버렸다, 그리고 반세기가 흐른 지금 북한과 남한은 각각의 체제와 이념아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하나가 되어가는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우리도 분단의 역사를 바로잡아 다시 이은 경의선,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들은 6.25전쟁의 슬픔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다. 그러나 시대가 한 단계 발전된 지금 우리 10대들의 통일관이 많이 변해버렸다, 통일의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단점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순한 이데올로기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부정적 기능은 무엇일까? 아마도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북한경제와의 혼합시기에 따른 분열과 혼란, 문화적, 사회적 결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깨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부정적 사유들을 발전시킨다.



통일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비판적인 역사의 결과를 재창조하여 민족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고, 휴전상태라는 북한과 남한의 적대적인 관계 안에 생성된 경계심을 해소해 주기도 한다.

둘째, 통일은 민족자존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민족의 협동심으로 이뤄낸 산물들이 많다. 예컨대, 우리가 지켜온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 함께 만들어낸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 굳은 절개와 지조의 혼이 담긴 백의민족의 정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얼을 50년의 세월로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로 보아 통일은 민족의 공존공영을 높이 세워 민족자존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 하나의 브랜드로 완성되는 완전한 독립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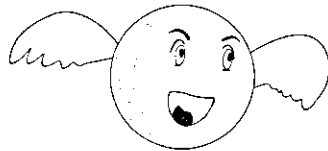
통일은 분리되었던 국가가 하나로 완성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 개입했던 외부의 세력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빚어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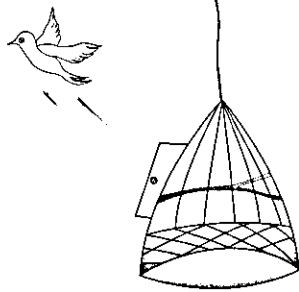
지금까지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았다. 우리나라는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평화통일을 통한 자주적인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통일관의 이해심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일수록 우리는 번의(翻意)하여 객관적이고 평화적인 자세로 통일의 당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슬픔과 고통의 한을 간직한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진다지만 우리의 분단된 역사는 길어진 채로 남게 된다.

물론, 통일이 되어 한 국가로 자리 잡기까지는 어려움과 혼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단일민족국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역사를 같이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같이 만들어갈 존재이다.



한 핏줄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통일은 북한과 남한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서로 간에 이해심을 키워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해주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평화통일을 위해 진지한 탐구를 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 룡천의 이름 모르는 친구에게
 - 우리는 한 가족
 -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통일의 빛을 찾아서
 - 역사책을 덮으며
 - 호랑이의 짝지
- 멀지 않은 통일, 통일을 위하여
 - 하얀 나비와 무궁화의 외침





최우수

룡천의 이름 모르는 친구에게

박송이 | 석보초 6학년

룡천의 이름 모를 친구야,

나는 남한의 경북하고도 영양에 속하는 석보에 살고 있는 6학년의 평범한 아이야. 내가 사는 고향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산골짜기 오지라고도 하지.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공기 맑고 하늘은 파랗고 숲으로 둘러싸여서 너무 좋아. 산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도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나는 영양 고추는 달고 맛있기로 유명하지. 소개가 너무 요란했나.

지난 4월 말 북한의 룡천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를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그것은 화상으로 얼굴이 온통 타버린 어린아이의 모습 때문이었지. 초라한 병원 복도에 기대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내 동생 또래 아이의 모습에서 충격을 느끼기까지 했으니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우리 면에도 보건소가 있는데 건물도 아름답고 시설도 좋아. 그래도 어른들은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안동까지 간단다. 만약 내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 가족 모두가 슬퍼서 울고 괴로움에 잠겨 있었을거야.

친구야,

6.25전쟁이 끝난 지 5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보고 싶은 부모 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고향 땅도 밟아 보지 못하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들었어. 이산 가족들의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도 당연하지만 6.25전쟁을 모르는 우리도 수학여행



때 금강산과 묘향산에 가보고 싶고 사회시간에 배운 개성의 선죽교 다리도 건너보고 싶은데 한민족 한겨레이면서 왜 갈 수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 뿐이야. 북한에는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며칠 전 뉴스에서 앞으로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서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다니 그래도 위안이 되지 뭐니.

친구야,

내가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고 부산 아시안 게임 등 많은 행사가 있었어. 그때 마다 북한에서 온 예쁜 언니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었지. 그 뒤로도 금강산 유람선이며 전쟁으로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잇고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도 평양을 방문하시고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도 자주 있어서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아주 가깝게 생각되었단다. 그리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옷차림에 생각도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통일도 멀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북한을 나쁘게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북한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통일도 우리가 젊은이가 되었을 때는 이루어진다는 희망이 있어.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 4강의 신화를 이루었으니 통일도 못이루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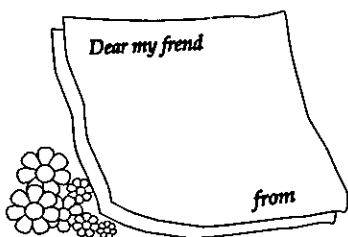
언젠가 도덕시간에 북한의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를 한 적이 있어. 답장이 없는 편지였지만 북한의 친구들이 받아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던 기억이 난다. 나는 요즘 친구들과 편지 대신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아. 정말 빠르고 편리해. 너희들에게도 힘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요즘 읽는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 받다보면 우리가 컸을 때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해져서 틀림없이 통일이 앞당겨 지겠지. 그리고 룡천의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무사히 나아서 우



리나라에서 보내준 칠판과 책. 걸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도와준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겠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그런 따스한 마음 때문에 휴전선의 철조망도 스르르 녹아 버리지 않을까.

친구야,

너도 알겠지만 남한과 북한은 처음부터 하나였지. 하나 된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룡천의 어린이들과 우리 민족 모두가 웃으며 손에 손을 맞잡을 그날까지 너와 나는 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자. 안녕!





“꽝!”

고막을 찢어버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나의 귓가에 들림과 동시에 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눈을 떴을 땐 3일이 지난 후였다. 옆을 둘러보았을 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입어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밖에 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간, 피냄새가 나의 후각을 자극시켰다. 대충 감아 놓은 머리에선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손으로 머리를 짚어보았을 땐 나의 손바닥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라! 왜 이러지?’

엄마를 불렀다. 두쪽 손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엄마를 찾으러 가기 위해 야전 침대에서 일어서 발을 아래로 내디뎠다.

‘신발이 어디 갔지? 침대는 왜 이렇게 높은 거야?’

투덜투덜 거리며 신발을 찾기 위해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 순간, 세상이 멈춰버리는 듯했다. 아니, 이 순간만은 거짓이길 바랐다. 이 모든 것을 다 꾸민 것이라고, 두 손으로 나의 몸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만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목,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다음은, 다음은, 무릎인데... 무릎 다음엔 발목인데, 발목다음엔 발인데...’

없다. 없었다. 다리 두 개가 마치 지금의 남한과 북한처럼 똑 떨어져 나갔다. 눈물조차도 흐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정지되어 있



는 것처럼 느꼈다. 저쪽 끝에서 병실로 들어오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목이 매어왔다.

“엄마, 빨리, 빨리 이리 와바!” 내다리, 다리가…”

엄마에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이제서야 알게되었다. 지난 3일 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국어수업을 듣고 있던 중 비료를 실은 열차차량이 충돌하여 부근 전봇대가 쓰러져 전기 단락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발생했던 것이다. 학교는 물론 폭발 사정거리인 500m 이내에 있던것들은 모조리 싹 쓸어 갔다. 사망자 154명과 부상자 1천 300여명을 내었다. 나에겐 집도 없어졌다.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한동안은 병원에서 온가족이 머물렀다.

머무르는 동안 엄마와 아빠는 잠시동안만이라도 목을 안식처를 찾아다녔다.

한 달이 지나고, 퇴원확인을 받았다. 아직 덜 나았지만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퇴원과 동시에 부모님께 날아오는 퇴원고지서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아빠에게 지워진 막중한 책임감뿐이었다. 난 어슬프게 만든 철덩어리 휠체어에 나의 온몸을 받쳐야했다. 병원에서 나와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자 학교에 가고 싶어졌다. 아버지한테 학교에 한번만 가보자고 말씀 드렸다.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학교로 갔다. 학교엔 동무들이 없었다. 동무들은 이제 학교에 더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학교 건물은 이리저리 찢긴 갈래 조각처럼 허물어져 있었다. 동무들과 같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무너진 건물들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 버렸다. 천천히 바퀴를 옮기며 운동장으로 들어가 보았다. 나도 모르게 얼마전까지만 해도 함께 지내던 동무들과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여기서 영수 녀석이랑 치고 박고 싸웠는데 말이야.’

‘저기서 미선이 고무줄도 끊고 도망갔었지.’



‘저쪽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서 선생님과 같이 그림도 그렸는데.’
더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난 학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돌아섰다.

“왕호야!”

저 끝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물이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며,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으며 아빠를 향해 나아갔다. 아빠의 얼굴엔 몇 달 만에 보는 미소일까? 가벼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아빠가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아빠가 웃음을 띄우고 계시고 있는 얼굴을 보니, 이상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 보았다.

“집을 구했다고. 먹을 것도 구했어!”

“참말이에요?”

“그럼, 참말이고 말고”

“남조선 동무들이 우리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위로금을 아주 많이 보내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 졌어.”

‘왜 도와줬지?’

아! 생각난다. 선생님께선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한가족이라고 했다. 아빠, 엄마, 나, 동생들, 우리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 서로 다 같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고 있다. 그렇다. 남조선 사람들은 북조선이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위로금과 식량을 보내서 힘이 되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무들이 도덕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영수야, 넌 통일이 되면 무얼 제일하고 싶어?”



“난 남조선 여자 동무들과 알고 지내고 싶어!”

“아마 너 얼굴 보면 다 도망칠걸?”

‘애들아! 저 하늘에서 내 말 들리니? 아마도 영수 너의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와 남한은 하나거든, 단지 이 땅덩어리에 길게 놓아져 있는 저 철조망이 우릴 갈라놓고 있을 뿐이란다, 애들아! 저 하늘에선 저 철조망이 보이니? 곧 없어 질 꺼야. 저 철조망은… 나는 비록 지금 이래도 행복하단다. 같이 웃어 주고 울어 줄 수 있는 많은 가족과 동무들이 생긴 것 같거든… 그리고 난 지금은 비록 내 다리가 없지만 언젠가 이어질 남조선과 북조선처럼 내 다리도 꼭 고쳐지리라 믿어!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너희들도 빌어 줘!’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박은새 | 경주여고 3학년

온 세상을 화사하게 물들이던 개나리와 진달래가 저버리고, 푸르름의 빛을 한껏 발산하는 '신록의 계절' 여름이 어느덧 문턱을 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평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서신을 받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제서야 이렇게 붓을 드는 저를 무례하다 내치지는 마음소서. 한동안 선생님의 '떠나심'에 슬퍼하는 많은 민생들을 돌보아주느라, 제 손이 2개뿐인 것을 탓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속히 돌아오셔서 가엾은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할텐데... 시대가 그렇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평화' 선생님!

선생님께서 고조선이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저희 두 형제가 38선을 사이에 두고, 처참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짐을 슬퍼하고, 돌아갈 고향이 없음을 탄식하며 시련의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를 단단히 혼내시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 하셨을 테지요. 하지만 선생님! 이제 더 이상의 시련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버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다 이미 다른 세상으로 떠난 이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남은 생애가 많지 않은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눈물' 속에서 지내온 이들에게, 짧은



여생이나마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향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께서 주신 그 '시련의 기간' 동안 저희는 한층 성숙해졌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나뉘어져 있어서는 어떤 일도 잘해낼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슬픈 운명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운명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 주십시오.

비록 그 때는 많이 어려서 왜 저희 두 형제가 하나여야만 했는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은, 그 이유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도, 고려의 후삼국 통일도 그리고 조선의 새 왕조 개국도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되었을 때 이룰 수 있었던 대업입니다. 저희도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몇 백년 전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발맞춰 나아가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편지를 쓰다보니 어느덧 새벽녘이 어슴푸레 밝아오고 있습니다. 민중들과 저희 두 형제의 이름으로 '평화' 선생님께 뜻을 전하다보니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듯합니다. 한 시인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라며 분단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시로 노래했다지요? 이는 비단 이 시인 한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고향과 가족을 잃은 실향민들이 그랬고 또 7,000만의 온 겨레가 그랬습니다.

다음 번 서신에서는 꼭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선생님의 '귀환'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전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다시 뵙는 그날은 형제의 허리가 하나로 이어져서, 온겨레가 무궁화를 원편 가슴에 한가득 달은 채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최소영 | 단포초 5학년

지난 어린이날 우리 가족은 경주 문화 유적지를 둘러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려고 집 열쇠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이던 어머니께서는 열쇠가 없어졌다며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열쇠집 아저씨를 불러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애타게도 찾던 열쇠는 집안의 벽에 걸려있었습니다. 통일의 열쇠는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 열쇠로 우리집의 문을 열 수 없듯이 우리가 열어야 할 통일의 열쇠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통일의 열쇠를 우리나라 대신 찾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새로운 새싹이며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우리가 먼저 통일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우선 남과 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조금씩 말이 다릅니다. 50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언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에서 지금 '도시락' 이라고 하는 단어를 북한에서는 '곽밥'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용하는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의 눈높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오래 떨어져 있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도 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룡천 사고 때처럼 헌신적으로



도와 주거나 축구나 농구 등 스포츠 교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산 가족들이 자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북한 어린이가 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너무 가난하고 하루에 세끼를 다 못 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서로 전쟁은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은 한민족이 전쟁을 하면 우리도 좋지 않고 북한도 좋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방법을 실천을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개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남과 북이 서로 손을 잡고 통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북한 지도층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을 굶기고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문화와 경제를 개방하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을 쉽게 도와줄 수도 있고 같이 협력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계의 무대에 나와서 평화로운 경쟁을 하며 열심히 살아야만 나중에 통일의 문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남과 북의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해하면 우리는 통일의 문 앞에서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오겠지' 이런 생각 보다는 내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고 먼저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빨리 찾아 올 것입니다.



저만치 동녘에서 환하게 밝아 오는 아침 해가 눈부시다. 아침은 밤새 잠들어 있던 온갖 만물들을 생명력 넘치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나 보다.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에 간다. 학교 가는 길 파릇파릇한 모가 심어진 푸르른 들녘을 보며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가야 할 한 줄기 빛을 찾았다. 황폐해지는 세상 속에서 비로소 그 해결책이 자연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오늘도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 날도 여느 때처럼 눈부신 햇살만큼이나 희망찬 모습으로 학교로 가던 중이었다. 차 안의 라디오를 통해 전해진 소식으로 인해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북한 룡천역 폭발사건...” 물론 직접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지만 한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그렇게 큰일을 겪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그것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분단이란 큰 상처를 치료하고 통일의 문턱을 넘어야 할 세대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내 동생뻘 되는 많은 아이들이 폭발사건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자 내 동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다.

오늘 아침 독서시간에 국어시간에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김소월님의 ‘진달래 꽃’을 감상하게 되었다. 김소월님은 이북을 대표하는 훌륭한 시인이시다. 그래서인지 더욱 더 정감이 가는 시였다. 수업시간에 북쪽을 대표하는 시인이 김소월님이라면 남쪽을 대표하는 시인은 박



목월님 이라고들 한다. 비록 남·북한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 자체로 해결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이란 상대적인 가치이니까 체제내에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학 속에서 지향하는 아름다움이란 모두 같은 것이니까. 난 오래 전부터 문학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문학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추구하는 아름다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난 아직 어리지만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있다. 문학작품으로 남·북한 갈등과 이념차이를 해결하는 보탬이 되고 싶다. 나는 문학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작품 속에서 우리의 갈등과 차이를 서로 조절하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비록 많은 시간 멀리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는 것 보다 많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으로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큰 꿈은 바로 문학을 통해 우리 민족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싶다. 난 문학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학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너무 가슴 아프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인데 북한 어린이들이 전쟁놀이를 하면서 노는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 천진난만함이 묻어나는 얼굴의 아이들이 전쟁을 놀이로 삼는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전쟁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을 놀이로 삼고 살아가는 북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물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번 부산 아시안게임 때 한 송이 꽃보다 고운 대학생 응



원단 언니들이 비에 젖은 플랜카드를 보며 눈물지었던 일이 떠오른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난 언니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언니들의 진한 눈물이 단순히 북한 체제 수호를 위하기 보다 진정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진정한 민족애로 승화되었으면 좋겠다.

남·북한이 하나 되는 주역은 바로 우리들이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감정,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자 능력이다.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문학은 참 오묘하고 신비한 것 같다. 모든 문제가 문학 앞에선 해결이 되니까 말이야. 문학은 남·북한 사이에 있어서도 화합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며, 긴 세월 속에서 멀어진 사이를 단결시켜 주리라 믿는다.

언젠가 자유롭게 북녘 땅을 밟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에 간다. 오늘따라 파란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가 부러워진다. 저 새처럼 끝없는 하늘을 날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난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며 다짐했다. 비록 내가 지금 저 새처럼 내 동포가 살고 있는 곳까진 갈 수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생활하여 내 꿈을 이루어 당당히 그 곳에 가겠다고 말이다.

창밖으로 푸르른 들녘이 펼쳐지고 있다. 들녘에 곱게 심긴 모들이 나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듯하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비로소 무르익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들이 꼭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해 정겹다.



가끔씩 역사책을 읽다 보면 그 상황에 푹 빠지게 된다. 만약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책 속에 담긴 역사는 항상 격동적인 순간들을 보여 주며 나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옛적부터 이 땅에는 참 많은 일이 있어 왔다. 가슴 벅찬 금지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고통과 눈물의 역사도 있어 왔다. 우리 민족이 거쳐 온 발자취를 조금씩 알아가며 난 느끼기 시작한다. 그 발자취 끝이 지금의 우리와 맞닿아 있음을, 숨가쁘게 달려오며 때론 찢어지고 눈물 흘린 그 시간들의 연장선 위에 내가 서 있음을 느낀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주시할 것이고 내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듯이 지금 이 시대를 돌이켜 볼 것이다. 옛적, 민족이 처했던 수많은 순간처럼 지금도 거대한 순간이다.

난 아직도 실감할 수 없다.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 그토록 이질적인 두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니 그것도 나와 같은 외모에, 나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념과 체제의 양극단에 서서 공존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물론 차를 달리면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국군장병들이 치켜든 총기와 비무장지대의 적막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겪었다는 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이다. ‘빨갱이’란 말에 몸을 사렸던 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비교적 평화롭고 풍요롭게 자랐다. 늘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들어 왔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크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우리가 북



한을 접하는 것은 주로 TV와 신문 정도일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래 군대가 질서정연히 행진하는 모습, 국제행사 때마다 친선교류를 하는 장면, 때론 구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여주는 등, 우리는 마스크에서 비춰주는 대로 북한을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막상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이런저런 명목으로 엄청난 세금이 매겨질 것이다. 보통은 국방비를 통일비용으로 전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때 서유럽의 맹주였던 서독이 공산권에서 제일 잘 산다는 동독을 흡수하는 데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다. 통일의 작업이 착수되는 순간 우리의 부가 빠져나가는게 느껴질 것이다. 또 이래저래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 이질성과 생소함에 사람들은 혼란을 느낄 것이다. 이념이란 무서운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굳혀진 사람의 사고방식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휴전선이 끊어지는 순간 평화의 비둘기는 날아오르겠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건 남과 북이 섞이는 격동과 마찰의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머니가 비고 엄청난 혼란이 온다 해서 통일을 주저할 순 없다. 조금만 더 시야를 멀리 잡으면, 우리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포용할 수 있다. 척박한 땅에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한 고통은 잠깐이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까지 생기는 수많은 상처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험벗고 절규에 찢던 일제도 겪은 우리이다. 온 땅이 쑥대밭이 되고 아까운 사람들의 피가 강을 이룬 6.25도 겪은 우리이다. 수탈이 아닌, 파괴가 아닌, 건설을 위한 삼질이라면 우리는 신명을 실을 수 있다. 참한이 많았던 우리네였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어깨를 펼 때 보다는 움츠러뜨릴 때가 많았던 우리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다. 땅덩어리, 군사력보다는 지식, 정보, 경제



력으로 겨루는 세기. 우리나라도 도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한반도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의 힘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 대신 손을 잡고 함께 달린다면 반만년간 쌓아 온 우리의 저력을 떨칠 수 있다. 철의 실크로드와 태평양 사이에서 세계의 부는 우리에게 모일 것이다. 또 수많은 반쪽들은 온전한 자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흩어진 가족, 찢어진 문화, 가지 못한 강산, 서로에게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 온전히 하나로 이어지며 그 고유의 영롱한 색채를 발할 것이다. 우린 사천만이 아니라 칠천만이다. 이 정도 규모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세 당당하다. 평화와 융합의 시대가 온다면 미처 발휘되지 못했던 기막힌 솜씨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허리가 잘린 호랑이, 이제 마음껏 포효할 때도 되었다.

난 지금도 설렌다.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격동의 세기를 살고 있는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내가 북한의 땅을 달리며 보게 될 모든 것들이 역사적 장면일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볼 것이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 우리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다. 후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난 역사책을 덮으며 뜨거운 가슴을 가진다. 제발 우리에게도 멋진 시간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지난 4월 뉴스를 통해 북한의 룡천 참사를 보게 되었다. 룡천역에서 열차가 폭발해서 역 주변의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에 길게 줄을 서서 성금을 내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6월인데도 TV를 켜면 자막으로 ARS로 성금을 모은다는 글귀가 지나간다. 나는 늦었지만 어머니께 우리도 성금을 내자고 말씀 드렸더니 허락해 주셨다. 나는 얼른 사랑의 전화를 걸었다.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성금을 낼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물품을 실은 우리 트럭들이 휴전선을 넘어가서 전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역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 한핏줄이구나.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나는 마치 통일이 나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만 같아 어깨가 무거워졌다. 다음날 1교시 수업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쪽지와 사탕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다.

“화해의 쪽지?”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내 앞자리에 앉은 선화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 이제 편지를 다 썼으면 쪽지와 사탕을 화해하고 싶은 친구에게 주고 서로 악수하세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맛있게 생긴 막대사탕과 함께 친구에게 건내주었다. 아침부터 숙제 때문에 다투어서 시무룩한 얼굴을 하던 선화는 무척 행복해했다.

“선생님, 오늘이 무슨 날인데 화해의 쪽지랑 사탕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힌트를 보여 주시겠다면서 플래시 노래를 틀어주셨다. 김밥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화면으로는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악수하는 장면과 얼싸안은 장면, 우리나라의 지도, 태극기 등이 나왔다.

“선생님, 오늘 혹시 6.15 공동선언 한 날 아닌가요?”

언제나 사회에 관심이 많은 재원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6.15 공동선언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4년 전 우리 나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앞으로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보자고 한 선언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란다. 너희들이 화해하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와 사탕을 나눠주며 친구와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 하는 것처럼 남과 북도 서로 화해하고 도와가며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일을 위해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고 북한에 관한 뉴스도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룡천역 참사 성금을 낸 것이 뿌듯했다. 그리고 친구랑 나눠 먹는 이 사탕의 달콤함처럼 자유의 달콤함을 북한 친구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맛보게 해 주고 싶었다.

내년 6월 15일에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화해의 쪽지를 써야겠다.

“북한 친구들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통일의 깃발, 우리가 백두산, 한라산에 함께 꽂아보자.”



멀지 않은 통일, 통일을 위하여

주 앙 응 | 매화중 3학년

“크흐흠! 형님 왜 이제 오셨소? 돌아와서 구두 완성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류를 죽이고 식민지로 삼은 나라에게는 더 없이 강한 힘과 부유함을 선사하고, 이웃나라에 흑심 한번 품어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게는 왜 분단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주는지… 아마 세상은 엄청난 장난꾸러기거나 멍청이일 것이다. 우리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면 어서 빨리 뉘우치고 그만두어야 할 것이고, 멍청한 것이라면 자신이 분단의 아픔을 직접 한 번 겪어봐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겪은 미어지는 슬픔, 어제까지 다정했던 형제가 하룻 밤 사이 총칼을 겨누고 있는 비참함, 그들의 한 맺힌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에 나는 그 슬픔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아들의 생사도 모르신 채 세상을 등지신 이웃 할머니를 보며, 서로를 보며 눈물과 통곡만으로도 반세기의 그리움을 다하지 못하던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며 비할 바 없는 아픔을 느낄 수 있다.

6.25전쟁은 남북간의 사상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일어났다고 한다. 등에 다른 나라를 업은 채 한 치 양보도 없이 진행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경제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번째 문단의 독백문장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동생이 형의 유골을 앞에 두고 통곡을 하던 장면의 대사이다. 남다른 우애를 지닌 형제가 전쟁으로 인해 결국 슬픈 결말을 맺는 이 영화의 내용은 당시 피난민들과 군인들의 사무친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주었다.

지금은 미·소협상 이후 휴전상태이며 아직 조그만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 서로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서로를 향해 겨누어 지고 있다.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며 국방비도 양국 모두 어머어마하게 투자되고 있다.

영화 '실미도'에서는 휴전협정 이후 서로의 기밀과 정보를 캐내기 위해 파견된 북측 간첩과 남측 북파공작원의 소리없는 전쟁을 그리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인간무기가 되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

벌써 50년, 인간은 1세기도 채 못되는 짧은 생을 산다. 그 중 반 이상을 절망 속에서 살아 온 이산가족, 그들의 아픔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들에게는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통일'이라는 두 글자 뿐일 것이다.

반세기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반공 포스터·표어·방송에 있던 세대에서 이제 통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세대로 바뀌었다. 약 두달 전 발생한 '룡천역 폭발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구호물자와 성금을 모아 주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당연한 일임을 안다는 것이다.

양국 모두가 선진국이 되려면 토지, 노동력, 자본이 부족하다. 하지만 통일이되면 남·북한의 자원이 합쳐져 선진국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다시 강대국에 가깝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예를 잘 검토하여 통일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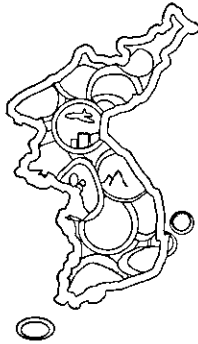


수월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양국 모두 반성을 하였을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옛 그리움에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고, 마침내 통일과 몇 걸음 멀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머지 않은 통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기쁨의 날을 맞을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노래부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얀 나비와 무궁화의 외침

천정애 | 군위여고 3학년

나비는 긴 여행에 지쳐 잠시 긴 철조망에 앉아 자기가 날아 온 길들을 생각합니다. 나비는 북쪽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비의 그 작고 가냘픈 날개에는 무거운 짐들로 가득합니다. 나비는 그 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둘씩 정돈합니다.

첫 번째 집은 백두산의 외침입니다. 백두산은 지금 항상 푸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함께 뛰어놀고 새들도 즐겁게 지저귀니다. 그런 백두산은 요즘 많이 슬프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런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찾아와 시원하게 해주던 바람도,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던 구름도 남쪽으로 가버리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은 남쪽으로 여행가는 저를 붙들고 제발 오는 길에 바람과 구름을 데리고 오라고 하네요. 나는 약속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집은 한 아이의 울음입니다.

백두산을 출발해 한참을 날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다가가 이유를 물으니 아이는 연날리기를 하는데 연이 그만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아이는 자기에게서 사라져 버린 연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남쪽으로 가다가 연이 있으면 꼭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그친 후에야 다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짐은 늙으신 할머니의 소망입니다.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올려놓고 이른 새벽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이유를 물으니 할머니는 전쟁으로 이별한 아들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눈감는 그날까지 아들을 못본다고 해도 그저 남쪽 땅에서 몸 건강히 잘 살아줬으면 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비는 그런 할머니에게 아들을 만나면 꼭 안부를 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비는 다시 힘을 내어 남쪽으로 날아 갔습니다. 남쪽은 참으로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북쪽은 무척이나 차가운데 말입니다. 나비는 큰 고개를 넘다가 산맥에 걸쳐진 따뜻해진 바람과 구름을 보았습니다.

얼른 날아가서 바람과 구름에게 백두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얼른 백두산에게 가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그 말을 듣고 백두산이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안 부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얼른 구름과 바람은 북쪽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나비는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큰 나무에 걸려 있는 연을 보았습니다. 나비는 반가운 마음으로 연에게 다가가 아이가 연을 찾으며 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은 깜짝놀라, “나는 아이가 내가 싫어서 줄을 끊어 버렸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연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나비는 무척이나 기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도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딜가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아들의 행방에 나비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작은 무덤 주위로 피어있는 무궁화를 보았습니다. 나비는 무궁화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을 보면 꼭 안부를 전해 주라고 말입니다.

나비는 오랜 여행으로 지친 몸을 잠시 무궁화에 기대 잠을 청합니다. 나비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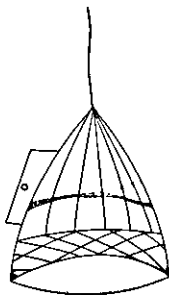


뜨거운 눈물이 무궁화에게 흘러내립니다. 무궁화는 간절히 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됩니다. 머리는 자꾸 통일을 기원하지만
아직도 마음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안됩니다. 더이상 이산가족
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며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궁화의 외침은 한반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의 향기가 한반도를 타고 따뜻하게
퍼져갑니다.





경상남도

- 내 친구 훈이와 무궁화 사랑
- 한민족의 푸른 리듬
- 마치 꿈 같던 일처럼...
- 한반도가 무궁화로 뒤덮히는 날
- 우리의 본보기, 가치
- 꿈을 먹고 사는 민족
- 통일의 꽃이 만발한 우리집 화단
- 가치가 올면...
- 꿈은 이루어진다





내 친구 훈이와 무궁화 사랑

이재서 | 도천초 6학년

“제가 북한에서 온 애라 하데.”

“우리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지만 나는 북한 사람은 좀 다르게 생겼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때 미녀 응원단은 예쁘긴 하지만 북한 말씨가 이상하게 들려서인지 몰라도 깡마른 인상에 빠른 말투하며 북한 사람은 좀 무서웠는데 훈이는 친구가 탈북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훈이는 나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학교는 우리 이웃 학교인 경화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다. 교회에서 보면 훈이 옆자리는 항상 몇 칸 정도 비워져 있어 호기심도 있고 쓸쓸해 보여 훈이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까이 가서 앉았다.

훈이는 내가 옆에 오는 게 싫지는 않은지 씩 웃어 보였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이지만 훈이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 교회에 일찍 간 나는 성경책을 읽어보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옆 빈자리에 살짝 앉기에 쳐다보니 훈이가 씩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후론 훈이와 나는 주일학교에서 제일 친한 단짝이 되었고 훈이는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친구로 나를 생각했는지 훈이의 북한 이야기, 도망다니던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기 시작했다.

훈이 아버지는 훈이가 세 살때 돌아가셔서 훈이는 아빠의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 훈이가 6살 때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7년을 살



았다고 한다.

중국에서 마음씨 좋은 선교사를 만나 남한으로 오게 된 자기 가족은 정말 행운이라고 하면서 뉴스에서나 볼직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손을 한 번 보라우.”

훈이의 손은 몸에 비해 아주 단단해 보였고 굳은 살이 군데군데 박혀 있어 한 눈에도 힘든 일을 아주 많이 한 것 같아 보였다.

훈이 가족은 이웃에 돈을 빌려 일하기 쉽다는 중국으로 도망쳐 왔고, 그곳에서 훈이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우유배달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로 어렵게 넘어 오게 되었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신거라면서 웃음을 띤 얼굴로 이야기를 하였다.

언젠가 한 번은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많이 남기자 훈이는 내 식판을 달라고 하면서 남은 음식을 다먹는 것이었다. 훈이가 내가 남긴 음식을 먹자 나는 미안해서, 돼지된다! 살찐다! 하고 놀렸더니

“이 음식을 북한 친구들에게 주면 정말 좋아할텐데, 거기 친구들은 쌀밥 한 번 실컷 먹어 보는게 소원인데” 하면서 식판을 짝 쓸어 먹어버렸다.

이 말을 들은 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나의 행동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다음부터 편식이나 투정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훈이 어머니는 훈이와 달리 북한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다. 훈이 어머니는 조국을 떠나 온게 아주 미안하다고 했다. 아직 친척이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 분들의 얼굴이 떠올려져 다시 한번 만나는 그 날이 온다면 좋겠다 하시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셨다.



“내가 살아서 다시 그 곳에 가 볼순 있을까? 그리운 사람들이 그 때까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실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쉬었다. 훈이랑 나랑 이번 방학 때 무궁화를 심으러 가기로 했다. 무궁화는 한 송이 한 송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떨어지는 꽃인데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 계속 새로운 꽃을 피어 낸다고 한다. 봄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꽃이 어디 있더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궁화를 예전부터 사랑해 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무궁화 삼천리라고 부른다.

우리는 무궁화 사랑을 통하여 이웃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한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무궁화를 꽃 피워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겨야겠다.





최우수

한민족의 푸른 리듬

윤혜림 | 장유중 3학년

드높이 오른 창공에 새 소식을 알리길
라도 하던가. 까치 한마리가 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맑게 개인 하늘
위로 자유로이 힘찬 날개짓을 지어가며 그 까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언젠가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자연에 순응하며 어
디론가 날아가는 그 날개짓이 부러웠기 때문이다. 아무런 간섭없이 훨
훨 날아가는 몸짓을 보면 “저 몸짓이라면 북한도 갈 수 있겠네...”란 작
은 아쉬움도 생긴다. 내가 보아왔던 어떠한 새의 날개짓 보다 그 날의
까치는 더 힘차게 더 높이 날아 올라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점이 되
어 날아 갔다.

그것도 그럴것이,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역사에 깊이 자리박한 한국
전쟁이 있었다. 반세기 동안 움츠러졌던 날개짓은 온데 없고, 힘차게
뻗어가는 광경을 보자하니 까치도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했다.
“이제는 세상과 맞닿아 통일을 이룰 때도 됐잖아요.”하는 작은 속삭임
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까치와 나는 교감할 수 있었다.
그작은 생명속에 보이는 움직임들이 새삼 달리 느껴진 이유도 말이다.
조국의 운명을 끌어 안고 몸부림치는 비장한 모습에서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등 굽고 가위눌린 이웃들의 삶에 힘이 되어야 하는 까치는 또
“새소식 전하러 가야죠”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 작은 아우성... 느낄
수 있었다. 자연에 순응하며 날아 온 까치의 몸짓처럼 이제 우리에게
새 소식을 안고 올 때도된 것 같다. 반세기 동안 썩고 황폐화된 그 흑



한의 시기가 있었기에 자연은 이제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려 할 것이다. 역사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통일은 조화롭게 이루어 질거라 본다.

‘태극기 휘날리며’란 영화를 지난 2월에 보았다. 전쟁이란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웠다. 커다란 폭발음, 검은 포탄 연기, 흑한의 서늘함을 한껏 더하는 처절한 비명과 차가운 쇠소리들, 그리고 생과 사를 넘나들며 벌이는 혈투…

현재의 주변은 희뿌연 먼지와 검붉은 마음씨로 인해 그 때의 모습은 점점 묻혀만 가는 것 같아 슬프다. 평소에는 무심코 넘겨버렸을 듯한 한 컷 한 컷을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표현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난다. 내가 그때 가슴 저머했던 그 느낌, 그 아픔들이 고이 잠든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을까?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한국전쟁, 우리는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전쟁을 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일 것이다. 예상치 않게 너무 쉽게 다가와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념도 사상도 애국도 명예도 그 이상의 무엇도 전쟁을 겪은 한 개인에게는 중요한 것이 못될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말했던가? 우리 민족사에 한국전쟁이 마지막 전쟁이길 간절히 바라며 나의 작은 소망을 보이지 않는 까치의 뒷모습에 띄워 보낸다.

지난 현충일 때의 일이다. ‘54년만에 찾은 형’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가 된 바 있었다. “지난 3일 한국전쟁 유해 발굴 현장에서 유골과 함께 발견된 흑백사진을 보고 유가족이 나타났다…” 이런 소식의 내용이였다. 그곳은 6.25전쟁 격전지였던 곳이다. 전사자의 동생님들은 통곡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 보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셨다. 남 일 같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너무 아프지 않으려



고 피하다가 아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만다. 통일을 위해 한 번쯤은 아파하고 그 아픔을 이겨 내면 시시결령한 아픔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한이 사무치고 역사의 무게가 무거운게 자랑스러울 것은 못된다. 한은 한계에서 오는 것이고, 역사의 무게는 역사적 과제를 치르지 못한데서 온 것이니 자랑스러울게 아니라 창피할 일일 것이다.

어젯 밤, 책상 위의 지구본을 보았다.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몇바퀴나 뱅뱅 돌렸다. 그렇다, 우린 비록 작고 작을지라도 하나의 발광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디 갑자기 부닥치면 불이 번쩍 나는 걸 볼 수 있다. 확실히 빛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름대로 빛과 열을 내어 세상을 접하고 밝히는 발광체가 되어 새로 어울려 세상도 밝히고 스스로와 우리민족의 못다한 한을 녹여내렸으면 좋겠다. 허공을 가로 질러 다시 돌아올 까치를 위해서라도... 바람을 타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를 찌를 것 같은 날엔 역사의 리듬이 잘 흘러간다는 예언을 해 줄 것만 같아 자연에 감사하고 이 땅에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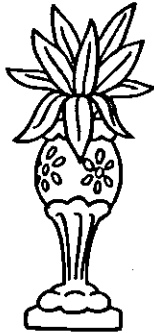
지구는 태양둘레를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있다고 했다. 가만히 살펴봐도 그렇고 역사를 따져봐도 역시 자전과 공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역사가 뒤틀리고 개인의 삶이 제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공전과 자전을 알맞게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듯하다. 우리의 남북분단이 삶을 동강내듯이 자전과 공전을 조화롭게 이루지 못하는 삶 또한 우리 반쪽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단으로 깨어지고 공전과 자전으로 또 다시 반이 왔다 갔다 할때에 크게는 지구, 작게는 민족이 민족의 리듬에 일상은 이웃과 리듬을 맞추어 가며 민족과 지구의 리듬에 도달하는 삶으로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봄에는 새싹과 꽃에 뒤덮이고, 여름에는 봉우리와 계곡에 녹음이 깔리고, 가을에는 일만이천봉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겨울에는 암석만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나는 이곳,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경색이 달



라져 판이한 경치를 자아내는 이곳 금강산에서 맑은 하늘과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을 가져올 까치들의 힘찬 날개짓이 기다려진다.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묻은 채’ 올려대는 그들의 음성까지도...





마치 꿈 같던 일 처럼...

박수경 | 진해여고 2학년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에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물어 본다면 “할 필요없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까지 왜?”라는 의견이 많다.

궁핍한 경제가 진행중인 북한을 도와 줘야 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되자 선생님께선 연간 국방비를 거론하시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결코 손해될 일이 아니라면서 득실에 예민한 학생들을 설득시켰다. 그러나 난 의아했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못살고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여기는 학생들의 모습,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 할 수 없는 선생님의 모습도... 언제부턴가 ‘통일’이란 단어는 그 뜻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마저 사라지면 어쩌나 싶다. 물론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지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기 학교는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의 여행은 외국으로 간다는 말보다 더욱 놀랍게 느껴졌다. 그 후 난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 마다 북한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감동적이었다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성이라 했던가? 인간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모양이다. 엄격한 감시 속에서도 웃 밑



으로 살짝 손을 흔들어 준 젊은 군인이나 학생들이 탄 버스를 보고 손을 흔드는 북한 어린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평소 느끼던 북한에 대한 이질감 사라졌다고 한다.

내 친구가 한 북한 군인에게 헤어지는게 못내 아쉬워서 다가갈 말을 건넸다.

“떠나는데 한 번만 안아 보면 안될까요?”

조금은 무례해 보일지 모르는 말이나 전하고자 한 뜻은 진심이었다. 북한 군인은 내 친구를 보더니 미안한 듯 말했다.

“통일이 되어서 꼭 한 번 오십시오.”

“그땐 꼭 포옹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죠?”

“네. 꼭 통일이 되어 오십시오.”

참 놀라웠다. 북한 사람들도 통일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이 있구나. 우린 북한을 한 덩어리로 놓고 내부적인 것만 재고 있었던게 아닐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가로막혀 다가서기 전에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힘이란 무섭다는 것인가.

2박3일의 북한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앞으로 나아갈 평화통일의 과제도 남겨 주었을 것이다. 이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른 청소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력이 빠르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젊은 층이기에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빠르게 타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북한 여행과 같은 아낌없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국방비 예산보다 훨씬 중요하다.

6.15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1세기에 들어 남북한의 관계가 많이 누그러졌다. 이러한 대내적 분위기에만 휩쓸려 통일이 내일이라도 당장 되리라고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될 수록 국민과 국가의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매체들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던 통일국가에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는 그동안의 분단으로 인해 수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아픔이 있었던 만큼 통일에 대한 희망과 그에 따른 기대도 크다.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들을 발판삼아 서로 아프고 응어리진 시간들을 마치 지난 날의 꿈같은 일로 기억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반도가 무궁화로 뒤덮히는 날

김경희 | 금성초 6학년

자랑스런 우리꽃 무궁화에게...

안녕! 무궁화야. 난 경희라고 한단다.

요즘 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다. 그 사실에 조금은 부끄러워
졌어. 항상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지만 세계 유일이라는 말에 활짝 펴져
있던 내 가슴은 콩알보다도 작게 오그라 들고 말았어. 넌 내 맘 알지?
늘 자랑스러웠던 조국이 이렇게 부끄러워 질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많아

그 중 우리나라에 으뜸가는 꽃은 바로 너 무궁화야.

무궁화야, 넌 아니?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수십년을 한반도 땅에서 꽃피우시며
전쟁, 일제강점기를 나보다 훨씬 먼저 알게 되셨을 걸.

빨강, 분홍, 흰빛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물들인 우리꽃 무궁
화야, 너희들도 아침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눈물을 흘릴 수 있니? 아닐
거야.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너희들의 눈물로 잠겼을테니까...

슬플거야, 아플거야, 강한 꽃이라도 하나였던 줄기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끊어지고 하였을텐데 어떻게 그 아픔을 참을 수 있
었겠니?

얼마 전 북한 룡천역에서 매우 큰 폭발 참사가 일어났단다. TV에서



나만 한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제대로 된 약도 한 번 발라보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어. 가슴이 아팠어. 너무나...

한 겨레인 북한동포들의 생활이 저렇게도 유지되기 힘든 줄은 몰랐
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속사정은 잘 모르고 사는 거야. 그 순간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배가 부르다며 할머니께 떼를 쓸 때 할머니
께서는 늘

“경희야, 전쟁때는 이런 것도 없어서 먹지 못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때서야 그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구...

무궁화야, 넌 아니?

남과 북으로 헤어져서 눈물만 짓는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은 지 말이
야.

남한에만 무려 7백 67만명이나 된다고 해.

북한에도 무궁화가 피고 있으려나? 만약 피고 있다면 이산가족들도
너희들을 보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야.

몇 년전부터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 1차 만남은 어
렵게 이루어 졌지만 그 뒤로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어.

너희들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전염되어 퍼지고 있어. 무궁화는 사람들
에게 눈물과 웃음을 전해 주는 것 같애. 난 너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
고 니가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걸.

감격스러운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모두 기쁨의 웃음과 눈물을 남겼으
니까.

육로로 한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바로 한겨레 북한동포
들이 있어. 하지만 무궁화야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데 54년이라는
긴세월이 걸린거야.

늘 이 생각을 하면 눈물부터 고인단다. 내가 직접 겪은 아픔은 아니
지만 그 아픔을 털 수 있기에 눈물이 나.

통일이 되어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폭 안길 날이 언제쯤 올까?



54년동안 쉬지 않고 한반도에 몸을 맡겨 온 무궁화야.

넌 볼 수 있지?

한겨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펄펄 쏟아질 통일의 날이 금새 다가
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 말이야.

아! 무궁화야 난 오늘도 기다린단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무궁화의 물결로 넘실거릴 통일의 날을 말
이야.

2004년 6월 15일.

오늘도 그 날을 기다리는 경희가





우수

우리의 본보기, 까치

김 은 영 | 남산중 1학년

그 때가 정확히 작년 초, 아마 1월 중순쯤 되었을거야. 잘 시간은 되었는데 잠은 안 오지, 엄마 몰래 거실로 나가 TV를 켜지 채널은 9번에 맞춰져 있었어. 그날 '방송 프로그램 안내'에서 보았던 '환경 스페셜'이 한참 방영 중이더라구. 내게 그런 교양 프로그램은 별로 어울리지 않았지만, 등지 속에서 막 눈을 뜨려는 새끼 까치들이 내 눈길을 끌었어. 새끼 까치들이 한참동안 버둥대고 있는데 어느샌가 어미 까치가 먹이를 물고 와서는 제 새끼들을 한 번씩 쓰다듬어 주더라. (적어도 내 눈엔 쓰다듬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며칠 뒤, 어미 까치와 새끼 까치들은 한나절 내내 '하늘을 나는 연습'에만 몰두했어. 연습이 거의 끝날 무렵, '날개짓'에 성공한 제 새끼들을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어미 까치는 한 놈이 없어진 것을 알아 차렸어. 어미 까치는 구슬픈 '까~까' 울음소리를 내었지만 결국 새끼 까치는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처음부터 왜 이렇게 '까치' 이야기를 늘어 놓았는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나, 앞으로 만들어 질 미래의 모습이 내가 보았던 그 '까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니? 음... 그러니까 그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내가 열 살이 되던 해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께 지겹도록 들었던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나서였을거야. 아빠와 함께 가을 산으로 소풍 가기에 실패한 나는 툭툭거리며,



외할머니 옆에 앉아 TV를 보았어. 그런데, TV에 눈과 귀를 향한 그 순간부터 보였던 광경은 ‘언니~’ ‘오빠~’ 하며 부둥켜 안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세상이 떠나갈 듯 울리는 울음소리였지.

“오빠~ 어디 갔다 인제 왔어~~!”

“내래이, 너 봤으니깐 인제 죽어도 소원이 없을끼야.”

도대체 저게 뭐야... 늘 보던 ‘멜로 드라마’와는 차원이 달랐던 ‘눈물의 광경’ 당시 어린 나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해 뭐 하나 알고 있는 내용도 없던 나도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어.

“할무니~, 저게 대체 뭐야~. 빨리 다른 걸로 돌려 줘~.”

“인 놈의 가스나! 조용히 못 하나? 지금 저 할매, 할배들은 50년 만에 처음 보는 기란 말이다!”

음? 이걸 또 무슨 말이야? 내 눈은 왕방울만 하게 동그레졌어.

“와~ 50년? 왜?”

“넌들 아나? 다 나라 힘이 없으니깐 그라는기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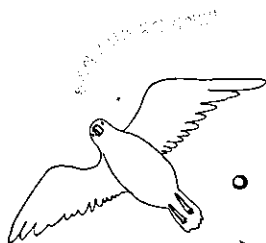
엄마가 슈퍼에만 잠깐 다녀 온다고 해도 기겁을 하던 나에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될 수조차 없는 일이었어. 나라 힘이 약한 것과 가족들의 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구. 그깟 나라 힘이 뭔데, 위대한 ‘가족의 사랑’을 깨뜨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나의 열 살’의 이산가족 상봉은 미스테리로 남았어.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지리도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과거와 지점도록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다른 나라들만을 원망할 뿐이었지.

그리고 3년 후, 내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아시아! 아시아!’라는 코너를 마련했더군. 돈을 벌기 위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나라를 떠나 이 나라, 저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살게 된 고려인들의 가족을 찾아 주는 코너였어. 한 마디로 ‘가족상봉’의 꿈을 이



루어 주는 것이지. 보는 사람들마다 눈시울을 적시게 했던 ‘아시아! 아시아’ 하지만 그 코너에서 ‘이산가족을 찾아 주는 일’은 하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어. ‘이산가족’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잠깐 휴전선을 지우고, 이산가족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 뒤, 이 땅에서 남·북의 모든 이산가족이 없어지는 그날, 다시 휴전선을 그어 주었으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 만큼 ‘이산가족’은 ‘나’, 그리고 ‘우리’에게 몹시 안타까운 존재인 것 같아.

이제 내 ‘까치’ 이야기가 이해가 됐니? 그래, 비록 어미 까치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새끼 까치를 애타게 그리워했고 끝내, 새끼 까치를 찾아 내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까치의 미래’야. 없는 동안 힘들었지만, 끝내 이루어 낸 가족상봉! 이만하면 까치는 우리의 본보기로 충분하지?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헛된 꿈 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도, 그 꿈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그 사람은 꿈과 함께 자라날 수 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꿈만으로 자라던 나에게 2002년 새로운 꿈이 생겨났다.

2002년은 나에게 있어 가장 의미있는 해였다. 휴전선에 의해 나누어진 강원도, 그것도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태백이라는 동네에서 나는 우연치 않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우선, 내가 살던 그 동네에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학도병’으로 유명한 태백 중학교라는 곳이 있다. 이 곳에서는 매년 추모식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글짓기 대회 등의 행사가 있었다. 나는 이따금씩 학교의 대표로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기념관안에 걸려 있는 여러 그림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원래, 우리는 없어도 될 운명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건 하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일텐데… 그래,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금의 희망을 가르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금의 희망… 처음엔 외닿지 않던 말이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메아리 쳐 뼈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져 들려왔다. 이렇게 나는 통일이라는 희망에 눈뜨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솜사탕같이 부푼 꿈이 또 한번의 행운으로 나를 찾아왔다. 각 학교 대표 1명씩을 뽑아 통일교육을 하는데, 예상도 못한



내가 뽑힌 것이었다. 처음에 교육을 갈 땐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기쁨으로 갔는데,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온 국민이 이론적으로 끝내는 수업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셈이었다. 2박3일의 일정 중에서 철마와의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업도 듣기 싫다고 해서 안듣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는 ‘철마는 달린다’라는 표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굵은 장대같은 비를 힘겹게 맞고 있는 철마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이 철마와의 대화를 만들어 준 것 같다.

“내가 너만큼 어렸을 땐 많은 사람과 무거운 짐 옮기는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가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구나. 다음에 다시 만날 땐 저기 북녘에서 만나자꾸나.”

이런 약속과 약속의 연속으로 교육을 끝마쳤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또 한 번의 꿈이 실현되었다. 뱃길로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언젠가 한 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 인생 처음으로 북한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해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딱딱하지만은 않았다. 역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만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를 아쉬워 했던 것 같다. 분명히 한 개의 나라인데 왜 떨어져 지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작은 노력과 노력이 모여 결국엔 커다란 산을 만든다는 이 말을 나는 믿는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느낄 땐 늦은 것이 아니라 빠를 수도 있다. 지금부터 온국민이 우리 민족 전체의 꿈을 위해 힘껏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통일이라는 꿈으로 한걸음 걸어 나가 본다.



통일의 꽃이 만발한 우리집 화단

최혜원 | 칠원초 6학년

지난 4월 식목일, 우리가족은 봄을 새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집 앞의 화단에 말라 죽은 꽃들은 뽑아내고 새 꽃을 심기로 했다.

꽃을 심기 전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혜원아! 혜지야, 집 앞 화단에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

“엄마, 아무래도 화려하고 향도 짙은 장미를 심는 것이 어떨까요?”

언니가 말했다.

나는 전부터 화단에 무궁화를 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저... 엄마, 화단에 우리나라의 소원 통일의 꽃을 심는다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혜원의 말이 맞구나. 그래 우리가 그 꽃을 심는다면 북한과 통일을 할 수도 있잖나, 혜지야 괜찮겠지?”

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엄마, 그 꽃을 하나라도 더 심는다면 통일이 될 수도 있다가요.”

우리집 화단에 만발한 통일의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고 뽐족한 구두에 억눌려져도 꺾끗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꽃...

온화하고 품위있는 자태와 흰 바탕에서 안으로 갈수록 분홍빛, 보라빛이 선명하게 퍼지듯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빛의 군자의 모습을 가진 꽃...



장미, 카네이션들과 비교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도 질지 않지만
소박해서 아름다운 꽃...

그 꽃은 바로 남궁억 선생님의 정신과 혼이 담긴 꽃이자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꽃...

바로 무궁화이다.

그런데 왜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할까?

그 이유는 무궁화의 소박함에서 물어 나는 아름다움 때문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과 닮은 점은 일제 강점기 때 민족정신을 흐려놓기 위
해 일본군이 무궁화를 못 키우게 한 무궁화의 숨겨진 아픔처럼 우리민
족 국민들도 남한, 북한으로 분단되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아픔, 6.25전쟁으로 같은 민족끼리 피흘리며 총을 겨누어야 했던 아픔
이 숨어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일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이유는 무궁화는 일본인들에 의해 짓밟혀 졌지만, 결국 우리나라
는 해방이 되어 무궁화를 다시 키우게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해방되기를 아주 바래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소망하고 또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민족의 중
요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꽃 피우기 위해 노력했을 무궁화 처럼 우리도 다시 한민
족 한겨레를 뭉쳐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로 뭉쳐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지만 무궁화 꽃의 생명력 처럼
끈질기게 타협하고 모두가 통일하기를 바란다면 통일은 생각보다 가
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집 화단에 심은 무궁화 꽃은 절대 말라버
리지 않도록 내가 잘 가꿀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내 친구들에게 나의 통
일의 꽃이 만발한 화단을 보여 줄 것이다.



2004년 6월, 올해로 54주년을 맞는
6.25의 아픔.

아직 어린 나로서는 남북분단의 깊은 고통을 느낄 수도, 되새겨 볼 수도 없지만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지금도 이렇게 안타까워 할 수 있음이 아닐까 싶다.

예전과는 달리 남북의 관계 또한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이제는 내 주위의 몇몇의 친구들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후 북한의 여자 안내원의 말투를 따라 중얼이는 모습까지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두 나라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신들이 두개의 땅덩이에 각각 나뉘어, 지금까지도 그리움에 사무친 수만명의 이산가족들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며 행복없는 현실을 경험해 왔다.

얼마전 모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가족을 모두 북에 두고서 내려오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다.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눈동자에 비친 어두움이 세월의 아픔을 표현하는 듯 안타깝기만 했다.

1시간동안 계속 되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깊진 않지만 잔잔하게 내 마음을 쓸었다.

그중 할아버지의 굵은 등위로 3배만큼이나 길고 큰 나무를 등지고서 하시던 말씀은 내겐 매우 큰 감동이자 아쉬움으로 기억된다.

“매일 아침 까치가 힘차게 울 때마다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곤



하지. 아! 왜 까치가 희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고 하잖아. 그렇게 울부짖는 놈을 보고 있으면 곧 뉴스에서 통일을 발표할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님 이산가족 상봉에서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지. 허허 부질없지만 까치 저놈이 우리집 나무에 앉아서 ‘깹깹’ 거리면 아, 꼭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좋은일이 생긴 것만 같아서 기분이 무척 좋아 허허…”

이젠 까치마저도 통일의 기대주로 변해 버렸는데… 54년간 할아버지의 곁에서 울었을 까치가 대견스럽기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하다.

아직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만 한데… 남북분단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우리 뿌리들을 생각하면 휴전선을 넘나드는 까치에게나마 기대를 걸고 싶은 심정이다.

까치가 울면… 쓸데 없는 기대와 기도로 하루를 꼬박 지새울 우리나라의 눈물들, 이젠 정말로 까치가 통일이라는 소식을 입에 물고서 남북한을 오고 가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눈물과 고통으로 힘겨워 할 일도 마음 아파 할 일도 없길 바라며, 까치의 거세고도 희망어린 울음소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 까치의 울음소리가 한반도를 흔드는 나라 대한민국.

이 모습이 바로 머지않아 이 한반도를 휘감아 줄 사랑이자 믿음이며 통일이라는 크나큰 발견이라는 것이다.

2004년 지금 나는 비록 6.25의 슬픔을 바라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 삶의 바램은 통일의 기쁨을 함께 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하나라는 단어속에서 사랑을 얻어 내는 평화의 집합체이며 희망의 나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2004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날로 남북한이 화합과 대화의 장으로 들어 온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귀한 날 나는 지금 통일이라는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글짓기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6.25전쟁, 38선, 이산가족, 통일이라는 단어들은 내게 그저 교과서에서 보는 지나간 역사에 불과했다. 굳이 통일이 되지 않아도 내겐 아무런 피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남한이 손해라는 그런 이기적인 나의 못된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내가 우연한 기회로 '송환'이라는 김동원감독의 다큐멘터리를 접하게 되었다. 그저 간첩을 다룬 내용이라기에 호기심으로 다큐를 보았다.

정치공작요원으로 30년동안 감옥에서 혹한 고문을 당했던 그들. 끝까지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못했던 비전향장기수들, 처음엔 난 공산주의 그게 뭐길래 저렇게 끝까지 지키나?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지도 못하는 김일성이 뭐라고 저렇게 찬양하는가? 하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북한주민들이 공산주의 이념과 김일성 우상화를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생활방식이었고 김일성 찬가를 부르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며 북한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었다. 이런 그들의 아픔과 한 덕분인지 2000년 김대중정권 당시 분단 반세기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큐를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



나 통일에 대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선입관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반세기 이상을 떨어져 있었기에 우리는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누가 옳다고 주장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다. 남북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를 뿐이다. 이런 벽을 인정하는 것이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인 것이다.

예전의 내 모습처럼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들의 한을 알지못한 채 나만의 색안경을 끼고 통일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남북의 높은 벽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세계지도를 펴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이다. 이런 작은 나라에서 한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남과 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현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연간 수억원이 무기 제조와 군사비용으로 나가며 이 작은 땅에서 38선에 대치된 군사밀도가 세계최고라고 한다. 이 얼마나 큰 인력, 물자낭비인가. 21세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의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 통일은 사상과 이념을 뛰어 넘은 한 민족이라는 뜨거운 동포애와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우리는 북으로부터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들었다. 바로 룡천역 폭발사고이다. 이때 우리는 함께 아파했고, 온 국민이 모금을 하여 구호품도 보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통일의 꿈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 통일은 반드시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의 식민지 현실에서 광복을 얻은 기쁨도 잠시 우리는 열강들에 의해 남북이 나누어져 신탁통치를 받았었다.

물론 분단의 모든 책임이 열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과거를 저울 삼아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또 다시 열강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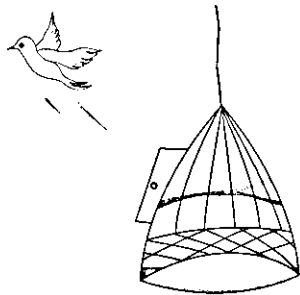


다. 얼마전 서해교전 협상에서 제3국(중국)의 어획활동을 견제했듯이, 우리 남북이 서로 화합하고 도와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한은 많은 교류와 대화의 시도가 있었다.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등, 통일을 향한 걸음들이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레 내딛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열린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다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상과 현실적 거리감이 사라지고 반세기 이상의 한과 꿈이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소중한 꿈이 담긴 글을 마친다.





제주도

- 최고 마늘, 최고 대한민국
- 몰다우 감상화의 다섯 번째 칸
 - 우리 손으로 지우는 삼팔선
- 룡천역 폭발사고에 담긴 사랑
 - 함께 그리는 한반도
 - 하늘에 나는 소망한다
 - 우리의 반쪽 친구들에게
- 통일의 기차는 달려갑니다
 - 묵념으로 보내는 편지





최우수

최고 마늘, 최고 대한민국

김수란 | 시흥초 6학년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밭과 밭마다 누렇게 익어가는 초여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나와 언니에게 신선 당부를 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는 할머니께서도 밭에 가실 거니까 너희들도 도와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는 뭐가 좋은지 해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마루에서 누워 텃밭 딱 좋은날에 밭에 가자니 피노키오 코만큼 길어진 입으로 나와 언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벌써 할머니와 어머니는 피약벌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모습은 밭에 두 줄로 나란히 줄을 맞추고 있는 마늘이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나와 언니는 할머니 곁에서 가위로 마늘 뿌리를 잘랐습니다. 땅이 말라 있어서인지 코 안으로 흙이 들어가 코속이 매말랐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힘이 들지 않으신가 봅니다. 할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기에 괜히 심심해진 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마늘은 몽땅 이렇게 6쪽으로 되어 이수가?”

“응? 기어. 어떤 건 6쪽도 있고, 어떤 건 8쪽도 있주게. 6쪽이 딱 허니 잘 붙어 있어야 상품이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디 하나씩 하나씩 떼어진 건 상품으로 쳐주지도 안하고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어신다.”

“아, 그렇구나 예.”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오늘 '고 강승우 소위 동상'을 참배하며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 말씀이 덩달아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지금은 남·북으로 크게 두 동강이 나 있다는 말씀과 각기 나뉘어진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친다면 세계에서 우리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마늘은 여섯 쪽이 제각기 잘 합쳐지면 상품마늘, 다시 말해 최고마늘이 되는 것이고 우리 7천만이 하나로 뭉치면 전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는 것 입니다.

할머니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이 자그마한 마늘보다도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마늘도 여섯 쪽이 서로 떼어질세라 하나의 줄기를 꼭 붙들고 떼어지지 않는데 마늘을 심고 가꾸는 우리는 두 동강이 난 채 몇 십 년을 그대로 지내오고 있으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나는 마늘을 보며 남·북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통일은 농부가 마늘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듯이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그래야 언젠가 가까운 날에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리칩니다.

'최고 마늘, 최고 대한민국'





최우수

몰다우 감상하의 다섯 번째 칸

김민경 | 애얼중 2학년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옥의 5교시 시작 종이 학교 곳곳에 알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 후에 밀려오는 억척스러운 졸음을 뿌리치고 바이올린 사진이 박힌 음악책과 가느다란 오선들이 헤엄치고 있는 음악 공책을 들고 젖 먹던 힘을 다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띠리리리링~땡땡~띠리리링~”

야속하게도 종소리는 그 서너 발자국을 옮길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간 교실 안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되어버린 음악 선생님과 마치 외계에서 온 이상한 괴물을 보듯 나를 쳐다보는 25명의 친구들, 그 속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다 일어서기 50번’이라는 무서운 벌을 나 혼자 곳곳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리로 들어오자 지옥의 5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몰다우라는 곡을 배우고 감상한 후,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볼 것입니다.”

반은 ‘와~’ 하는 환호성과 함께 환한 천사의 미소를, 반은 마치 내일 저 세상을 가는 사람처럼 오만가지 불만스러움을 얼굴에 가득 담은 채 한숨을 내뿜기만 하였습니다.

나 또한 「몰다우」라는 곡을 만든, 로맨틱한 가사도 없고 제목까지 요



상한 노래를 만든 그 어떤 서양의 작곡가 아니 음악가를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따라라~따따~탈라라~”

그 요상한 곡이 시작되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 선율에 맞춰 맑고 부드럽고 활기차고,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표현으로도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그저 천사의 마음 같기만 하였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들리지도 않았을 곱디고운 악기소리들이 가녀린 소녀처럼 맑고 순수하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래는 대포와 총, 미사일 등의 무기들이 제 힘을 자랑하는 전쟁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어느 빨간날 새벽, 북한이 평화롭던 남한을 쳐들어 오듯이... 마치 북한 룡천에서 열차가 폭발하듯이...

그 뒤로 바이올린? 첼로? 이름 모를 악기들이 저들만의 구슬프고, 어둡고 쓸쓸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꼭 전쟁 후의 그 처참함을 표현하듯이, 열차 폭발 후, 온 몸에 갖은 상처와 새빨간 피를 흘리며 제 생명을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 뒤로 노래는 악기들의 힘찬 합창에 더불어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듯,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밝고 명랑하기만 할 뿐인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는 열심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A4용지를 네칸으로 나누고, 첫 번째 칸에는 사람들을 신고 힘차게 질주하는 열차의 모습을, 두 번째 칸에는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처참한 모습을, 세 번째 칸에는 열심히 복구하는 모습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돕는 구원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칸에는 완전히 복구된 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저 평화롭기만한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의 룡천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은 자기의 눈, 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UN, 중국, 그리고 피를 나는 한 민족, 우리나라 등등... 이곳저곳에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덕분에 북한 룡천은 하루가 멀다않고 원활하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내 감상화의 네 번째 칸처럼 완전히 복구되어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 빨강, 노랑, 울긋불긋 단풍잎을 떨어뜨리고... 새하얀 눈사람이 너무 추워 옷 좀 입혀달라며 아우성치는 날이 오겠죠?

오늘 아침 TV에서는 남북경제·군사회담 소식들과 함께 앞으로 남과 북의 미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동시입장을 논의할 것이라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과 10월쯤이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완공되어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친해지는 남과 북을 보면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머지않아 남북 이산가족은 없어질 거라고... 제주통일관에 전시된 북한 생활도구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될 거라고... 마지막으로 내 감상화의 다섯 번째 칸에는 남북 평화통일의 감동적인 모습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최우수

우리 손으로 지우는 삼팔선

문지현 | 삼성여고 1학년

우리나라 지도 속엔 우리를 두 동강 낸 빨간 경계선이 그려져 있다.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으로 우리는 대대손손 같은 핏줄기로 이어져 하나 된 민족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 찬란한 민족 역사의 핏줄은 언제부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후 54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보았던 지도와 내가 보는 지도의 빨간 선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언제쯤이면 그 경계선이 지워지게 될까?

재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다. 학교에서 낸 통일에 관한 과제물로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다. 한 장에 도화지에 나의 소중한 소원을 담고 있는데 갑자기 6살인 동생이 내게 와서는 이제 뭐냐며 내 그림을 가리켰다. 나는 “이건 통일이 빨리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바라면서 그리는 거야. 지윤이도 크리스마스 때 ‘병원놀이 장난감 사주세요~’ 하고 산타 할아버지께 소원 비니까 이루어졌지? 이것도 통일되라고 소원 빌면 이루어질 수도 있데...” 하고 말해주었다. 아직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동생에게 이제 후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우리의 현실이 언제까지 가야 할까. 언제까지의 우리 자손들이 수치심이라 하면 수치심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살아갈 것이냐 말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통일이 오라는 말은 아니다. 이산가족들의 가슴속에 짝 차버린 한 맺힌 아우성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통일을 잡아 업고라도 오고 싶지



만 아직 우리에게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도 약 7년 전만 해도
꼭 묶여 있던 매듭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많은 외교를 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자라서 우리나라를 짊어질 우리들
의 태도이다.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통일을 이룰 우리의 친구들
중 몇몇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 아니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빈번
하고 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나뉘어져만 있을 뿐이지 약 50여년 전 그
때의 아픔을 희망한다는 것의 아픔이 무엇인지, 민족분단이 그저 철조
망 하나를 놓고 나뉘어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동맥이
끊어진 아픔인지,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감싸주고
포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
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꼭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거다. 얼마 전, 북한
룡천 열차 폭발사건으로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상자가 나
왔었다. 그들을 위해 성금 모금을 하고 각종 구호 물품을 보내기에 바
빳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말이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떨어져 있던 이유로 그저 멀리서만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이 현
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텔레비전으로 보았을 때도, 하얗게 백발이 되
어 버린 어머니 품에 50여 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쏟는 아들의 모습, 많
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얼굴엔 동생의 흔적이 있다며 두 볼이 닳도
록 양손으로 쓰다듬는 누나, 헤어지는 길, 버스를 타고 돌아갈 때 그
손을 떼어내지 못해 창문 밖으로 손을 잡은 냥 달리는 모습 등을 보며
눈가에 포도 알 만한 눈물방울이 그렇그렇 맺히지 않았느냐...

또 다른 나라가 북한을 욕하면 괜히 피가 끓음을 못 느꼈는가. 비록
지금은 강대국들이 선물한 이데올로기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우
린 한 핏줄이라는 것임을 확신하기에 피가 끓고 화가 나는 것이다. 이
게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민족이며,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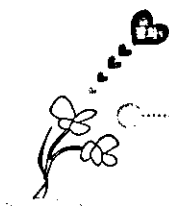
비록 지금 이 시간까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통일이 단지 목표를 이루는 걸 중시하기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그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후에도 다시 남북이 갈리는 그런 비극이 없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완벽한 통일을 이루기 위함일 것이다. 다행히 우린 몇 년 동안 북한과 남북적십자회담 등 꾸준한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만남을 갖으며 꾸준히 통일을 위해 걸어 나가고 있다. 이런 정치적으로 걸음도 좋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짊어질 우리 또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도 속에 있는 경계선을 이젠 우리가 지워보는 건 어떨까? 텔레비전 속의 연예인, 인터넷 속의 오락에 대해서만 눈을 크게 뜰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도 눈을 떠서 보고 자그마한 관심부터 가지면 통일을 반드시 바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대회와 통일 작품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하여 통일에 대해 관심을 넓히고 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겠다.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이 역사에 남을 통일을 이루는데 흠이 되고 살이 되어 영원히 빛날 우리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며 불렀던, 아니 외쳤던 그 노래를 현실로서 이룰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앞에는 희망찬 하나의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다. 비록 우리의 화합을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못마땅하게 여기는 외세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화해를 방해하고 질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의 통일에 대한 확신과 더욱더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수많은 외세의 압박을 이겨내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지난 날 당해왔던 수많은 아픔도 잘 이겨내 왔듯이 우리는 무궁화가 아직 봉우리를 터트리지 못한 냥 반쯤 움크린 상태의 현실을 극복하고 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더 희망찬 내일을 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젠 서로의 마음에 꽃힌 비수를 풀고 한반도의 검붉은 응어리를 하늘로 날려 보내, 삼천리 금수강산 전역에 무궁화가 만발할 것을 기대해본다. 난 우리 대한의 한국인을 믿는다.





룡천역 폭발사고에 담긴 사랑

임응균 | 김영초 6학년

어느 날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다가 본 이 뉴스가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북한에 있는 룡천에서 기차가 폭발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인터넷에 들어갔다. 검색 창에 룡천역이라는 단어를 쓰자 어린이들의 흥측한 얼굴이 나오고, 옆에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을... 이라는 글이 있었고,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다. 나도 단돈 천원이라도 내기 위해서 클릭을 하자 정말 하실 겁니까? 라는 창이 나왔고, 나는 생각 했다.

‘내가 꼭 내야 되는 걸까?’

나는 다른 사람이 돈을 낼 거라며 돈을 내지 않았다.

며칠 후에 방송이 나왔다. 북한 어린이들의 소학교가 나왔다. 학교는 뼈만 남고, 아이들의 피가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다. 나는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을... 이라는 창을 클릭하고 단 한 글자에 사랑이 듬뿍 담긴 예라는 글자를 클릭 했다. 정말 뿌듯했다.

며칠 후에 아빠와 나는 같이 텔레비전을 보았다. 우리의 구호 물품들이 트럭에 담기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앵커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의 구호 물품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덩달아 기뻐다. 내 천원도 트럭의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 때 아빠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응균아, 너는 저 장면을 어떻게 생각 하니?”

“저는 정말 기뻐요.”

“그래 나도 기쁘구나. 근데 응균이는 저 앵커의 마음의 소리를 못 들었나?”

“예? 마음의 소리요? 아빠는 저 앵커의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앵커는 구호 물품이 북한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야.”

“어떻게요?”

“지금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뭉쳐 험한 마음을 지나쳐서 북한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그렇다. 아빠는 저 앵커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 양을 늑대에게서 구해 주지는 못하지만 치료를 해주는 양치기처럼 우리의 사랑이 담긴 구호 물품은 계속 북한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날 밤에 나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말을 했다.

‘내 얼굴 모를 친구들아,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도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우리 서로 친구라는 말을 하며 끌어안아 보자. 그리고 몇 년 만 지나면 두 나라의 한 민족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이 될 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으로 말했지만 이 생각은 북한 어린이에게 전해 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내 사랑도 식지 않고 갔을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느낀 것이 아주 많다. 우리나라가 힘들거울 때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고, 북한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와주며 서로를 믿고, 위해주고, 사랑해 줘야 한다. 그리고 점차 우리 한반도의 그어진 금은 해변에 그려 바다가 갖고 가는 것처럼 그 금도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통일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통일이 되게 노력하고 시대가 변해도 그 마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말아야 할 해변가의 글인 것이다.



점점 높아지는 하늘 아래 올해도 어김 없이 통일 글짓기를 하는 날이 찾아 왔다. 늘 6월이면 돌이 아닌 하나됨을 바라는 사람들이 올해도 역시 마음속에서 뜨겁게 '하나!'를 외치게 된다. 이렇게 돌이 아닌 하나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의 시린 5월을 보내며 새삼 5월, 가정의 달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게 되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이 참 많았다. 뽀뽀글글 쓴 편지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마디에 감동하고 카네이션을 받고 기뻐하는 부모님, 선물을 받고 하늘을 날듯이 좋아하는 아이들, 선생님을 위해 불러드린 스승의 날 노래에 감격하는 선생님의 모습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TV나 주변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었고 가족들과 모여 웃음꽃도 피워보고 즐겁게 대화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 이렇게 햇빛이 환한 곳이 있다면 어딘가에는 틀림없이 그늘진 곳에서 가슴 아파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중에서도 함께 할 가족도 없이 애써 눈물을 삼켰을 이산가족들의 심정을 이제서야 헤아리게 되었다. 평소보다도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에 마음만 쓸어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아련히 울려왔다. 그리고 그런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그리고 그리며 현실을 원망하였으리라. 이렇게 사람 마음을 찌르고 태우면



서까지 한반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냐고… 가끔은 손잡아 줄 수도 있고 내 고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한 것을 두터운 철조망이 막아서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통일, 그 이름 하나에도 거리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아마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던 현실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를 왜 그토록 외치고 바라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 줄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그래서 나는 통일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이유 하나하나를 찾아보려 한다.

우선, 통일을 하면 이산가족들의 까맣게 타버린 마음을 감싸 줄 수 있다. TV에서 가끔 이산가족의 상봉의 모습을 본다. 죽어서도 만나지 못할 것 같던 어머니를 만나 “오마니…오마니…” 하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부짖는 소리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또한 한창 젊은 나이에 함께 뛰어다녔던 형제들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는 것을 볼 때면 너무도 가슴이 미어져왔다. 서로가 함께 할 시간을 휴전선으로 인해 다 빼앗기고 겨우 나이가 다 들어서야 만나게 된 것이다. 가족이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절한 일인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족간의 끈을 갈라놓은 휴전선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이런 이산가족들의 타고 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통일이 아닐까?

그리고 통일은 서로의 문화와 발전에 큰 힘이 되어준다. 알다시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한반도는 그 문화와 발전의 차이가 크다. 말도 조금씩 다르고 행동과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는데다가 남한은 기술이 크게 발달한데 비해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이것은 휴전선이 남북간의 문화와 발전의 차이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가 채워 줄 수도 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합치면 효율적이



고 확실하게 풀어,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는 문제를 현실에서는 끄꿍 대고만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

자손들에게 만큼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휴전했을 뿐이다. 언제 다시 총을 쏘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 지 모른다. 이런 잔인하고 무서운 싸움이 자손들에게 되물림 되는 것을 누가 원하거나 할까? 그래서 이미 전쟁을 겪어 본 사람들은 자기 자손만큼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통일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도 겪으시고 이산가족의 아픔도 딛으며 힘들게 살아오신 어느 할머니께서는 “내가 전쟁을 겪었으면 겪었고 이산가족이 되었으면 되었지, 내 자손들에게 만큼은 그런 기억조차 주기 싫어.”라고 말하셨다. 이산가족의 아픔, 무서운 총탄소리를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조상들의 뜻이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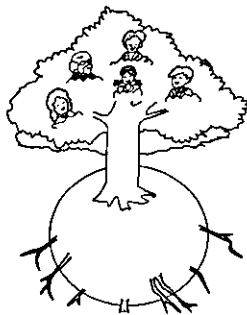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누구나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지며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밝게 웃는다. 이번 룡천역 폭발사고만 해도 그렇다. 서로 자신의 일인 듯 슬퍼하며 입을 것, 먹을 것 마다하지 않고 도와준다. 나도 이번에 룡천역 폭발사고를 돕는 모금함에 지폐 한 장을 넣었다. 그 지폐 한 장을 넣을 때의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소 짠순이라 불리던 내가 그 돈을 넣었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절로 마음이 따뜻해져 왔다. 이렇게 아무리 갈라져 있어도 그 사랑과 끈끈한 정은 땀레야 땀 수 없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의미가 빛나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닐까.

조상들은 괜히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한반도를 지켜온 게 아니다. 조상들의 희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직까지 우리



는 이 한반도를 지켜올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조상들의 자손이고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분명 서로간의 사랑과 정, 따뜻함이 있다. 그것을 스스로 끄집어 내어 실천하고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지켜본다면 더 이상 통일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그리운 가족의 얼굴, 전쟁의 위험, 오랜 갈등은 7천만 동포의 사랑 속에 묻혀질 것이다. 함께 어깨동무 하며 노래도 부르고, 반쪽의 한반도가 아닌 하나의 한반도를 그려갈 날을 만들어 가는 건 우리의 몫이다.

내년이면 다시 찾아올 5월,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하지만 그 때쯤이면 나만이 아닌 모두가 근심, 걱정, 슬픔 없이 웃으며 가정의 달을 맞는 날, 더 이상 가족만 그리다 마는 가정의 달이 아닌 이제는 곁에서 항상 두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된 나의 나라를 그려본다.





우수

하늘에 나는 소망한다

조 순 려 | 제주여고 3학년

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 되면 나는 앞 뒤 볼 것 없이 일기예보를 본다. 다행히 비가 오는 날이다. 보통 때는 우울해하시고 우리에게 버럭 화를 내다가도 비 오는 날이면 집안 곳곳 창문을 열어 멍하니 하늘을 보시곤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그 이유를 귀뜸해주셨다.

“순려야, 할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6.25때 가서서 이 땅을 지켜주신 순려 할아버지 말이다. 6.25전쟁 전에 할머니와 헤어지시면서 그랬다는구나.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웃으면서 만나자고 말이야. 이제는 비가 오면 이 엄마도 왠지 모르게 아버님이 오실 것 같아 할머니 댁으로 자꾸 발길이 닿는구나.

할머니 댁에 와서 반가운 인사보다는 꾸지람이나 짜증내시는 것만 보는 터라 나는 할머니 댁 가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짜증, 그리고 화내시는 행동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1년 전 할머니는 북에 있는 오빠와 상봉을 하셨다. 발표 후 맑은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짜증 한번 내지시 않고 활기차시던 할머니, 오빠를 만나고 오시고는 어느새 부터인가 잔뜩 풀이 죽으신 것이다. 비가와도 더 이상 창문을 열어 흐린 하늘을 보시지 않으셨다. 맑은 날에도 움직임 없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기만 하셨다.

6.25전쟁, 겪지 않은 나는 모른다, 우리 또래는 모른다, 왜 할머니가



비 오는 하늘을 사랑하는지, 왜 분단된 조국을 아파하는지, 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선조들의 희생으로 주어졌는지 나는 늘 당연하다 생각하고는 했다. 할머니가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기전까지 통일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나오면 쇼 프로그램이나 만화영화가 나오는 채널로 돌려버리던 나였다. 이런 부끄러운 손자, 손녀가 이제는 하늘을 봐야한다.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한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 옆에 표시된 나라가 아니라 북한은 우리라는 것을 보아야한다, 예전에도 우리였고, 여전히 우리다. 한반도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냈고 외세의 침략에도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던 우리말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반쪽의 하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대신 한민족 모두의 행복을 가져오고, 잃어버린 가족에게 눈물만 흘리는 이산가족의 아픔 대신 하나 된 한국인의 새로운 세계속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소망한다, 맑은 하늘 고운 구름이 기분 좋은날 할머니가 행복하시기를, 나에게 화를 내시지 않고 미소를 지어주시기를 말이다.



안녕? 나는 우리나라의 제일 남쪽에 있는 작은 섬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정민이라고 해. 혹시 제주도라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참 아름다운 곳 이란다. 너희 북한에는 백두산과 금강산이라는 유명하고 아름다운 산 이 있다지? 제주도에는 한라산이라는 정말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산이 있단다. 나도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한 번 구경하고 싶는데 아직은 그럴 수가 없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이야.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명산인데 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건지 정말 답답한 마음도 들어. 지난 번에는 룡천이라는 곳에 큰 폭발 사고가 났더구나. 한동안 TV에 그 곳의 사고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 해주었는데 그 때 폭발당시 무너진 집이며 공장, 그리고 수천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특히 폭발 사고가 났던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데 여기저기 부상을 당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너희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어. TV에서도 얼마나 너희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 내 가슴으로 느껴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냈잖아. 그런데 그 때마다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어. 이렇게 서로 어렵고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만



약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우리 친구들을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으로 이송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명의를 뽑아 너희들을 금방 다 낫게 해 줄 텐데 말이야. 그리고 TV에서 북한에 큰 사고가 났을 때마다 그저 앉아서 “불쌍하다”라고 생각만 하고 싶진 않아. 내 친구가 다쳤을 때 병문안을 가서 위로 해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직접 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야. 또 우리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너희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서로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도 왜 통일은 멀리만 있는 걸까? 내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악수만 하면 다 통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 매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면서 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더디기만 한 걸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을 거 같아. 너희 북쪽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으니깐 그걸 잘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우리 남쪽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고 첨단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니깐 그 둘이 합쳐지면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으니깐 말이야.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도 훨씬 더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도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해. 요즘은 그래도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상봉할 때의 기쁨은 잠시고 다시 또 헤어져야 하니깐 그들은 항상 이산가족일 수밖에 없잖아. 보낼 때의 아픔이 함께 할 때의 기쁨보다 더 할 거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서 더 이상 이산가족의 눈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예전의 어느 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에게 정말 딱 알맞은 말인 것 같지 않니?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지금 둘로 나뉘져 있잖아. 우리가 몽치면 미국과 같은 강국도 우리를 쉽게 알아보지 못할 텐데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어서 우리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우



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 지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주고 싶어.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방식을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각기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세계에서 으뜸의 맛을 자랑하는 비빔밥처럼 말이야. 우리도 서로 문화도 생각도 다르지만 잘 조화를 이룬다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민족이 될 거라고 확신해. 어서 빨리 너희들과 어울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싶구나.

서로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야. 이제는 통일을 기원하며 불렀던 노래들... 이런 노래는 가슴 깊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 부르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 너희들은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 통일이 되었을 때 꼭 같이 손잡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걸어 다녀 보자.





“엄마, 뉴스 좀 봐!”

채널을 돌리다 나는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는 폐허가 되어버린 어느 한 장면이 찍혔는데, 그 장면이 저의 눈길을 사로 잡았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일 있었나?’

궁금한 마음에 다시 채널을 뉴스에 맞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일이 있었을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은 북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더 내 마음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2일 북한은 룡천역 폭발 사고로 인해 3억에서 4억 유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보게 되었고 또 아무런 죄 없는 우리 동포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지역은 폐허가 되어 버려 드넓은 지역에 폭발 사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려는 듯 폭발 사고의 잔해만 널리 깔려있었습니다. 비록 남과 북은 서로 다른나라였지만 한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마음은 우리나라의 대구 지하철 참사 때보다도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일 후 나는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을 돕기 위해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한 걷기 대회, 진심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의 작은 손길인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50여년전 우리는 6.25전쟁, 한국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으로 인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아물지 못하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얼굴 한 번 볼 수 없이 살아온 이산가족들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그 깊이는 깊어저만 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남한과 북한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달 전에 있었던 여러 번의 이산가족 상봉은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며 이산가족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있었던 북한의 룡천역 폭발 사고를 돕기 위한 남한의 도움은 통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은 우리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며,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 줌으로써 희망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또, 평화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의 평가에서 어느 선까지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해소시켜 줍니다. 바로 지금은 한반도 안에서만 놀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발전 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주고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통일을 꼭 해야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근 차근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쾡쾡 얼어붙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남북의 교류로 인해 조금씩 스텝스 녹아들고 있습니다. 룡천역 폭발 사고의 피해를 돕기 위한 정부와 남한 국민의 노력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서서히 녹고 있는 얼음은 점점 녹아 조금씩 더 빨리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세계 여러나라 중 민족이 분열 된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빨리 통일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구호물자를 실은 기차는 통일을 향해 칙칙포포 달려갑니다.



그리운 북녘의 누군가에게.

북녘의 벗이여, 요즘 스산한 꽃샘바람에 움츠렸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 무색할 만큼 따스함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더불어 떠나기 전 미련이 남아 따스함을 한껏 발산하는 계절 봄의 절정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 봄날의 따스함을 좋아하며 봄날의 방문에 맞추어 태어나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경이로워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북녘에 있는 나의 벗, 당신은 어떨 지 유별스레 궁금증이 더하는군요.

북녘의 벗이여, 전 봄날은 너무 짧아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치듯 지나가는 봄날을 잡아둘 수는 없는 것이기에 아쉬움을 나름대로 접어 보지만 남녘에 있는 당신의 벗으로서 차디찬 철의 장막에 가로막힌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쉽사리 접지 못하였습니다. 북녘에 있는 나의 벗, 당신과 스치듯 지나가는 이 봄날의 따스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으련만...

북녘의 벗이여, 봄날의 따스함을 느끼는 이 때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어찌하면 스치듯 지나가는 이 봄날의 따스함으로 남북 서로에 대한 차가운 냉대의 시선을 눈 녹이듯 녹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랍니다. 핏줄이 그리워 오늘도 눈물을 흘려내고 있을 이산가족,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한숨을 쉬고 있을 실형민들의 애절한 심정 속에 벗과 내가 느끼는 이 따스한 봄바람을 전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운 북녘의 벗이여, 우리는 뿌리를 하늘로 향한 풍란이 되어야 합니다. 풍란은 원래 열대지방, 적도 근처의 숲에서 살던 식물입니다. 이 풍란이라는 식물은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조그마한 땅 부스러기와 햇살이 들어 올 여유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대 거대 수목들이 큰 뿌리와 큰 잎으로 풍란의 조그마한 땅 부스러기와 햇살을 막아버리는데 여기서 풍란은 꽃을 피우기 위한 자신의 꽃을 다 잃은 셈입니다. 그러나 북녘의 벗이여, 현실적인 제약과 고난이 그 식물의 꿈을 옹아매지만 풍란이라는 식물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땅에 있어야 할 뿌리를 열대 거목의 기둥을 타고 하늘로 올려 보내어 수분과 양분을 받아 자신의 꿈이자 결심,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북녘의 벗이여, 풍란이라는 식물의 꿈이 자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라면 벗과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란이라는 식물의 꿈을 방해하는 현실이 열대 거대 수목들의 큰 뿌리와 큰 잎인 것처럼 남북분단의 현실은 편견어린 시선과 서로를 이해함을 포기한 편협한 사고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 일겁니다.

남북분단의 현실을 통일의 꿈으로 바꾸는 것은 길고 깊은 준비의 과정인 만큼 현실적인 고난과 시련도 크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루어 내야 합니다. 작고 연약한 풍란이라는 식물조차 땅에 있어야 할 뿌리를 하늘로 보내면서까지 꿈을 이루니 말입니다. 통일이라는 꿈을 위한 과정에서 힘이 들고 좌절하고 싶을 시에도 항상 열정과 끝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이겨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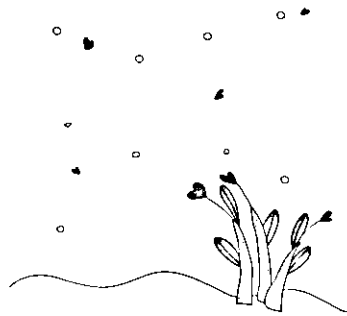
그리운 북녘의 벗이여, 남북통일. 물론 긴 시간의 벽을 한번에 허물고 메울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벗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서로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겁고 습한 무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과 부담의 중압감이 아닌 사명과 책임의 육중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손이 마주 잡힌 채 따스한 봄날을 함께 느끼는 통일의
그 날이 올 것을 믿으며 할 말을 추스립니다. 몸 건강히 안녕하십시오.

2004년 6월 5일
북녘에 있는 나의 벗을 그리며...





제9회 학생동일권찾기대회 입선작 산문집

물다우 감상화의
다섯번째 칸

-산문집-

초판인쇄일 2004년 12월

초판발행일 2004년 12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22

홈페이지 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인쇄 B&S.ad

